

자유!
“살 수는 없지만
입을 수는 있다.”

기분이 어떠냐고?

적잖아봐.

아니면, 입어보든가.

몸으로 느끼는 자유-스칼피오

고 감-정-관-선-대-의

SCORPIO

feminist journal

if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

98년 범독예를 맞으며
여자들을 살리자!

특집 성공은 없다!

경험 : 조안리, 전여옥, 조양희, 정윤희, 최유리의 '성공신화'를 파헤친다
시혜 : 30대 여성들이 쓴 좌절과 욕망의 자화상

남자에게

한 잔의 정네가 (정)의 임권택감독에게 보내는 편지

Female gaze

페미니스트의 공포 — 대한민국은 무엇인가

여이자 / 방은진

페미니스트배우의 격동상을 설명한다

97 제10회 BYC 선정

97 겨울

7,500원

날씬한

통화료가 보인다



PCS 016이 통화료를 다이어트 했습니다.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이 많은 직장인이나 대학생을 위한 PCS 016 스케줄요금 - 10초당 통화료가 9원으로 통화료에 군살을 뺐습니다.
또한 인터넷 케냐아를 위한 플러스인터넷, 통화량이 적은 고객을 위한 라이트, 통화량이 많은 고객을 위한 프리 200, 300, 400 등 PCS 016은 고객과 통화량에 따라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요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날씬한 맞춤요금 - PCS 016에서만 보입니다.

PCS 016

한국통신프리텔이 만든 PCS 016 - 통신만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통신전문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PCS 016 맞춤요금제도

● 고객의 취향에 따른 선택요금제

상품명	기본료 (1개월)	통화료 (10초당)		
		평상	할인	실야
스케줄 (대여 및 주일대 통화량이 많은 고객)	13,000원	평일 오전8시 ~ 오후8시	평일 오전8시 ~ 오후8시 오후8시 ~ 오후12시 토요일 및 공휴일 전시간	9원
라이트 (월 통화량이 평균 보다 적은 고객)	10,000원	35원	25원	18원

* 라이트, 스케줄, 평일 시간 구분은 표준요금제 동일

● 월 통화량이 많은 고객용 선택 요금제

상품명	프리200	프리300	프리400
무제한통화시간	200분	300분	400분
기본료(1개월)	36,000원	45,000원	53,0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8원 할인 14원 실야 10원	평상 17원 할인 13원 실야 10원	평상 15원 할인 12원 실야 9원

* 시간 구분은 표준요금제 동일

●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비고
기본료(1개월)	16,500원	
통화료 (10초당)	평상 19원 할인 15원 실야 10원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평일 오전 6시 ~ 오후 8시 오후 9시 ~ 오후 12시 공휴일 오전 6시 ~ 오후 12시 매일 오후 12시 ~ 다음날 오전 6시

● 플러스 인터넷 (₩6,000원) : PCS 016을 가입하시는 모든 고객은 월 6,000원의 추가 할증액만 부담하시면 KORNET을 매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로 신청하는 경우보다 50% 할인)

10월 이전 예약가입 고객의 실가입 전환과 예약가입 기간을 97년12월까지 연장합니다

● 12월 실가입 전환시 혜택

● 가입비 5만원 전액환제 ● 97년 12월 한달간 200분, 98년 1월 한달간 200분 무료통화 제공 (국제전화, 700서비스, 114안내 등은 유료)
● 97년 12월 ~ 98년 1월, 2개월간 부가서비스료 면제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영업소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NEW BEST
새로운 기쁨, 최상의 서비스



ALWAYS COCA-COLA



특집 성공은 없다

설문분석

30대 여성들은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나

문제제기

여성성공담에 성공이 없다

—조안리, 전여옥, 조망희, 정덕희, 최유리의 '성공신화'를 파헤친다/ 박혜숙

사례

30대 여성들이 쓴 좌절과 욕망의 자화상/ 권혁란, 김재영, 이인혜, 김우림, 박숙경, 염정애

진단 삼십대가 서있는 자리

오숙희/ '성공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고갑희/ 여성작가들이 본 서른의 삶

조혜정/ 나는 삼십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유숙철/ 여성들의 어쩌할 수 없는 글쓰기 욕망

이숙인/ 역사가 만든 여성의 분열증

선배가 후배에게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회 각분야 선배들이 주는 십계명

양희은(가수), 김혜경(도서출판 푸른숲 대표), 윤석남(화가), 조선희(세네21 편집장), 이상덕(서울 여성의 전화 대표), 홍상혜(학부모연대 공동대표), 김명신(학부모연대 홍보출판위원장), 신현경(화가), 이정자(한국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임정희(미술평론가)

연극 <'97 자기만의 방> 50% 할인쿠폰

남자에게

김대중, 이인제, 이희창 대통령후보에게—현표 가진 아줌마가/ 김신영숙

남자에게

전직 참녀였던 김연자가 영화 <창>을 만든 임권택 감독에게 보내는 편지

남자의 성경험

연극 <슬픔의 노래> 주인공 파지알의 고백

female gaze

페니스대란이 다가온다. 대한민국은 男兒公化국

44

50

59

83

103

17

36

114

118

8

성공은 없다

전국사회주부대회—남자들이 망친 세상 여자가 실려보자

전사—윤석남의 <빛의 파종>

페미니스트거리 신문—신촌에 마녀들이 출몰한다

여역자 방은진

*페미니스트배우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유숙철

특별기획

'김경희의 if 세상' 그리던 일러스트레이터 김경희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며

슬픔은 받고 기쁨은 주고 '불씨 하나' 처럼/ 김재희

작은 성스러운 앞에/ 이은희

news woman

최초 선관위원장 된 손봉숙

홍대입구서 <극장 마녀> 개관한 이혜경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받은 '마요네즈' 작가 전혜성

서울여성영화제 초대회장 이상덕

<여성 관객이 뽑은 올해 최고·최악의 영화> 기획자 유자나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 언 고갑희

활동 개시한 페미니스트밴드 마고

자율적으로 여학생문화제 기획한 대학생들, 연대 여학생문화포럼

17살의 첫 전시회 <눈·코·입을 찾아 떠난 사람들>을 연 이희재

유지나의 영화산책

97년 한국영화, 싸우기와 벗기기의 전략

만화

미스노/ 한국화

리뷰

영화

<어느 어머니의 아들>과 <돈 크라이 마이>/ 이명인

127

176

18

109

121

138





연극	142
〈사천의 착한 사람〉과 〈몽피 위에 개피〉/ 이화원	
음악	146
자우림, 황보령, 임현정의 뮤지션으로 살아남기/ 황옥주	
만화	150
김지윤과 문홍미의 짧은 만화 긴 여운/ 한상정	
전시	154
광주비엔날레의 여성작가들/ 양혜미	
책	158
히스테리아가 붉은 거울의 책	
집중탐색	168
여자들이 관치는 세상만들기	
〈루른사람들〉이 보여주는 테크놀로지 아트/ 오혜주	
여성화가들의 자화상	190
여성화가들의 생존방식, 그 불안한 자기 보기/ 제미란	
if 옷이야기	199
반지도 아니고, 머리핀도 아니고...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이유는/ 오혜리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엄마의 음식	205
눈물의 비빔밥, 엄마가 없으니 김치도 없다, 요리 잘하는 페미니스트 엄마 등	
만화 색녀열전	216
어리숙한 척 남자 X먹이기/ 수박두리	
동굴	220
오르가즘에 대한 옛가지 오해/ 이경미	

사이버원도우	224
PC 통신망을 달군 '아줌마 논쟁' / 장여경	
journey	230
세계의 여성들	
미국내 남성엑스코트 서비스 실태	
10대소녀들의 영아살해/ 김진형	
페미니스트5인조 스파이스걸즈/ 김신영숙	
"다른 여자를 향해 미소지이라" 성연구가 웨어 하이트의 새 책/ 김신영숙	
여자의 여행	239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여신들/ 엄연수 · 이현정	
발굴	245
근대초 유럽의 '수다쟁이 여자' 갈등이기, 쏘다 남자 발주기 / 백영경	
심리테스트	250
색감로 알아보는 당신의 연애스타일	
가이어의 편지	254
"옥수수나무와 애기도 나눌 수 있어요" 여성주의 과학의 부활/ 가이아	
일하는 엄마가 쓰는 창작동화	259
동생 성진이 수난사 '엄마는 왜 동생을 낳았어요?' / 이선희	
98년 범픽해를 맞으며	265
범픽 여자를 살리자!	
12월 if 송년회에 오세요!	269



만든 사람들

발행
도서출판 이프

발행인
윤석남

편집장
박미라

아트디렉터
제미란

포토디렉터
조여권

기자
김영선 이진화

편집위원
김숙진 김선명숙 김계희 김혜경 박혜숙
손자희 오현숙의 유숙일 유지나 이해경

광고기획부장
윤숙정

사진편집자문
박영숙

디자인
연이문화사 신진수 · 이창미

인쇄소
고려서적

배판처
도서출판 푸른숲
(02) 364-7871 ~ 4

등록번호: 바-02699
주소: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가 65번지 2층 도서출판 이프
전화: 743-6715 ~ 6
팩스: 765-9059
Htel ID: parachut
천리안 ID: feminif

제호: 잡지의 장소를 창간하는 '페미니스트저널'과 '고유이름'을 함께 만들어냈다. 주는 페미니스트들이 '전'과 '제'로 구성된 세상을 지어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완결된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페미니즘(Infinite feminism)이라는 의미에서 '이'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In Feminist' 또는 'In Female'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지: 이프는 창간호부터 여성의 육체를 표지로 내놓고 있다. 임신부의 몸(창간호), 낚시(2호)에 이어 3호에는 여성과 얼굴과 손이 나온다. 창간호부터 표지 사진작업을 해온 작가 박영숙은 3호의 표지(30대 여성의 성공신화)와 관련, 맨손으로 세상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여자얼굴을 표지개념으로 잡았다. 성공에 대한 여자들의 욕망과 꿈을 담은 얼굴과 맨손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성의 얼굴은 그녀를 세상에 내놓는 존재의 기원이다. 창간호에 나오는 전사처럼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숨긴 채 기원을 쓰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맨손은 손은 노동이다. 맨손은 그녀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이며 그녀가 무엇까지 해내고 만들어야 하는 자존한 현실을 의미한다. (97 차기전의 밤)의 배우 박은진이 손에 표지모형을 잡았다. 원안 박진기(가) 스타일.

웃자!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왔다. 그러다 이번 웃고 싶다. 웃음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목말하는 침묵처럼, 치솟아오르는 분노처럼 그렇게 웃고 싶다. 자, 웃자!

이것이

우리는 여자로서 태어나 이 세상을 살아 오면서 우리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자라온 하나의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그 욕망이 파괴적이라는 것을. 뒤집고 싶다. 이 세상을 한번 신나게 뒤집어 버리고 싶다. 궁극하지 않은가? 어떻게 될까?

놀자!

우리는 그동안 눈물과 고통에만 익숙해왔다. 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고통과 내내, 희생의 지겨운 학습과정에 다를바 없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증독시켜 마침내 노예의 경관을 선지웠다. 이번 싶다. 즐겁고 싶다. 재미있고 싶다. 놀고 싶다. 그리하여 여자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다.

우리는 서로 미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어떤 여자선배가 이런 말을 했다. 참으로 많은 여자들이 지금 자신의 현실을 불행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가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 선배는 여고 선생님이야. 아들이자녀를 데리고 있는 엄마이기도 한 그녀는 학교생활 틈틈이 공부를 해서 원하던 대학원 시험에 합격할 하게 됐다. 너무도 기쁜 터에 가까이 지내던 동료 여선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합격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자리의 분위기가 갑자기 찰랑해졌다는 것이다. 한참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에 가까스로 한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축하해요. 참 좋겠다."

그 선배는 물론 세간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리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이혼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외롭고 어렵게 살아온 걸 곁에서 지켜본 동료들일 테니 그 작은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해줘도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다.

우리는 늘 다른 여성의 삶을 부러워한다. 전업주부는 취업주부의 행복이 부럽고, 취업주부는 전업주부의 여유가 부럽다.

그런데 이 부러움이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서 서로를 옹호하거나 미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소외시키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본다. 특히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사이가 그렇고, 성공한 여자와 그 성공한 여자들을 바라보는 많은 여성들의 사이가 그렇다.

오전시간, 대부분의 전업주부들이 아파트단지나 동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동안 취업주부들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직장을 향해 바쁜 걸음을 내딛는다. 전업주부들이라고 해도 한가한 건 아닌데 늘 뒷

다거리는 전업주부들의 몸이다.

취업주부들도 할 말은 있다. 직장생활이 아님으로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는 것도 사실은 눈치 보이는 일이다. 어쩌다 쉬더라도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마

음껏 쉬어본 일이 없는데 두 아이의 급식당번이다. 아파트의 무슨 모임이다 해서 불러내고 참석하지 않으면 묘한 눈초리를 보내기 일쑤다.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여자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고, 가로놓인 경계들을 확인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따라 미움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진다. 왜일까? 왜 우리는 상대방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왜 소독도 없이 같은 여자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미워하는가.

사실 우리는 서로 미워하거나 혐담만 하기에는 너무나 건달하게 얹혀있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성공한 여성들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다.

내가 집안일과 내 동네의 일과 환경문제에 무관심한 사이에 전업주부들이 그 몫을 맡아 하고 있으며, 비록 내가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나보다 성공한 여성들이 우리 딸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서로 미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11

박미라 편집장







지난 4월 여성민우회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회 사회주부대회를 가졌다. '사회주부'란 '전업주부/취업주부'라는 대결구도를 깨뜨리고 주부가 가정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임을 부각시키는 개념이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의 사회주부대회를 가정해왔다.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주부가 모인다면, 그들의 함성이 서울을 들쭉이게 할 수 있다면...

윤 석 남



이중섭미술상 수상 기념전 <빛의 파동>(11.11-11.28/조선일보 미술관)에 설치된 <999>(나무 위에 아크릴, 설치, 1997).

이 전시회에서 우리는 999명의 여성들을 만난다.
그들은 옷가나 춤추거나 정색을 하고 앞을 바라본다.
그들은 넓은 전시공간을 꼭 채우고 외글거린다.

이 전시는 역사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성'은 언제나 존재해왔음을 말하고 있다.
그들의 당당하고 환한 에너지가 보는 이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한다.

윤석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젊은 여성들과 의사소통하고 싶어한다.
그들이 999명의 천목여상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그래서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할 수 있기를 바란다. 12



▲ <심전강>,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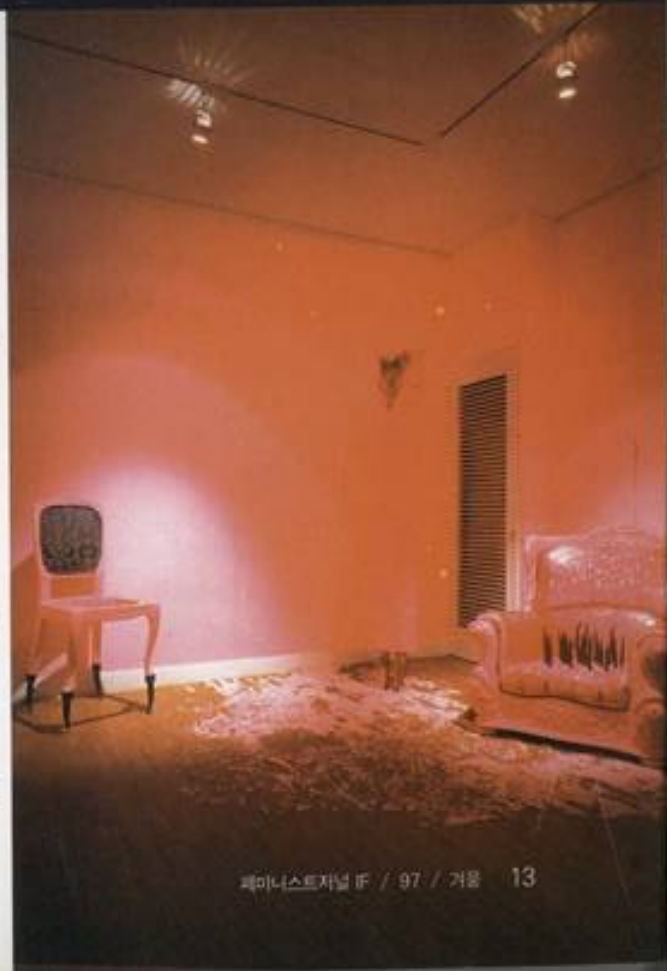
윤석남의 설치작품을 심전강 사진과 합성했다.

▲ <대권>, 혼합매체, 설치, 1995

선거철이다. 대권주자들이 모두 탐·착·하는 나뭇잎이 있어야 할 의자에 탐욕이 이글거린다.
정작 있어야 할 발침이 없는 공허한 의자에 탐욕과 더러운 땀겨들이만 얹혀 있다.

▶ <핑크소파>, 혼합매체, 설치, 1996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타향살이를 시작하여 죽어서조차 그 집 귀신이 돼야 한다고
말해진다. 그래서 여인들은 밤에도 편히 자지 못 하고 위태롭게 서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그런 불면의 밤을 버티가면서 이 뿌리 뽑힌 삶을 질박시키려는
어떤 노력도 부질없다는 사실을 아내 깨닫게 된다.



신촌에 마녀들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유서깊은 여성의 거리 신촌이
페미니스트 거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 신촌 일대는 음기가 강한 곳이라고 했다.
안산을 중심으로해서 양갈래로 뻗어내린 산세가
여성의 자궁을 연상시키는 명당이어서일까. 11



논지당
연세대학교 내에 위치한 여성생 휴게실.
연세대학교 여성연구소
361-3572
남녀공학에서 재발 사정되기 위한 여성생들의 참여력을
개발하고 사회화시키기 위한 연구 공간.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또 하나의 문화
322-7946
1984년부터 시작된 여성문화운동 단체.
남녀가 진정한 벗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목적.



극장 마녀
324-6004
한국 최초의 전문 여성문화운동 공간.
연극, 연극, 춤,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이루어는 복합문화공간.

홍익대학교



라브리스
326-0855 / 13:00 ~ 24:00
여성이라면 누구나 환영하는 여성전문 카페
(남성 입장불가)
라브리스(LABRYS)는 이태원의
여전사가 지니는 불멸도끼의 이름으로
여성의 힘을 상징.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신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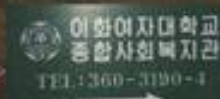
타리

서강대학교

안산(鞍山)

금화터널

아현동



**이화여자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TEL: 360-3190-4
이화여자대 종합사회복지관
360-3190
앞방이 부부의 자택을 위한 차아, 청소년, 장애아 활동,
노후준비사업, 미혼남녀를 위한 결혼준비교육을 꾸리는 등
앞 그대로 '종합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휴일은 쉬고 매일 9-8시까지 운영.



이화여자대부설 한국여성연구원
360-3226
한국최초로 학부 여성학 강좌개설(1977년 2학기).
대학원 여성학과 탄생의 선과 역할을 한 연구기관.
여성관련 자료집 작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
이화여자대 아시아여성학센터
360-2150
아시아 여성과 연대의 발전을 모색하는 연구기관.
국제적 워크숍, 포럼, 연구, 출판, 교육 등을 진행한다.



고마
364-5950 / 11:00 ~ 24:00
페미니스트 카페 '여성주의 시장문화, 모문화,
콘서트 등을 수시로 연다.
'고마'는 단군신화의 용녀인 '곰'의 옛말.



피어라플랫
707-1988 / 11:00 ~ 23:00
깨끗하고 조용한 실내분위기로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모이는 곳.
남녀누구나 환영.

오늘은
자기가
애 보는 날

예쁜 남자가
사랑받지

먹는 남자가
좋다

남자도
애 낳아!

니 밥은
내가 해라

▼ 심리테스트 - 당신의 사랑의 빛깔은? (250~253쪽)을 보세요

1 2
3 4

92년 5만의 관객을 동원했던 연극 <자기만의 방>이 5년후인 97년에 리바이벌됩니다.

<'97 자기만의 방>으로 찾아오세요!

의식있는 관객들에게 사랑받아온 배우 방은진이 페미니스트배우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분노하고, 외치고, 눈물 흘리던 92년 <자기만의 방>이 이제는 웃고, 놀고, 뒤집는 내용으로 변신했습니다.
신세대 감각의 <'97 자기만의 방>으로 찾아오십시오.

연극 <'97 자기만의 방>
만든 사람들: 송진/방은진 연출/송미숙 작가/유숙영
제작기획/여성문화예술기획
일시: 1997년 11월 25일~12월 28일
(최수목관 오후 7시/토 오후 4시, 7시/
일 오후 4시)
장소: 극장 (이니) (구 청무포스트극장)
가격: 일반 20,000원(단체 15,000원)/
학생 15,000원(단체 10,000원)
* 단체는 20인 이상입니다.
주부를 위한 종이책 모형 (금 오후 2시)
문의: 324-6008 (여성문화예술기획)

<'97 자기만의 방> 50% 할인쿠폰
2인1석 / 공연 마지막 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대엔 여성을 청와대로

중앙선관위 최초 여성위원으로 선임된 손봉숙소장

<매녀>에 와서 '주체적으로' 놀아주세요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손봉숙소장에 새 정치 동맹인 여성비법조인자를 기대한다

한 국여성정치연구소 손봉숙소장(54)이 지난 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성위원으로 임명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련 최종결기구로 앞으로 6년간 장관급 예우를 받게 되는 '비중있는' 자리다.

남성들이 오랫동안 독식했던 아홉자리 가운데 한자리가 선관위 역사상 처음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성들의 오랜 소망이 정책결정기구에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었기에 손소장의 선관위 임명은 반가운 일이되고 있다. 더구나 비법조인 출신의 시민운동가이자 여성운동가가 이 자리에 진출했다는 것의 의미는 큰 것이다.

손소장의 이번 발탁은 공선협(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그간의 역할을 인정받은 것이다. 손소장은 6년간 공명선거 규약과 통합선거법을 만드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해왔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전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선관위원으로서 그에게 '거는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9명의 선관위원 가운데 입법부 추천을 받는 3명의 자리에 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직을 맡게 된 것이 뜻밖의 사건으로 비쳐지기도 했고 결국 운신의 폭에 한계를 갖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손소장 역시 뜻밖의 제의를 받고 처음엔 많이 망설였다. 그가 수락을 결정한 것은 '선관위 활동을 공명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보라'는 주위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신한국당으로부터도 '절대중립'과 시민운동을 병행하도록 해준다는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가 돌파해야 할 숙제는 선관위원이 모두 남성법조인 출신 대 여성 비법조인 출신이라는 부

분이다. 이에 대한 손소장의 다짐은 "설사 소수의견으로 남는다해도 시민운동을 통해 공명선거를 해왔던 만큼 공명선거를 실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 또 법조문상의 해석에서 법관이 해석할 수 있는 법적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넓게 볼 수 있는 시각을 보완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것.

손소장은 여성계에서는 알아주는 '마당발'로 통한다. 90년에 한국여성정치연구소를 설립했고, 한국정치학회 이사,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 한국여성 NGO 공동대표 등을 거쳐 올초부터는 감사원 부정방지 대책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만큼 그의 다채로운 활동환경과 경력은 그를 비중있는 자리에 다가설 수 있게 한 요인이다.

15대 국회 전국구의원직을 제의받기도 했던 그가 그 제의를 거부했던 것은 '7~8년 사회운동하고 그 덕에 의원이 되는 것이 옳지 않다. 여성이 적어도 수십명씩 들어갈 수 있을 때로 미루기로 했기 때문이다.

공명선거 실현과 더불어 손소장의 궁극적 관심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여성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운동과 2000년 16대 국회에 여성의 힘으로 여성의원 100명쯤 국회에 들여보내는 게 꿈이다. 또 여성유권자 50.7%의 역량을 바탕으로 2002년 대선에서는 여성후보를 청와대로 들여보내는 것도 노력해볼만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아무진 꿈을 목표로 여성정치참여운동을 꾸준히 벌여나가겠다는 그의 생각처럼 우리도 2000년대엔 '여성대통령'을 배출한다는 똑같은 야무진 꿈을 꿔보면 한다. [11]

(글 박해숙 / 사진 조여진)

〈자 기만의 방〉,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성공적으로 무대에 올렸던 여자, 올해 봄엔 〈서울여성영화제〉라는 국제페미니즘영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뤄내 여성계와 문화예술계를 놀라게 했던 여자,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대표. 이미 그의 기획력은 자타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의욕, 투지에서 둘째가라면 서럽다.

그런 이대표가 요즘 홍대 부근에서 논다. 그가 이곳에 '돈 것'은 새로운 문화공간 개척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그동안의 활동무대였던 동숭동을 떠나 홍대 부근에 있는 창무포스트극장에 새 둥지를 틀었고, 이곳 이름을 극장 〈마녀〉로 바꿨다. 그리고 이곳을 여성과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기지로 변신시키겠다는 의지가 그의 눈에서 번뜩이고 있다.

페미니스트다운 '실험장신'과 '추진력', '열정' 등 장점을 고루 갖춘 이대표는 이번 시도를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은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컨셉"으로 부른다. 또 새 에너지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가 계획하는 일을 쫓아가다보면 문화예술의 향방을 읽어낼 수 있다.

이대표는 우선 예술생산자와 대중소비자라는 이분법을 없애기 위해 소비자를 단순 소비자로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말은 소비대상이 아니라 '문화적 주체'가 될 때 예술을 진정으로 즐기고 향유하며 자신의 삶의 에너지로 한단계 진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대표는 특히 예술에 얽힌 일반적 오해, 즉 예술은 천재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하는 한가한 놀음이라는 인식이 깨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독일에서 예술사회학을 공부하고, 귀국후 초창기 여성민우회에서 여성문화운동의 기틀을 다지는 데도 한 몫을 했었다. 그가 열변을 토하곤 하는 예술론은 상상하다.

예술가가 자기 성벽에 갇혀 구도적 삶을 살거나 예술을 위한 예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중과 만나기 위해 시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예술가의 고뇌가 요구되고 확고한 신념을 갖고 헌신적으로 일할 예술기획자들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다.

그는 이처럼 '하루 세끼 먹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담긴 문화예술활동이 그 승리는 방식을 바꾸고 사람관계와 기존질서를 바꿔나가는 엄청난 에너지로 변화되기를 고대한다. 그래서 이대표는 대중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접하고 깊이있게 나눌 수 있는 '마당'을 극장 마녀에 펼쳐놓을 생각이다.

새로운 의욕으로 그가 시작한 극장 마녀의 첫 행사 하나가 11월에 끝난 '서울여성영화제 다시 보기'였다. 대학 동지에서 재상영 요청이 많아 강의와 토론을 겸한 교육용, 후원회원용으로 영화를 새로 편성해 틀었고 중국 의 리홍감독의 〈봉황교로 돌아와〉라는 국내 초연작품 등도 선을 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11월25일부터 다시 올려진 방은진의 〈97 자기만의 방〉에 이미 관객이 물리고 있어 벌써부터 성공예감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대표는 내년 2월 〈마녀들과 친구들 록페스티벌〉, 3월에 올려질 전혜성 작 〈마요네즈〉 연극공연 등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우선 확보해내고자 한다. 재정적 안정이야말로 '관을 새로 짜는' 사람들을 위한 제1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그가 만들어내는 마당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대안과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예술 컨셉을 정착시켜나가는 그의 힘찬 행보에 빛이 비추길 기대한다. [E]

〈글 박해숙 / 사진 조여진〉

〈마녀〉에 와서 '주체적으로' 놀아주세요

홍대입구 전 창무 포스트극장에 새 둥지 튼 여성문화예술기획 이혜경대표



여성주의 소설 '마요네즈' 전혜성

요즘 젊은이들 '토익' '지식' '서' '이' '테' '미'

장편소설 『마요네즈』로 모녀관계 다시 보기

제2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수상 전혜성



지난 가을, 전혜성(37)이라는 늦깎이 작가가 장편소설 『마요네즈』로 제2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지난해 김영하, 조정란 등의 작가를 배출한 바 있는 문단에서 알아주는 상이다.

전혜성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마조네스의 꿈> 등의 연극을 각색하면서 진작부터 여성주의 예술에 대한 고민을 해온 두 아이의 엄마다.

본선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선정된 수상작 『마요네즈』는 30대 주부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심리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모녀관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가족에게 베풀고 희생만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문단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그려낸 어머니는 거침없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때론 토라지고 화내며, 식구들이 먹을 마요네즈로 머리를 감기도 한다. 사실 이런 어머니상은 '이례적이다'라는 평단의 반응과 달리 일반 여성독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다.

그는 요즘 이 소설 덕분에 소식이 끊겼던 옛 지인들도 만나고 각종 인터뷰에 응하느라 분주하다. 게다가 너무나 생생한 소설 속의 어머니 때문에 그는 친정어머니와 한바탕 푸닥거리도 했다. 소설이 허구라고는 하나 처녀작인데다 1인칭의 자전적인 요소 때문에 주변의 오해가 대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처음 당선소식을 어머니께 전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 "소설에는 군데군데 우리 모녀를 연상시킬만한 묘사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겁이 났어요. 내 딸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쨌나 싫어 어머니에게 소설은 읽지 말라고까지 했지요."

처음엔 어머니도 주변사람들이 수근대는 바람에 역정

을 많이 냈다. 그러나 막상 소설을 읽어본 어머니의 반응이 의외였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쓰고 싶어했던 걸 쓴 것 같다. 가슴 아프기도 했고, 이해되는 면도 있고 재미있었다"는 게 어머니의 평가였다.

"여태까지 내가 엄마를 낮춰보았구나 싶었어요. 나보다 배움이 짧다고 엄마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내 세계를 나쁘드리지 않고 엄마를 소외시켜왔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는 모녀간의 갈등을 그린 소설을 쓰고 나서 자신의 어머니 앞으로 한발 더 다가선 셈이다.

그의 소설은 오해와 이해가 반복되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무엇보다 현실감을 갖게 한다. 그 현실감은 어떤 작위적인 결말을 내지 않았다는 데서 더욱 깊어진다. 영화 <조이러클립>의 모녀들처럼 어느 순간 두 마음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해탈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삶의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이지 해피엔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이비 같아요. 사람들이 애쓰고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 포즈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남의 작품을 각색했던 그는 요즘, 『마요네즈』를 연극으로 만드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면, 20대 여성들의 성장소설을 한편 쓰고 틈틈히 단편도 쓰겠다.

"다음 작품을 기대하는 주변의 요구에 나도 조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더디게 일하고 싶어요. 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는 내 여건과 처지를 고려하며 작품 하나 하나를 매번 새롭고 진지하게 쓸 겁니다." [11]

(글 김영선 / 사진 조여권)

여성운동계엔 숨은 보배가 많다. 그 가운데 위아래 할것없이 선후배 모두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는 보배 중의 '보배'가 서울여성의전화 초대회장을 맡은 이상덕(42)씨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아서 이쁘고, 매사에 관심이 많고 다양한 분야에 쏠리는 호기심도 많고, 무슨 일이 됐든 열과 성의를 다바쳐 일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성품이 그녀에게 쏟아지는 신뢰와 애정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한때 현장을 떠나 박영숙의원의 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스스로를 '여성운동 1세대의 마지막 주자'라고 말해왔다. 그가 서울지역 여성을 위한 새로운 '전화'로 지난 8월 25일 8번째 개통된 서울여성의전화를 이끄는 '수장'이 됐다.

그의 오랜 특기분야인 (창립)기금마련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그 뒤에도 연락이 어려운 와중에 통화에 성공한 곳은 밤 10시가 지난 서울여성의전화 사무실이었다. '피곤에 지친 선 목소리'로 묻지도 않은 것까지 30여분에 걸쳐 열변을 토하는 이상덕회장은 역시 '전파위' 맹렬파였다.

"여성운동을 대중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법은 연구가 제일 큰 과제다. 80~90년대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촉발했지만 여전히 지식인여성 중심이어서 대중한테 깊이 다가가지 못했다. 대중여성운동 활성화가 첫 과제이고 여성운동가들이 늘 갈등해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량을 쏟고 싶다."

이상덕회장은 1세대와 차세대 운동방식의 차이를 매꾸는 역할의 하나로 이제는 여성운동가들이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진정한 페미니스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키워주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운동가들이 운동영역과 개인생활 사이에서 겪는 '갈등'의 한 요인은 쉽게 잘라 말하자면 '경제력'이다. 운동에 몰바쳐도 사회적 지위는 낮고 자원봉사식 헌신을 요구하는 지금의 풍토에서는 차세대운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끌 운동가 배출이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성운동가들도 운동에 헌신하면서 행복한 삶도 살 수 있어야 한다. 운동과 개인적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당위적 이념으로 모든 걸 헌신하라고만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복지여건을 만들어주고 현장운동을 바탕으로한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선배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이와 직위를 극복한 민주적 파트너십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때 진정한 차세대 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늘 생각이 많고 추진력 또한 남다르다는 평을 받아온 이상덕회장의 술술 쏟아지는 얘기를 듣고 있자니 여성운동의 내일은 아주 쾌청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수직, 수평이동'이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꿈꾸는 그가 이끌어 나갈 서울여성의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피해여성을 위한 자립, 여전회원으로의 수용과 같은 서비스 강화와 가정폭력의 근원이 되는 경제적 약자라는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는 여성의 경제세력화 그리고 어려서부터 위기상황에 대응할 심적 자세를 키워주는 청소년 사업활성화를 주력사업으로 꼽고 있다. 이즈음에서 '이상덕 화이팅!'을 다함께 외쳐보자.

일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전화번호는 263-6464~5이며 성폭력상담은 263-6471이다. □

(글 박해숙 / 사진 조여준)



추진력 뛰어난 '썬파워' 여성운동가

서울여성의전화 초대회장인 이상덕씨



영화도 꼼꼼하게 따져서 봅시다

제2회 <여성관객이 뽑은 올해 최고, 최악의 영화 시상식> 총기획자 유지나씨

개 봉작에 대한 한국여성관객들의 평가를 가능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여성관객이 뽑은 올해 최고, 최악의 영화 시상식>이 그것이다.

이 행사는 작년초, 페미니스트 영화평론가로 악명 높은(?) 유지나씨의 제안으로 기획, 개최됐다. 그의 악명이란 기실, 고집스럽게 여성의 눈으로—영화이론을 전공한 학자로서만이 아니라—영화를 읽는 평론가라는 데서 붙여진 것일지 모른다.

그의 영화보기에 사람들은 대체로 두가지 반응을 보인다. 그의 시각이 여성주의적으로 편향되어 있어 영화 미학적 장점을 보지 않으려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많은 수의 사람들은 현학적이지 않은 그의 명쾌한 해석에 박수를 보낸다. 한마디로 그는 대중적인 감각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이런 반응에 대해 그는,

“솔직히 대중강연이 재미있어요. 강의에 대한 반응이나 그들이 영화를 보며 느꼈을 생각들이 생생하게 감지되거든요. 이 행사의 필요성도 대중강연을 통해 느끼게 됐지요”라고 말한다.

그동안 한국영화산업에는 여성관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적이 없다. 아니, 여성의 의견을 표출할 통로가 전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수동적인 소비자로서만 인정될 뿐...

<여성관객이 뽑은...>은 이렇게 침묵으로 '표현'해왔던 여성들의 모니터링 작업이 공식화됐다는 점, 기존의 연말 시상식 형태와 다른 개성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영

화계와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나 ‘최악의 영화’를 뽑아서 발표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선 드문 일이었지요. 악평에 익숙치 않은 풍토라 서일까요? 과감하게 ‘우리는 이런 영화가 싫었다’고 얘기한 점이나 천여명이나 되는 여성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이 흥미를 유발시키고 이 행사의 가치를 인정받게 한 것 같아요.”

비록 여성관객의 설문결과가 실망스럽더라도 지금, 여기의 우리 영화와 여성관객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은 감독이나 제작자 등의 창작주체에게 압력단체의 힘을 발휘해 장기적으로는 영화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작년에 미국여론의 비판을 받았던 <스트립티즈>의 데미 무어가 올해에는 <지아이 제인>이라는 영화를 통해 힘있고 주체적인 여성의 역할을 맡은 것을 보세요. 주변의 악평을 배우 자신이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런 행사가 한 개인뿐 아니라 창작자 전부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1회 때 영화평론가들로만 구성되었던 영화선정위원이 이번에는 방송, 신문, 영화잡지 등의 문화부 영화담당 여기자로 구성됐고, 설문 응답자들의 대담을 유도하거나 계몽하려는 시도들은 삭제했다는 유지나씨의 말대로 올해에는 더욱 충실한 시대의 답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소: 극장 마녀/ 일시: 12월 8일) **11**

(글 김영선 / 사진 조여진)

“현장과 연대하는 여성주의 날갯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문 연 고감회소장과 연구원들

“21세기형 여성주의 사상가를 기르자”는 야심 찬(?) 목표를 가지고 여성 학자들이 모였다. 11월 29일 해화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30여명의 연구원들이 그들이다.

이 연구소 고감회소장(문학평론가, 한신대 교수)을 수장으로 해서, 태혜숙(문학평론가, 효성카톨릭대 교수), 신경숙(연세대 교수), 노승희(충남산업대 교수), 임옥희(문학평론가, 경희대 교수), 이수자(여성학자), 손자희(『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임정희(미술평론가) 등 이미 우리사회 여성주의 문화이론가로 잘 알려진 각분야 학자들과 김선아, 오수원 등 젊은 연구자들이 올해 8월부터 연구소 개소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해왔다. 앞으로 페미니즘이론, 문화이론과 담론, 영화이론, 육체 등을 주제로 해서 여성주의 새 담론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준비야 올 8월부터였다. 하지만 사실 고감회소장이 이런 연구소를 꿈꾼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3년 전부터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시작했고, ‘꿈’만이라도 꾸기 시작한 건 그보다도 몇년 전의 일이었다는 것이다.

고감회소장은 이 연구소의 역할로 ‘적극적인 사회개

입’을 든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가 만들어낸 패러다임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도모하겠다는 것. 물론 이때의 정치세력화는 지식인들의 이론적 혹은 언어적 실천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또 이론과 현장 간의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이들이 중요시하는 연구소 역할이다. “연구의 성과를 사회단체에 알리고 교육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여론주도적인 지식인을 배출해내겠다”고 여성단체에 있는 활동가들을 이론적으로 재무장시켜야 하는 필요성은 누구보다 활동가 당사자들이 절감하고 있던 터여서, 앞으로 이론과 현장 간의 적극적인 연계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 초에는 반년간으로 발행되는 여성문화이론저널을 창간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각각의 분과에서 연구된 성과를 단행본으로 엮어낼 생각이기도 하다.

이들의 출발에는 상당한(?) 행운도 따랐다. 사무실을 잡고 연구소 개소식 준비에 박차를 가할 때쯤 모 연구재단으로부터 적지 않은 연구비용의 프로젝트를 받아낸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전환점에 서있는 여성주의 이론과 여성단체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글 박미라 / 사진 조여권)

앞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수자, 오수원, 이은경, 주유신, 노영숙, 최소영, 임정희, 김선아, 박미선, 손자희, 고감회소장, 태혜숙, 이경숙 씨.





각기 다르게 음악활동을 해온 7명의 여성들이 '마고' 밴드를 만들어 한데 뭉쳤다. 밴드 이름이 참 독특하다. "옛날 옛적에 대지를 만들고, 그가 눈 오줌이 강을 이루었다는 여신이 있는데 마고 할머니라 불리웠대요. 오늘날에 삼신할머니라 부르는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이시죠. 모든 것을 제로(無)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우리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정선영(기타/보컬), 안혜경(베이스/보컬), 박이엘(드럼), 지현(기타/보컬), 조현정, 오성운(건반), 주연수(메니저)가 마고의 일곱 여신들이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미 두장의 앨범을 낸 바 있는 안혜경씨를 비롯, 성악전공자, 대학 내 독서를 연주자 등 실력은 프로급이다. "작년 초에 멤버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주위에선 페미니스트들로 이루어진 여성밴드라는 점 때문인지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더군요. 하지만 우리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하며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페미니스트밴드 이전에 음악적 완성도를 갖춘, 그야말로 실력있는 밴드가 되는 게 급선무였던거죠."

마고밴드는 노래뿐 아니라 작사, 작곡부터 연주까지 모두 여성의 손으로 한다. 남성밴드 일색인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제까지 여성들은 만들어주는 음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사, 작곡, 반주는

남자들이 해주고 여자는 노래만 부르는 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의 몸과 손으로 소화해낼 겁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나이로 구성된 '마고' 밴드는 나이차의 폭넓은 스펙트럼만큼이나 음악적 색깔이 다양하다. 그래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기도 하지만, 서로의 경험과 생각들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털어놓다 보면 금방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 그럼 이 일곱 여신들이 내고자 하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첫째로 다양한 음악을 추구할 겁니다. 록발라드, 재즈, 록, 라틴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떤 장르라 하더라도 여성주의의 주제를 담을 거고, 소재는 여성의 눈으로, 여성들의 구체적인 생활이나 삶 속에서 찾을 겁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모습도 있겠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남성들의 정서로는 담아내기 힘들죠. 같은 여성으로서 더 잘 표현하고,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10월 18일 '여성유권자한마당'을 시작으로 11월 13일 극단 '마녀' 개막제까지 총 5차례의 공연을 가졌으며 내년엔 음반발매와 독자콘서트를 열 계획도 갖고 있다. [1]

(글 이진화 / 사진 조여권)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의 노래

페미니스트밴드 '마고' 활동 개시

“이 갈리아, 안토니아, 이문열의 딸 중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를 여학생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인 연세대의 '여학생문화포럼'이 단간 이 질문은 최근 주목받아온 책과 영화에서 따온 것이다.

먼저 '이갈리아의 딸'은 남성과 여성의 역관계를 모조리 뒤집은 나라, 이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빌어 왔다.

이갈리아의 딸들은 남성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고 더이상 여자라는 이유로 겪는 유무형의 차별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 이들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 이데올로기가 버티고 있는 토대가 실은 편견과 왜곡을 낳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즐거운 전복'을 꾀한다.

여학생주간 동안, 평소 남학생들이 여학생 '종명'을 하던 상대 앞 계단은 '이 계단을 지나는 남학생들은 성희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이갈리아의 계단'으로 불렸다.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을 각색한 연극 <그의 다리>는 열렬한 호응으로 예정에 없던 재공연에 들어가기도 했다.

'안토니아의 딸'은 영화 <안토니아스 라인>에 계보를 둔다. <안토니아스 라인>은 가부장적인 기존 질서와는 달리 '여성의 대잇기'를 통해 다양한 삶과 가치관의 평화로운 공존을 보여준 영화. '안토니아의 딸'이 된다는 것은 경쟁과 폭력으로 대변되는 남성성 대신 관계지향적이고 평화로운 속성을 지닌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여성을 스스로 대안적인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는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이문열의 딸'은 최근 여성계와 페미니즘 논쟁을 벌여온 작가 이문열의 소설 '선택'에서 빌어온 것이다. 이씨가 '저급한' 페미니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의미라고 옹호한 이 작품의 불순한 의도나 작품성에

대한 가치판단을 일단 배제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했다는 내용을 수용, 확장해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차용했다. 당당하게 '주류'의 길을 따르는 가정주부에게도 '프로는 이름답다'는 말을 적용할 수 있는 신화적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문열의 딸'이 될 수 있다는 설명.

'여학생문화포럼'은 이 세가지 선택을 각각 노랑, 보라, 분홍색 스카프와 배지에 인쇄, 판매해 큰 호응을 얻었다. 노란색과 보라색 스카프가 많이 팔렸다는 후문.

지난 9월 '성과 사회' 강좌를 들던 한 수강생의 제안으로 꾸려진 '여학생문화포럼'은 자생적으로 탄생한 만큼 대표가 따로 없이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분담해 행사를 준비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나 사석의 뒤편이 자리에서나 여학생들이 주도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토론과 기획에서 장소섭의, 무대장치, 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고 준비하면서 자신감도 찾고 정말 유쾌했습니다."

강민주(사회3)씨는 이 행사를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고 또 그 소외에 조금씩 길들여지는 모습을 떨쳐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에게 간섭과 지도 대신 모임장소와 간식 그리고 꾸준한 격려를 제공한 조혜정교수(사회학과)는 "현재 연대의 여학생비율이 37%에 이르는 등 여학생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이를 놓고 교세가 떨어질까 우려한다는 소리가 들릴 만큼 대학에도 성불평등 의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여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모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하여 누구의 딸이든간에 가슴이 품어야 할 한마디, "Girls, Be Ambitious!"

(글 이수진 / 사진 조여진)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손은정(기계전자2), 차미경(인문2), 강금하(불문3), 강민주(사회3), 박소영(사회3), 윤지영(인문2), 김연규(생물과학1), 전민정(산업시스템공학2), 이종오(사회3), 김영아(사회3)(앞줄)

남녀공학에서 여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여학생문화제 <Where are you?> 기획한 연세대 '97 여학생문화포럼



훼손되지 않은 본능으로 그림그리기

첫 전시회 〈눈, 코, 입을 찾아 떠난 사람〉 연 여고 1년생 이휘재

17살의 여고1년생이 그림전시회를 가졌다. 언론에서는 그를 두고 '피카소나 미로와 같은 화가가 떠오른다'고도 했고, 현란한 색채는 마티스나 고호를 연상시킨다고도 했다.

시인 김혜순씨와 극작가 이강백씨의 딸 이휘재가 바로 그 소녀다. 전시회의 제목은 〈눈, 코, 입을 찾아 떠난 사람〉(11.7~11.13/ 바탕골미술관). 개막일에 이휘재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지인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 등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았다. 혹 부모의 후광은 아늑가 의심스러워하는 이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술을 아는, 그의 전시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 보건대 그의 그림이 예사로운 것은 아니다. 미술과외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아이가 열두살부터 그린 그림이 공간의 구성, 색채사용 등에서 놀라운 재주를 보이고 있다는 것.

하지만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황지우가 그의 그림에서 단연 높게 평가하는 것은 정작 그리기의 테크닉이 아

니다. 그는 이휘재라는 소녀가 큰 공간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그려대는 담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이 그녀 안에서 훼손되지 않은 채 보존돼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모든 미술가들이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는 어린이스러운 유희충동을 그녀 내부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가진 자유로운 본능이 훼손될까 상당히 걱정하는 눈치다. 개막식날에도 모든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부했으며, 기사화하기 위해 전화를 거는 기자에게도 되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주기를 부탁했다.

일주일간의 전시를 마치고 이휘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붓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미술언필처럼 그림이 나온다'고 천진스럽게 말한 그녀가 모조록 그의 내부를 충추는 원시성을 언론과 기성미술가들에 의해 재단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1]

(글 박미라)



(스페인을 누비는 우리엄마)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대통령후보에게

TV 여성정책 토론회를 보고

김신영숙 편집위원, 여성문제 칼럼니스트

김대중씨, 이인제씨, 이회창씨.

세분의 이름을 연달아 부르고 보니 왠지 기분이 좀 그럴듯
해지네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들이 여러분의 이름이 들렸다 하면 글
방 먹은 라면발이 기어오르기도 하는 듯 꽤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데 이 댜 반가운 소리냐구요?

듣고 나면 김 새시겠지만 사실 나는 별 불일 없이 꼭 퍼진 아줌마거
든요. 만나는 남자야 남편 배곤 아파트 경비아저씨가 고작인 나 같
은 아줌마가 남자 세 사람.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잘난 남자

들의 이름을 굴비두름 위듯이 패키지로 콕악 볼
러봤으니 기분 삼삼하지 않겠어요?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내가 외간 남자의 이름을 감히 셋씩

이나 입에 올릴 수 있겠냐구요. 모름지기 여편네란 하늘 같은 남편이
아무리 열 여자를 흘금거린다 해도 정숙 또 정숙해야 한단니까 말이
죠. 그래서 나는 '하이고, 네 몸에 만원짜리 돈을 붙여 한밤중에 광화
문 네거리에 세워봐 봐라. 남자들이 만원짜리만 때어가지...' 어찌구
하며 남편이 아무리 나와 나의 정숙함을 비웃어도 초지일관 그저 정
숙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러니 늘상 억눌려 발산되지 못한 내 리비도 때문에 여러분을 대
하는 내 감정에 약간 야한 기운이 느껴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미
말씀드렸듯 그건 내가 정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정숙하기
때문이니깐요. 오죽하면 내가 박찬호나 차인표도 아닌 여러분을 보고
도 이런 감정을 갖겠어요? '프로주부는 행복하다' 기에 여성잡지에 실
린 사진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는 있지만 알고 보면 사실 나도 불쌍
한 여자랍니다. 물론 내가 한 표를 행사하는, 아니 마음먹기 여하에

따라서는 앞집 표, 뒷집 표 코드겨서 열 표도 모을 수 있는 유권자라
는 거 알고 계시겠죠?

이제 선거에서 세 분을 포함한 후보들 중에 한 분을 선택해야 할 텐
데요. 물론 '너무 당연하게도' 모두 다 남자들이지요. 권력을 다투는
정치 같은 대사大事야 듣직한 사내대장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배웠으
니 나는 그 사실에 뭐 뽀죽한 불만 같은 건 없어요. 제법 똑똑한 내 고
등학생 딸넌은 왜 여자후보는 없느냐고 입을 내밀긴 합디다만... 뭐
라더라, 최근만 봐도 아일랜드에서 여자대통령이 나왔고 뉴질랜드에
서도 여자총리가 나왔단나요. 심지어 여자들에게 차도르를 씌우는 이
란에서조차 여자부통령이 나왔대요. 하지만, 그건 저 물 건너 딴 나라
얘기구요. 나는 법도있는 집안의 딸이어서 그런지 어제 여자가 그렇
게 설치는 건 보기에 좋지 않더라구요. 여자는 역시 여자다워야 사랑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남편 사랑을 못받느냐구요? 휴우, 그
거야 내 팔자겠죠. 뭐.

여하간에 선거일자가 하루하루 가까와오면서 가끔 심심해지면 누
구를 찍을까 머리를 굴리는 경우가 술술 생기는데 말이죠. 남자 일색
인 후보들을 머리 속에서 그려나가다보면 때로는 글썽, 좀 망칙한 생
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마치 내가 휘황찬란한 미스코리아, 아니 미스터
코리아 대회의 심사위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고를
까? 김씨? 이씨? 권씨?'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 내가 선택해 주기를
목매어 호소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격하기도 하고 '아, 역
시 선택권을 갖는 것은 좋은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지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TV에서 중계되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볼 때 그렇
게 호뭇해하고 온근히 어깨에 힘을 주는 모양이에요. 단순히 예쁘고
늘씬한 여자들 때문에 눈이 즐거운 차원을 넘어서는 거겠죠. 언젠가
'여남관계는 권력관계'라는 요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해요.

'감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우리를 미스코리아 대회에 훌딱 벗
고 나와 '예쁘게 봐주세요' 하며 코믹은 소리를 내는 골빈 여자애들
에게 비교하다니 무엄하다'구요? 어머머, 화들 나셨어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나는 착한 여자라서 사람들, 특히 집안과 사회의 기둥이라
는 남자들에게 거슬리는 짓은 하지 않거든요. 심정이 상하셨다면 용
서해 주세요. 절대 고의가 아니니까요.

어디, 좀 진정이 되셨어요? 그렇다면 내 말도 조금은 들어주세요.



이회창

호주제를 유지하면
한나라당이 21세기 미래정당은커녕
안그래도 멀치기 힘겨운
과거정당의 이미지를
함께 유지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김대중, 이인제 후보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이나
시기적 혹은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 니요?
그러다 여자들이
원칙적으로 김대중후보를 지지하나
시기가 너무 늦었다 거나
'이인제후보를 택하고 싶으나
경선불복이라는 윤리문제가 있다' 고
등을 돌리면 어떨건가요?



김대중

참, 나도 유권자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아무리 작은 거라도 역시 권리를 갖는 건 참 좋은 거네요.) 내가 대통령 후보와 미스코리아 후보를 연결시킨 건 사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참는 데는 선수라 따지기는 싫지만 해명을 해야 하니 어쩔 수가 없네요. 후보님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그러면 성별에 따라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대통령, 여자아이들은?... 바로 미스코리아예요. 이것만 봐도 대통령과 미스코리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 대통령은 남자 미스코리아고 미스코리아는 여자 대통령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까놓고 얘기하자면 사실 후보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권자들에게 보여준 가장 핵심적인 주장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정책들보다는 '재는 저렇게 못 생겼으니 나 좀 예쁘게 봐주세요'였잖아요. 안그래요?

아무리 여자라도 소견 좁은 발장난 그만 하라구요? 후보 여러분들은 계승체한 눈으로 뾰뾰하게 앉은 남자들에 의해 그까짓 10년도 못 갈 외모에 따라 선택되는 미스코리아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정경영 능력에 따라 열렬한 지지자들에 의해 국가의 지도자로 옹립되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요? 아하, 그렇군요. 미스코리아와 대통령은 그렇게 천양지차로군요. 정말 10년도 못 갈 외모와 30~40년은 거뜨한 권력은 '꽃'과 '용'처럼 비교가 되지 않는 관계네요. 나는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도 요란스럽게 보여주길래 그게 대통령쯤 되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말이죠, 도대체 왜 여자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미스코리아가 되려고 유치원 때부터 절치부심을 하는 거죠? 너무 억울한 투자가 아닐까요? 아, 골치 아프네요. 뭔가 이상하긴 한데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이래서 옛날부터 여자는 그저 집안에서 밥 하고 빨래나 하라고 한 모양이에요.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도 여성정책토론회(11월 3일~7일, KBS 2TV)를 보고 세 후보분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약속했으니 할 수 없네요. 아픈 머리 절끈 동여매고 계속 생각할 수밖에.

그런데 아닌게 아니라 후보 여러분들도 참 골치 아프셨어요. 어느 틈에 세상이 변했는지 여자들이 '사상 최초'로 미스코리아 대회장이 아니라 정책토론회장에 떼거리로 모여서는 감히 여러분들을 불러내

질문을 던졌으니 말이죠. 여성신문사 주최에 청중도 패널리스트도 사회자도 모두 여자인 토론회장에 유일한 남자로 앉아 있던 후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꽃밭에 앉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려구요? '꽃밭'이 아니라 '가시밭'이었다구요?

하기는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내 짐작에 당신들은 온통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그 자리 자체가 매우 낯설었을 거예요. 공적인 자리다 하면 남자 일색이거나 한두 명의 여자가 양념으로 끼어 있는 상황에 익숙한 여러분일 테니 '청일점'의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겠나구요 (다 머리가 좋으시니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 나라 '홍일점'들의 어려움도 깨달았으리라 믿어요). 게다가 TV 카메라까지 두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원, 대통령이 뭔지... 참으로 어려운 관문이네요.

아마 남성인 당신들은 평소에 여성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봐요. 거짓말 해도 소용없다구요. 그렇지 않다면 '여성은 위대한 존재'라든지 '어머니와 아내의 사랑' 운운하는 입에 발리고 잇나가는 말들을 그렇게 당당하게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무식이 용감의 어머니라는 말 알고 계시죠? 내게는 토론석에 앉은 후보 여러분의 표정이 저으기 불안해 보였어요. 물론 정책담당팀이 답변준비를 철저히 해줬겠지만 잘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었던 분야를 놓고 답변을 하려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더구나 분위기를 보니 평소의 솔직한 여성관을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고, 그렇다고 무조건 동조할 수도 없으니 어디쯤에서 균형을 잡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지 정말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역시 하늘은 후보 여러분에게 너그러우시더라구요. 아니, 사실은 하늘이 아니라 남자에게 대등한 입장에서 요구하거나 끝까지 따지고 드는 일에 익숙치 못한 우리 여자들이 너그러웠던 거지요. 우선 전체 토론시간 100분 중에서 여성정책 분야에 할애된 시간은 겨우 30~40분이었어요. 게다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어 대충 답변해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었어요? 나머지 정치분야 질문이야 전공이니 자신있고, 삶의 질 분야도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었을 터이니 답변하기가 훨씬 수월했겠지요. 100분 동안 여성정책만 가지고 집요한 토론을 벌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숨기고 있는 속내와 여성현실에 대한 편견과 무지를 어떤 식으로든 들리고 말았을 걸요. 또 정치분야 질문들도 여성의 시각에서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다면 답변이 쉽지 않았겠지만 남자





이인제

우리가 어디 한두 번 속아봤나요?
뒷간 갈 때와 올 때가 같은 정치인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요.
YS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린다구요?
그 분은 원래 그러려고
조깅이다, 수영이다 열심히 했다잖아요.

들이 보통 하는 질문과 하나도 다를 게 없으니 문제가 없었잖아요?

결국 당신들은 알맹이 없는 선심성 약속들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계획과 실질적 방책이 아닌 '확고한 의지'만 강조하고도, 그리고 '~해야 한다'는 당위만 외치고도 별 탈 없이 소위 '정책' 토론회를 마칠 수 있었어요. 유권자들에게는 불행이지만 당신들에게는 얼마나 다행이냐구요.

이제 쓰잘데없는 사실 그만 말고 여러분이 내세운 주요 여성공약들을 살펴보기로 하지요.

여성부 신설은 세 분이 모두 찬성을 했는데 이회창후보는 특히 행정부 내 사회복지 관련부서들을 관장하는 사회복지원을 신설하고 담당 부총리를 여자로 임명할 뿐 아니라 그 밑에 여성부도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가능성 수준인 것 같아 아쉬웠답니다. 확실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성할당제에 대해서는 세 분이 대동소이했으나 그 중 이인제후보의 공약(장관 20%, 국회 지방의회 공천 15% 비례 30%, 당간부 30%, 공직채용목표 30%)이 가장 앞선 것 같더군요. 김대중후보는 이례적으로 고용할당제 20%를 들고 나와 토론회자들을 놀라게는 했지만 우리의 자유기업 체제에서 고용할당제라는 게 과연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하는 중요한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아 정말 '적극 검토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네요.

참, 어느 토론회자가 김후보에게 광주 동구 보궐선거에서 여성을 공천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죠? 아마 김후보가 여성정책에서 그래든 낫다는 평을 듣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모양인데, 그 직전까지 여성 정치참여와 할당제를 힘주어 강조하던 김후보의 대답은 이랬어요. — '참고하겠다'. 그 얘기를 내 딸에게 했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엄마도 그 사람이 찍어달라고 하면 참고하겠다고 해' 라구요.

다시 공약내용으로 돌아가 보지요. 주부연금수급권,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세 분이 똑같이 찬성을 했구요. 산전산후휴가도 12주 정도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어요. 이회창후보는 답변 중에 육아휴직 가산 점제도 도입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믿을만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얼떨결에 한 말일수가 아니라면 다음 기회에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쑥한 호주제 문제를 볼까요? 김대중, 이인제후보는 폐지, 이회창후보는 '감히' 유지라고 밝혔더군요. 나도 우리 딸

년에게 배운 게 있으니 우선 이회창후보에게 한 말씀 드릴게요. 호주제를 유지하면 한나라당이 21세기 미래정당은커녕 안그래도 떨치기 힘든 과거정당의 이미지를 함께 유지한다는 거 알고 있나요? 김대중 이인제 후보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폐지에 찬성이거나 시기적 혹은 사회적 가치관의 문제가 있다' 니요? 그러다 여자들이 '원칙적으로 김대중후보를 지지하나 시기가 너무 늦었다' 거나 '이인제후보를 택하고 싶으나 경선불복이라는 윤리문제가 있다' 고 등을 돌리면 어쩔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약 얘기를 하다보니 힘이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안그래도 된다고요? 절대로 공약空약이 안될 테니까? 역시 제 말이 좀 저리시는 모양이군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 한두 번 속아봤나요? 뒷간 갈 때와 올 때가 같은 정치인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요. YS가 도망가는 소리가 들린다구요? 그 분은 원래 그러려고 조깅이다, 수영이다 열심히 했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힘이 빠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네요. '사상 최초의 대선후보 초청 여성정책 토론회' 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걸고 왔는데 흔한 말로 '건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 저건 내 문제다' 하고 피부에 와닿는 내용들이 별로 언급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성의 구체적 삶과 일상적 문제들이 보다 심도있고 생생하게 논의됐다면 여자들이 비로소 '정치라는 게 바로 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토론회는 우리 아줌마들에게 '가까이 하' 기엔 너무 먼 정치'를 또 한번 확인시킨 건 아닌지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벽을 보고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남편에게 모처럼 내 마음 속의 고민을 얘기할 때처럼(너무 편한 게 병'이라는 게 남편의 유일한 대꾸죠) 자꾸만 말이 먹히지 않고 뽕겨나오는 것 같아요. 아하, 당신들 역시 남편들이죠. 세상에,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 이제야 겨우 이해가 되네요. 왜 내 딸이 여자 대통령후보는 없느냐고 입을 내밀었는지. 만약 후보 중에 여자가 있다면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느라 힘들일 필요없이 '적하면 입맛'으로 단번에 잘 통할 텐데... 그럴 남성후보 여러분 이만 안녕히 계세요... 아니 선거운동하세요.

어디 내 말 들어줄 여성후보 없나요? **II**

1997.11.30. 한 표 가진 아줌마로부터.



필리프세이강은이

성공은 없다

"이제 여성도 성공할 수 있다."

요즘 여성들은 성공의 홍수 속에서 산다. 그 거센 홍수에 휩쓸려 이리 부딪치고 저리 깨진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성공할 수 있는가. 원하는 모든 여성들이 성공을 거머쥌 수 있는가. 우리사회는 그 많은 여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소시켜줄 만큼 성숙돼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다.

삼십대의 어느 여성작가는 여지 나이 삼십대를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고, 또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른 어정쩡한 나이"라고 불렀다. '성공 가능성'의 막바지를 붙들고 서있는 30대 여성들. 그들이 그런 자화상은 팔과 눈물과 절망으로 뒤흔려져 있었다. 그것이 이 시대 삼십대 여성들의 현주소다.

이제는 아무도 대신 얘기해주지 않는 그들의 진실을 그려보고 싶었다. 이제 우리는 진실과 직면해야 한다. —편집부

- 설문분석—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
- 문제제기—여성성공담, 성공이 없다/ 박혜숙
- 사례—삼십대 자화상/ 권혁란, 김재영, 이인혜, 김우림, 박숙경, 염정애
- 진단—'성공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오한숙희
 - 여성작가들이 본 서른의 삶/ 고갑희
 - 삼십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조한혜정
 - 누가 그들에게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넣었을까?/ 유숙렬
 - 역사가 만든 여성의 분열증/ 이숙인
- 선배가 후배에게—진정한 성공을 위한 10계명/ 윤석남, 양희은, 이상덕, 김혜경, 김명신, 조선희, 홍성혜, 신현경, 임정희, 이정자



*96(세종박람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주부가 자료집을 뒤적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

30대 여성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

이가 3호 특집 주제를 '여성의 성공'과 관련해 잡고 나자 '성공'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생각이 궁금해졌다. 여성들은 도대체 '성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신의 성공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여성들은 왜 성공하기를 바라며,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또 어느 때 가장 성공하고픈 욕구를 느끼는가... 이런 것에 대해 파악하고 나서야 특집의 다른 내용들이 제대로 기획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사방법

'30대 여성, 성공은 있는가?'라는 제목의 설문지는 총 300부 배포됐고, 그중에 129부가 회수됐다. 설문조사는 서울시와 경기도 지역에 사는 30대(30~39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

설문내용은 총 12문항으로 첫째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성공' 개념은 어떤 것인가, 둘째 여성들이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주로 어느 때 하게 되는가, 셋째 여성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으로 구성됐다. 1, 2, 3, 5, 6, 8 문항은 복수응답했으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했다.

내용분석

1. '성공'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항목	돈	명예	자식의 출세	남편의 성공	자아실현	인격적인 대우	기타	총계
응답수	37	39	4	13	50	12	1	156
백분율(%)	23	25	3	8	32	8	1	100

성공이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단어에 대해 '자아실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2%이다. 그 다음으로 명예(25%), 돈(23%), 남편의 성공(8%), 인격적인 대우(8%)를 들었다.

2. 나 자신의 성공은 어떤 것인가

항목	돈	명예	자식의 출세	남편의 성공	자아실현	인격적인 대우	기타	총계
응답수	14	16	3	10	71	15	6	135
백분율(%)	10	12	2	7	53	11	4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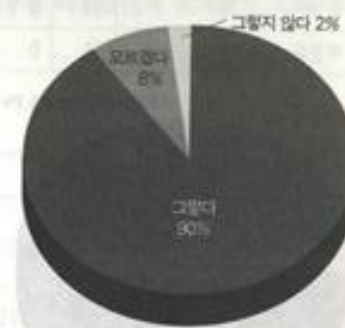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자아실현(53%)이 과반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명예(12%), 인격적인 대우(11%), 돈(10%), 남편의 성공(7%), 자식의 출세(2%)의 순으로 답했다.

일반적인 성공의 개념을 묻는 1번 문항과 비교해봤을 때 자신의 성공에서는 자아실현에 더 많은 수가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가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총계
응답수	116	3	10	129
백분율	90	2	8	100

의외로 많은 수의 여성들이 성공하고 싶다고 대답했다(90%). 애초에 우리는 30대 여성들 중에서 많은 수가 성공에 대해 포기했거나 마음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었다.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질문에는 단 2%의 여성만이 응답했을 뿐이다.



4. 성공하고 싶다면 왜입니까?(5명 무응답)

항목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싶어서	주위에 멋있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지금의 생활이 싫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기타	총계
응답수	40	31	3	9	12	29	124
백분율	32	25	2	7	10	23	99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싶은 것’(32%)이 성공하고픈 가장 큰 이유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응답한 것은 ‘주위에 멋있고 싶어서’(25%)이다. 그 외에 ‘존경받고 싶어서’(10%)라는 답까지 합하면 약 35%의 대답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성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타의 23%의 답은 대부분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즐거울 것 같아서’, ‘나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위해’ 등 자기 자신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성공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봤듯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53%가 ‘자아실현’이라고 답한 것을 고려해볼 때 성공하고 싶은 이유로 ‘경제적인 윤택’을 첫 번째로 꼽은 것은 의외이다.

5. 당신의 성공모델은?

항목	남편	아이들	친정부모	시부모	친구들	기타	합계
응답자수	31	29	33	4	11	23	130
백분율	24	22	25	2	9	18	100

조안리(20.6%), 박완서(7.6%), 손숙(6.9%), 정덕희(6.1%), 오숙희·전여옥(5.3%), 최유라(4.6%), 김희애(3.8%), 주미애·유지나(3.1%), 김수현(2.3%), 공지영·엄앵란·전경자(각 1.5%)의 순으로 답했으나 본 설문지에서 제시하지 않은 인물을 추가로 기록한 경우가 26.7%나 되었고, 존경할만한 사람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7.6%였다. 또 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가 16명. 설문지에 제시된 사례 외에 황산성, 이효재, 마더테레사,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순 등도 응답자가 기록한 인물들이다.

6. 여성의 성공에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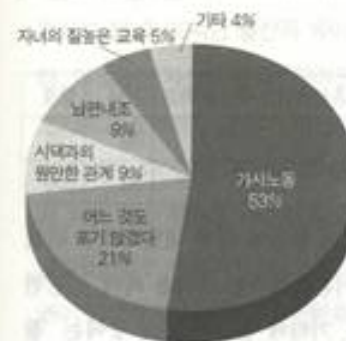
항목	남편의 보수성	육아	친정어머니의 비협조	시부모의 반대나 비협조	여성취업의 제한	돈의 부족	기타	합계
응답수	19	74	0	3	31	6	11	144
백분율	13	51	0	2	22	4	8	100

여성들의 성공에 있어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육아’라는 대답이 전체 대답의 51%를 차지해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탁아제도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나타냈다. 그 외에는 사회적으로 여성의 취업이 제한돼 있는 현실(22%)을 꼽았고, 남편의 보수성이 13%를 차지했다.



7.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항목	자녀의 질 높은 교육	남편내조	가사노동	시대과의 원만한 관계	어느것도 포기않겠다	기타	합계
응답수	6	11	69	11	27	5	129
백분율	5	9	53	9	21	4	101



성공을 위해 두마리의 토끼 중 한마리를 포기하라고 한다면 여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까? 가사노동이 첫번째로 꼽혔고(53%),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이 21%로 두번째였다. 그 외에 ‘남편에 대한 내조’, ‘시대과의 원만한 관계’가 각각 9%, ‘질 높은 자녀교육’이 5%가 나왔다.

여성이 성공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육아라고 대답(6번 문항)한 반면 단 5%의 여성들만이 질 높은 자녀교육을 포기한다고 말해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발목을 가장 강력하게 묶고 있는 것이 육아, 교육 동임을 알 수 있다.

8. 당신의 성공을 누구에게 가장 보이고 싶은가

항목	남편	아이들	친정부모	시부모	친구들	기타	합계
응답수	31	29	33	4	11	23	130
백분율	24	22	25	2	9	18	100

친정부모에게 보이고 싶다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 중에 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남편, 아이들, 친구의 순이다. 남편과 친정부모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로는 ‘나 자신’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고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성공하는가?’라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응답자가 12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9.3%를 차지했다.

친정부모라는 대답을 한 이유로는 ‘부모가 나의 성공을 가장 바랐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등으로 대답했고, 남편에게 보이고 싶은 이유로는 동반자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어서, 동등해질 수 있으니까 등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보이고 싶다고 대답한 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에게 멋있고 싶어서와 모범이 돼보이고 싶다는 게 그 이유였다.

9.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2명 무응답)

항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합계
응답수	76	51	127
백분율	60	40	100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0%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40%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대체 어떤 종류의 노력을 하는지 주관식으로 물었다. ‘봉제’, ‘신문구독’, ‘인터넷 등을 통

한 정보수집', '영어학원 수강' 등을 통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가 25명,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가 17명, '가족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가 7명이며, 그외에도 '나태함이나 게으름과의 싸움을 통해 부지런히 살고자 한다', '수련을 한다' 등 일상생활에서의 노력과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직장일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창업준비를 하고 있다' 등 사회적인 노력에 각각 2~3명씩 답했다.

10. 성공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계기는?

항목	남편의 무시	시부모와의 갈등	아이들의 무시	같은 또래 여성의 성공을 보고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타	합계
응답수	6	4	0	67	7	40	124
백분율	5	3	0	54	6	32	100

여성들이 주로 어떤 때 성공에 대한 욕구를 강렬하게 느끼는지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뭐니 뭐니해도 '같은 또래 여성의 성공을 보고'가 5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때', '시부모와의 갈등이 있을 때' 등으로 답했다. 기타에 응답한 32% 중에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나 직장내 불평등에 직면했을 때' 성공하고 싶다고 느낀다, '집안에만 있는 것이 소모적이고 무기력하게 느껴져서', '항상 생각했다' 등이 주로 눈에 띈다.

성공에도 성차별은 있는가?

30대 여성들의 성공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놀랍게도 30대 여성의 90%가 아직도(?) 성공을 꿈꾸고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아실현', '돈', '명예'를 의미한다. 그러면 '성공'이란 무엇일까, 아니 '여성의 성공'이란 무엇일까? 성공에 성이 개입되면 색깔이 달라진다. 성공이 여성이 되면 갑자기 그것은 굉장히 복잡한 무엇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성공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여성들의 대답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기에는 우리사회 30대 여성들이 안고 있는 여성문제가 고스란히 들어있다. 여성들이 성공을 원하는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삶만으론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답답할 때' (사회에서 소외된 가정생활이 답답하다는 얘기다), '행복해지기 위해' (현재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가정에서 구속을 느낀다는 얘기다), '일상의 삶, 이기적 삶에 대한 열증' (주부에게 주어지는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다),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싶어서'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한다는 얘기다), '멋뎠고 싶어서' (주부와 엄마로서의 위치만으로는 주변사람들에게 멋뎠지 못하다는 얘기다) 등이다.

성공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여성들은 그 이유를 '아이를 잘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여성들이 성공과 육아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성공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육아' (51%)라는 대답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우선순위로 '질 높은 자녀교육'을 든 여성은 5%로 소수에 불과했다. '가사노동'을 포기하겠다는 여성이 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여성도 21%에 달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의 30대 여성들이 안고 있는 분

열증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여성 성공의 걸림돌로 '결혼, 그 자체'라고 대답하고 결혼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해 성공을 원한다고 대답한 여성도 있다. 결혼은 여성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될 수 있지만 출산과 육아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이 불행하더라도 출산과 육아를 절대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성공에 장애가 되더라도 출산과 육아를 포기하겠다는 여성은 거의 없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는 것은 남성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여성만의 특권이다. 그 특권이 가부장제 사회구조와 문화로 인해 여성억압과 불행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왜, 어떻게 여성고유의 특권이 여성억압의 원천으로 둔갑을 하게 됐을까? 생명을 탄생시켜 인류를 존속시키는 막중한 일을 해온 여성출산의 굴절사는 요구하고도 깊다. 그것을 지금 일일이 따질 수는 없다. 다만 특권이 특권일 수 있도록 사회조건을 만들어가야 하며 특권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7

30대의 풍세

삼십삼 세란 무엇인가
아이 하나, 둘 유아원에 보내거나
머리 죽어 목욕솥 같은 바람으로 떠돌거나
우울의 강둑을 거닐며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 달래거나
좀더 넓은 아파트 좀더 안정된 살림을 위해
고되고 답답한 내일을 장승처럼 견디는 것인가

'돈을 모아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성취와 만족은 얼마나 먼 등대인가
등대와 가을 태양을 보며 사무치는

나의 삼십삼 세란 무엇에든 용감해지는 일이다
비람 속 장작불처럼 거친 외로움은
죽음의 공포점은 커피 따듯함 남겨 주는 일

신현림, 「삼십삼세의 가을」, 『세기말블루스』, 창비

여성성공담, 성공이 없다

조안리, 전여옥, 조양희, 정덕희, 최유라의 자서전이 보여준 '성공'

여성들은 결코 '반쪽 성공'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가정에서 실패한 여자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스캔들이 될지언정 성공 모델이 되지 못한다.

바야흐로 '수퍼우먼 성공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왼쪽부터 엄앵란, 진미령, 조양희, 정덕희, 조안리.

성공한 사람들의 글을 읽는 매력은 '나도 그럴 수 있겠다'는 꿈을 꿀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있다. 성공을 위한 격려가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성공담은 늘 인기를 끈다.

요즘 우리 출판계에도 이런 매력을 지닌 여성들의 성공담이 수십만부씩 팔려나가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여성성공담의 첫 모델은 조안리의 『스물 셋의 사랑, 마흔 아홉의 성공』이었다. 이후 조안리는 '양손에 떡을 쥐듯' 일과 사랑에서 두마리의 토끼를 잡은 여성 성공담류의 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조안리나 전여옥으로 대표되는 '커리어우먼의 성공담'에서 정덕희류의 '전업주부의 화려한 변신과 성공신화'에 이르기까지 주부들에게 변신하라고 외쳐대는 여성성공학 서적이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여성이 이뤄내는 성공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일을 가진 여성이 '저, 살림하는 주부예요'를 외치며 '요리가 즐겁다'고 비명을 질러대는 '수퍼우먼'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주부도 프로시대'라며 역척스레 남편 바람기를 다스리고 시댁과 아이들 뒷치다꺼리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헤쳐왔다는 '식순이 엄앵란', 조양희식 부업대기 성공담도 인기리에 팔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여자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함차게 외치는 이 성공담류 책들은 어떤지 다 읽고 나면 공허하게만 느껴진다. 왜일까? 왜 성공한 그들과 평범한 여성들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깊은 강이 놓여 있는 것일까?

성공신화1. 여성들에게 절반의 성공이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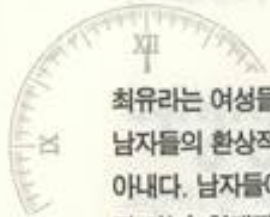
여성성공담류 서적에 등장하는 '성공여성'들에게는 절반의 성공이란 없다. 이들이 이룬 성공은 '반쪽의 성공', '절반의 성공'이 아니다. 일과 사랑에서 또 직장가 가정에서 완벽하고도 조화롭게 '100% 성공'을 거머쥔다고 얘기한다.

조안리도 그랬고 전여옥도 그렇다. 게다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데 성공한 여자들의 얘기는 최유라, 진미령으로 넘어가면서 노골적인 '수퍼우먼 성공신화'가 그 정도를 더한다.

수퍼우먼 신드롬의 대모 엄앵란을 자처하고 나선 최유라, 그리고 여기에 가세한 진미령까지 뒤편지 척척 박사처럼 해내는 완벽한 주부다. "요리가 즐겁다"고 외치며 행복한 부업을 그려대느라 정신이 없다. 방송인과 가수라는 일이 있는 두 여자는 분명 전업주부는 아니면서 전업주부 뻘치는 살림꾼씨로 주부들의 '기'를 죽인다. 그리고 '나처럼' 따라하면 수퍼우먼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이에 질세라 여자의 성공은 부업에 있다고 말하는 식순이, 부업대기 성공론도 등장한다. 엄앵란은 '뜨거운 가슴에 좌절은 없다'며 식순이로서 할 일을 다 마치고 부업을 나와야 비로소 당당하다고 '훈계'하고, 조양희는 처절한 부업대기 사방돈을 펼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방송인으로 컴백한 엄앵란이나 소설을 쓰는 작가 조양희는 전업주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주부이며 부업대기'라고 강변한다. 주부로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물론 전업주부들도 엄앵란이나 조



최유리는 여성들이 꿈꾸는 이상형이 아니다. 남자들의 환상적인 꿈이 100% 반영된 천사표 아니다. 남자들이 바라는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 하는' 현대판 수퍼우먼의 이상형일 뿐이다.

양회처럼 가사노동 이외의 자기 일이 있다면 부업에 기로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랫튼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공의 길목에서 늘상 갈등하고 고민했던 최대의 걸림돌, 일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일이나 사랑이나라는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즈음 두가지 모두를 거머쥔 여자들이 뜨기 시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에서도 성공을 이뤄지만 가정에서도 성공적인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다. 자식들도 끔찍히 사랑하고 인정받는 엄마요,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내라는 것을 온근



하게 또는 아주 노골적으로 강조한다. 그래서 조안리나 전여옥, 정덕희는 여성들의 이상적인 성공모델로 굳게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성독자들 역시 이런류의 성공신화에 대한 반감을 갖거나 의심하기 보다 이들의 퍼펙트한 성공에 일광하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일에서는 성공하고 사랑이나 가정에서는 변변치 않았다면 이건 성공이 되지 못한다. 여성들은 결코 '반쪽 성공'은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취하지 못한 여자는 봐줄 수 있어도 가정에서 실패한 경우라면 그 여자 개인이 아무리 화려한 성공 모델이 되지 못한다. 바야흐로 수퍼우먼을 바라고, 수퍼우먼이 등장하는 '수퍼우먼 성공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류의 여성성공담은 두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으며 자랑하고 '당신들도 우리처럼 하라', '당신들도 우리처럼 할 수 있다'는 그릇된 여성의 성공신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다.

성공신화 2. 여성으로서의 고민과 갈등은 없다

조안리는 '사업으로 며칠이 멀다하고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쓰고 있고 '어떤 때는 한달씩 장기출장'을 가야 했다고 자랑스레 얘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자들이 업무상 장기출장을 갈 경우, 그리고 외박이 잦을 경우 겪을만한 어려움이 얘기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에 맡겼으며, 밀린 집안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등 말이다.

조안리가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 대목도 그렇다. 너무나 쉬운 결정으로 너무 단순하게 그려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조안리는 결혼후 처음에는 '막연히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기대했다가 돈벌이와는 무관하게 살아온 남편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나도 돈

벌면 되지' 했다가 다시 아무런 고민없이 '나만 벌면 어때'라고 얘기한다. 너무 쉽게 주체적 사고를 하게 된 결과론적 얘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조안리는 일이나 사랑이나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사랑도 하라고 한다. 그들 중의 어느 거 하나도 뒤로 밀쳐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렵게도 그것은 앞의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이 되지 못한다.

전여옥의 『여성들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고 치밀할 만큼 자신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조건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일하는 게 즐겁다고 말한다. 일에 미쳐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역설한다. 워커홀릭이 되라는 게 전여옥식의 성공의 조건이다.

전여옥은 우리사회의 차별을 통렬하게 비판하며 남성사회를 테러하는 식으로 적극적이고 완벽하게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성들을 힘있게 '격려'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일을 하면서 겪게 마련인 주부로서의 고민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이 그려진다. 어쨌든 그들에게서는 뭔가 성공의 밑바탕이 주어졌던 '특별한 여성'의 냄새가 난다.

도대체 사랑과 일에서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여자들이 얼마나 될까. 그것도 술한 고민과 갈등을 겪지 않고, 보통의 여성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과 사랑을 거머쥘기 이전에, 그리고 워커홀릭이 되기 이전에 견뎌야 하는 험난한 산과 강이 있다. 보수적인 시집식구들,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를 원하는 남편, 엄마의 끝없는 보호를 원하는 아이들, 엄청난 양의 가사노동과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돈의 부족,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도록 길러진 여성들의 성격까지.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모두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버릴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등등... 그런데 그들은 어쨌든 그런 산과 강을 모두 건넜거나 아예 그 산



과 강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그 산과 강도 건너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무슨 쓸모인가?

산과 강을 어느정도 건넜다고 해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다. 자기의 일을 꾸려가면서 여자로서 부딪쳐야 하는 쓰라린 좌절과 절망, 또는 참담한 경험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여옥의 말대로 가부장적인 남성사회를 테러하면서 차별에 당당히 맞선다면 그 여성은 조만간 쫓겨나가거나 승진대열에서는 아예 제쳐질 수도 있다. 또 가정을 가진 결혼한 여자가 워커홀릭이 된다면 이는 분명 큰 문제에 봉착하거나 이혼당할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들에게선 그런 불행의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다.

이들은 성공담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다문 채 자신은 성공했다며 자랑하는 격이다. 그리고 이리저리 하면 성공한다고 성공을 부추기고 있을 뿐이다.

성공신화 3. 성공한 여자들은 살림도 잘한다

여성성공담의 결정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최유라의 『나 살림하는 여자예요』라고 할 수 있다. 알뜰도둑 아무진 최유라가 '지새끼, 지남변밖에 모르는 여자'—이종환의 서문이다. 이는 욕이 아니라 칭찬이 된다.로서 예, 남편 챙겨먹이고도 거뜬히 방송 MC로 인기가를 달리면서 일도 하고 주부로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극성스런 살림애기가 주제다.

최유라는 말한다. '극성스런 살아온 날들. 빈틈없는 여자'로 8년간 <라디오시대> MC로, 주부로 열심히 살



것을 다짐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파출부 한번 안부르고 아이 안맡기고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안 맡기고 방송국에 나갈 수 있었을까) 놀이방까지 운영하면서 합경도 억척 또순이의 딸로 극성스런 살아온 이유는 '연예인이기에 가정일 소홀히 한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이다.

참으로 대견한 것은 사실이다. 일하는 한국 엄마의 억척스런 이야기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

로 완벽한 슈퍼우먼이 될 수 있는 여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선 최유라처럼 요리에 재능이 있어야 하고 집안일도 톱툰이 하면서 엄청난 출연료를 쟁길 수 있는 멋들어진 '프리랜서'를 직업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유라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7시까지 직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대다수의 평범하고 전형적인 취업주부의 모델은 아니다.

최유라에게 부업은 행복만 가득한 곳이다. 부업이 지겨운 곳이라거나 요리가 하기 싫었다는 고백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요리가 즐거운 이유는 또순이 집안의 내력 때문이고 찬밥은 죽어도 안먹인다는 게 그녀의 철칙이다.

'물론 편히 살 수도 있다. 아침 안먹여 보내고 더 느슨하게 살림할 수도 있고 전기밥솥에 밥 가득해놓고 이틀씩 먹고 반찬도 사다 먹든지 손 덜가는 인스턴트 요리로 하든지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따뜻한 가정이란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본적인 교육일까 생각하면 도저히 대중 해먹고 사는 게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최유라는 집에 전기밥솥이 없다고 한다. 왜냐면 둘 술에 갓 지은 밥에 보글보글 끓인 된장과 갓 무친 콩나물에 최소한 다른 반찬까지 늘 너댓가지를 올리고 또 아침에 국을 올리면 저녁엔 꼭 찌개를 다시 끓이고, 생선도 새벽 수산시장에 나가 제각으로 사고 생채포도 직접 돈다고. 동네 생선가게 아저씨가 수심마리 처대는 생선칼이 비워생적이고 거기서 뿌려주는 소금도 미덥지 않아서란다. '우리 식구 먹을 음식은 항상 내 손을 거쳐야 안심이 되기에 손수한다'고 말한다.

그말이 100% 진실이라면 슬며시 그녀의 삶의 태도에 숨이 막혀온다. 그뿐이 아니다. 빨래미 끝없는 청소도 초스피드로 한다고 자랑이다. 거기다 술 좋아하는 남편 흥보기는커녕 집에 안들어온 남편이 걱정돼서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고 말한다.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술먹지 왜 나가서 먹냐며 '술친구 집으로 데려오세요'

라고 한다. 이쯤되면 최유라는 여성들의 이상형이 아니다. 남자들의 환상적인 꿈이 100% 반영된 천사표 아내다. 남자들이 바라는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 하는' 현대판 슈퍼우먼의 이상형일 뿐이다.

성공신화4. 여성의 성공은 부업에도 있다

이들에게는 날마다 식탁을 차려야 하는 여성들의 고된 부업일이 '요리'라는 고상한 용어로 대체되어 '요리는 즐거운 취미'가 된다. 전여옥도 요리가 취미라고 말한다. 그러나 24시간 주부노릇만 하면 과연 그렇게도 요리하는 게 행복할까. 또 8시간 꼬박 직장매인 직장여성들처럼 산다면 요리가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부업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돈으로 가능했던 천정엄마의 손을 빌었던—자신들의 기득권이나 '특수한 여건'은 합구한 채 '나는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외치는 여성성공담의 주인공들은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거침없이 너무 쉽게 '일반화'시키고 있다.

재미있는 점은 조양희나 엄앵란류의 성공담들이 모두 '전업주부가 아름답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업주부들 앞에서 자신들도 전업주부라고 외쳐대면서 전업주부의 심정을 위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현재 전업주부가 아니다.

전업주부의 놀라운 성공이야기는 '식순이 엄앵란식' 성공이다. 엄앵란이 주부의 길을 자랑스레 걸어왔다고 말한 시점은 전업주부를 벗어나 방송MC로 마이클을 거머쥔 이후의 얘기다.

전업주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당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과연 여기서 성공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만) 마친 이후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전업주부로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된 삶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자부심이 지나쳐 때론 황포에 가까우리만큼 멋대로 주부를 평가한다. 가부장제형 머느리를 잘 수행해냈



재미있는 점은 조양희나 엄앵란류의 성공담들이

모두 '전업주부가 아름답다'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전업주부들 앞에서

자신들도 전업주부라고 외쳐대면서

전업주부의 심정을 위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현재 전업주부가 아니다.

기에 당당할 수 있다는 식순이 엄앵란식 설교의 영향력은 굉장한 위력을 발휘한다. 공중파 방송에서 주부 시간대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에 상담자로 출연해서 문제를 안고 나온 평범한 주부들을 자기식으로 가르치고 훈계한다. 그러면 주부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기죽어한다. 왜 여성들이 엄앵란의 말과 그녀의 경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그녀는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왔는가. 그녀의 말은 그만큼 합리적이고 일관성있는가. 아니면 그녀가 왕년에 잘나가는 여배우였기에 그녀의 말을 들어줄 가치가 있는가.



전업주부가 아니면서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일이 마냥 즐겁다고 부르짖는 전업주부 성공기의 결정판은 조양희의 『부업대기의 사랑』이다. 조양희는 사는 게 고달픈 아내에게 바치는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는 말한다. 아내있는 부업엔 향기가 있고 자기 것이 라곤 오직 수저 한쌍뿐이지만 하루 15번 세수하면서 영혼을 만나려고 홀로 서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전업주 부를 위한 예찬론을 펼친다. '그녀의 빛깔과 향기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알치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 살 림재미를 만끽하며 사는...철저한 부업대기'라고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장미꽃 같은 여자이기보다 파꽃 같 은 아내'로서의 조양희는 남편 와이셔츠의 단추를 달 아도 영혼의 자취가 있다고 한다. 이처럼 완벽한 처절 함이 있을까.

기왕에 전업주부가 된 바에야 주부로서의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자는 그의 이야기에 동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부업대기로서 처절하게 구도하는 그녀 의 자세는 본받을 데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사실 조양희는 동단한 소설가이다. 여성이 라면 누구나 꿈꾸는 주부작가인 것이다. 집안일을 하

고 틈틈이 글을 써서 세상에 자기 글을 내놓을 수만 있다면 그깟 집안일이 그리 고역도 아닐 것이라고 많 은 여성들은 말한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부 업대기라고 밝히면서(그렇게 치자면 결혼한 여자 중 에서 부업대기 아닌 여자가 얼마나 될까) 주부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팔고 있는 것이다.

그의 부업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방에 혼자 남 으면 외톨이로 고독하다. 그러나 부업으로 돌아오면 비로소 나 자신을 쫓을 수 있다. 부업은 진정한 나의 쉼터이고 내가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이다. 마음이 편하고 안정감이 느껴진다. 하루 대부분을 부업에서 지낸다.' 이 말만 읽고 놀랄 것은 없다. 조양희는 글을 쓰는 소설가인 관계로 부업에 화장대며 오디오를 갖 취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며 부업에서 글을 쓸 수 있고 꾸벅 졸다가도 부업을 꺼냈고 쪽잠을 잘 수 있는 거니까. 음악 들으며 화장하고 옷을 끼고 기도하다 나물 무치고 생선을 굽는다.

부업과 주부의 운명론적 만남을 이렇게 처절하도록 예찬하다니! 보글거리며 끓는 찌개 소리를 들으며 글을 쓰고...부업은 꿈 케는 카페요, 소극장이며 헬스클럽이 며 수평선 보이는 바다로 극찬된다. '탈없는 가정의 영 광 뒤에 부서지고 으깨진 주부의 값진 희생이 숨어 있 다. 부업대기의 고된 마음 저리도록 녹아 있는 곳'이 부 업이라고. 처절하다 못해 비애감마저 느껴진다.

처절한 희생으로 구도하려는 그녀의 부업대기론은 마침내 마조히즘의 색깔까지 드러낸다. 조양희는 여자와 복어가 닮은 점을 얘기한다. '맛아야 제맛이 난 다는 의미는 시대와 남편과 아이들에게 시달려 복어 처럼 곤죽이 됐을 때 한 여자로 성숙된다는 것'. 생애 가 이것 저것 다 빼고 복어가 되기까지의 모습이 모성애의 엄마와 아내의 상징이란다. 이런 그의 논리는 참 으로 서글프기까지하다. 남편이 바라는 아내론을 애 기하면서 복어와 여자의 일생을 얘기한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술한 좌

결과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사회 기정사실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추스릴 힘을 쟁기고 타인을 배려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며, 자신들의 고통을 승화시켜 보다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갖게 되는 여성들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지운 그 짐과 고통을 미화시킬 필요까지는 없 다. 되도록 부당한 고통은 받지 않는 게 좋다. 좌절과 희생을 일상적으로 학습할 필요는 없다.

조양희는 자신은 소설가로 글을 쓰며 일하면서 부 업을 우아한 곳으로 둔갑시키고 주부들에게 왜 이러 게 살지 못 하냐고 하는 부다. 자기는 부업을 작업실 삼아 일하면서 부업에서 나오지 말라고 한다. 교묘한 사기술에 걸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여성성공담에는 현실이 없다

결국 이들 여성성공담에는 성공이 없다. 아니, 이래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다. '성공'이 없는 이유는 어찌 면 간단하다. 여성성공담의 주인공들은 우리사회에선 너무나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가정과 일을 가진 한국의 아내가 엄마가 워커홀릭이 되어서는 가정을 온전히 꾸릴 수가 없는 것이고 차별이 만연된 조직사 회에서 차별에 당당히 맞서며 승진하고 성공하기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한 주부들이 애 한들 낳고 '어 디 취업할 데 없나'를 찾아보지만 파출부나 보험설 계, 자동차판매 등 서비스업과 세일즈 분야에 국한되 어 있다. 이런 분야에서 '판매여왕'이 된 여성성공담 류도 많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인기가 없다. 조안리 식 사랑과 성공을 거머쥔 그럴듯한 성공이 아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왜 비즈니스우먼의 성공과 사랑학개론이 커 리어우먼들의 성공학 교과서로 그렇게 많이 읽히고 있는 걸까. 전업주부라는 굴레를 화려하게 벗어난 전 업주부의 성공신화가 왜 주부들을 열광케 하며 주부

30대의 팍세

하지만 정말 나는 내 생각대로 서른몇 살이나 먹 었고, 그러니 이제 와서 사랑을 탐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다.

사소한 내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는 꿈을 수정하 는 훈련을 나는 하기 시작했다.

보고 싶은 전시회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보러 극장 에 갈 때, 남편이 시간나기를 기다리다가 놓쳐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닌 그것들—홀로 집을 나서서 연 습을 하기 시작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아이에 매여 있는 친구들과 과가 아니라—그 친구들과 함께 어떤 문화행사에 참 석한다는 것은 서른이 넘고 나서는 거의 환상에 가까 우니까—나 혼자서 표를 사고 그림을 구경하고 깨끗 한 식당에 들어가 천천히 밥을 먹는 것...

사실 이런 일들은 말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 었다. 이것이 서른이 넘은 내 자신에게 쉬운 일이 아 니라는 생각에 다시 화가 나기도 했지만 어찌겠는가. 나이가 80이래도 배를 건 배우고 시작할 것은 시작 해야 하니까.

『색깔있는 자유가 좋다』, 중앙M&B

다시 서른이 된다면 정말!

날개 달고 날고 싶어

그 빛나는 젊음은 다시 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겠네

우린 언제나 모든 걸 떠난 뒤에야 아는 걸까

세월의 강 위로 떠나보낸

내 슬픈 사랑의

내 작은 종이배 하나

양희은 노래/작사, 〈내 나이 마흔살에는〉 중에서

도 프로시대라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주문을 따라 외우고 있는 걸까. 아니, '나도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치라고 강요받고 유혹당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적으로는 성공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식순이나 부엌대기 성공담이다.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한 지도 모른다. 어딜 찾아봐도 일을 통해 성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처지에서 부엌에서나 성공하자고 위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얘기에 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조양희는 소설로 등단한 엄연한 소설가요, 글쓰는 게 직업인 여자다. 진짜 조양희가 전업주부였다면 이토록 치절하게 전업주부 노릇이 아름답다고 외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그녀의 말에 귀나 기울여 주었을까.

성공한 여성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얘기는 이렇다. 난 이렇게 극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으니 다행도 나처럼 하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정덕희 강의에 주부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의 신나는 성공담 얘기에 웃고 울고 공감하고 박수친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성공 없는 성공담뿐이다. 그저 성공은—난 성공했으니—신나고 아름답게만 '미화'되고 있다. 아무도 우리 현실에서 여성들이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불가능한지 얘기하지 않는다. 스스로 똑똑하고 잘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성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만 얘기한다. 자기처럼.

왜 이렇게 성공없는 성공담이 발에 치일까. 성공없

는 성공담을 읽는 독자들은 성공담의 유혹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방황한다. 성공이란 사망발령에 쉽게 현혹되고 성공주문을 따라 외우고 있다. '혹시나' 하는 바람 때문이다.

그러나 책 속에 그려지는 성공신화는 신화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성공의 서광이 내게도 비취질까하는 꿈을 버려야 할 때다. **III**



박혜숙

사회학, 여성학을 공부했다. 여성신문을 거쳐 동아TV 여성뉴스를 담당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기자로 '책쓰는 일'과 통신관련 기사를 맡아기 위해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용문서주하고 있다.

요즘 생활신조는 "잘임없이 움직여라" "일을 만들고 추진하라". 특히

무력해진다 싶거나 자신감에 종이 슬 때 "사람을 찾아다니라"라는 책책을 한다.

사람을 만나면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해 많은 여성들도 이제 가정 밖의 일을 통해 '성공' 하고자 하는 꿈에 대해서는 큰 용기와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 시대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내는 데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을 쓰면서 막연한 신기루를 잡는 허황된 성공의 꿈 대신 우리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면서 '비관적인 글 읽기' 등의 현실감각이 독자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 자칫 이 글이 성공담을 써낸 필자들에게 대한 안신공격이 아님과 더불어 괜한 오해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 나를 포함해 다른 이들의 성공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나 현실을 가리는 오해와 오류를 지적하고 싶었을 뿐이다.

삼십대의 자화상

"아. 아. 나의 삼십 세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커다란 상자를 똑같이
분할한 똑같은 공간에 갇혀
똑같은 동작을 하여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소름끼치는 예감과 함께."

양순석, 『서른 일곱 옥잠화』, 『서른살의 강』, 문학동네



넌 무슨 낙으로 살고 있니?

언젠가 어느 컴퓨터교육 안내
현수막을 보았다.

여성은 '삼십오세 미만만 수강 가능'이라고
크게 써 있었다. 그때부터 35라는 숫자는
내게 절망의 숫자로 다가왔다.
그 나이면 절대 '지금이 처음이에요'라고 말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혼자 극장 앞에 서있다. 마을 속에 작정하고
나온 길은 아니었다. 집에서 입고 있던 편한
청바지와 티셔츠에 지갑이 든 작은 가방을 메고 있을
뿐. 약속한 사람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으므로 발걸
음이 놓여지는 대로 왔을 뿐이다. 운이 좋다. 시간이
딱 맞다. 티켓을 끊고 들어가 편하게 앉아만 있으면
영상은 내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한시간반 정도는 금
방 지나가 극장 문을 나설 때면 날은 어두워져 혼자
나서는 나의 쓸쓸한 실루엣을 가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인형의 집으로 오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할 영화의
제목이다. 한 여자아이의 슬픈 성장기라 한다. 나는
본다. 끝나는 순간까지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감
독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일기장을 편다. 혼자서 본 영화 목록에 오늘 본 영
화를 적는다. 참 많다. 자투리시간이 날 때마다 발길
달는 극장에서 보았으므로 목록에 두서가 없다. 잉글
리쉬 페이션트, 디아볼릭, 회생, 내 친구의 집은 어디
인가, 일 포스티노, 바로 위엔 접속이라고 써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무심하게 묻는다. 무슨 낙으로 사
느냐고. 나도 지나가며 대답한다. 사람이 모두 낙이
있어 사나요. 그냥 살지요. 남편이 어깨에 손을 얹으
며 묻는다. 요즘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고. 나는 약
간 숨을 고르며 대답한다. 이름지을 수 없는 생각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어. 그냥 내 속에 있
는 생각과 남들이 사는 모양까지 시시껄껄하게 보고
싶을 뿐이야.

의미를 두어온 삶이 그냥 날 휘두르기만 하는 것 같
아서 지쳤어. 그러니 묻지 마. 더이상 내게 어떻게 살
거냐든지. 무슨 생각으로 살고 있는냐고. 잠시 그냥
살 거니까. 몸부림도 발버둥도 치지 않고 웅덩이에 고
인 물처럼 고요히 썩어가고 싶을 뿐이니까.

지금 나이 서른네살. 아이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
내년이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할 마지막 나이
라고 한창지어놓은 서른다섯살이 된다. 언젠가 어느
컴퓨터교육 안내 현수막을 보았다. 거기, 여성은 '삼
십오세 미만만 수강 가능'이라고 크게 써 있었다. 서
른다섯이 넘으면 저런 교육기관에선 컴퓨터강좌를 들
을 자격조차 없구나. 서른다섯이면 무언가를 시작하
기에는 정말 늦은 나이구나.

그때부터 35라는 숫자는 내게 절망의 숫자로 다가
왔다. 그 나이면 무언가를 이루고 서있을 나이이지.
절대 '지금이 처음이에요'라고 말하면 안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주어진 시간들에 충실하기만 하면 세상은 내게 대
가를 지불할 거라고 생각했다. 곁에 있는 사람에게 충

실하고 내게 맡겨진 그때그때의 일들을 열심히 해내
기만 하면 삶의 무늬를 무리없이 짜낼 거라고 생각했
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냥 나에게, 사람에게,
세상에게, 그리고 시간에게 충실하게 살았다. 물론 충
실의 의미는 상대적일 것이다. 모범생처럼 살지는 않
았다. 대학교 때, 책 살 돈으로 섬을 찾아 여행을 가면
서도, 낯선 섬에서 밤을 지새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나는 내가 인생을 탕진하고 있다거나 막 살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다만 졸업하면 아마 국어선생님이 될 거라고 다짐
을 했었던 것 같다. 교생실습을 마치던 날, 담당 교사
가 '꼭 좋은 선생님이 되실 거예요' 하며 넣어준 엽서
가 참 큰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선생님이 될 수 없었다. 중등학교 순위고사
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변명을 하자면 그때 여자 국
어교사는 서울에서 단 3명을 뽑았었다고. 그 수많은
지방생 중에 세명에 끼일 만큼 나는 우수한 여자는 아
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족을 붙이자면 그때 남자
교사는 65명을 뽑았다. 나의 남편은 그때 합격을 해서
이듬해 여교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알음알음으로 여성문에원인가 하는 사
설 문학교실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시나 소설을
배우려는 여성들이 주로 오는 곳이었다. 그녀들이 써
낸 글을 정서하고 강의하러 오는 강사집대 등이 내가
하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친구 두명과 함께 대학 교
수님께 시를 써서 보여드리고, 말썽을 듣고, 우리끼리
시집을 만들고 있는 중이었다. 나 또한 시를 쓰고 있
는 중이어서인지 그때 공부하러 오는 여자들이 예사
로 보이진 않았다. 좋게 보이진 않았다. 그때 당시 나
는 스물다섯살이 갓된 여자였고 그녀들은 삼십이나
사십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젊음의 치기였는지, 오만방
자였는지 그녀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다.
왜 저 나이에 시를 배우려 할까. 저 나이면 뭔가를 이
룰 나이지 시작하기에는 너무 추레한 나이이지 않는

가. 하는 생각에 그녀들에게 친절할 수도, 공감할 수
도 없었다. 훗날 내가 그 나이에 목이 메는 심정으로
다시 시를 공부하고 싶어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
하고 비웃고만 있었으니... 참 아이러니다.

시 쓰고 소설 쓰는 그녀들도 한심하고, 원고지의 그
녀 글들을 정서하는 나도 한심하고, 강의하는 강사도
한심하게 보였으니,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냥 싫었다.
마구 진저리를 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무렵, 피
로워하는 나를 보던 지금의 남편이 '이제
그만 결혼하자'고 했다. 저녁마다 만
나 희망없는 날들의 고통스러움
을 호소하는 내 모습을 너무
안쓰러워했다. 그는 원래의 꿈
이 교사였으므로 까르르 웃는 여
고생들과 나름대로 즐거운 날들
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타협
했다. 결혼하자. 그래서 잠
시 책이나 실컷 읽고 편하
게 살아보자고.

그래서 스물둘에 만난 그와 스
물다섯살 어린 나이에 나는 결혼했
다. 간혹 우리집에 들른 아이들은 참
많이 놀라워했다. 서랍마다 칸칸히 속
옷을 정리하고 옷장마다 철철이 분류해
놓은 계절 옷,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책들에 의아스러워
했다. 도서관에 가방을 둔 채로 부산행, 강릉행 기차
를 타던 여자, 발디딜 틈없이 쌓아놓고 살던 여자. 술
에 취해 줄줄 눈물을 흘리던 그 여자가 너 맞느냐고.
참 많이 달라졌다고.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어떤 친구
는 보기좋다고 했고, 어떤 친구는 '너가 원하던 삶이
이런 거였니?' 하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나고 많이 힘들었다. 그 연 내가 읽는
책에 오줌을 누기도 했고, 책을 찢었으며 아끼는 레코
드를 망치기도 했다. 내가 듣는 음악소리에 깨어나 울

있으며 영화라도 한번 보고 오면 피로적인 몸으로 나를 반겨서 죄의식에 빠지게도 했다. 피로에 걸려 톱툰 부은 얼굴이 가라앉지도 않았다. 그런 일들이, 둘째가 태어나고 두배가 아니, 세배가 되었다. 두 아이가 잠든 새벽이 아니면 혼자 있을 시간이 없었다. 누군들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선 더 이상 이야기 할 기운도 일의도 없다. 친구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했다. 책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이 통을 치워야 했고 간혹 마시는 술병을 열어대서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민망해하면서 우리 세 친구는 시 쓰는 일도, 만나는 일도 줄여갔다. 울지로는 나가 교정을 보던 날들이 아득히 멀어져갔다. 다섯번째 시집을 컴퓨터작업으로 펴내서 몇십권씩 나누어가지던 날, 나중에 만나자고, 그때 다시 써보자고 말들은 했지만, 서로가 성과없는 날들에 지쳐서 속마음은 아주 지겨워했다.

다신 쓰지 않을 거야, 이 따위 것, 이름을 내는 것도, 한푼 돈도 되지 않는 것, 다 집어치워버릴 거야. 나는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했다.

'쓴다는 것'에서 멀어지기 위해 그 다음부터 무진 애를 썼다. 아무 것도 되지 않더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 차고 넘쳤다. 그것이 쓰는 일만 아니라면 될 것이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시로서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것이 가슴 속에 상처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그것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을 쳤을 것이다.

아이를 키운 후에 남들이 겪는다는 '빈둥지 증후군'에 빠지지 않으려면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나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써 교사나, 시인 뭐 그런 쪽으로 눈도 주지 않았다. 아이가 유치원 간 시간에 홈페이지를 배워서 온 집안에 커튼부터 식탁보, 냉장고 테이블 일습을 만들어냈다. 또 양재를 배워서 딸아이 두명에게 원피스, 잠옷, 바지, 게다가 솜씨를 발휘해 조끼까지

만들어 입혔다.

서른세살이 되도록 베이비리션 이외엔 발라본 적이 없을 만큼 관심없었던 메이크업도 배웠다. 화장도구와 화장품 전체를 몽땅 사놓고 얼굴에 처덕처덕 발라도 보았고 그림 그리듯 그려보기도 했다. 그리고는 헤어커트도 배웠다.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기도 하고 날 믿고 머리를 온통 맡기고 앉은 남편 머리를 몽땅 망쳐서 느닷없이 남편의 머리가 스포츠형으로 바뀌기도 했다.

알 수 없는 허기에 쫓겨 살았다. 허덕이면서 뛰었지만 마음은 외로웠다. 끝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괴롭히면서 조리사과정을 다니기 시작했다. 4개월을 매일 아침부터 종종걸음 치면서 요리를 배웠다. 집에 와서는 기상천외한 요리들을 만들어냈다.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실기시험은 치뤄보지도 못했다. 이사와 아이와 살림 때문에 신새벽에 가서 치러야 하는 시험날 나는 코피를 쏟았을 뿐, 시험장에도 갈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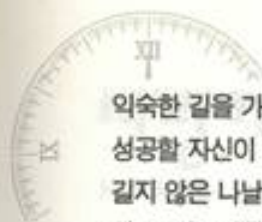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입술이 부르텠다. 자잘한 포도송이 같은 알갱이가 뭉쳐 입술 위에 두툼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런 어느 날, 몇년간의 내 행적을 소상히 알고 있는 나이가 좀 든 언니 같은 친구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말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구나. 왜 이렇게 좌충우돌이야. 아직도 길을 못 찾았어?

나는 무얼 생각했나. 아이가 큰 후에 뭘 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걸까. 익숙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성공할 자신이 없었다. 길지 않은 나날, 해본 일이라곤 읽고 쓰는 일뿐인데 세상엔 나보다 더 잘쓰고 나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천지이지 않은가. 자신이 없었다.

머리나 가슴 말고,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학벌도 소용없고, 다만 손과 발을 써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었다.

헛일이었다. 재미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다. 부끄른



익숙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았다.

성공할 자신이 없었다.

길지 않은 나날, 해본 일이라곤

읽고 쓰는 일뿐인데 세상엔 나보다 더 잘쓰고 나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 천지이지 않은가. 자신이 없었다.

입술을 하고 형틀어진 머리를 한 채로 기진해서 난 쓰러졌다.

세상이라는 톱니바퀴 중에서 아주 작은 나사로라도 살아보려 했었는데 참으로 힘들구나. 시간이 많이 흘러서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있었다.

어디에도 끼일 수 없는 소외감과 자격지심으로 심하게 위축된 채, 난 내 동굴로 돌아왔다. 별처럼 아주 작은 몸짓으로만 살아가자고, 마음가는 대로만 몸을 움직이자고 마음 먹었다. 어두워지는 저녁길에 우연히 찾은 조용한 찻집, 좋은 노래가 들리면 몸을 조그맣게 웅크려 푹 파묻힐 수 있는 편안한 소파, 편하게 마신 술로 붉어진 얼굴로 나서는 느껴지는 상쾌한 바람의 손길, 밀줄을 그어가며 읽어가던 책들, 마음에 맞는 구절을 냉장고 위에 써붙이던, 조용한 아침에 들리던 하덕규의 목소리, 혼자 가서 보던 쓸쓸하고 아름다운 영화들.

잠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허망하기까지 한 것들에 마음을 주고,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날엔 시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하고, 일기 같기도 한 글들을 썼다.

생전 처음으로 무슨 공모전에 글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보내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곳에선가 전화가 오고, 상을 받으러 오라기도 하고, 상품이 보내져오기도 했다. 내가 준 시가 노랫말이 되어 가끔 라디오에서 나오기도 하고, 먼 곳에서 친구가 내 이름을 신문에서 보고 전화를 걸

어오기도 했다.

신문에 팔과 함께 이름이 나기도 하고, 그 컴퓨터대회 부상으로 프린터가 오던 날, 남편은 고개를 가웃거리면서도 그 프린터로 명함을 만들어주었다. 결국 쓰는 일로 돌아오는구나.

멀리 지방으로 시집가버린 친구와 새로운 이야기를 나눴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 속에 우리가 집어치워버린 시집이 아직도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우리의 편지는 하염없이 길어지고, 사연이 깊어지고, 옛날 쓰던 시보다는 생활의 냄새가 나는 시를 서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글쓰기를 배웠다.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한 글쓰기를 시작했다. 다시 글을 끄적이게 되면서 혼자 술 마시는 버릇도 생겼다. 남편도 아이도 잠든 밤에 혼자 비디오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훌쩍 훌쩍 마시다 보면 그만 취해버려서 우는 날이 많아졌다. 나, 정말 서른세살이 되어 혼자 술 마시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공부가 끝나기 얼마 전에 일하기 시작했다. 남들 눈으로 보기에 6개월의 공부였겠지만 내겐 8년이 걸린 공부였다.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은 수시로 나를 괴롭혔지만 닥치는 대로 그냥 겪었다. 결혼한 후 몇개월간 학원 선생을 하다가 파로로 쓰러져 그만둔 후 처음으로 내 이름을 갖고 사람들을 만났다.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하는 일이 시시하다고 생각될 때, 내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되는 건 아닐까 염려될 땐, 그냥 나를 마음 속의 동굴로 집어넣었다. 다시 힘이 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 내가 너그럽게 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날 너그럽게 이해해주지 않으므로 안달과 조바심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쓸데없이 비분강개하는 일도 자제했다.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일만 하고 싶었다.

동굴 속과 세상 바깥을 왔다갔다하는 나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 좀 단순한 거 아니냐고, 혹은 조울증 아니냐고, 그 나이에 그 많은 열정을 다 어떻

게 하려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혹하게 말한다. 욕심이 너무 많다고. 여자 나이 서른넷에 아이 둘 얻었고, 집 한채 얻었고, 9년 동안 성실히 아이 키우다가 이제 수입은 적으나마 마음 붙일 일 하나 얻었으니, 그만하면 성공한 것 아니냐고 물끄러미 날보며 욕구불만이 아니냐고 묻는다.

난 간혹 밤을 새며 생각해본다. 내 안에 들끓고 있는 이것들을 모두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할까. 당당하고 자신있는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을 책 앞면에 그득 채운, 저 성공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형편없이 돌아돌고마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

나는 내가 어릴 적 꿈꾸던 사람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탓이 아니라고 발버둥치며 부인했지만 오롯이 나의 탓임은 이제 분명하다.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고, 끝없이 흔들려 온몸과 마음, 무언가에 목숨 한번 걸어보자는 결심이 설 때마

다, 부질없다고 부질없다고 속삭이던 또 다른 나의 마음 탓일 것이다.

근 열흘간을 써야 할 글 때문에 새벽 4시쯤에야 머리털이 곤두선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자료를 뒤적이다가 자료더미에 묻혀 코를 박고 잠시 눈을 붙이던 날까지 합하면 거의 보름을 그렇게 보냈다. 물론 그 글에도 나의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때로 그게 조금은 허무해서 다 관둬야지 하는 생각에 수없이 시달렸지만, 아마도 나는 이 일을 버리진 못할 것이다. 힘들어서 귀찮아서 하나씩 버리게 되면 결국 어느날 나를 통째로 버릴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나는 약삭같이 이 일을 붙잡을 것이다.

아니다. 정작 버리지 못하는 시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터무니없이 나와는 관계없는 글을 쓰다가 잠시 메뉴를 변경하여 들어가는 '나의 글'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글조차 어딘가에 이름을 내밀지는 않겠지만, 못하겠지만, 그 시간에는 내가 간혹 즐거울 때도 있으므로, 사람이란 때때로 스스로 위안하며 살아야 할 때가 있으므로, 나는 계속 쓸 것 같다. 버렸다가 찾은 옛사랑처럼, 가없이 하면서, 대견스러워 하면서 나는 내 영혼을 먹여살릴 것이다. **II**



권혁관

이제 버리는 것은, 더 이상 한 편의 시로, 한구절의 노래로 감동받은 영화 한 편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게 되는 일. 나는 너무 사소한 것에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므로 그것이 때로 허풍으로 보인다는 걸 알게 되는 일.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영원함은

너에게 나머지 영원이 되고 싶어'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다시는 '영원'이 되지 않는다고 조용하게 알려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일.

김승희, 『33세의 광세』, 문학사상사 중에서

사랑하기 벅찬 상대

신문의 구인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어내렸다. 회사명, 모집분야, 그리고 자격요건순으로 꼼꼼히 읽어나갔다. 그러면 영락없이 성별이나 나이제한쯤에서 읽기를 정지당해야 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더욱이 아줌마들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어야 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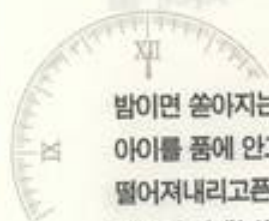
마침내 나는 이사 온 지 한달만에, 주머니가 빈 뒤에야 철없는 환상에서 깨어나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서야 아직도 멀쩡한,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물건들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처분해버렸다는 사실에 눈을 뜬다. 마음이 씩씩하고 부끄럽기조차 하다. 다행히 낫간 소비행각의 급류에 휘말리지 않고 그나마 살아남은 냉장고가 눈에 뜨인다. 어떻게 저 남은 걸 그냥 둔 걸까.

이사오던 날, 짐실은 트럭 앞좌석에 앉아 재래시장을 지나오면서 보았던 준비한 중고냉장고를 때문일까. 하나같이 대형이고 외양이 멀쩡한 물건들을 버린 사람들이 한심하다고 느꼈던 때문일까. 그 순간, 재래시장 한켠에 준비하게 놓여져 있는 중고 가전제품들을 쳐다보면서, 새것들에 밀려나야만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던 걸까. 버리지기엔 아직 너무 멀쩡한. 아니 어쩌면 삶의 연륜으로 더욱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프로,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하는 따위의 선전

문구에 내몰려 쫓기기 시작한 건 첫아이를 낳고 돌이 지날 즈음부터였다. 나는 육아와 가사의 단순반복적이고 고립적인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더욱이 삶의 형태가 결정되어지는 서른의 고비를 정채성 없이 위태롭게 맞이하고 싶지 않았다. 신문의 구인란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읽어내렸다. 회사명, 모집분야, 그리고 자격요건순으로 꼼꼼히 읽어나갔다. 그러면 영락없이 성별이나 나이제한쯤에서 읽기를 정지당해야 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더욱이 아줌마들이 이 고개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어야 했을까. 아리랑 고개인들 이보다 더 험한가. 나는 그래도 이를 악물고 뒤적거리려보았다. 생활정보지까지 샅샅이 뒤졌다. 무슨 아가방 꾸미기와 영상문화원이 그토록 성업인지, 온통 주부사원 특세에다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문구들이었다. 믿기지 않았다. 또 한번 농락을 당하는 기분이었다.

겨우겨우 연령제한 표기가 없는 곳을 찾아내 이력서를 준비했다. 대학졸업란까지는 쉽게 써내려갔다. 하지만 그 뒤에도 줄줄이 늘어선 여백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으로 이십대의 중반을 넘긴 내게 내세울 거라곤 없었다. 혼인하기 일년 전쯤 주간신문사에 다녔었다는 것이나 이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문학에 관심이 있어 어느 정도 교양이 있고 문장연습도 조금 했다는 것쯤? 웃음거리일 뿐이겠지..., 어쨌거나 나는 조악한 이력서에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붙여들고 나갔다. 월간지를 만들어내는 그곳의 편집장을 만났다. 자신만만하



밤이면 쏟아지는 잠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금방이라도 잠속으로 떨어져내리고픈 정신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잠들면 안돼! 애만 재우고 너는 일어나야 해! 소설을 써야지. 책도 읽어야 하잖아.

게, 그러나 겸손의 미덕을 겸비했음을 언뜻언뜻 내비치며, 때로는 수긋수긋할 수도 있다는 아침의 미소가 지 동반해 면접을 치루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회사를 위해 아이를 포함하여 모든 사생활과 인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외쳐야 했다. 사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까지 나는 눈치채지 못했다. 역시 낙방이었다. 나의 뒤통수는 어쩔자고 그렇게 예민하던지... 아줌마들은 골치 아파, 툭하면 애 아프다. 집안에 일이 있다. 출장은 곤란하다... 설득이며 내뱉는 그들의 혼잣말까지 읽어낼 수 있었다.

여러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때로는 노골적이고 때로는 우회적인 기혼여성 꺼리기, 혹은 늙은 여자 버리기. 능력이 출중하다고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이들에 비해 사회생활 경험이 더 있고, 나름대로 뚜렷한 철학적 사유의 바탕이 있다고 자부했던만.

보여주지도 못하고 보파리를 꾸려 도망나와야 하는 처지가 한없이 서글프고 비참했다. 낙심한 나에게 남편이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그깟 일자리, 소모품일 뿐이야. 몇년 안에 새 얼굴로 대체되지. 돈도 못 벌어, 보육료 내고 나면 뭐가 남아. 당신 소설을 쓰고 싶잖아. 차라리 거기에 정진 하라구."

한줄기 남은 희망은 바로 글쓰기였다. 어차피 평생을 가지고 다니기로 한 꿈이었던 것이다. 나는 덮어놓고 소설쓰기부터 했다. 하루에 원고지 10장 혹은 20

장씩 써내려간 첫 소설이 완성되었을 때는 제법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기쁨이란 잠시일 뿐. 새로운 고통이 내 가슴에 싹을 틔우고 있었다. 문학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무지와 무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었다. 글쓰기 일반의, 누구나 호소하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나에겐 무엇보다 시간의 부족함이 고통이었다. 읽어야 할 문학서적과 이론서적들이 산처럼 쌓여 등쪽에 매달려 있었지만 나는 하루 한두시간도 내기 힘들었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보니 끼니때마다 음식하고 상차리가 만만치 않은데다, 둘째 아기가 생겼다. 남편마저 박사학위논문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어 별반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소설창작을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어느새 아이가 깨어 울었다. 아침부터 밤 열두시까지 쫓아다녀도 가사일의 모리는 붙잡히지 않았다. 물려오는 파도만큼이나 쉽없이, 규칙적으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밀려오는 집안일, 아이 돌보기...

밤이면 쏟아지는 잠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금방이라도 잠 속으로 떨어져내리고픈 정신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잠들면 안돼! 애만 재우고 너는 일어나야 해! 소설을 써야지. 책도 읽어야 하잖아.

슬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일어나 책상에 앉아보았다. 그러나 잠이란 놈은 어느새 머리 꼭대기까지 나를 점령해 쿵쿵 이마찍기로 꿀탕을 먹일 뿐이었다.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하루에 두시간 이상 버티기로 작정을 했다. 때로는 책임기가 새벽까지 연장되기도 했다. 글쓰기에 몰입하다보면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기도 했다. 그렇다고 나 야근했으니 가족 여러분 오늘 아침은 없습니다. 혹은 아기들을 깨지 말고 잠만 주무십시오 할 수는 없었다. 드디어 몸살이 났다. 고열에 시달렸고 후유증은 일주일, 보름씩 갔

다. 그래, 무리하지 말아야지.

무리하지 않으며 보내는 시간은 잘도 흘렀다. 삼시간에 한달이 지났다. 책임기나 글쓰기에 전혀 진척이 없었다. 이러다간 세월 다 보내겠어. 다시 무리를 했다. 예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구. 스칼렛식 오기로 밤늦게까지 무리를 하다보면 다음 날의 하루는 엉망이 되었다. 늦잠 때문에 시어머니께 꾸중듣기가 심상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신경질적이 되었다. 그리고 또 다시 몸살, 후유증, 초조감과 절망, 다시 무리하기... 언제까지고 반복되는 일이었다. 마침내 한의사



를 찾아가 요즘들어 부쩍 감기몸살에 잘 걸린다고 호소했다. 한의사는, "충분히 쉬고 잘 쉬는 것만이 저항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한다. 그래, 무리하지 말아야지. 호호, 실소가 입술을 돌고 뱉죽 새어나왔다.

저녁에 지친 허리를 펴느라 누워서 잠시 텔레비전을 보았다. 어느 중년의 연극배우가 바쁜 스케줄을 털어놓았다. 사회자가 질문했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배우는 대답했다. 눈가에 잔주름을 자글자글 그

으며.

—무리하지 않고 되는 일이 있나요.

어느새 여배우의 웃음을 짓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나.

무언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고통인가 보다. 아니, '우리네 여자들에게 있어서만'이라고 해야 할까. 내 영혼의 들쭉심에 이끌려 문학을 사랑하자마자 이토록 서러운 배반을 당해야 하다니. 내 문학적, 예술적 능력의 부족으로부터 오는 좌절과 아픔은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문학이 주는 중압감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졌다. 아니, 차라리 잠이라도 싹껏 자고 싶었다. 깊은 수면 뒤의 나른한 행복감으로 내 아이들과 기꺼이 놀아줄 수 있는 생활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는 생각이 들 즈음, 비로소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협조—매주 목요일 저녁시간의 외출이 가능해졌다—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었다.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마련한 문학강좌를 수강하기로 했다. 조금 습통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특히 소설창작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작가들이나 지망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문학적 방향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을 얻었다. 그곳에서 만난 어느 여성작가에게 주부로서 글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작가가 말하기를, "글쓴다는 욕망을 조금 자제하고, 지금은 차분히 인생을 경험한다고 생각해요. 짬뽕이 책 읽으면서"라고 조언해 주었다. 그 역시 해결책은 아니었으나 도움은 되었다.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다.

조금 여유를 되찾아, 두루 평안하게 시간을 보냈다. 마침 동문회 회보제작을 담당하는 일자리가 생겼다.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직장에 나가기로 했다. 남편이 여전히 시간강사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었고, 또 매일 규칙적으로 출근해 일을 한다면 적어도 매일 2시간씩은 전철

서른의 나, 수영이냐 익사냐

이것이 내가 안을 미래였다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학입학 이후 십여년간의 시간동안 그저 부딪치는 현실에 격렬히 반응하며 살아오긴 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준비 하나 요량 없었던 내 젊은 날의 행적들이란 그저 치기어린 좌충우돌의 버라이어티쇼였을 뿐.

나는 서서 술을 마신다. 첫 잔을 마시고 뺨을 씻는다. 둘째 잔을 비우고, 볼 위에 술을 얹히고, 셋째 잔을 비운 다음은 다소 초조히 더 마실 것인지 말아 버릴 것인지를 결정한다. 아이들 밥을 먹이기 위해 장소를 이동해야 하니까.

왜 술을 마시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술을 한 잔한 후 밥술을 들면 번번이 손목이 휘도록 무겁다고 느꼈던 그 무게가 훨씬 가벼웠던 때문이었을까? 노하지 않은 채로 설거지도 마칠 수 있으며, 밥을 잊고 이어지는 아이들의 저지레에도 터지는 악다구니를 삼키고 대신 관용으로 나를 진정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어디대고 내 속내를 넘겨부우며 이야기할 말뼉 하나 없었던 상황에서, 도란도란 내 속의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처음 술을 마셨던 것이 언제더라. 열일곱살에 들어간 여학교를 한 학기만에 그만두고 남녀공학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게 '여자여 안녕' 인 줄 착각하면서... 남녀공학에도 여자는 있고, 그런데 그 여자

애들이랑 다른 내가 되고 싶었던지라 서슬퍼런 이념싸움으로 직행했다. 여자아이들의 조잡한 관심사로부터 나를 분별해내어 역사나 민중 격정에 여념없는 무리들 속에 끼워넣고는 그 차이를, 간극을 즐겼던 것 같다. 술을 많이 마셨다. 여성적인 것을 경멸하느라고, 5미터 앞에 떨어지고마는 돌던지기를 포기하게 되자, 마셔도 마셔도 취할 줄 모르는 주당이라도 되고 싶었다. 남자아이조차도 굶어 보는 주당이 되고 싶었다. 그렇게 술을 퍼넣으며 나는 여자가 아니야. 나는 여자가 아니야 주술을 걸었다. 술을 마시는 일은, 웬 번개불로하여 왕자와 거지가 바뀌고, 인간과 개의 운명이 바뀌는 체인지의 체험처럼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는 시한부 모의실험과도 같았다. 내게 술은 그랬다.

마음자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의 만사에 대해 긴장부터 하기 일쑤인 나는 자연스런 마음의 이완이 쉽지 않았다. 불안한 자기정체성과 그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자기 바라보기의 곤혹은, 땀으로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을 갈수록 어렵게 만들었고 그럴수록 더욱 술에 탐닉했다. 그때 난 언어를 통한 소통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의 일차적인 통로라고 믿었다. 술을 마시면 말에 두서가 없고 비뚤대기만 하는 내 혀에 날개라도 달린 듯, 맺고 푸는 부드러운 혀의 운용이 가능하다고 착각했고, 내 말놀음에 내가 취해 감동해 마지않을 때쯤이면 이미 술자리는 파장 무렵이곤 했다. 반박논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논리를 앞세운 악의 무리들을 응징하여 심판한 뒤, 비논리의 환타스틱한 해방구를 세우리라 악을 쓰다가, 술의 전능이 바래지고마는 창백한 시간이 오면 나는 다

안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 계획 역시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다. 직장일과 가사 일을 둘 다 처리해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밤이면 더욱 곱아떨어졌다. 전철에서 역시 틈만 나면 꾸벅꾸벅 었지도 없이 졸곤 했다. 일년을 넘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되어 마침 분가를 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지면서 그나마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상사가 늘 근무시간 이후의 업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이어서 더 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자리잡힌 직장인도 아니고 아직 작가로 정식 등단도 하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알뜰하고 규모있는 살림꾼도 아니었다. 나는 아주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사를 날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시장열 들락거렸다. 마침 무슨 마트라는 이름을 내건 창고형 쇼핑센터가 들어서 오분이면 되는 거리에 있으니, 아무 때고 드나드는 습관이 생겨버렸다. 정말이지 없는 게 없었다. 가전제품은 물론이거니와 소소한 부엌용품이나 옷가지까지 정연하게 분류해놓은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들을 집어들어 바뀌달린 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되었다. 헨젤과 그레텔이 마녀의 집에 들어가 멋도 모르고 과자를 먹어대는 것 같은 소비행위가 계속되었다. 돈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새것으로 갈아치우고 싶었다. 심지어는 나 자신마저도...

나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부글부글 끓는 영혼의 찌꺼기들을 쏟아내고 싶었다. 일기를 쓰기로 했다. 그 때, 결국엔 글쓰기만이 나를 위로하는군. 그것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밤을 설치며 상처받았으면서도.

"어머, 뒤늦게 신혼기분 나겠네. 어때, 좋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한 뒤 여기저기서 전화가 쇄도한다. 만 육년을 시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분가를 했으니 얼마나 흥분분하냐. 가전제품부터 부엌도구까지 새것이니 신혼이 따로 있겠느냐. 새아파트에 입주했으니 집들이라도 해라. 하는 식이었다.

"그래, 아주 꿀맛이다. 부럽지?"

너스레를 떨며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신혼의 새내기처럼 다시 글쓰기를 사랑하고 싶어. 또다시 아픔이 되어 나를 매만하겠지만, 아.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벅찬 상대여. 언제나 나는 당신에게 맘껏 전념할 수 있는 걸까요? 11



김재연

뽀뽀하 창작을 한담시고 말을 놓아 놓은 적은 있지만, 이처럼 사실적인 글을 써서 누군가에게 내보이는 건 처음이다. 생김자처럼 아릿한 가운데도 속 시원한 글쓰기였다. 왜 일까?

아이도 누군가와 진솔한 내면의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었

지. 11는 길이 사견 친구처럼 느껴진다. 숨겨진 사연이나 고통, 혹은 비밀스런 욕망까지 서슴없이 대하할 수 있는 친구. 누군가 내 일기를 읽고 맞아, 그거야. 너도 그랬어 하고 공감해준다면 좋겠다. 그런 사람과 담장에 만나 차 한잔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30대의 팍세

아래 다가오는 이 계절만 지나면 나는 꼭 서른살이 되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거, 그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아픈 기분일 거야.

그러나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낙조를 찾아다니며 바라보기에

내 나이는 아직 너무 젊지?

조경란, 『식방금의 시간』, 문학동네 중에서



시 불안증과 자책감으로 해마다가는 해저물속 술자리에 사평정을 찾곤 했다. 소용을 갈망했지만 '안과 밖'의 문계에 지나치게 천착했던 나는 '어서 모여 함께 앞으로 가자'는 운동의 대외에 녹아들지 못해 이리저리도 저리저리도 못하는 굳은 설탕 알갱이마냥 끈적거리기만 했다. 합리의 세계, 논리의 세계를 관장하는 언어가 내게만은 관대한 것 같진 않았고, 관계맺기와 언어에 대한 나의 강박증은 예정된 한계에 부딪쳐야 했으며, 여전히 항상 노출증과 답답증을 품고 해마다 나는 좀더 도량넓은 촉매(觸媒)를 만나 나를 녹여내고 싶었다. 또 다른 언어가 필요했던 것이다. 언어는 소통이니까, 너와의 관계맺기니까, 나는 들고 있는 창끝만 바라보고 달리는 용사처럼 무모한 결정과 그 실행을 되반복했으며 그로부터 7, 8년의 시간을 빙 돌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전보다 더욱 답답했다.

그러는 동안 언어에 대한 강박증이 잊혀졌던 것일까? 결혼으로 마음을 잡고 싶었지만, 결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알지 못했다. 신혼여행길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 같고, 신혼방에 꾸그리고 앉아 오지 않는 남편 기다리다, 비가 올라나 눈이 올라나 역수장마 지러나야 궁상스런 정선아라리 틀어놓고 엄마가 해준 빨간빛 공단이불 위로 수놓아진 원앙수를 한땀한땀 들어내며 올던 날 밤에도 훌쩍훌쩍 술을 마셨다. 스스로 돈을 벌지 않고 남편의 벌이를 받아쓰는 일에 익숙치 않았던 나는

첫 아이를 낳자마자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친정어머니가 도우셨다. 그나마의 규칙적인 생활들이 시작되었지만 가슴은 자꾸 찢어미를 안은 듯 막막해져 갔다. 큰아이를 낳은 지 채 넉달이 되지 않아 또 다시 임신울 했고 그 왕성하기만한 생산력에 스스로 어이가 없었다. 연년생의 사내아이들, 몸조리를 하면서, 남편도 없고 친정 어머니도 안계실 때 그렇게 셋이서만 남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왔다. 공포란 그런 것이었다.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셋이서 그렇게 울었다.

이것이 내가 안을 미래였다고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대학입학 이후 십여년간의 시간동안 그저 부딪치는 현실에 격렬히 반응하며 살아오긴 했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준비 하나 요량 없었던 내 젊은 날의 행적들이란 그저 치기어린 좌충우돌의 버라이어티쇼였을 뿐, 빈쪽장이로만 남아 손아귀에서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연구소에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던 남편은 밥벌이와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아침이면 이 아수라 같은 소굴을 벗어나서 사람들과 만나 일하고, 공부하고 다소 지쳐서일지라도 지적인 충전을 하고 돌아오는 그가 부럽고 미웠다. 그의 기쁨이 진정한 내 기쁨으로 동화되진 않았다.

결혼 전 나는 준남성이었고 딱하게도 술을 통해 그것을 입증하려는 무모한 객기로 소일했었다. 그렇지만 폭력적인 만큼 갑작스레 맞닥뜨려진 육아기간은 나는 여자일 뿐이란 주홍글씨를 가슴에 지저놓은 것만 같았다. 동시에 그 인두는 내가 세상과 관계 맺고 있던 속수들조차 끌어내고 나를 이 가정이라는 오지에 유배시켰다고 믿었다. 사람들 속에서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으며 우울증이 깊어갔다. 나를 충전할 시간이 절실하게 느껴졌지만 두 사내놈 치다꺼리로 갑작스레 머리카락이 허여지시는 친정어머니를 더 파먹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한번도 진심으로 받아 들여지지 않은 가사일은 헛돌기만 했고 나는 늘 내가 임해 있는 현실에 눈을 맞추지 못한 채 마음을 허둥대며 다른 곳을 해마다 현실

에 돌아오면 분노만이 나를 반겨 충수었다.

살이 찼다. 첫 출산 이후 몸이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임신하였으므로 몸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변태버린 모습은 그 이전의 나에 대한 추억이나 회상마저 끼어들 여지가 없는 단호한 질적 전이(轉移)라고 굳게 믿었다. 머잖아 나도 영화 <길버트 그레이프>의 그 어미처럼 되리라 생각했다. 살이 너무나 찌벼벼서 이미 집의 문틀을 통과해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버린 불박이 인생의 여자. 자꾸만 살이 찌가는 나를 보며 다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불가역성을 때론 저주의 쾌감처럼 받아들이며 먹고 또 먹었다.

공구를 사들이고 합판을 주워 날랐다. 자르고 썰고 박고 눈을 부릅뜨고 힘들여 무엇을 해대지 않으면, 노란벽을 긁게 될 것만 같았다. 유행하는 드릴 소리에 아이들이 자지러졌다. 그렇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추고 싶지 않았다. 너희들 때문에 더는 멈출 수 없다고 속으로 소리를 내지르며 드릴소리로 애들의 울음소리를 덮어 씌웠다.

아파트 베란다에 기대서 밖을 내다본다. 아이키우기에 털끝만치의 예려도 없는 여자들이 이리로 저리로 지나가는 것을 본다. 차를 몰고도 가고 종종 걸여가기도 한다. 방과후 아이의 스케줄, 과외교사의 공급과 질의 체크, 그 일탈없는 관리능력이라면 웬만한 사업체의 관리자로 입신하고도 남았을 여자들. 자신의 뛰어난 관리 감각을 아이의 생활에 다 던져서, 터럭 하나 오차없는 훌륭한 인생으로 영도하기 위해 애쓴다. 나는 훌륭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 엄마에게선 엄통 옆에 붙은 장기 하나가, 자신을 어여버 여기는 기능을 하는 장기 하나가 모성의 이름으로 도려내졌으리라 생각했다. 그 장기가 잘려나간 부위가 흉하게 엉겨붙고 그리 돌아야할 양분과 피가 엉뚱한 데 과도하게 몰다 마침내 종양이 되어 터질지도 모른다고 빈정거렸다.

또래의 몇몇 여자들과 만나 경험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승동이 트였다. 유년부터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서 다시 바라보기를 한다. 서로의 이야기를

연년생의 사내아이들, 몸조리를 하면서, 남편도 없고 친정 어머니도 안계실 때 그렇게 셋이서만 남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왔다.

공포란 그런 것이었다.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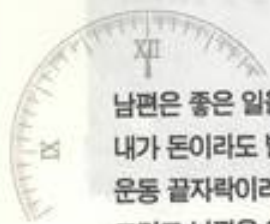
셋이서 그렇게 울었다.

들으며 너의 삶을 판단하고 규정하는 대신 '너 역시 그렇게 아팠구나', '그래 많이 고됐겠다', '너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의미가 있어' 하게 된다. 그런저런 80년대를 거쳐와, 이제 별 수 없는 아이엄마로 제 몸을 굴러야 하는 서른줄이라는 그 공통의 매듭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눈물이 그러그랑해지도록 했다. 광폭했던 시절, 연대해야 한다는 당위는 압박해왔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타인에게 열어보이지 못했고, 그것이 선과 악의 잣대라고 여기며 사람과의 관계에 좌절했던 나는 비로소 30대라는 상처의 통과(通過)례를 치뤘던 뒤, 또 다른 사람의 상처와 만나며 공명(共鳴)해가기 시작하는 것일까? 나와 똑같은 아픔을 너 역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두꺼운 비늘로 둘둘 몸을 말아 감싸고 있는 천산갑의 피해의식과 자폐의식으로부터 여유로워지도록 했으며, 그토록 나를 시달리려 하던 나쁜년 콤플렉스도 객관화시켜갈 수 있었다. 벗어 던져서 폐기처분하고 싶던 '여자'라는 이름에 이제 온기가 도는 것 같다.

어릴 적 보았던 만화영화로 뱀, 배라, 배로 주연의 요괴인간을 잊을 수 있을까. 실험실의 비이커가 깨지면서 끈적한 유기체가 책상을 타고 흐른다. 사람이 되고 싶으며 너에게로 다가가는 그 절박한 흐름. 나는 내게서 술의 존재가 그러하다고 믿었다. 각질을 깨고 너에게로 다가가는 액체. 그런데 술을 통해서만 일시적으로 풀어낼 수 있었던 내 코드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7]

이연혜(가명)

투쟁을 접고 모험을 시작하며



남편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돈이라도 벌어 남편을 통해
운동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남편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헤어졌지
운동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만두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하늘을 보면 눈물이 나던 때가 있었어. 아니
눈물이 나와 하늘을 올려다 본 것일까.

집을 도망쳐 나왔어. 그래도 두렵지는 않았지. 꿈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거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팠어.
아침이면 카펫에 흥건히 물이 묻어나던 지하 셋방에
서, 그래도 아침밥은 꼭꼭 챙겨먹고 사과 한쪽까지 입
에 물고 출근을 했었지. 잔업, 철야 해서 나는 17만원
을 받고 함께 살던 친구는 8만원을 받아와 우린 분노
를 안주삼아 소주를 먹었어. 울분으로 먹은 술, 기쁜
일로 먹은 술, 그냥 먹고 싶어서 먹은 술로 술병이 한
다라이가 되어 빈개탄으로 바뀌오면서 우린 질질대며
웃었었지.

이 공장 저 공장 쫓겨다니다 마지막 공장에서 다른
친구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데 함께 참가하여 또 해고
되었지. 2년 가까이 복직싸움을 하는 중에 지금의 남
편과 동거를 시작했어. 쥐가 나오는 재래식 화장실과
늘 아궁이 불을 살피야 했던 시절. 험겨웠지만 복직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고 격려해주고 재미있었
던 것 같아. 돈은 그야말로 최소한만 필요했어. 그때
아르바이트삼아 보험영업을 했어. 시간이 많이 필요
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다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복직싸움은 정리되고 결혼을 했지.

어디서부터 어긋났을까?

스물여섯 전까지 나는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로
살고 싶었지. 그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
했어. 남편은 계속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난 일이
없어진 상태에서 자연스레 돈을 벌게 되었지. 가정경
제를 떠맡게 된거야. 아르바이트로 시작된 보험영업
이 내 직업이 돼버린 거지. 7년이야, 아주 긴 시간이
흘렀지. 처음 몇년간은 답답했지만 희망이 있었어. 이
렇게 계속 살지는 않겠지 하고, 그러다 깨달았지. 그
것은 희망이 아닌 몽상이었음을. 늘 갈래갈래 생각만
뻗치고 나이만 먹어버렸음을. 지금의 나는 실력도 없
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남편과는 술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많이 다
뤘지. 일방적인 내 바가지였지만, 돈 이야기는 서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하지 못했지.

어쨌든 남편은 좋은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돈이라도
벌어 남편을 통해 운동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남편은 워낙 확고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헤어졌지 활동을 그만두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만두는 것은 바라지 않았고.

또 여자가 돈 벌면 어때? 하는 생각도 있었어. 꼭

남자가 가족부양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 너무
즐겁지 않다고 느낄 땐, 직장 다니는 많은 남자들이
어디 즐겁게 다니겠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하
며 스스로 위로했지.

그러다 나이도 차고 아이라도 낳아야 겠다는 생각
이 들었어(아이를 갖고 싶기도 했고), 아이를 키우면
서, 나는 아무 것도 안한 게 아니야. 아이를 이만큼 키
워놓았어 하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곤 했지.

아이를 낳으니가 가정경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
어. 불안해진 거지. 욕심도 생기고.

정말 여자팔자 뒤용박팔자구나. 나도 돈 잘버는 남
편 만나서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는 열망에 한동안
괴로웠지. 갖다주는 돈으로 수영도 하러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돈 쓰는 재미도 좋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이 생각은 금방 없어졌어. 오히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았지. 난 다만 내 두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
고 있는 가정경제 책임을 반만쯤은 덜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아볼 여유를 얻고 싶었지.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데 해서 뭐하지? 뭐가 될 수 있지? 아이가
혹 잘못 큰다면 그 어떤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고 말
이야.

넌 아직도 돈 때문에 힘들어 보지 않아서 배가 부른

거야. 그냥 애나 잘 키우고 살자고 스스로에게 이야기
하기도 했지.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 강박관념 아닐
까? 이 세상 누가 그리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까.

남편이 성공하면 그 성과를 함께 나눠가질 수 있
을 거야 하고도 생각했지.

친구들은 네 성격에 얼마 못 다닐 것 같더니 오래도
다닌다고 했고, 대단하다고도 했지. 친구들이 너 참
용하다고 했을 때 난 늘 이야기하지. 그냥 어쩔지 못
해 버렸을 뿐이라고, 절대 잘하지 못했지만 저속 조금
하고 먹고 살 만큼 돈이 되었기에 그만 두지 못한다
고, 보험영업은 정말 나에게 돈벌이 이상은 아니었어.
이게 사치스러운 투정이라고 말할지라도 내겐 그래.
열심히 보험영업하는 분들이 존경스럽지만 나는 자궁
심을 가질 수 없었어.

친구들이 아파트 장만하는 걸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하고, 아이에 대한 애뜻함에 내가 아이
를 놓아주지 못하고!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어린
이집에서 수영장에 갔는데 난 걱정되어 일찍 일을 끝
내고 수영장으로 달려갔지. 그런데 아이는 너무도 잘
놀고 있고 나에겐 관심도 없었어. 나는 묘한 배신감.
이젠 아이에게 줄 줄 끌려다닐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



돈도 있어야 하고 아이도 놓치 못하고 뭔가 새롭게 일은 시작하고 싶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지. 남편의 일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로 하자. 그러면 내 일은 보잘 것 없는 뒷전의 일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은 자기 좋아서 하니깐 나같이 숨이 막히지는 않겠지. 부부는 동반자라고 했는데 그 반쪽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데 애써 눈감는 남편이 너무 밉다고.

남편은 자기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도 가정경제의 절반을 책임질 테니 더 밑바닥 생활까지 내려갈 각오 하고 하고 싶은 일 찾으라고 했지.

남편 말도 맞지. 난 더 밑바닥 생활이 두려웠던 거야. 남편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며 집안일의 많은 부분을 같이 해왔고 아이도 나보다 더 잘보고 예뻐하지. 내게 많은 조언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나의 일'을 목말라하듯 남편의 일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싶어. 이 기적인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고통스러울 때 진심으로 내 처지가 되어 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지 않았어. 내가 스스로 날 돌보지 않으면 뉘 돌리고 투정이 될 뿐이지.

성공! 나도 하고 싶다. 하지만 난 지금 준비된 게 아무 것도 없어. 이것저것 포기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지? 하고 미리 단념했지. 나는 이러하고 저러해서 할 수 없어 하면서 끊임없이 합리화하고(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미처버릴 거다)...

눈에 보이는 성공에 매달린다면 난 더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며 그래.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것은 좋은 거야 하다가도 아침에 눈 뜨기 싫었던 그 슬픈 날들을 이젠 접어야겠어. 끝없는 생각의 저울질도 이제 조금만 하고.

다행히 내게 모아놓은 조금의 돈이 있다. 아파트 장만하는 데 보태려고 했던. 하지만 이 돈을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내게 투자하겠어. 난 아주 모험스러운 일을 시작하고 있어. 서른셋의 나이에 말이야. 어느 회사에서 광고기획일을 맡았지. 모든 일들이 힘들고, 시작할 때처럼 좋지만은 않기에 실망할 지도 모르겠지만 미리 걱정하지 않겠어. 난 지금껏 너무 많은 걱정만 해왔거든. [1]

김우림(가명)

왜? 왜? 왜?

나는 영원히 저 높은 곳의 '예술'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이 저 높은 곳의 예술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에 나는

원장찌개를 끓이며 아이의 똥을 닦아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나. 와신상담?

난 이미 그럴 기력도,

그럴 시간도 없는 아줌마인 걸.

밥 먹은 걸 대충 치우고 컴퓨터 앞에 앉으니 온 몸이 벅찬 게 거대한 줄음의 산이 물려왔다. 으— 기지개를 한번 켜고 뻗은 데 없나 한번 보고 돈 들어온 데 없나 괜히 은행에 전화해보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는다. 몇시간 남지 않았다. 지금이 오후 2시니까 6시까지 네시간 남았고 휴—, 한시간에 5백씩 써야겠구나.

오늘 저녁엔 아들녀석 친구들이 온다는데 조금 일찍 나가서 장을 봐야겠군. 시간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뭘 해주지? 엄마들도 따라나서면 어찌지? 반찬도 없는데... 후식으로 과일이라도 내놓아야 할 텐데 돈이 모자라네. 아침에 이불은 개고 나왔던가? 결례는 아무 데나 널부러져 있지 않은지? 아무래도 오늘 이 글을 끝내려면 밥 새워야 할 것 같은데. 날씨가 추워졌는데 겨울옷은 꺼내지도 못했네. 아! 전기요금은 또 날짜를 놓쳤네. 자동이체하라고? 통장에 돈이 제대로 있는 적이 있어야 자동이체를 하든지 말든지...

이런 잠생각을 할 때가 아니다. 나는 얼른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했다. 첫 문장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97년 한해 동안 주목할만한 활동을 한 작가들(미술가)이라... 갑자기 며칠 전 느꼈던 당혹감과 수치심이 다시 한꺼번에 몰려와 얼굴이 달아오른다.

"누나, 올해 중요하게 보였던 30대 작가들 추천 좀 해봐요."

"음, 글씨, ○○○, △△△, □□□, ▽▽▽ 그 정도지 뭐."

"에이, 그거밖에 안돼? 너무 편하다. 누나 정말 너무 폭증해 산다. 내가 다시 전화할게."

옛날에 같은 조직에서 공부했던 이 후배는 잘 나가는 미술잡지사 기자이다. 문제는 전화로 끝나지 않았다. 그나마 나를 키워준답시고 억지로 필자에 끼워넣어준 것까지는 고마웠다. 특집 꼭지라 필자들이 모여 간단한 모임을 가졌다. 필자들은 거의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다. 옛날옛적에 같이 술을 마시며 '예술'에 대해 난상토론을 하기도 했던. 내가 '잘 나가기만' 했었다면 서로 경쟁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남자들'! 그러나 각자가 추천한 작가들의 이름이 거론되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나의 사적인 친밀감을 떠나 아주 낯선 모습이 되어버렸다. 내가 아는 작가들은 한명도 없었다. 내 차례가 되어 내가 추천한 작가들 이야기를 꺼내자 그 후배는 다시 "편하다. 진부하다. 그래 그나마 선명해서 좋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아무도 내가 거론한 작가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들이 없었다. 점심을 먹으러 갔다. 모두들

30대의 풍경

K씨. 당신은 서른 가까이 되든 해에 당신이 하고 있던 디자인 사무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인생의 타협점으로 결혼을 했다고 썼습니다.

첫아이를 낳을 때까진 그럭저럭 행복했다고도 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세살이 된 지금은 매사가 무기력해서 하루하루 건디는 일이 고통스러울 지경이라고 했어요. 바깥에서 활발하게 일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부럽고, 나는 왜 그렇게 일찍 결혼과 타협했다는 후회로 하루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무슨 일인가를 시작해보고 싶지만 이제 사회와의 적응력이 떨어져 도저히 다시 사회로 나가는 일을 꿈꿀 수도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인지 어느 때는 남편과 아이가 당신의 삶을 파먹은 사람들처럼 보여 미워지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아젠 집에서 아이나 보고 밥이나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슬퍼했지요. 그런 하루하루의 반복이 남은 생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눈물까지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요, 삶은 한번뿐이지요. 그래서 인생 전체에 양면이 생기는 법 아니겠는지요. 자신이 간 길이 있으면 가지 않은 길이 있죠. 사람들은 꿈이 자신을 배반했다고 느낄 때이면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생각합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가지 않은 길은 환상이 보일수록 더 눈부셔 보입니다.

신경숙, 『색깔있는 자유가 좋다』.

중앙 M&B 중에서

내가 보지 못한 전시나 작가들에 대해 얘기했고 특히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많이 얘기했다.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취직 좀 시켜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었다.

며칠 후 그 후배가 또 전화를 했다. 나의 약력을 묻는 질문이다. "너무 약해. 다수의 글? 몇개의 전시 기획? 대표적인 글과 대표적인 전시를 말해봐." "아! 그러게 내가 뭐했니? 나 전시기획한 거 없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나 긴글 쓴 것도 없고 책낸 것도 없어. 됐니? 나 배려면 배!"

나는 소위 '프리랜서'이다. 프리랜서 미술평론가(freelancer art critic). 이 말처럼 맛있는 것이 어디 있을까. 직장 상사 눈치보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시간내어 전시도 보고 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전시기획도 하고! 게다가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양있고 맛있는 '아티스트',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지식인들이지 않는가. 내가 노는 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지극히 낮은 일터가 아니라 아트 세계, 지성의 세계이지 않는가. 미술관에는 경쟁한 선배, 후배들도 있다. 노트북 컴퓨터도 있고 내 전화기도 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쓰는 사무실도 있다. 졸업은 못했지만 대학원까지 다녔었다. 긴 글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글도 쓰고 전시서문도 가끔 쓰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들도 꽤 있다. 게다가 나는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고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산다.

여기까지 늘어놓으니 나처럼 성공한 여자가 또 있으려나. 그러나 나는 현재 엄청난 열등감과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다. 왜? 왜? 왜?

왜냐면, 앞서 말한 대로 그 미술잡지사 후배기자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의 미술관에서는 나를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프로의식이 부족한, 공부가 모자란, 폭이 좁은, 가정에 얽매인 여자... "쫓쫓, 공부 좀 더 해야겠어", "사람들을 너무 몰라", "아니나 할 수 있겠어?"

예전에 나와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이나 후배들은 모두 한자리씩 차지하고 사회적으로 웬만한 위치에 있다. 유학을 간 사람들도 많다. 그들 역시 돌아오면 훌륭한 직장에 맛있는 호칭으로 불리울 것이 너무도 확실하다. 그들은 나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길까?

게다가 나는 돈도 없다. 이것은 가장 위기감을 조성하는 요인이다. 내 나이에 저축해놓은 것도 없고 집장만은 요원하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그것은 우리가 돈을 모아 정당한 집이 아니다. 그것도 야금야금 거의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내가 일을 잘 해나가기 어렵게 하고 자신감을 잃게 하는 두가지 키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들어와라",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밖으로 나돌면서 가정은 내팽개친다."

"낮에 일하고 밤에는 들어와라?"

나의 통근시간은 저녁 7시. 어린이집에 맡겼던 아이를 찾아가는 시간이다. 그 이후의 시간은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다. 부랴부랴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해서 저녁상을 차리면 8시~8시반.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치우면 9시~9시반. 빨래를 널고 개기고 이것저것 제자리에 놓고 치우고 아이와 놀고 씻기고 재우면 11시~11시반. 저녁나절

나의 사고는 전업주부로 돌아가 한치의 구멍도 없이 오로지 집안일에 묶여 있다. 저녁 시간은 전화 한통 할 새 없이 지나가버린다. 어쩌다 전화라도 걸어진다면 그만큼 내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늦어질 뿐이다. 하루종일 쉴 새 없이 일하다보니 11시반 되면 자야 하는 아줌마가 되어버렸다.

아침에는 더욱 바쁘다. 아침을 차려서 다같이 먹고 씻고 집을 나서는 것이 왜 이리 바쁜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오면 11시~11시반. 커피 한잔 마시고 전화 몇 통화 하다보면 점심시간. 밥을 해먹고 컴퓨터 앞에 앉는다. 이것저것 글을 쓴다. 그러다 보면 아! 이 전시를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이 작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 작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미술계의 이슈는 무엇일까? 어떤 책을 봐야할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문다. 책상머리에 앉아 혼자 공공거려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나가 볼까? 전시를 보러, 사람을 만나러 주섬주섬 나가본다. 전시를 보다가 사람들(작가, 평론가, 큐레이터 등)을 만난다. 얘기를 하다가 길어진다. 이제 진짜 속내들을 드러내는 시간이다. 저녁식사 얘기가 나오고 술이나 한잔하자 얘기가 나온다. 모두들 오케이다. 나? 선뜻 대답이 나오진 않지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일단은 따라나선다. 대부분 일어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작가이건 평론가이건 큐레이터이건—남자이거나 미혼이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자인 경우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긴 경우였다. 나같이 불안해서 시계만 바라보거나 엉덩이를 들쭉거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그런 경우라도 작가인 경우는 봐주게 되는데, 나처럼—평론가 혹은 큐레이터를 지망하는 경우—사람들과의 '교제', '사교'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우 비판적인 시선으로 본다. 아닌 말로 작가들은 개인적인 열악한 환경이나 심리를 혼자 작품으로 풀어

사회에서는 나 같은 여자들을 보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밖으로 나돌면서
가정은 내팽개친다. 그럴바엔 집에 들어앉아
아이나 잘 키워라"고 말한다.
내가 돈을 요거밖에 못 버는 게 내 탓인가?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며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론이나 행정가가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그것을 내세워봤자 무능력에 대한 변명밖에 안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실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

"너 그래 가지고 큰일 못 한다", "인생관을 바꿔라", "왜 그렇게 사니" 등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집에 가기 위해 일어서야 한다. 나의 복잡한 심경을 감히 헤아려달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이다. "너 그렇게 안달 안해도 아이는 건강하게 더 잘 자라. 너 아이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마라"라고 말해주는 것은 내가 일해야 하는 바로 그 관의 사람들이고, "너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잘 크겠냐"고 말해주는 것은 나의 가족들이다. 한번은 내가 이런 자리에서 늦게 되었는데, 잠시 집에 전화를 했더니 마침 집에 들른 친정엄마가 노발대발하며 "아이가 팔을 다쳤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가 팔을 다쳤는데 어미인 네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아이의 팔은 부러진 정도도 아니었고 아프면 가족들이 얼마든지(아이 아빠도 있었는데) 가까운 병원에 데리고 가면 될 터인데 모든 게 내 책임인 양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니 기가 막혔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빠진 팔을 한번 휘하여 맞추더니 가라고 하였다.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만하자.

이미 이 관은, '예술'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고 자



신만의 시계가 있다. '공식' 보단 '비공식'이 우월한 세계이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과 별 관련이 없는 것이 그 세계이다. 거기에 내가 맞추지 못하면 나만 도태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

나보고 '아줌마들' 틈에서 놀지 말라고 충고해주는 선배들도 있다. 우국충정에 주변부, 마이너를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그들은 결혼하기 전의 내 모습을 기억하며 나에게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는, 진정으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들이 나에게 중심을 향해 뛰라는 것이다. 나는 그런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순진한(?) 생각. 아니 아니 그 이전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는 나의 이 열악한 환경이 나를 좌절시킨다. 나는 안돼. 현실적으로 주변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영원히 저 높은 곳의 '예술'에 도달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이 저 높은 곳의 예술에 대해 심도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시간에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며 아이의 동을 닦아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나. 외신상담員(外信相談員)? 난 이미 그럴 기력도, 그럴 시간도 없는 아줌마인 걸.

내가 돈을 요거밖에 못 버는 게 내 탓인가?

나는 36살이다. 내년이면 37살. 아, 하필없이 여자가 나이만 먹어가지고, 나는 삼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도 조금 늦게 했으며 대학원도 바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나 대학원 다닐 땐 내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내 평생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건 전무후무할 것이다. 학기를 다 마치고 논문을 앞두고 있을 무렵이 80년대 말미, 90년대 초반이었다. 당시 미술운동을 지향하는 소장 평론가들의 조직에 들어갔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소위 '운동권' 학생이 아니었던 나는 빛진 기분으로, 일종의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했다.

그때까지 나는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하면 된다'라는 모토를 믿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좌절한 기억,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언가 좌절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한 후의 내 주변 여건은 그저 평범한 환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단지 육아를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입덧이 너무 심해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활동을 중지했다. 아이를 낳고 열달만에 2년 동안 젖을 먹이게 되었으며, 그렇게 3.4년이 가는 동안 어느날 나는 전업주부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나는 집에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하루종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동네 아줌마들과 약간의 수다를 떠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졸업논문은 강 건너간 지가 옛날이고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그 누구도 나에게 일 때문에 전화를 걸거나 부탁하지 않았다. 어쩌다 그들을 만날 때도 나는 항상 아이와 같이 있었으며 그들은 아이를 마마보이로 키운 나를 비난했다. 그들과의 공통적인 대화거리가 없어진 나는 극심한 소외감을 느껴야 했으며, 내가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동안 유학가거나 공부 많이해서 사회적으로 성공의 가도에 있는 동기들이나 후배들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았다. 나랑은 어떤 식으로든 '다른' 대화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한편으로는 부러움으로, 한편으로는 '칼을 가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래, 두고 보자.

그러나 두고 봐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집에서 4년 동안 애만 키우고 사회에 나온 무식한 아줌마를 누가 대우해주겠는가? 매일 6시만 되면 집에 가야된다고 엉덩이를 들쭉거리는 아줌마들, 야근은 엄두도 못내는 아줌마를 누가 고용하겠는가? 이 글 자체가 벌써 논리적이지 못하고 두서가 없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는가?

프리랜서? 내게 그것은 '노가다'와 똑같은 뜻이다. 아니 물론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자유롭게 쓰는 멋있는 프리랜서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선 종 목선택을 미리 잘해야 했거나, 남자의 몸 혹은 미혼의 몸이어야 기반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시간 관계없이 보수 관계없이 뛰는 과정들이 있어야, 원하는 시간 원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다. 나의 경우는 한치의 예누리도 없이 내가 무여한 노동의 양만큼, 딱 고만큼의 대가가 있을 뿐인 고된 노동이다. 원고지 1매당 몇천원(그것도 '쪼'에 따라 다르다. 내가 어떤 '쪼'인지 말 안해도 알 것이다). 내가 쉬는 시간은 돈을 못버는 시간이고 내가 글을 쓰는 시간이 돈을 버는 시간이다. 그러니 내가 쉬는 것은 곧 할일없이 노는 것이 된다. 게다가 전시기획이나 의미있는(?) 이벤트 같은 것은 한번 관여하면 내 돈을 '꼬라박는'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4년 동안 집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놀다가 사회에 나온 아줌마에게는 큰 건수 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고 많은 부분을 '노력봉사'해야 하는, 남들이 이제는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너 이거라도 할래? 안하려면 말구' 식이다. 그러나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당연히 해야만 한다. 그거라도 안하고 있으면 무얼 하란 말인가? 큰거? 돈 많이 되는

30대의 팍세

괴롭고도 큰 나이구나 서른 셋
슬픔으로 슬픔을 해탈할 나이 서른 넷
서른세 번의 봄이 오도
몸은 시베리아일 수 있으나
물방아리에 집인 세상과 내 얼굴을 가려 입고
그것이 한낱 사회 심장으로 피게
나는 긴 밤으로 유배돼있다

신현림, 「유배된 시인」, 『세기말블루스』 중에서

거?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킨단 말인가. 외국에서 공부 많이하고 온, 실력있고 나이 젊은 인재들이 많은데 누가 37살 먹은 무식한 아줌마에게 그런 일을 시킨단 말인가?

그런데 사회에서는 나 같은 여자들을 보고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밖으로 나돌면서 가정은 내팽개친다. 그럴바엔 집에 들어앉아 아이나 잘 키워라'고 말한다. 내가 돈을 요거밖에 못 버는 게 내 탓인가?

남자들은 군대 갔다오면 입사할 때 우대되고 그 기간이 3년 경력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3~4년 집에서 애키운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무시당한다는 걸 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는지? 그것도 나같이 '사회성'과 '지적 훈련'이 필수적인 직업에서는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고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는지? 내가 같은 칼날은 이 사회에서 써볼 데도 없고 거기에 찢려도 아파할 사람이 없다는 걸 왜, 왜, 왜 난 몰랐는지?

난 지금 약간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 어딘가에 취직이 되어서(아마도 화랑?) 돈을 많이 버는 거다. 그래서 '작가'로 데뷔를 하는 거다. 내가 겪었던 이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복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같이 미술평론이나 큐레이터, 미술행정가를 지망하는 여자들에게 꼭 충고를 해주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여자들을 냉철하게 분석해보아라. 어떤 조건과 환경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외조를 잘 해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나라. 가족 중에 아이를 확실하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냉정하고 확실하게 해놓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될 수 있으면 결혼을 하지 말거나 아이를 낳지 말아라." [1]

박숙경(가명)

스스로 만족하는 나의 성공

보험계약을 위해 찾아가 만난 고객들은
한결같이 나를 한번 훑어본 후
"남편은 뭐하세요?"라며 취업주부로서의
내가 아닌, 가정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여자로 일축해버렸다.

요즘 TV에 가끔 나오는 화장품 광고를 보면,
성공한 여자의 모습이라며 빌딩 앞에 미끄러
지듯 검은 승용차가 들어오고 경비원이 다가가 정중
히 문을 열어준다. 밖으로 나온 성공한 여자의 다음
장면에는 회의에 열중하는 모습이 멋지게 비춰진다.
나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기
준을 생각하게 된다. 결혼한 여자들의 사회생활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몇해 전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들을 떠올리며 성공한 나의 모습을 그려본 적이 있었
다. 보험설계사, 옷가게 운영, 글 쓰는 일...

일반 봉급생활자들의 직장만하는 과정이 늘 그렇듯
이 주민등록증 뒷면의 용지를 갈아끼워야 할 정도로
이사를 다녔고, 입주 일년 전에는 한번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위해 지하단칸방으로 집을 옮겨야 했다. 그때
는 공중 화장실을 쓰고, 하수도는 펌프로 올려야 했지
만, 손바닥만한 창문에서 아침이면 비추는 햇살이 나
를 위로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었던 유일한 나
의 기쁨이었다. 나는 전업주부에게 가장 크게 묻어 일
려있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교육을 받으며 강사가

부르는 내 이름에 두리번거리는, 결혼 7년만의 변화
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얼굴을 붉혔다. 매일 아침 멋
지게 차려입고 출근하는 즐거움이, 깨끗한 책상과 의
자가 내 자리인 것에 뿌듯함을 느끼며 일하는 내 모습
에 새살을 찾은 듯 기뻐했다. 그러나 보험계약을 위해
찾아가 만난 고객들은 한결같이 나를 한번 훑어본 후
"남편은 뭐하세요?"라며 취업주부로서의 내가 아닌,
가정밖으로의 탈출을 시도하는 여자로 일축해버렸다.
나는 내 찬란한 앞날의 시련이려니 생각하며 대학선
배를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십년만에 만난 선배는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는 잠깐 대학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되어서 이
야기꽃을 피웠다. 한참만에 내가 보험설계사 일을 시
작했다며 명함을 내미니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며 "남
편이 웬만큼 벌면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라" 하며 선배
의 고정관념을 펼치기 시작했다. 첫 직장의 기쁨도 잠
시. 자존심이 상해 돌아올 때면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
서도 나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여기서 포기하면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허리를 쭉 펴고 당
당히 보험설계사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집에는 엄마의 부재에 적응 못한 1학년 큰아이가 4
살인 작은아이가 나름대로 홀로 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어느날 남편이 회사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큰아에게 전화를 했었다. 아이는 "아빠, 엄
마 아직 안왔어.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과자를 먹고
있어요"라며 울먹었다. 불도 켜지 않은 지하창고 같
은 방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을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

은 회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주부가 일을 가지면 가정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
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칠년을 가정에서 켜
다가(?) 직장생활에 적응하라, 집에 오면 아이들의 준
비물과 마음까지 챙겨야 하는 일이 가족들만큼이나 나
에게도 굉장한 어려움이였다. 그리고도 장난이 심한 두
아들은 엄마의 잔소리가 뚝한 것을 틈타 교대로 다쳐오
기도 하고, 선생님께 매일 꾸중을 듣기도 했나 보다.

나는 더욱 이를 악물고 보험업계에 매년 상을 타는
선배를 거울삼아 열심히 일을 하였고 몇달후 영업실
적이 좋아 해외로 가는 포상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
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겹치는 법이라고, 여권을 만
들고 여행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쓰러지셨
다. 아버님이 병원에 계신데 딸며느리가 무슨 여행을
가나며 친정과 시댁에서는 말렸지만 나는 직장생활의
연장이라며 비행기에 올랐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계
시는 아버님 걱정, 만일 내가 없는 동안 돌아가신다
면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 얘기해야 할까를 고민하며
밤잠을 설쳤다고 한다. 나는 귀국하는 길에 아버님이
위독하여 집으로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상등을
켜고 달려갔지만 아버님은 그후로 며칠을 더 사시다
돌아가셨다. 여자들이 일을 계속하려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완벽히 해야 된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결국 시아버님 상을 치르고 나는 회사에 사표를 냈
다. 내가 전업주부로서 처음 시작한 '일'에 최선을 다
해 성공했다고 자위하면서... 몇 달후 내가 하고 싶었
던 다른 일을 하기로 했다. 강의실에서는 남녀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지만 남학생은 전공을 살려 사회에 일
꾼이 되는데, 여학생들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지식'
정도로 그치고 만다. 물론 남자들이 모두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
는 기회조차 다름이 역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위에
서는 여자들에게는 언젠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혜

롭게 생활하라고만 한다.

전공을 살려 옷가게를 차린다는 자신감에 앞서, 용
자를 얻어 내 이름으로 가게계약을 쓰면서 기쁨보
다 책임감과 성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방이 딸린 작은 가게에서 낮에는 지하방에 들어가
지 않게 살림도 하고, 학교에서 온 아이의 가방 챙기
는 것을 도와주고, 점심을 차려먹이며, 시간맞춰 학원
도 보냈다. 얼마 노릇, 옷가게 주인노릇을 하며 새벽
에 도매시장 가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집안일 하
는 것이 내 생활의 전부였다. 그때는 하늘 한번 쳐다
볼 여유 없이 앞만 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슬
픔이었던 것 같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오면 세 남자(남편, 큰아
이, 작은아이)는 모두 침대에 가서 눕고 나는 청소와
빨래, 아침준비를 해야 했다. 가끔 남편에게 도와달라
고 부탁하면 "당장 때려치워, 당신이 원해서 했으니까
나한테 피곤하단 소리하지 마"라고 냉정한 말만 되돌
아올 뿐이다.

일년이 지날 때쯤 나에게도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
다. 농부들이 새참이나 갈증날 때 마시는 막걸리에는



알콜성분이 들어 있어 헛된 열도 할 수 있다는 언젠가
곶등으로 들었던 이야기와 떠올라, 나도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하였다. 새벽부터 하루가 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내 손길을 기다리는 집안일을 보며,

삼십대가 서 있는 자리

- 오한숙희/ '성공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 고갑희/ 여성작가들이 본 서른의 삶
- 조한혜정/ 삼십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 유숙렬/ 누가 그들에게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불러넣었을까?
- 이숙인/ 역사가 만든 여성의 분열증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오면 세 남자(남편, 큰아이, 작은아이)는 모두 침대에 가서 눕고 나는 청소와 빨래, 아침준비를 해야 했다. 가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당장 때려치워. 당신이 원해서 했으니깐 나한테 피곤하단 소리하지 마"라고 냉정한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

맥주광고의 멋진 CF모델처럼 맥주를 단숨에 마시고 고무장갑을 썼다.

내가 직장 나갈 때보다 아이들은 엄마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다고는 하지만, 아파트 입주를 하고부터는 집과 가게가 떨어져 있어서 아침에 출근하듯 버스를 타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다니는 것이 불만인 것 같았다. 일요일이 되면 아파트 놀이터에는 친구가 하나도 없으며 전학을 시켜달라고 투정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 동네는, 주위에 대형백화점이 하나들 들어서서 손님들의 발길이 점점 줄고 있었다. 나는 가게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가게에 묶였던 돈과 권리금을 남편에게 내밀며 당당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도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지금도 주위에서 같이 일해 보자고 종종 연락이 오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결사반대를 한다. 나름대로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지 큰아이는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참을 테니 엄마는 집에만 계세요" 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자기네들의 일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행복해하며 잘 지내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다른 엄마들은 자기자식은 못 가르친다며 학원에 보내지만, 나는 두통약을 먹으면서도 방학 과제를 아이와 함께 해나갔다. 그것이 설령 내 마음의 위안밖에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흘러 엄마의 선택이

올랐음을 아이가 느낀다면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요즘 나는 세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고 있다. 독서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결혼 후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능력을 발견한 듯 읽고 쓰는 일이 좋아졌다. 사람들은 내가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가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저축을 하듯 노후대책을 하는 것 같은 마음이다.

앞집 여자가 빈둥지 우울증에 시달릴 때, 거울을 보다 생소한 자기 얼굴이 너무 슬퍼 우울증에 빠졌다는 이웃의 얘기를 들을 때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마지막 내가 선택한 일까지도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 위해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처럼 천천히 목표를 향해 준비하며 나아가야겠다. 몇 년 후 불혹의 나이가 될 때쯤이면 아 빠만큼 엄마만큼 커져 있을 아이들을 보며 내 꿈도 기지개를 켜야지. 그때가 되면 스스로 만족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받고 싶다.

비록 좋은 차에서 내리는 성공한 여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엄정애

지난 여름은 나에게 끝없는 인내를 요구 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더위지만 주부로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언제나와 같이 늘 분주했고 자네이면 지쳐쓰러진 나를 보며 힘겨운 터널을 떠올리곤 하였다. 터널 속과도 같은 암담함을 느껴 허무적거릴 즈음 저 멀리 함울기 빛을 볼 수 있었다. 터널의 끝에,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희망이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좋은 만남으로 다가온 잡지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희망을 보았다. 지금 나는 얼어붙은 흙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봄을 준비하는 어린 새싹의 마음으로 이 겨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성공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

현실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과 성공은 두마리 토끼이다.
수퍼우먼 콤플렉스는 있어도 수퍼우먼은 없다.
관대한 남편, 세련된 시댁, 인적 자원이 막강한 친정,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여성들은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용의 눈동자로 삼아
비로소 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의 성공, 그것도 결혼하고 남편 있고
자식 키우면서 하는 성공은 어렵다.

오숙숙씨

가끔 “오숙숙씨는 그래도 성공하셨잖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낯살이 붉어진다. TV에 나간 뒤에 얼굴 좀 알려지고 책을 내서 알려졌지만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착은 없었다. 우리 가족 누구도 나를 성공이라는 단어와 연결시키지 않는다. 나는 변함없는 나일 뿐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요즘, 우리시대 여성들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고뇌를 알기 위해 ‘오숙숙 수다방—여자의 인생이야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열면서, 점점 세상이 성공한 여자들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고 그런 속에서 살다보니 알게 모르게 여자들이 성공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올 11월부터 기독교 방송(AM 837)에서 ‘라디오 정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진행하는데 토크쇼처럼 바른 소리를 하는 여자들이 적지 않음을 보고 반가웠다. 여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먼저, 세상을 알아야 하고 세상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요즘의 성공은 일종의 바이러스 같다. 바이러스가 아닌 연동판으로서의 성공을 생각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웡곰들이를 아시나요

우연히 알게 된 후배들과 허심탄회하게 사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누가 보아도 20대의 발랄한 처녀 같은 K가 조용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외출 한번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애는 어떻게 하고 나왔냐고. 나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내가 설마 내 아이 버려두고 나왔겠어요? 그 말 속에서 ‘집에서 애나 보지, 가정주부가 뭐하러 저녁 밥할 시간에 나돌아다녀? 비난의 냄새가 풍겨요. 나, 참 못됐죠? 나, 꼬였나봐. 전에는 안그랬는데 점점 삐딱해져요. 큰일났어. 능력도 없는 것이 자존심만 강하다더니 그게 내 얘기라니까요.”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들이고 큰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G는 자타가 공인하는 천사표남편을 만나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남편이 혼자 밥 차려먹는다고 그러면 다들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말이 좀 안되는 게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 태두리 내에서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나름대로 밥 비동을 치며 살았어요. 그걸 발버둥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싫고 몸부림이라는 표현도 지겨워요. 나는 그냥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는 안꿈틀했으면 낫겠다 싶어요. 그런데도, 자꾸 꿈틀대는 내가 느껴질 때 미치겠어요.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이러다 미치지 싶어서 막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요. 베란다에 폴짝폴짝 끼어들어가며 청소하고 나면 그때는 좀 속이 후련해요. 그런데 잠깐이지 뭐.”

내가 만난 30대 초반 중반의 여자들. 겉보기에는 문제 없는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생만족지수는 상당히 낮다. 이들이 말하는 이 꿈틀거림의 정체는 무엇인가. 다시말해 이들은 왜 불행한가.

남편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여자들 삶의이라고 하는 대로 그냥 살아볼까 했었어요. 애들한테도 짜증 안내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윤기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가더라니까요. 속에서 뭔가가 자꾸 치밀어 올라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하면서요.”

“밖에 나갈 때마다 주눅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되고 그런 게 다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 상처를 어디다 내보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니까.”

21세기를 목전에 둔 지금 인생이라는 테이블에 앉은 여자들은 다른 메뉴를 원하고 있다. 엄마가 질리도록 먹었던 그런 메뉴 말고 다른 어떤 것. 엄마도 그 딸들에게 자신처럼 살지 말라고 가르쳤다. 그런데 점점 엄마의 인생과 봉어행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 딸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교육은 여성의 자기기대수준을 높여놓았고 대중매체의 발달은 다른 여성들과의 잦은 비교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자신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속에 ‘꿈틀거림’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성공했다는 여자가 신문에 났다. 여자들은 그 사람의 무엇에 가장 예민할까. 대중강연에 가서 물어보면 일치하는 답이 나온다. 바로 그 사람의 나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편찮다. 선배니까. 나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남아 있기에 마음 편히 축하해줄 수 있다. 나이가 자기보다 아래면 그런대로 자위할 수 있다. 그래, 너희들은 우리보

성공/여자



다 좋은 시절 만났으니까 그렇게 됐지. 이름하여 신세대 잡아.

가장 괴로운 건 동갑이다. 어디로 빠져나갈 데 없이 당장 비교가 된다. 남들은 이렇게 성공하는 동안 나는 뭐 했누? 그 성공한 여자가 밋다. 고요한 내 가슴에 돌을 던진 그 여자. 어디 보자.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는 법. 기필코 먼지를 찾아내리라. 독신이라—그럼 그렇지.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일에 매달렸겠지. 혼자 살면 나도 그 정도 성공은 할 수 있어. 남편이 이해를 잘 해준대—부부간의 애정이 별로 아냐? 애를 소신껏 키워서 학교성적이 상위권이 아니래—소신은 핑계고 자기 크자고 자식 핑개 쳤구먼.

성공의 기준은 '남의 눈'

자신이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여자의 도리' 때문이라고 분노했던 여자들이 이제는 그 도리를 틀어대서 다른 여자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다. 안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나 이도 저도 안나타나고 모든게 다 잘 돌아가면서 성공까지한 여자들 앞에서는 어쩔 것인가. 아니. 비난거리가 있다해도 엄연한 현실—너는 성공녀고 나는 비성공녀라는 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오는 게 팔자타령이다. 지지리 운도 없고 인복도 없는 것. 누구는 친정을, 시부모를, 남편을, 잘 만나서 저리 됐건만 나는 왜? 팔자타령에 가담으면 점치러 가고 싶은 유혹이 있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적인 시각으로 성공을 본다면 자존심이 온전히 살아남을 여자는 몇 안된다. 남들 앞에 행복해 보이고 싶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여자들은 어쩌면 자신의 현실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 잘못된 자존심은 허위의식을 낳는 것이고, 허위의식은 현실에 대한 판단착오를 낳고 판단착오는 삶의 혼돈을 낳는다.

"그래도 성공하셨잖아요."

"뭐가 성공이죠?"

"TV에 나오고 유명해졌잖아요. 돈도 많이 벌테구."

"얼굴 알려지고 돈 많이 벌면 성공인가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이나 명예나 인기가 있으면 성공 아녜요?"

사람들에게 성공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고 물었다. 멋진 옷, 멋진 승용차, TV 출연, 고소득, 해외출장, 커리어 우먼, 대부분이 대중매체에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성공의 기준은 남의 눈이다.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것이다. 성공하면 무엇이 좋을까. 역시 '타인의 부러운 시선'이다. 내가 남을 부럽게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나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움추렸던 두 어깨 활짝 펴고서 보상받고 싶은 것이다. 그 동안 나를 무시하고 상처주었던 남편, 자식, 시집식구들 앞에서 당당히 고개를 세우고 싶은 것이다.

성공의 실체보다는 성공의 겉모습에, 성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성공했을 때의 효과에 더 집착하느라 그들은 성공에 다가갈 수 없게 된다. 현실이 불만스러우면 불만스러울수록 그들에게 성공은 더욱 가지고 싶은 것이 되고 장사꾼들은 성공상품을 만들어낸다. 현재 이 분야의 최대장사꾼은 대중매체이다. 성공한 여자들을 멋지게 포장해서 TV, 잡지, 광고에 등장시킴으로써 성공이라는 상품의 수요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성공한 여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잡지, 성공한 여자의 에세이, 성공한 여자가 나오는 주부대상 프로그램은 연일 날개가 돋친다. TV출연과 돈이 곧 성공이라는 등식이 여기서 나온다.

왜 성공인가

성공한 여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 아줌마티를 말끔히 벗어버려야 한다. 처녀처럼 날렵한 몸매, 우아하고 화려한 의상으로 대다수 아줌마들과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살도 빼야 하고 화장기술과 코디감각도 길러야 하고 처녀 같은 옷도 사입어야 한다. 급기야 그 짜다고 알려져 있던 '아줌마충'의 지갑이 열린다. 이름하여 미시족, 성공을 향해

아줌마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꿈틀거림을 우선 의모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효과이니까. 이렇게 되면 성공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다.

성공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요즘 세상에 떠도는 이런 성공바이러스에 감염되지 말자는 것이다. 속으로 비비 말라죽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 제 성질 못이겨, 주제파악 못하고 또는 동파습고 배불리서, 할일없는 여관대들이 걸리는 사치병으로 물리게 만드는 그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자는 말이다. 정보사회에 범람하는 유행성 정보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수퍼우먼만 나오고, 나이 들어서 성공한 여자는 보이지 않는 우리사회의 성공현실에 의구심 가득찬 눈길을 보내야 한다.

지금껏 성공은 출세와 더불어 남성의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멜로드라마의 내용은 사랑에 인생을 건 여인과 야망을 갈구하는 남자가 만들어낸 방정식의 해법찾기가 주종을 이루어왔다. 여자와 남자의 인생은 사랑과 야망으로 요약, 대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여자들도 야망을 찾아나서기에 이르렀다. 사랑에 목매어봤자 머리검은 짐승(인간)과의 연약은 언제나 배신을 동전의 뒷면으로 하고 있다. 자신에게 투자하라. 내가 성공해야지. 남편의 성공은 한치 건너 두치다. 내가 성공해야 남편한테도 무시 안당하고, 배신당했더라도 오목이처럼 일어서고 자식한테도 멋있게 당당하다. 이것이 오랜 세월 반복된 '사랑과 야망' 시리즈의 최종 교훈이다. 1990년대, '사랑받는 아내, 성공하는 남편' 시대는 끝난 것이다.

"남편과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결혼초만 해도 남편 친구이자 내 친구들과 어울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몇년 지나는 사이에 그들은 남편 친구가 되었고 나는 모임에도 끼지 못하고 어쩌다 끼게 되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남편은 크는데 나는 뭔가? 대학시절의 우리는 대등했는데 이제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남편의 승진이 기쁘기도 하지만

성공하면 무엇이 좋을까. 역시

'타인의 부러운 시선'이다.

내가 남을 부럽게 바라보았던 그 시선을 나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움추렸던 두 어깨 활짝 펴고서

보상받고 싶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 서글픈 생각이 들어요."

평등한 연애결혼이 늘어나면서 이제 남편은 내 결의 라이벌이 된 것이다. 남편이 엄청 출세해서 누구의 싸움모임으로 나뉘게 될 성공의 몫이 제법 크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의 출세에 밀려남이 되고 싶지 않다. 동갑내기 친구 같은 남편, 나 또한 그 못지 않은 능력이 있었는데 나는 왜 이리하고 있어야 하나, 결혼의 실상에 실망하는 것이다.

성공의 거품을 빼자

"20대에는 나를 사랑해줄 남자를 만나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30대가 되니까 세상에 속은 것 같애. 사실 넘으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워. 내 날개옷을 감춘 나 못꾼 같애. 하지만 누구 원망하겠어. 내가 미친년이지."

여자들이 남편의 성공이 아닌 자신의 성공을 꿈꾸는 것은 자의식의 발달로 볼 때 분명한 성장이다. 여성 교육수준의 신장, 삶의 다양화, 개인주의의 발달, 이런 여건 속에서 여성들은 바야흐로 성공이란 단어를 제 것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떤지 여성에게 있어 그 '성공'이란 것이 그리 화려하고 행복해 보이질 않는다. 성공을 해도 못해도 한숨만 내뿜는다. 왜일까.

20대에는 결혼과 성공 둘 다 가지길 꿈꾼다. 그러나 30대가 되면 불안하고 조급해진다. 결혼이라는 틀은 성공을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포기하기에는 자신이 아직 젊다. 더 나이들면 여러가지로 능력도 떨어질 것 같아 조

급해하다 보면 둘 다를 가질 수 있다는 슈퍼우먼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자신의 자화상은 '성공을 꿈꾸는 고달픈 슈퍼우먼'이지만 가족을 포함한 남의 눈에는 '세 성질 못이겨 스스로를 다달하고 가족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여인상'이다. 여기서부터는 오기가 발동하고 컷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버티게 된다.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되더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도 이 대목이다. 나도 꿈이 있고 남부럽지 않은 계획이 있건만,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기대, 여성이라는 한계, 현실이 족쇄처럼 채워져 있어 내 인생이 맘대로 안되는 것이다.

현실사회에서 여성에게 결혼과 성공은 두마리 토끼이다. 슈퍼우먼 콤플렉스는 있어도 슈퍼우먼은 없다. 관대한 남편, 세련된 시대, 인적 자원이 막강한 천정, 이 삼박자가 갖춰져야 여자들은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용의 눈동자로 삼아 비로소 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자의 성공, 그것도 결혼하고 남편 있고 자식 키우면서 하는 성공은 어렵다. 그런데도 여자들은 그걸 꿈꾼다. 착한 아내, 좋은 엄마, 알뜰살뜰 가정주부, 효부 이런 실패들을 쟁진 위에 성공 실패를 하나 더 갖고 싶은 것이다. 인기상, 미소상, 포토제닉상에 이어 누구나 선망하는 그랑프리까지 쏙살아하고 싶은 욕심에 다름 아니다.

자기가 지금 가진 조건을 변화시키는 번거로움이나 모험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아니 지금 가진 어떤 것도 버리지 못하면서, 또는 앉으면서 하려는 무리수는 자신의 마모와 손상을 가져올 뿐이다.

성공을 위한 몇가지 조건!!

우선 현실을 알아야 한다. 남자 개인이 아니라 남자들을 놓고 키우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가부장제라는 결혼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 안에서 여성 자신의 처지와 한계를 분명히 알고 결혼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기에 따라 가부장제가 쉬 변화되리라는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노력이 결실을 거두려면 구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일정순위 이

하의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그에 따른 비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가부장제의 가르침을 죄책감없이 거역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얼마큼 거역할 것인가는 개인의 차지마다. 개인의 근기마다 다를 것이지만 최소한의 거역을 시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성공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공상만 하지 말고 뛰든지 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속으로 자신없이 아무것도 못하면서 겉으로는 상황 탓으로 돌리는 어리석음. 최소한 나는 꿈틀대고 있다는 자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공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 계획을 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작은 실천을 하는 것부터가 성공이다. 인생의 지도를 그리고 에너지 배분율과 시간표를 정해야 한다. 아이들과 살림에 시간을 많이 내야 하는 30대를 지나면 40대에는 좀더 많은 자기 시간을 내고 50대에는 실천을 많이 하는 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공을 말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절차는 바로 자신을 대면하는 과정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만의 것이다. 죽는 순간 후회없는 삶을 살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생각해보라. 절대 남과 비교하여 조급해하거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허공을 향해 있는 시선을 이제 서서히 거두어 자신의 배에 모아볼 때이다. [1]

30대의 팽세

"서른이 넘은 이후, 언제나 나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있는 식당의 탁자에서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내가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나는 어디로 가나, 그 무서움이 너무 커서 나는 한번도 내가 하고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공지영,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창작과비평 '97 봄호



고 갑 회

고통스러운 삼십대를 살고 이제는 다시 자유와 힘을 찾아 (무거운 싸움)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다다랐다. 복잡 내러움을 뜻한 절망의 사정들을 덮고 새로운 생을 만들어 나갈 힘을 얻었기에, 힘들었던 30대를 재구성할 필요를 느낀다. 30대를 거처온 사람들에게 30대가 보이는 것이 생의 역사가 아닐까. 한국의 30대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것을 위해 미세한 노력이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썼다.

여성작가들이 본 서른의 삶

이들에게 삼십세는 감금, 항복, 분열의 시간으로 제시된다. 20대의 꿈을 반납하고, 삶의 온갖 질척거림을 맛보며, 감금공포증을 경험한다. 바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그물에 걸린 고기신세가 되어 있는 삼십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은 여러 작품에서 제시된다.

여성작가들이 유독 삼십세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 잉계보 르그 바흐만의 『삼십세』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최승자의 『삼십세』, 윤효의 『삼십세』, 차현숙의 『서른의 강』,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 공선옥의 『오지리에 두고온 서른살』은 모두 삼십세를 소재로 삼는다. 이들뿐 아니라 『서른의 강』이라는 단편 테마소설집은 여성/남성의 서른살을 중심으로 한 단편들을 모아놓았다.

왜 삼십세가 문제인가?

작가들은 무엇 때문에 삼십세를 문제삼게 되는가? 30세란 20대를 마감하고 30대를 시작하는 경계선의 나이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삼십세는 미혼의 20대를 통과하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양육을 하는 등 여성 고유의 경험을 하했거나 하고 있는 나이이다. 최근들

이 여성의 삶의 양식도 많이 변했다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연애와 결혼, 임신, 출산, 양육의 짐을 지게 되는 나이이다. 그리고 30대의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사적 영역에서 50~60대와 10대 전후의 어린이들 사이에 끼어 분열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시기이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삼십세가 되면 성장을 멈춘다고 『여성성』이란 글에서 말하고 있다. 물론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밀려나 있는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성장의 척도를 재는 눈조차 남성의 것이기 때문에 여성은 삼십세에 성장을 멈추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바로 이런 남성중심의 시각과 여성이 이것을 스스로 내재화하도록 하는 제도와 체제에 있다.

30대 여성의 삶의 배경

지금 한국의 30세(대)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의 배경이 되는 제도는 무엇인가? 유교적 가부장제와 산업사회(자본주의)라는 두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산업화의 대열에 여성이 공장노동자로 전면적인 역할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 누구

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 지식인 여성작가들의 작품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문제만을 부각시킨다.

그러면 여성작가는 삼십세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삼십세의 한국여성은 어떤 경험의 장에 서있는

가? 이들에게 삼십세는 감금, 행복, 분열의 시간으로 제시된다. 20대의 꿈을 반납하고, 삶의 온갖 질척거림을 맛보며, 감금공포증을 경험한다. 바로 유교적 가부장제의 그물에 걸린 고가신세가 되어 있는 삼십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은 여러 작품에서 제시된다.

차현숙은 『서른의 강』에서 전업주부의 삼십세를 보여준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오후 세시에 대학병원 정신과 환자대기실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이 전업주부에게 삼십세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나이로 인식된다. 대학병원 정신과 대기실과 오후 세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열을 야기시키는 어정쩡함이다. 이 대기실의 주부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선이 되어도 자신의 능력에 의해 전혀 변해지지 않는 삶이다. 그녀는 말한다. "난 너무나 초조해. 탈출구가 없는 서른의 나이가 나를 돌게 만들어! 내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짹짹..."

『허공의 신부』에서 작가 윤효는 말한다. "고리고리 이어지는 결혼식들, 길도는 화장의 신부들은 과염치하게 흰옷으로 성장하고, 원한으로 시퍼런 영정귀 꽃다발을 들고" 어느덧 "똥똥한 중년 여자가 되어 아이의 영당을 치며, 벌써 길을 잃다니!" 여자들은 길을 잃고, 불모가 되어 있다. "종마처럼 달릴 수 있던" 처녀시절을 잃고 작품 속의 〈나〉는 "그, 그들의 신부이며 불모"가 되었음을, 게다가 "스스로 묶인 불모"임을 의식한다.

사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들

전경린의 『새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에 등장하는 〈나〉는 아삭아삭 씹히는 맛을 지닌다는 의미로 남편에게 미나리로 불린다. 그리고 어린시절에는 아버지의 율동조였다. 이 〈나〉는 중산층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나〉는 "대학 캠퍼스에서 남편을 만났고, 스물다섯에 결혼을 했으며, 몇해 뒤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

를 낳은 뒤에도 일을 계속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이 때문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없었을까라고 말하면서 〈나〉는 직장은 자신에게 무엇이였을까 하고 묻는다.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바로 "공적인 부분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은 "사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그녀는 말한다. "어쨌든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다. 이 모든 것은... 대체로 아들과 딸을 사적으로 낳고, 사적으로 키운다. 그녀들은 지극히 사적으로 존재"한다.

사적인 존재가 된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반납하고 누구의 엄마로 살아야 하며, 자기를 잊기 위해 "반항이나 분노 없이 자신을 거세해야 한다" (차현숙 『서른의 강』). 이런 삼십세를 최승자는 일찌기 행복의 순간으로 그렸다. 『삼십세』라는 시에서 최승자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살은 온다/ 시큰거리는 치통 같은 흰 손수건을 내저으며/ 놀라 부릅뜬 흰자위로 애원하며"라고 쓴다. 그런데 이 삼십세는 "이제 새로 꿀 꿈이 없는 새들"이 "추억의 골고도로 날아가 뼈를 묻고/ 흰 손수건이 떨어뜨려 지고/ 부릅뜬 흰자위가 감긴다." '흰 손수건'이 내려지거나 '부릅뜬 흰자위'가 감기듯이 삼십세의 행복은 행복에서 온다. 행복과 행복은 동의어가 된다.

부업에 대한 두가지 생각

사적으로 존재하는 그 곳은 부업이라는 곳으로 대변될 수 있다. 〈부업〉은 조양희가 『부업대기의 사랑』에서 말하듯이 그렇게 쉽타가 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이 아니라는 반론은 곧 찾을 수 있다. 김혜순의 시 『엄마의 식사준비』는 부업이 남성과 가족의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곳이며, 여성의 희생공간이 된다. 튀겨지는 생선이 바로 엄마 자신의 은유다. 으깨지고, 튀겨지고, 살갗이 타들어가며 불 속에 서있다. 여성의 삶이 으깨지고, 튀겨지고, 타들어가는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전업주부는 직장여성을 부러워하고 질투한다. 아이와 가정에 폐쇄된 여성은 따라서 왜곡된 형태로나마 꿈을 꾸기도 한다. 차현숙의 『서른의 강』의 〈나〉는 모 일간지에서 한 남자가 순직하자 그 회사의 경영주가 일시적 보상에 그치지 않고 그 남자의 부인을 회사에 취직시켰다는 기사를 읽는다. 〈나〉는 그런 행운을 부러워한다. 우연히 찾아와주는 그런 불행한(?) 기회 즉 "결혼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해방감을 맛볼지도 모를" 그런 기



차현숙은 『서른의 강』에서 전업주부의 삼십세를 보여준다. '산후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오후 세시에 대학병원 정신과 환자대기실에 앉아 차를 기다리는 이 전업주부에게 삼십세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도 끝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나이로 인식된다.



회를 꿈꾼다. "가끔 남편이 연락 없이 들어오지 않을 때,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가 딸린 여성이 그럴듯한 직업을 갖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지를 깨달을 때마다" <나>는 남편이 죽고 자신이 남편을 대신하는 꿈을 꾸다.

전업주부의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여성들은 소위 <성공>한 여성들이다. 최근 서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자전적 글이나 그와 관련된 전문적 여성들의 글은 한결같이 성공신화를 창조한다. 부업과 사적 영역인 가정으로부터의 탈주가 직장이나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으로 제시된다.

이숙영의 '잠자는 사랑과 성공을 깨워라', 조안리의 '사랑과 성공은 기다리지 않는다', 김명숙의 '나쁜 여자가 성공한다', 진 랜덤 '성공하는 여성들의 심리학', 이런 책들은 보통 <전문적 여성들의 글모음>이라는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다.

'30대 신화는 늦지 않다', '20대의 실패를 30대의 성공으로 바꾼 보통 여자의 특별한 인생이야기', 30대 초특급 승진신화를 이룩한 어느 그룹의 상무가 된 성공스토리,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될 50가지', 일본 작가가 쓴 책이름이다.

이 책의 광고는 '30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꿈이 있다. 인생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라고 말한다.

분명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 갇힌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나오는 길은 '성공'의 길일 수 있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 현재를 바꾸는 일이 되니까. 그리고 독자들이 삼십대의 여성작가들이 보여주는 감금과 불모의 상태를 읽고 답답함을 느끼지만, 적어도 '나는 서른에 유학을 떠났다'(이인숙)라든가 '내일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조안리), '내속의 신데렐라를 죽여라'(케이송), '운명을 디자인하는 여자'(이주향), '여성이여 테러리스트가 되라' 등을 읽고서는 힘을 얻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성을 무능하게 만드는 괴물들

하지만 성공신화가 모두인가? 공적 영역에서의 성공이 유교적 가부장제를 탈피하는 길이 되는가? 불모 상태에 처한 대부분의 한국의 여성현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망설이게 만든다.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자아실현의 길을 찾아야 되고 그 길은 현재로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한 자기 일을 찾는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을 무능하게 만드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동시에 성공신화가 받치고 있는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성공과 소비신화의 주역이 되는 것과 체제와 제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차현숙이 '서른의 강'에서 '내가 무능하게 된 건 내 탓만은 아니야! 그렇게 만든 더 큰 괴물 같은 것들이 있다구!'라고 항변한다.

이 항변 속의 '더 큰 괴물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김승희는 이것을 '제도의 황금편'이라고 묘사한다. 황금편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금이 지니는 영속성을 갖는다. 여성의 '생'을 '달걀 속의 생'으로 만들고 '어떻게 바깥으로 나갈까'를 고민하게 하는 '제도의 황금편'의 정체는 무엇인가?

30대를 지난 시인 김승희는 '당연과 물문의 세계'라고 제도 속에 갇힌 상태를 표현한다. 이 세계에 갇힌 존재로서의 여성의 공간은 달걀 속의 생(김승희)이

나 무덤(최승자), 블라인드 처진 방(김혜순), 기억의 집(최승자) 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들은 '수족관의 물고기', '토끼장의 토끼', '유리관 속 탈지면 위에 표본된 나비', '냉동실 선반 안의 메추리알' 등으로 비유된다. 그런데 이 갇힘은 단순히 유교적 가부장제에 갇힌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주의의 그물에 걸린 여성의 상태도 함께 표현한다.

삼십대 여성의 인간됨

그러면 이런 유교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그물에 갇힌 삼십세(대)의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먼저 사랑을 탈남만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이연주의 '가족사진'이나 김혜순의 '엄마의 식사준비'는 가족의 유해성과 독성을 표현한다. 여성작가의 작품들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죽이고 살아온 어머니들과 거세된 아버지들이 등장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에 갇혀 <깊은 슬픔>으로 쇠잔해 가다가 마침내 죽는 신경숙의 여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사랑을 탈남만화시킬 필요가 있고, 30대의 여성작가들은 그런 시도를 한다.

결혼을 거부하는 일 또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에서 등장하는 소재다. 은희경은 '연미와 유미'에서 독신과 결혼생활을 병치시키며 독신을 선택하는 유미를 제시한다.

일상을 거부한 뒤 새로운 꿈을 꾸고

일상을 비틀거나 거부하는 일이 필요하다. 미세한 변화들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여성작가들은 이런 모습들을 나름대로 제시한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 결혼한 언니인 연미가 오렌지 껍질을 가로로 벗기는데, 유미는 세로로 벗기기를 시도한다. 일상의 틀을 깨기 위하여 '염소를 모는 여자'가 되거나 남자들만이 당연히 오르는 것으로 여겨진 산을 오르는 일('새는 언제나



'욕망의 국토'를 달려보는 일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욕망 너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시도하고, 추구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곳에 있다.)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꿈을 다시 꾸는 일도 필요하다. 여성작가는 유목을 노래하고, 솟구쳐오르고(김승희), 나비나 새가 되어 날아오르기를 시도한다. 다시 태어나기 위한 시도는 힘겹다. 그것은 미지에 대한 동경이 있어야 가능하다. '동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지/ 동굴의 힘보다 강한 사랑이/ 동굴의 힘보다 강한 매혹이/ 미지, 미지, 미지/ 무슨 여자이름 같은 그 매혹의 미지가/ 동굴의 힘보다 강하게 잡아당겨야 하

지.”(김승희, 『숫구치오르기4—동굴 벗어나기』)

‘육망의 국토’를 달려보는 일도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육망 너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시도하고, 추구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차현숙의 주인공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이에 대한 답은 시도되지 않지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30대를 거친 40대의 시인 김승희는 최근 시집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에서 30세를 기점으로 해서 30대의 갈등들을 바라보는 방법을 제시한다. 바깥으로 나가는 방법을 모르거나, 20대의 잔치가 끝나고 새로 무언가를 시작해야 하는 30대에게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시가 소설보다 훨씬 자유롭게 때로는 무책임하게 은유의 세계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무거움에 대한 철저한 천착이 더 필요한 상황을 탈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승희의 최근 시는 제도에 대한 싸움과 새로운 동작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제도의 황금권’을 뽑아 박제 화되고 표본화된 나비인 여성의 삶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시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것은 유교적 가부장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점, 한국의 산업화 과정 속의 여성의 위치를 살피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두가지 체제에 도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거운 싸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11]

30대의 핑계

사십대 문턱에 들어서면
바라 볼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기다릴 인연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아니, 와 있는 인연들을
조심스레 접어두고
보 속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씨 뿌리는 아십대도
가꾸는 아십대도 아주 빠르게 흘러
거두는 아십대의 장에 들어서면
가야 할 길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안다.
선택한 끈이 길지 않다는 것도 안다.

고정희, 『사십대』,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청비 중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무얼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곳에 머물러 있지?”

결혼은 하나의 안정과 안주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커다란 실수였다. 결혼과 동시에 젊은 날의 나는 사라진다고 생각했던 것 또한 나의 치명적 실수였다. 나는 잠시 나의 모습을 잊었을 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방황하는 내 핏속에 흐르는 이 바람은 잡재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서른 여섯 살에 시작된 내 삶의 회도... 뒤늦게 시작된 내 방향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든다.

양은영, 『아름답지는 아하면 안되나요?』, 다솔 중에서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 사회학
또 하나의 문화 동인

삼십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이들이 대학시절을 통해 얻은 부정적인 것은 아마도 일상을 우습게 보는 시선일 것이며, 긍정적인 것은 남녀평등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이상은 너무 높았고, 현실을 꿰어가기에는 너무 준비가 없었다.

지난 11월 내가 있는 대학에서는 여학생들 중심으로 Where are you? 라는 주제를 내건 여학생주간 문화행사가 있었다. ‘연세대학은 남녀공학 대학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행사였는데 그중 역대 총여학생회 회장단들이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있었다. 초대 총여학생회장은 정말 대단한 배경과 언변을 두루 지닌 매력적인 여자였고, 식발을 불사하며 총여학생회의 위상을 높인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후배들은 몹시도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그 선배는 9시경에 자리를 뒀고 10시경에 다른 선배들 역시 한둘씩 자리를 뜨더니 끝날 즈음에는 모두 떠나고 없었다. 나는 종종 30대 후배들에게 배반당했다는 느낌을 갖곤 해왔는데 여기서 또 한번 그 느낌을 갖는다. 이런 날에 후배들과 뒤풀이를 가고, 당당히 외박을 하면 뭐가 더 나은가?

나는 70대에서 10대에 걸쳐 아주 많은 절친한 여자친구들을 가지

고 있지만 신기하게도 그중에 30대 여자는 별로 없다. 생각해 보면 지금 30대 여자들을 잘 묘사했다고 평가 되는 소설인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나는 재미가 없어서 끝까지 읽지 못했는데 그 역시 내가 30대와 별로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왜 나는 지금의 30대와 친화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나는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진 세대에 속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보다 자아실현을 해서 사회에 중요한 일을 하라는 열렬한 어머니의 격려와 지지 속에 살았다. 나는 그래서 한마리의 토끼를 쫓았고 그 토끼를 잡았다. 30대 후반 여자들은 종종 내게 항의한다. 당신은 훌륭한 전문비서 노릇을 해주는 어머니와 그의 많은 여자들의 도움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내지 않았느냐고. 그렇다. 나는 그들의 도움으로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30대는 충만했다. 많은 여자들과 어울려 밤새는 줄 모르고 일을 꾸미면서 나는 30대를 지냈다.

지금의 30대는 분명 우리 세대와 다른 조건에서 성장했고 여러면에서 아주 다르다. 이미 상당히 분화된 삶을 살고 있는 ‘30대 여자’를 한 유형으로 말한다는 것은 폭력적인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30대 여자들이 공유하는 주류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 중산층적 삶을 살고 있는 다수의 30대 여자들은 개발독재시대에 치맛바람을 휘날린 ‘사모님’들의 공주들로 자랐을 것이다. 박완서선배가 그의 중단편 소설에서 냉엄하게 그려내준, “모든 것을 갖추어야 하는” 신중중산층, 욕심 많고 억척같으며 큰 것 콤플렉스에 걸린 어머니들의 딸로서 말이다.

나는 이 세대의 나약하면서 큰소리치는, 속물적이면서 순수를 꿈꾸

는 면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 많은 고민을 했었고, 급기야는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에 “제네를 왜 저래?”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쓴 적도 있다. ‘아줌마’에서 ‘사모님들’로 변신한 50·60대 세대와 그들의 딸들—미시족이 되기도 하고 급진적 페미니스트가 되기도 한—의 삶을 분석해보려 했었던 것이다.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가진 딸들도 없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 30대 여자들의 뒤에는 ‘현대적’ 이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한, 오로지 가족의 신분상승에 자신의 전부를 건 ‘속물적’ 어머니들이 버티고 있다. 관찰컨대 이들은 셀얼마와 애증의 관계로 괴로워하는 세대이며 많은 것을 의외로 쉽게 포기하기도 하는 세대이다. 30대 여자들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라든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대가를 바라는 계산법, 그리고 대책없이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고 아이도 낳아 종래는 무기력해지는 모습들은 분명 이런 성장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딸들은 대학에 가서 어머니 세상과 결별할 기회를 갖는다. ‘구국의 일념’을 불태우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직접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안팎엔 간에 80년대 민중운동의 와중에 대학을 다닌 대학생들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잠시나마 ‘거창하고 막강한 존재’의 무게를 느껴본 것이다. 그 와중에서 여학생들은 또래 남학생들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남자가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밤늦도록 함께 술을 마시며 평등을 논한 또래 남학생들이 ‘별 것’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대학을 떠나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남성중심적 세상에 내팽겨쳐졌을 때 이들이 느낀



분노와 절망감은 더욱 큰 수밖에 없었다.

이들 세대가 가진 심한 피해의식의 뿌리는 바로 대학시절에 잠시 맛보았던 평등의 단맛에서 찾아진다. 이들이 대학시절을 통해 얻은 부정적인 것은 아마도 일상을 우습게 보는 시선일 것이며, 긍정적인 것은 남녀평등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평등의 이상은 너무 높았고, 현실을 돌아가기에는 너무 준비가 없었다. 자신이 택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30대들은 급기야 한국 역사에 없던 ‘산후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고, 상대방자를 ‘비생산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거나, 여자선배들을 ‘비생산적으로’ 비판하곤 한다.

이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을 때 나는 내가 30대에게 무엇을 당부할 만큼 충분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었다. 그러나 기자와 긴 전화통화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30대 여자들에게 애정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기대가 컸던 만큼 화가 나있는 상태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생산적’으로 들어줄 30대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이제 손을 더럽혀라. 또래 남자를 잡아서 요리를 한다고 평등사회는 오지 않는다. 여자동료를 만들어 일을 벌이기 시작하라.”

이제 대학시절에 역사에 대해 눈을 뜬 30대 여자들은 그 눈으로 일상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개발독재시대에 어머니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도구적이고 속물적 세상을 붕괴시키고 새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이상 어머니들이 말하는 ‘성공’에 매이지 말 것이며, 더 이상 그 ‘성공’을 우리 아이에게 강요하지 말자. 바로 어머니들이 말해준 그 ‘성공’이 우리 모두를 지금과 같은 엄청난 불행 속에 몰아넣었음을 이제는 알아차리자.

나는 이제 서너시간의 여가를 낼 수 있게 된 가정주부인 그대를 동네 세차장에서,

식당에서,
백화점에서 만나고 싶다.
자가용을 소유한 마성기이자
소비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아니라
대학 때 밥새워 읽고 토론하던 세상의 모순을 몸소 체험하면서
시민으로 성숙해가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대를 만나고 싶다는
말이다.
어머니가 들려준 귀천의식/신분의식을 깨고
스스로 돈을 벌면서 노동의 의미를 깨치고
함께 일하는 아들과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가는
당신과 만나고 싶다.

나는 어머니가 된 그대를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장에서,
아파트 단지에 아이들 도서관을 마련하자는 의논을 하는 반상
회의에서,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모임에서 만나고 싶다.
나는 또 그대를 직장인 노동조합에서 만나고 싶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만나고 싶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후배들을 격려하는 그대와 만나
밤늦도록 토론을 벌이고 싶다.
나는 정말이지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혜안으로
그대 주변의 삶을 일구어가기 시작하는 그대들의 환한 웃음을 보
고 싶다.

20대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꿈으로 열병을 앓은 적이 있는
여자들이,
남학생의 뒷전에서 구경을 했던 그들이
30대가 되어 주체적으로 꾸밀 모반의 양식을 상상해본다.
도청에 들어가 여자들의 공적 영역을 담당하게 넓혀가고 있는,
가정파괴범이라는 말을 가볍게 웃어넘기며
매맞는 여자들을 위한 피신처를 만들어내고
그곳에 있는 여자들과 연대해서
균임없이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통과시켜가고 있는
신현옥 후배와 같은 30대가
요즘 내게는 희망이다. 11



유숙힐

문학일보 생활부 차장

누가 그들에게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넣었을까?

작가 이문열에게 가서
당신이라도 그런 소설을 썼으니 여성의 가슴인가 머리인가
아무 데서라도 그 가당찮은 욕망일랑 빼달라고, 그래서
그녀가 밤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었다.

여성들에게 집 밖으로 뛰어나갈 생각 말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전념하라고 훈계하는 이문열의 소설 '선택'이 한참 논란이 되고 있던 때였다.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여학생회를 조직, 열심히 활동하던 의식있는(?) 여학생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90년대도 후반,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고 나이는 30대 중반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반은 얼이 빠진 표정으로 "글을 쓰고 싶은 욕망 때문에 밤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 글을 쓰면 뭘지 왜 잠을 못 자느냐고 묻자 그녀는 두 아이가 다 잠이 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 아이를 하나라도 키워본 사람은 알 것이다. 어린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엄마에게 밤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들. 글을 쓰고 싶은 욕망 아니라 글의 할아버지를 쓰고 싶은 욕망이라도

숨방망이처럼 피로에 지친 몸은 아이보다 먼저 잠이 쏟아지고 말며 육체의 피로는 언제나 그 어떤 욕망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신의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욕망에 시달리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참으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그녀에게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을 불어넣었을까?

나는 그것이 누구든 간에 마구 따지고 싶었다. 그때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작가 이문열에게 가서 그녀의 이야기를 하고 제발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라도 그런 소설을 썼으니 그녀의 가슴인가 머리인가 아무 데서라도 그 가당찮은 욕망일랑 빼달라고, 그래서 그녀가 밤잠이라도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었다.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스스로를 지옥의 곁에 떨어뜨리며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그녀만은 아니다. 그런 여성은 우리 주위에 너무도 많다. 그래서 백화점, 언론사, 각종 사회단체 등의 문화센터에는 언제나 여성들(대부분 주부들이다)로 초만원이다. 이제는 정식으로 문단대류한 여성작가들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녀처럼 괴롭게 시달리는 작가지망 여성이 더 많은 실정이다.

어쩌면 애초에 여자들이 글을 배우고 교육을 받은 것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말자고 주장을 해야 할까? 여자들에게 쓸데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책들일랑 모두 분서갱유焚書坑儒시키자고 요구해야 할까? 만일 그것이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여성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보장만 있다면 그런 방법이 편찮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이키우기를 포기할 수는 없고 병행시켜야만 하는, 그런 욕망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주위에 치일 정도로 많다. 그리고 그녀들의 고통은 참으로 끔찍하다.



글쓰기의 훈련은 우리 교육에서 가장 일차적인 교육이다. 십수년 동안 글을 읽고 쓰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많은 실정에 글쓰기는 가

장 손쉬운 자기표현의 수단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글쓰기는 익히 알고 있는 방법이며(일기쓰기, 편지쓰기를 더 많이하고 더 잘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밤잠을 줄여서라도), 글쓰기의 욕망은 실현가능한 꿈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뿐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매일 경험한다. 그래서 자책만 할 뿐이다. '내가 게을러서 못 하는거야', '조금만 부지런하면, 아이도 키우고 가정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 비현실적인 꿈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잠재워놓고 엄마들은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여성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직장을 제공하면 될까? 탁아소를 많이 세우면 될까? 나는 아직도 답을 알지 못한다. 단지 내가 아는 사실은 엄마가 살아야 자식도 산다는 단순한 진실뿐이다.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빠도, 자식도, 부모도, 가족도, 사회도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뿐이다.

자식과 가정이 아닌 어떤 다른 욕망을 지닌 엄마들에게 아무리 잘못됐다고 말해도, 설사 하나님이나와서 야단을 치더라도, 글쓰기에 대한 욕망을 지닌 그녀를 바꿀 수는 없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갖는 욕망이며 생의 의지인 것이다. 엄마를 죽이면서 산 자식이나 사회, 또는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이제부터 '죽이기'가 아니라 '살리기'에 힘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엄마들은 우리 사회를, 인류를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11



윤석남의 설치작품 <오조숙녀>와 광고 속의 취업여성 이미지를 합성했다.

역사가 만든 여성의 분열증

우리 사회의 30대 여성들이 성공을 향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현실 진단은 이제 익숙한 사실이 되어 '여성의 운명' 내지는 '한국여성의 정체성'이라고 치부해버리기에 이르렀다. 개개인의 삶은 성공이나 아니냐의 일도양단의 기로에 서있으며 여기에 서있는 여성의 딜레마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예로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공한 개인이 될 것이냐 사이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의 기호나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30대 여성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요청된다.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성공은 사회의 외면적 코드로만 계산됨으로써 내면적인 충족은 배제된 좁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우리시대의 여성들에게서 종종 '성공은 했지만 허전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이 역시 성공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당사자들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여성이 내면적인 지향과 외면적인 코드가 갈등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면 내면의 지향과 사회가 요구하는 외면의 코드는 무엇인가. 즉 여성들이 의미를 두는 좋은 가치란 무엇이며 사회가 인정하는 여성의 모델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좋은 가치를 향한 내면의 욕구는 자발적인 성격으로, 외면적인 요구는 강요된 성격으로 생각한다. 외부에서 아무리 강요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내면의 지향'이라는 것도 진공상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양태는 긴 역사를 통해 문화적으로 구성되어 나에게 내면화된 것이다. 내면화된 가치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

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유교관념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역사가 만들어준 여성의 갈등

유교는 가족운리를 통해 사회운리, 국가운리를 진단한다. 가족의 파괴나 가족운리의 부재는 세상의 파멸 곧 말세를 예고하는 것이 된다.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모든 의미체계를 만들어낸 유교에 대한 이해는 유교사상의 형성기에 가족이 매우 중요한 정치경제적인 단위였으며 따라서 가족구성원의 화합과 연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가족중심의 윤리는 가족의 성공과 영광을 그 구성원인 나의 성공이며 영광으로 여기도록 한다. 더구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에게는 남성 가족구성원을 길러 출세시키는 것에 사회적인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문화 전통에서는 처와 어머니 역할을 방기한 여성들, 즉 자신을 위하고 자아를 찾으려는 여성들은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단일 가치체계를 갖고 있을 때는 차라리 갈등이 덜했다. 훌륭한 처와 훌륭한 어머니의 이상,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내면화되어 관습적이고 실제적인 영역으로 자리잡았으며, 여기에 현대사회의 새로운 여성상이 제시됨으로써 여성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처와 어머니의 훌륭한 역할에만 성공의 메달을 건네지 않는다. 그렇다면 출세한 남편, 성공한 자녀 외에 무엇을 더 갖추어야 하는가. 나 개인의 성공이다.

근대화를 거쳐 새로운 체제와 제도를 도입한 우리사회는 개인중심의 사고와 개인의 자아실현을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었다. 성공이란 '개인의 완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의 개인은 자아인식을 기초로 수많은 다른 개인과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름다운 주인공이 된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가 아닌 것이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적어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다는 민주주의는 성공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남성과 같이 무한경쟁의 체도에 편승할 것을 당위로 제시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기초하는 '개인' 또는 민주주의 제도가 기반하는 '개인', 서구 시민사회가 배출한 그 '개인'이 우리 여성에게는 마치 유령처럼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자아실현'이라는 인간 이상이라도 교과서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그것은 '서구 시민사회의 개인'이 전통적으로 관계 중심적 인간관을 가져온 우리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생긴 부작용이고, 여기에 더하여 나의 성공을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로부터 끌어내는, 일률적인 가치추구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이해에 기반한 자아실현은 가족을 성공시켜야 하는 부담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여성의 삶을 휘감고 있는 이와 같은 존재적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중에 그 어느 것을 무조건 자르듯 잘라버리거나 무시해버릴 수만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양자의 가치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까.

먼저 하나의 가치로 몰아부치는 이 시대의 사회구조와 가치체계에 대한 비판이 요구된다. 자아실현이라는 문제는 '내가 하는 것을 나도 해야 한다'는 식의 경쟁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 나와 너의 차이성이 전제된 다양한 가치의 발굴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전통사회의 어머니 역할, 처의 역할을 '특별한 남편과 아이'를 제조하는 가족 이기주의로 이해하고 있는 '오해'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별한 남편과 아이'의 제조기를 자임하는 지금 우리사회의 여성들에게서 종종 공공의식의 부재를 목격하곤 한다. 전통사회 여성은 어머니로서, 처로서, 며느리로서

이숙인

국민대 강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논문 「중국고대의 여성윤리사상 형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페미니즘과 유교』, 『한국여성과 유교윤리』, 『동양적 여성철학의 모색』(철학과 현실, 1997년 여름호) 등 논문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열녀전』(예문서원 간)이 있다.

서의 역할에 한정된 삶은 살았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에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았는가' 하고 묻는다면, 우리시대의 여성들에게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그들은 어머니 역할이 단순히 자식을 좋은 환경, 좋은 대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님을, 아내의 역할이 남편의 외형적인 출세를 돕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다음에 소개하는 어머니와 처의 역할은 다양한 삶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시대의 여성들에게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원전 1세기의 중국사회에서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여성들을 소개한 『열녀전』(예문서원)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의미보다 훨씬 다양한 모습이 들어있다.

전통에서 찾은 여장부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전국시대 조나라, 조괄의 어머니는 자식과 사회를 비판하는 눈을 지니고 있었다. 진나라와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된 조나라가 군대를 통솔할 장군으로 조괄을 선택한 것은 과거에 명장이었던 아버지의 명성이 작용했던 것이다. 이에 그 어머니는 아들의 능력이 장수의 지위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장수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상소를 왕에게 올렸다. 이유는 지위에 따른 권력만 쟁기고 그 역할에 따르는 깊은 고뇌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들의 자세를 관찰하니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에 급급하면서 부하에게는 신처럼 군림하는 등 잣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는 논리가 자기 아들 조괄에게는 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왕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러자 조괄의 어머니는 패한 장수에게 적용하는 연좌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의 법에는 전쟁에서 패하면 장수 당사자는 물론 장수의 온 가족이 벌을 받는 연좌제가 발효되던 시대였다. 장수의 재물이 아니었던 조괄은 그 어머니의 말대로 전쟁에서 패하여 군대를 파산시키고 자신도 죽

임을 당하였다. 왕은 약속대로 조괄의 가족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았다. 괘의 어머니는 국가의 계획을 바꾸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자신을 아들의 인생과 명목적으로 연결짓는 관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거부했던 것이다.

조나라 노래자(樂子) 부부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살림도구나 의복, 먹는 음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던지 왕에게까지 그의 삶이 소개되었다. 조나라 왕은 노래자가 덕이 있는 선비임을 금방 알아차리고 정사에 초빙하여 나랏일에 조언을 얻고자 하였다. 초왕은 노래가 사는 골짜기까지 직접 찾아와 초빙의사를 밝혔다. 노래는 거절하였으나 왕의 거듭된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승낙하고 말았다. 노래의 처는 먹거리와 털나무감을 구하러 나가 그 자리에 없었다. 돌아온 처가 사립 밖에 수레바퀴자국이 깊게 패인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방문한 것을 알아차렸다. 남편이 재상의 자리를 허락한 것을 알고 처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술과 고기를 먹는 대가로 채찍의 휘둘림을 감내해야 하고 벼슬과 봉록을 받는 대가로 도끼의 무시무시함을 당해야 합니다. 술과 고기, 벼슬과 봉록을 받는 대신 당신의 자유를 반납하렵니까? 그런 삶을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군요. 그럼 이만..." 메고 있던 망태기를 벗어 던지고 떠나가는 것이었다. 노래가 따라가며 자신의 생각이 짧았노라고, 당신을 호강시켜 주고 싶었다며 변명했지만 그의 처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었다. 나아가고 뒤따르고 하여 부부는 수백리 강남 땅에 이르러서야 멈추었다. 둘의 의견조정이 이루어지고 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당시의 군자는 그 처에게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렸다. "노래의 처는 좋은 것을 선택함에 주저함이 없었다. 『시경』에서 '오막살이 집일망정 다리 뻗고 살리라'고 한 말은 바로 이들 부부의 삶을 대변해주는 것과 같다." [1]



진정한 성공을 위한 10계명



윤 석 남
(화가)

자신에게 하는 투자를 아끼지 말라

지금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면 굳이 사회로 나올 필요는 없다. 각자 자신의 삶의 양식이 다른 법이니라. 그렇지 만 '이전'이냐, '이후'는 못 살아' 라고 생각하며, 남(남편을 포함해서)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오그라 든다면, 뭔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 자신이 행복해질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조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성과에 쫓기고 자신을 할퀴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한다. 처음에는 생활비의 일부를 떼어 나만을 위해 쓴다는 게 힘들 수도 있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어쩌면 때론 소리 치릴 뉘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면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해보라. 그 전에 충분히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한다면, 병원이나 그밖에 것에 바치는 돈보다 훨씬 적 게 들 것이다.

먼저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라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심 리상담연구소의 적성검사를 하는 방법도 권한다. 나의 경우에도 적성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일(노래하고 방송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이 적성에 맞다고 나왔다. 이런 검사는 어렸을 때만 할 수 있고,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되면 단시일 내에 승부를 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래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에 서 7년 동안 전업주부로 있으면서는 나도 많이 우울하고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시간들이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교육방송이나 공영방송의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프로그램 등을 눈여겨 보고 신문스크랩도 하며 정보를 모았다. 그런 시간들이 지금에 와서 방송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준비하다 보면, 그렇게 살았던 세월이 축적돼 어느새 '목돈'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다. 꾸준히 시간을 투자한 것에는 배신이 있을 수 없다.



양 희 은
(가수, 방송인)

30대에 뭔가를 시작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성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나만 하더라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희생은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처음부터도 아니고 지금 새롭게 다른 일을 희생하고, 수입의 대부분을 턱아비로 쓰고, 주위 사람들의 반대 에 부딪치며, 별 능력도 없이 무엇인가를 새로 시작해보는 일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 냉정히 말해 개인의 내적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생활이 아니라,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을 갖고자 한다면 30 대는 너무 어렵다.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거나, 오래도록 전업주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무한경쟁시대에 능 려없이 사회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겠는가.

만약 그래도 30대인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효율을 길게 하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고생하겠다고 작정하고 구체적인 플랜을 짜야 한다.

고령화가 가속되는 미래사회에는 복지산업, 상담영역, 육아교육 부문의 일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온 여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이런 종류의 일일 것이다. 10년후를 내다보고 일을 시작하겠다는 위와 같은 분야에도 눈을 돌려보는 일이 어떨까 싶다.



이 상 덕
(서울여성의전화 대표)



김 혜 경
(도서출판 푸른숲 대표)

'이겨내야 한다'는 각오로...

30세에 재취업하면서 나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No' 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혼한 여자직원을 얼굴 마주보기 염려로운 상태로 여기는 1백 퍼센트 남성에 의한 남성을 위한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는 나름대로의 비장한 각오였다.

당시에 나는 '나' 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품적 가치를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주어진 일을 한 가지씩 해내어 조직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나의 상품가치를 키워나갔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대부분 사회적 훈련이 부족하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객관화된 자신과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히 가리지 못 하거나, 대인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미숙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

나는 사회활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절망 이겨내고 싶은가' 를 우선 묻고 싶다. 그냥 성공이 아니다. '이겨내는 것' 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철저하게 객관화해야 한다. 여자니까, 적당히 동등의 비집 한 발로 자신을 용서해선 안된다. 남성보다 5배, 10배의 치열한 노력으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이미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택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30대를 고민하며 보낸 40대인 내가 30대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략 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면 첫째,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한발씩 노력 하라는 것이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나는 그걸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헛감정 속에서 보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를 원하는 30대는 열에 육아를 도파를 천지라 없으면 아이를 하나만 낳으라고 권하고 있다.

절대적인 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 무대 위의 주연으로 자신을 빛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이 사회가 돌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면 그 일이 가진 가치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수입의 많고 적음에서 한발씩 물러나 자신의 일을 즐기라는 것이다. 즉 사람마다 가운은 다른 것이니 자신이 택한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 두번째 제안이다.

셋째, 자기 마음에 드는 자신을 가꾸는 일이다. 자신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남에게 호감을 주는지, 현대를 사는 데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항상 자 신이 목표로 하는 자신의 상을 만들어 노력해간다면 언젠가 좋은 기회는 올 것이다. 더욱이 급변하는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는 감각을 익혀두는 것이 언젠가 사회 속에 자신의 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이 여러가지들을 절대 조금씩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 명 신
(《또 하나의 문화》 동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홍보출판위원장)



조 선 희
(씨네21 편집장)

‘원칙’을 쫓으면 인생을 얻는다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언젠가 인터뷰할 때 그가 한 말 가운데 아직도 또렷한 인상으로 남은 대목이 있다. “돈을 쫓으면 돈이 도망가지만 일을 쫓으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말이었다. 그건 안성기씨 자신에게 꼭 합당한 말이었다. 실제로, 그가 20년 가까이 정상배 배우로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전의 돈’에 연연하지 않았으면서 연기자로서 자기관리를 해온 덕분이다. 실제로 그는 한창 스타덤에 오를 때 쏟아지던 TV CF 출연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10년 동안 한 커피광고에만 출연했던 것이다.

안성기씨의 이같은 인생관칙을 내 좌우명으로 삼았나고?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나는 ‘목전의 돈’보다는 ‘진 안목에서의 일’을 선택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돈이 자연히 따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나는 한겨레신문 창간하는 데 끼고 싶어 연합통신사를 그만두었는데, 월급은 반으로 줄었고 지금도 그 수준이다. 하지만, 돈이 없어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내가 해온 선택들이 옳았다는 믿음에는 의심이 없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조금 바꾸어서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여자는 남자는 마찬가지로. “목전의 이익을 쫓아가면 작은 이익을 얻을 테지만, 원칙을 쫓아가면 인생을 얻는다.” 너무 거창한가. 거창해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인생이니깐.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하게

20대일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준비하면서 30대로 넘어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놓쳐버린 20대가 후회스럽지만 앞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작게라도 움직임을 시작하라. “내가 아직 어려서...”, “시대에 눈치가 보여서...” 기타등등 자신의 움직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 일주일 단 하루, 아니 한나절이라도 좋다. 아이를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같이 예 기할 사람을 찾고, 그러한 모임에 참가하는 것부터 시작하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지만 성공적인 40, 50대를 위한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모든 엄마들이 그런 것처럼 나 또한 내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생각에서 교육문제를 고민했다. 그래서 주위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나 둘러보다가 작은 모임에 참여하게 됐고 그런 30대의 작은 움직임이 발바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발전해왔다.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꾸준하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더 욕심을 부린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30대 여성이 실천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이다.



신 현 경
(화가, 영산국제산업 대학 교수)

반쪽만 주고 남은 반쪽은 내가 갖기

30대에 ‘성공’을 업무에 둔 적은 없다. 그저 나라는 존재가 최소화되고 엄마와 아내의 모습만으로 정체되고 있는 스스로가 고분수였다. 그러나 힘들면 힘들수록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현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위한 작은 노력을 꾸준히 해가기로 하고 가장 먼저 머릿속 교통신호부터 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접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하루에 단 몇분이라도 늘 생각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나사 내가 가진 에너지의 반은 아이들에게, 나머지 반은 나 자신을 위해 쓰도록 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로서 완전하지 못함에 대해 미안해하기보다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하고픈 일에 열심인 모습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엄마의 다양한 사회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배운다. 처음엔 엄마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즐거운 모습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과 성공을 넘어 어떻게 볼까 하는 염려는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평가받느냐를 의식하지 말고 자기자신에게 더 몰두하라. 즉 나를 위한 작업으로 남들과 소통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자는 것이다.



홍 성 혜
(인간교육실현학부모원 대 공동대표)



임 정 희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미술평론가)

지배적인 가치관의 물길을 거부하라

나의 경우에는 뒤돌아보면 30대의 시간이 20대보다 훨씬 길게 느껴진다. 20대에는 남들에게도 위이 변화를 이해시킬 수 있을 만큼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30대에는 외연적 변화는 줄었으나(심지어 단색조로 보여지기도 하는), 현실적 요청들과 감정적 거부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내면의 변화를 달고 살았다.

결혼, 가정이라는 형식으로 지속됐던 외국에서의 학업기가 나의 30대였다. 남편이라는 타인과의 공동생활에서 오는 갈등, 엄마로서 느껴지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학업성과 대한 심리적 압박감, 일상공간에서 접하는 문화적 차이의 충돌과 결에 대한 곤혹함 등, 숨막힐 듯 들어찬, 그리고 중층으로 얹혀진 문제들과 지대한 싸움을 벌였던 30대였다.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형태짓기에 흡수되지 않는 나머지, 동질적 합리성의 구조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가장자리들, 지배적인 선행성에 따르지 못하는 머뭇거림에 대한 인식이다. 목적론적이고 실체적이며 지배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이해방식 이외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삶이 있다는 확신 말이다.

지나간 30대를 보내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나머지, 가장자리, 머뭇거림에 대한 무게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당당히 새로운 수도, 주어진 기준을 넘어 현대적일 수 있으리라는 게 40대의 나의 생각이다.

여성들의 무기는 ‘실력’과 ‘관심은 친구’

나는 30대에 접어들어 남매를 두고 있다. 이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했던 것이 한국사회의 남성지배적인 특성과 아이들의 실제 가족관계에서의 적응문제였다. 아들에게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었다. 우리사회에서는 남자는 막일을 하더라도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딸은 새로운 가문에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서 그녀의 운명은 새 환경에 좌우되게 된다. 인생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며, 타인들과의 마찰과 갈등을 이겨내고 연마해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어서 우선 무장을 갖추어 내보내야겠다는 것이 내 딸을 위한 생각이었다. 여성에게 있어 무기는 실력이다. 실력은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어력이며 지혜롭게 사물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보며, 우리사회에서 아들과 딸 중 누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가 하면 나는 딸이라고 말한다.

나는 여성이 어떤 환경에서든 자존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본다. 남편과 자식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듯이 나 자신에게도 돈 들이는 투자를 하고 남들을 위하기에 앞서 자신을 철저히 위한 것이 심신양면으로 건강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남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나를 만들게 된다. 더 하여 배울질이 있는 친구를 가까이 두는 일은 성공적인 인생의 보장이 된다.



이 정 아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살아보고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실패없는 결혼,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친다



- 결혼 제도에 혁명이 몰려온다
- 결혼, 살아보고 결정한다
- 스스로 선택한 결혼 적령기
- 결혼은 오케이, 아기는 노
- 필요할 때 만나 몸과 마음을 나눈다
- 성 해방이 가져온 미국 여성들의 고민
- 엄마, 사실은 나 레즈비언이에요
-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가 왜 생기는가
- 나이 먹어서 더 당당한 여자들
- 여자는 40대에 날개옷을 입을 수 있다

●이정숙 지음 / 신국판 / 288면 / 값 6,500원

"서울서만 매일 40쌍이 갈라설 만큼 이혼율이 늘고 후유증도 크죠. 이건 가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국가 문제예요"

- 경향신문 9.25(목) 저자 인터뷰 중에서 -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순결 이데올로기가 남아 있어서 제 주장이 좀 쇼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혼율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젠 순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결혼 자체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일보 9.26(금) 저자 인터뷰 중에서

"특히 미국에는 결혼 전에 일정 기간 살아보고 나서 결혼 여부를 정하는 20대가 많아지면서 이혼율 자체는 낮아지고 있지요. 동거 전에 사소한 가사 분담부터 사는 방식을 협의해 두 사람이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지 타진하는 것이지요."

- 조선일보 9.30(화) 저자 인터뷰 중에서

(살아보고 결혼하십시오)는 전직 방송인인 저자 이정숙(1952년생, 1975년 KBS 공채 3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20년 동안 KBS에서 일함)이 3년 동안 머지간 주립대학 국제전문인 초청 과정을 통해 이혼율 증가와 성 해방에 따른 미국 사회의 고민과 그 처방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의 당당하고 새로운 선언은 미국과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 줄 것이다.



유지나의 영화산책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어도 관객은 영화관을 찾는다. 현실보다 더 썩은 가상현실에서 관객 자신보다 더 타락한 영웅이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더 썩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자살하지 않고 그나마 관객이 극장을 찾는 건 위안을 받기 위해서이다.

97년 한국영화, 싸우기와 벗기기의 전략

유지나 편집위원, 영화평론가, 동국대학교수

11월 초,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주최로 "위기의 한국영화, 새물결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주제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태영화제, 부산영화제를 통해 신선한 감흥을 준 아시아영화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한국영화는 이란영화나 일본영화, 중국권 영화들처럼 세계영화제에서 뜨지 못 하는지에 대한 단식으로부터 최근 '여관방영화'라는 장르적인 표현

까지 나올 정도로 움습한 구석에서 방황하는 한국영화에 대한 우려를 폭발시키는 자리가 돼버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그려낸 한국영화의 초상화인즉 대체로 이렇하다. 상당히 다양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다(10만명 이상 관객 동원)는 제작자측의 반응과 극적 필연성 때문에 싸우거나 벗기기, 욕설이 등장했다는 감독측의 입장. 치열한 작가정신과 합리적인 제작시스템이 부재하는 걱정스러운 현실이라는 평론가





〈접속〉은 상식적인 삶의 깊이를 따라잡는 나름대로의 건강함과 진지함에서 최근 한국영화가 잃어버린 위안을 준다.

축의 진단에 덧붙여 이란영화나 일본영화가 과대하게 평가되고 있다는 신중론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이란의 키아로스타미가 "같은 감독으로서 심사하기 곤란하다"는 듣기좋은 평계를 대면서 부산영화제 심사를 고사한 후 도쿄영화제 심사를 맡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외국감독의 말이나 인터뷰를 그대로 믿어선 안된다는 흥미로운 보고도 있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국영화의 '위기'

다시 한국영화 형편으로 돌아와서, 한국영화에 위기란 말이 따라다닌 것이 어디 어제오늘의 일이던가? 필자만 해도 한국영화의 위기란 말은 십여년간 들어와서 지겨운데, 일반독자에게야 영화인들의 엄살처럼 들리는 말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대체 올해 한국영화가 어떤 수확을 낳았기에 또 어김없이 위기란 말이 나오는지 내친 김에 올해 한국영화의 전반적 경향을 짚어보기로 하자.

지난 해 〈애니멀〉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대중상이 올해 무주로 자리를 옮겨 어렵게 변신을 꾀한 본심에 심사를 맡았던 필자는 예심을 거쳐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한국영화 15편을 나흘간 집중적으로 다시 볼 기회가 있었다.

〈접속〉에 관객이 몰린 이유

솔직히 고백컨대, 영화를 다시 본다는 건 그다지 흥미로운 일만은 아니다. 때로 어떤 영화는 다시 보면 처음 볼 때 못 봤거나 생각치 못했던 요소들이 나타나 놀라움과 희열을 주기도 하지만, 조악한 영화들은 다시 볼수록 그 졸렬함이 더 불거져나와 인내력을 테스트받는 것 같은 참담한 느낌을 주기도 하니까.

그래도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한해 나온 영화들을 한꺼번에 다시 보면 한달에 한두편 정도 간격을 두고 볼 때는 알아차리기 힘든 동시대의 흐름이나 시대적인 영화창작 주체들(제작자, 기획자, 시나리오작가, 감독 등)의 '집단무의식' 같은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면 〈접속〉에 관객이 몰리고 대중상이 쏠린 건 당연하다는 점이다. 대체로 다른 영화들이 싸우기와 벋기, 욕설로 재미 내지는 뽀름을 보여주겠노라고 덤벼드는데 비해, 낱아빠진 장르인 멜로 드라마에 속하는 〈접속〉만이 정석대로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적당히 세련되고 깔끔하게 상황의 진부함을 빠져나가면서 캐릭터의 내면을 보여줌으로써 관객에게 오랜만에 따뜻한 정서적인 경험을 가능케 한 점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일 수밖에 없다. 다소 밋밋하고 평면적인 드라마 전개와 부자연스러운 상황과 우연성이 〈접속〉에서 발견되지만 적어도 〈접속〉은 상식적인 삶의 깊이를 따라잡는 나름대로의 건강함과 진지함에서 최근 한국영화가 잃어버린 위안을 준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올해 한국영화를 리와인드해보자. 우선 대중상 본심에 올랐던 영화리스트부터.

〈넵버3〉, 〈비트〉, 〈초록물고기〉, 〈지독한 사랑〉, 〈마리아와 여인숙〉, 〈창〉, 〈불력재〉, 〈피아노 맨〉, 〈산부인과〉, 〈유리〉, 〈고스트 맘마〉, 〈아버지〉, 〈코르셋〉, 〈폐자부활전〉, 〈접속〉, 그리고 대중상 이후 나온 영화나 여기 들지 못한 영화들로는 〈모텔 선인장〉, 〈역수탕〉, 〈나쁜 영화〉 등...

폭력·정사는 주메뉴, 욕설은 양념

이 영화들 중 과반수는 일단 크게 두가지 잔상을 지배적으로 떠오르게 만든다. 폭력배들이 뒷골목이나 주차장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싸움을 벌이는 싸우기 장면이 그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남녀가 부둥켜안고 뽀글뽀글 오랫동안 정사를 벌이는 벋기 장면이다. 그리고 양념이라면 너나 할것없이 주고받는 욕설이다. 이런 영화들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주류시스템에서 이탈한 고독한 영웅 내지 반항적 영웅, 타락한 영웅으로서의 캐릭터를 공유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나친 감이 있긴 하다. 나름대로 각 영화마다 싸우기장면과 벋기장면, 그리고 욕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극적 필연성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이들테면 썩어빠진 사회에서 소외된 주인공이 뒷골목 인생으로 타락해 일을 벌이는 것으로부터 드라마가 설정되었으니, 당연히 욕설과 조직간의 패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호텔이든 모텔이든 매춘굴이든 남녀가 벋고 뽀글은 육체의 향연을 주된 스펙타클로 내세우는 영화들로 온 국토의 여관화처럼 보이는 한국의 타락한 성풍속도에서 이야기거리를 끌어내고, 그것을 통해 일그러진 사랑의 풍속도나 성윤리, 인간관계의 타락을 보여주려니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현실반영적인 입장에서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 또 한가지 고려할 게 있다. 공룡의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 이후 영화검열이 등급심의제라는 과도기적 상태에서 그간의 공권력의 가위가 (상업적으

로 죽으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는 '등급판정 보류'를 피하기 위해) 제작자 손에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한국영화가 그동안의 가위눌림과 콤플렉스를 해소하는 찻김 굿이라도 하듯이 폭력신과 섹스신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보이는 과도기적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아닌게아니라 공룡의 사전심의와 가위질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 가위질이 없으면 한국영화가 섹스와 폭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대로 올해 한국영화의 벋기와 싸우기 정도는 그런 우려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도 든다. 차라리 문제는 그보다도 이런 묘사들로 밀어부친 영화들이 너무 많아 한국영화판이 재미없어졌고, 아시아영화 속에 한국영화 좌표가 저 아래쪽이 아닌 가라는 낙심스러움을 주는 데 있다.

조직간의 세력확장을 위한 패싸움과 거기 휘말린 '나름대로' 인간적인 주인공의 싸우기를 비극적이든 희극적이든 그런 〈초록물고기〉, 〈비트〉, 〈넵버3〉 등은 그런대로 개성과 묘미를 보여주면서 한국식 갱스터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속칭 상식적인 삶의 공간이 아닌 남녀의 정사를 위



〈홀리데이 인 서울〉



〈모텔 선인장〉

해 마련된 비밀스런 공간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남녀가 열싸우고 구르며 벌이는 정사장면을 다양하게, 길게,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에서 '누가누가 잘하나' 게임을 벌이는, 속칭 '여관방' 영화로는 〈지독한 사랑〉, 〈홀리데이 인 서울〉, 〈창〉, 〈마리아와 여인숙〉, 〈모텔 선인장〉 등이 있다. 실제로 이런 류 영화에는 호텔이든 여관이든 하는 공간이 아예 영화제목이 돼 사람들의 흥취보기 관음증에 아부를 한다. 하긴 영화창작 주체들이 주로 여관방에 모여 작업하다보니 여관방뮤즈를 만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닐까 하는 한심한 생각도 든다. 여관방 주위를 뱅글다보니 그곳을 세상의 축약도로 바라보게 되는 '여관방 개구리'라는 신종속담처럼 말이다. 어차피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힘드니까. 몸과는 여자들만 보다보면 세상 여자들이 다 그런 것 같고, 싸우는 남자들만 보면 세상 남자가 다 그런 것 같다는 위험한 선입견을 갖는 게 인간이고, 영화인도 인간이니깐.

한편 한국 상업영화 장르로서 드물게 보는 스릴러로 완성도가 높은 〈블랙잭〉이나, 엉성하기 그지없는 〈피아노맨〉 같은 영화는 폭력과 섹스, 싸우기와 벗기기를 적당히 뒤섞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려 하지만 정작 스릴러 최대의 무기인 세스펜스와 지적인 주리에선 맥이 빠진다.

이런 틀을 벗어나는 영화로 〈고스트 맘마〉와 〈아버지〉가 있는데, 가정멜로드라마로서 가족의 소중한 가

치를 내세워 코를 꿰는 뽀빠이 만들려하지만 진부하고 보수적인 가치관과 관습화된 상투행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돼 식상한 느낌을 준다.

여성의 몸에 대한 스펙타클화(!)

〈산부인과〉와 〈유리〉는 이야기체에서부터 기존영화의 관습을 파괴하고 나름대로의 실험성과 개성을 갖춘 뛰는 작품에 속한다. 하나 전자는 (가상의) 자궁 속에 넣은 카메라로 밖을 여러차례 보여주거나 제왕절개하는 장면의 생생한 중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산부인과에서 벌어지는 이탈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춰 확대경으로 보여주는 여성의 몸에 대한 스펙타클화(포스터에 나온 황신혜의 다리 벌린 이미지!)가 압도적이어서, 과연 이 영화를 보면 여성의 몸에 대해 뭐를 알게 되는지 걱정스러움이 들 정도이다. 인간의 몸을 구도의 도구로 사용한 〈유리〉의 경우는 아룻함을 넘어서 반복적인 몸의 메타포가 관객을 질리게 만드는 면이 있다.

아무튼 재빨리 훑어본 한국영화의 97년 초상화는 현실반영적이면서 동시에 반영의 현실을 보여준다. 대체로 영화를 통해본 한국사회, 혹은 영화가 반영하는 한국사회는 개인의 가치나 삶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썩어빠지고 타락한 ((넘버3)의 표현대로) 삼류판이다. 자기 잇속만을 위해 권모술수를 쓰는 이들, 폭력과 섹스를 무기로 삼아 원하는 것을 얻고 욕구를 충족하는 인물들의 행태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영화들은 이런 썩은 사회, 타락한 시스템에 대한 반항아와 이탈자들을 영웅인 양 그려낸다.

그러나 타락한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성찰없이, 그저 그것을 당연한 것인 양 설정하고 빗나가는 이탈적 행위들로만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반영의 현실은 타락한 시스템의 연장과 강화를 부추기는 퇴행적이고 보수적이며 무책임한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탈적 인물들의 타락한 관계들을

자극적으로 보여주기, 관객이 충격을 얻도록 인체 손상과 섹스장면을 이전보다 강하고 진하게 지독하게 보여주기. 그러다 보니 최근 여관방영화에선 카메라를 끌지 않고 길게 찍는 롱테이크가 주로 정사장면에서 남용되는 상황까지 보여준다. 개성있는 연출력과 일관된 주제의식으로 한국영화의 대표적인 작가감독이란 칭호를 얻는 임권택감독은 〈창〉에서, 이명세감독은 〈지독한 사랑〉에서 좁은 공간에서 벗고 땀구는 배우들의 섹스신을 얼마나 잘 연출해낼 수 있는지 실험이라도 하는 듯하다.

하긴 필자도 독자처럼 '무엇' 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대중상업영화가 윤리 교과서나 교훈적인 메시지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안다.

그러나 '무엇' 보다 '어떻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한국영화의 행편은 천편일률적으로 싸우기와 벗기기라는 이탈정서로 물리는 게 더욱 두드러질 뿐이다. 상업영화는 어차피 돈놓고 돈먹기니까 대중의 흥미를 위해 선택한 최근 한국영화의 상업적 전략이 싸우기와 벗기기라면 (접속)의 성공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무나 싸우기와 벗기기라는 자극적 묘사로 달려가는 게 그리 상업적으로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는 걸 영화창작 주체들은 언제나 깨달을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어도 관객은 영화관을 찾는다. 현실보다 더 썩은 가상현실에서 관객 자신보다 더 타락한 영웅이 못된 짓만 일삼으면서 더 썩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걸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자살하지 않고 그나마 관객이 극장을 찾는 건 위안을 받기 위해서이다.

한국영화는 말초적 재미, 할리우드영화는 감동?

한국영화에선 말초적 재미를, 〈마빈스 룸〉이나 〈지 아이 제인〉, 〈콘택트〉 등의 할리우드영화에선 삶의 감동과 용기를 얻는다는 젊은 관객의 이야기는 필자에



〈초록물고기〉

겐 충격을 주었다. 필자는 거꾸로 세련된 할리우드영화가 말초적 재미와 오락성을 주더라도 한국영화는 적어도 한국에 사는 이들에게 삶의 감동을 주어야 한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남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허망함... 게다가 지난해 〈스트립티즈〉에서 어머니로 주연을 맡아 최악의 여배우가 되었던 데미 무어가 〈지 아이 제인〉에서 지옥훈련으로 거듭나는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지성파배우 조디 포스터가 과학자로 나와 인류의 꿈을 싣고 외계와 접촉하는 고감도 SF영화 〈콘택트〉를 보고나니, 여관방과 사창가에서 구르는 온몸 연기로 연기력을 시험받아야 하는 한국여배우들의 처지에 대한 서글픔이 더 밀려왔다.

'그저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 최악'이라고 영화매체의 공적인 기능을 간파한, 이제는 세상을 떠난 키에로프스키의 잠언. 그리고 '영화이미지가 부드러워진다면 세상이 좀더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고 칸느에서 말했던 뎀터스의 성찰력, '영화는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했던 바르다의 사명감, 더 이상 영화로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임권택 감독의 양심선언... 이 좋은 말들이 영화로 실천되는 날이 왔으면, 그래서 삶의 용기와 위안을 한국영화에서도 받는다면 하는 바람이 허망한 것이 아니기를. [11]

영화 <창>을 만든 임권택 감독에게

여자들은 '사는 남자가 있기에 파는 여자가 있다'고 하고
남자들은 파는 여자가 있기에 사는 남자가 있다.
순서를 뒤바꾸어도 결론은 사고 팔고일 뿐.
그런데 남자들은 무엇이라할까.

나는 한때 창녀였던 사람입니다.
(창)이라는 영화의 방울이처럼 돈을 벌어서 고향을 찾고
싶었습니다. 나도, 시작은 영화에서처럼 그랬습니다. 대방동 시립부
녀보호소에서 만난 한 여자는 내게 주소를 전해주면서 찾아오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간 곳이 동두천의 환락가였소. 짐작하겠지만 주
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던 그 여자는 포주였고, 난 히빠리(호객행위)
를 하면서 2년 동안 동두천에서, 그후엔 송탄과 군산 아메리칸 타운
에서 88년도까지 몸을 팔며 살았어요. 영화랑 똑같아요. 여기저기
로 업소를 옮겨다니며 그렇게 흘러가듯 살았습니다. 돈 한푼 모으지
못하면서 늙어버렸어요.

때가 되면 방울이를 찾아와 오토바이 뒤에 싣고 고향집을 찾아주
는 그런 남자가 나한테도 있었어요. 소설을 쓴다면 그 남자와 내 고향
여수에서 음악감상실을 차리고 싶었던 꿈도 있었구요. 모아질 듯
하던 돈은 내 손에서 술술 빠져버리고, 맨날 그 짓에 그 타령이죠.
영화 그대로예요. 그럼 지금의 나는 뭐하나구요? 나는 지금 기지춘
여성들과 그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전도사요, 창녀였던 전도사
가 지금의 나요.

영화를 보면서 내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팠소. 그동안 기억하
지 않던 것들이 막 떠올랐기 때문이요. 열여덟에 처음 찾아간 동두
천 생년7리, 그 환락가의 골목도 생각나고 그 뒤로 이 홀에서 저 홀
로 옮기던 것들까지 영화는 내 과거의 기억을 후벼파더군요. 내 머
리는 터질 것 같고, 난 그때처럼 훌쩍 옷이 벗겨지는 기분이 듭니다.

도저히 끝까지 볼 수가 없어서 중간에 슬그머니 극장을 나와버렸소.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서 찢찢 땀
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해야지 속이 풀릴 것 같았지. 나의 이야기인지
영화 속의 내용인지 마구 뒤엎겨 입으로 쏟아져나옵니다. 괴롭더라
도 좀 들어보시오. 도대체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옷만
입고 벗는 그 방울이를 위해서 내가 내 생각이라도 씹어뱉지 않고서
는 견딜 수가 없으니요.

정신세계와 관계없이 서로 엉키어 성관계를 맺는다? 돈을 받고
자궁을 남자에게 내주는 창녀의 마음 속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정상
적 관계가 아닌 돈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노동, 혹은 직업이라고 자
위하면서 팬티만 벗고 자궁을 드러내지. 유방의 애무나 키스는 사랑
하는 사람과의 몹이지 돈을 주고 몸을 사는 쌍놈의 새끼 짓은 아니
라는 분노가 더욱 몸을 경직시키고, 몸을 팔기 전 첫키스의 달콤함
과 키스에서 무르익은 컷볼이 유방에 부딪힌 뜨거운 입술에 숨겨지
는 그것이 사랑이었는데 낯선 시발놈의 새끼는 오직 돈으로만 치루
는 의식일 뿐.

허, 차라리 열방 순이처럼 처녀인 채로 인신매매로 끌려왔었으면
뭐가 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남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을 육체의
희열로 알며 돈도 벌고 즐길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남자의 애무
를 서로 조건없이 받아보았던 육체의 깊은 곳이 있었기에 마음 속에
서는 배 위에 올라타고 있는 놈이 지긋지긋한 짐승일 뿐. 고향생각,
친구생각, 돈생각에 자궁 속에 파고드는 남자의 성기로도 가슴의 공
허를 메울 수는 없어.

영화배우처럼 잘 생기고 체격좋은 이상형의 남성이 머리부터 시
작해서 발끝까지 애무로 육체의 부분을 달아오르게 하여 최후에 남
성의 성기를 자궁에 삽입해서 절정에 이르게 할 때만이 육체의 교합
이요, 정신세계의 결합이 되는 것. 기동서방이라도 잡아 웃도 해주
고 맛있는 것도 사주지만 돈이란 있다가도 없는 것. X구녕으로 팔아
서 입구녕 풀칠만 했지 돈도 모아지지도 않는데 나도 이제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정신세계의 허함이 다른 탈출구를 찾기도 했었
지. 정신과 결부된 육체의 행위에서 배설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은
오히려 아름다운 향이 있을 것 같은데 혼자서만 싸는 그 지랄 같은
놈의 정자는 내용새조차도 구역질나서 발가락 냄새 같기도 하고 또





유난히 끈적거리고 기분 나빠서 씻고 또 씻고 닦아서 없어지더라도 조갑지를 씻게 만들었지.

여자들은 '사는 남자가 있기에 파는 여자가 있다'고 하고 남자들은 파는 여자가 있기에 사는 남자가 있다. 순서를 뒤바꾸어도 결론은 사고 팔고일 뿐. 여자쪽에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집이 가난하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남자들은 무엇이라할까. 허해서, 호기심에서, 몸의 호르몬이 빠져나가지 않아 아랫배가 묵직하고 머리가 멍하고 골이 약간 쭈시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몸 풀려고 여자를 샀다고 상상하자. 자위 행위를 하면 돈 안들고 성병 걸릴 걱정없지만 자궁 속에서 태어난 생명은 모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에 유방 사이로 얼굴을 묻어야 하고 여성의 따뜻한 자궁 속에 남근을 담가야 한단다. 창녀이든 아줌마이든 국민학교 3학년짜리든 여동생이든 상관없이 육체의 부분을 묻고 발산하고 지구를 지배하듯 지배욕적인 강압으로 몸부림쳐야 하고 그리고 정자가 발산되었을 때 왕이고 대통령이고 부자가 되지.

창녀의 자궁에 머물렀던 현실은 창녀의 방을 나가면서 뱃속 깊숙히 있는 가래까지 끌어내어 침과 함께 뱉어내지만 어느덧 창녀를 잊어가고 도덕이나 윤리에서 이탈한 그녀들은 윤락여성이고 사회암적인 존재이고 더러운 년들이 된다.

더러운 년'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기에 가끔 애기들을 꺼낸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애인에게서 버림받아서 창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뉘드리하면서 남자새끼들을 다 도둑놈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남자편에서는 미친년들, 할일 없어서 몸동이를 팔아먹어, 정신병자 같은 년들, 윤락행위방지법을 만들어 정신상태를 개조해야 해. 여자편에서는 웃기네. 윤락행위방지법으로 법집행을 한다는 경찰서장은 경찰복은 법집행하고 청량리의 열여섯살 순처녀는 포주로부터 상납 받아서 그놈의 자지는 개통식을 해서 X 잘 팔라고 색은 놈의 X대가리, 그놈이 싸고 가는 것은 증거가 없으니까 하고 말한다. X대가리를 잘라서 회를 쳐먹던가 국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작성이 풀릴 거야. 낯짝도 두꺼운 놈들.

서로 상반된 얘기 속에서는 그리고 남성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회구조 속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다. 권위주의적인 남성인 기동서방에게 착취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법집행 속에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는 것이 창녀란다.

만약 여자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남성이 몸을 파는 숫자가 증가되었을 때 애기가 조금 달라질까. 돈이라도 받아내려고 자궁 속을 파고 후비고 애새끼 배려고 팔고 사랑한다고 꾸서대고 병 걸릴까봐 고추 까고 훑어내고 바지춤 올리고 근엄한 얼굴이 되어, 상사가 되어, 지방유지가 되어, 죽일놈들... 세상의 할 일이 없어 남자가 몸을 팔아, 남자망신 다 시킨단 말이야. 어느 년들이 그런 놈들을 세상에 싸질러 댔을까. 그놈의 예미년들이 화냥년이었거나 통갈보년일 거야. 자고로 계집년들이 남자를 사서 즐기는 것은 말세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제 세상 끝이야.

그놈들은 일단 돈 받고 여자를 만족시켜주고 있으니 윤락남성이라고 칭하지 말고 여성을 위한 봉사대원이라고 명칭하고 봉사대원 회원증도 발급해서 숫자나 파악해. 권위주의자들의 위엄의 그늘에 여성적인 남성은 섹스가 스치면 섹스전쟁 속에 폐허 속에서 한그루 장미나무를 발견하고 가꾸듯이 비록 창녀일지라도 우리의 누이, 우리의 엄마, 전쟁의 희생물, 가부장제의 희생녀, 쓰다듬고 위로하고 돈을 가져다주고 고향을 찾아주고 차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고 창녀의 주위를 맴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영화의 내용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현실적이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요? 이 영화는, 사창가가 이런 모습으로 창녀들이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식으로 사창가 구경만 시켜줄 뿐입니다. <창>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극장을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미래에 이 영화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요? 수많은 방울이들을 내 딸, 내 누이처럼 고민하지 않고, 다만 값싼 동정만 하고 자리를 털어버린다면 영화를 보는 것이나 사창가에서 돈을 주고 여자를 사는 것이나 뭐가 다르니까?

나같이 매춘녀였던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서 매매춘에 대해서, 윤락녀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찾아다니는데, 잘난 당신들은 대책 없이 매춘여성들의 상처만 헤집을 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II**

참사랑선교회(송탄시 K-55 미군부대 정문앞)에서
김연자 드림



사랑을 연극하듯, 연극을 사랑하듯 그렇게



박지일

〈사랑의 교실〉, 내 사춘기 시절,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다. 밤늦은 시간에 그 방송을 숨죽여 들으면서 성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때문에 잔뜩 흥분했던 기억이 난다.

어쨌든 그 〈사랑의 교실〉에서 배웠던 건 성에 대한 욕구나 그로 인한 생리적 현상 같은 것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후에 성인이 되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고결한 행위라는 것이다.

언제 올지도 모를 그날을 고대하며 야한 영화를 보고나선 동정을 하기도 하고 포르노잡지를 보고는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고—자위행위는 인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무런 해악이 없으며 건강한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선데이 서울』을 비롯한 수많은 잡지의 성문제 상담란에 단골메뉴로 들어 있었음—그렇게 스무살을 훌쩍 넘기고 드디어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 고결한 사랑의 행위를 해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날이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을 위한 내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녀랑 난 매일매일 만났다. 그러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자연의 풍광을 담백 안은 한 모텔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주고 사랑가득한 눈맞춤으로 시작해서 서로를 깊게 안았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흥분제였던가. 그렇게 뜨거움으로 넘쳐 흐르는 강물이었던가.

그녀를 사랑했다. 낮간지러운 대사와 그럴듯한 문학적 수사를 입에 바르고 어렵게 어렵게 손을 잡았고 온갖 무드를 다 잡아 자연스런 키스신을 유도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를 만난 지 무려 반년이 훨씬 넘어서었다.

그러면서도 넘치는 애욕애호와 평소 플라토닉한 사랑은 인간의 욕망을 무시하고 사랑의 완성을 저해하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 또 조명이 켜진 무대 위에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과도 같은 섹스에 대한 그리움으로 괴로워했다. 한편으로는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강했던지 결국은 둘만의 여행을 계획하고 허락을 받아내면서 동침에 관한 묵시적 약속을 하고 1박2일의 여행을 떠났다.

자연의 풍광을 담백 안은 한 모텔방에서 촛불을 켜놓고 와인을 마시며 노래도 불러주고 사랑가득한 눈맞춤으로 시작해서 서로를 깊게 안았다.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흥분제였던가. 그렇게 뜨거움으로 넘쳐 흐르는 강물이었던가. 그 충만한 사랑의 물결로 영혼마저 완전히 겨안았다고 느꼈을 때 무수한 빛의 가루가 쏟아지고 이 몸뚱이를 꽃들의 향기가 마구 흩날리고 있었다.

그후로 십수년이 지난 지금 성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와 관점은 너무나 변했고 나 또한 순수함과 자유로움을 오가며 많이 변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사랑이 전부인 섹스는 아니더라도 단순한 욕정이 아닌 애욕애호는 있어야 섹스가 가능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70년대 후반쯤이었던가. 우리나라 TV드라마 사상 첫 키스신이 방영됐다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우습다. 지금은 TV연속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말이다.

예전에 외국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젊은 연인들의 야외 키스신, 짙은 포옹신 정도는 이제 이 도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용기있는 젊은이들, 또는 뻔뻔스런 연인들, 이만 하면 이제 우리나라 연인들의 사랑의 표현도 꽤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것인가. 참으로 많이 개방되고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날 바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속도도 정말 빨라졌다. 또한 섹스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있는 다양한 매춘산업도 엄청 발달해 있다.

연극배우는 자유로워질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내 의식세계의 확장을 꾀하고 일상에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나로서는 늘상 도전해

연극배우. 〈죄와 벌〉, 〈슬픔의 노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등 30여편에 출연. 93년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 수상. 96년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 수상.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그늘이 많이 생겼다 한다. 늘 위돌이보는 심상인 탓에 머리 속에 쌓이는 걱정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탓일 것이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혼을 겪으면서 인생은 그때마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이러한 개인의 역사는 많은 부분이 여성과 관련된 것이 사실이다. 내게 주름살 하나 더 늘게 해준 이번 글쓰기는 내성과 까탈럼 사이에서 솔직함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했다. 또 평소, 성은 은밀하고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공공장소에 이런 부끄러운 주제로, 또 자신없는 글쓰기까지 해야겠으니... 관적인 시간들이었다. 그런데 우스운 건 막상 원고를 넘기고 나니 갑자기 노출욕구가 강해지면서 할 얘기가 엄청 많아지는 거야. 나 참. 어쨌든 내 얼굴에 그늘을 지워버리고 진정한 사람과 자유를 찾아 떠나고 싶다. 그리움에 지쳐 쓰러지더라도.

사랑을 연기하듯 연극을 사랑하듯 그렇게
영혼을 연기하듯 연극을 사랑하듯 그렇게

내 의식세계의 확장을 꾀하고 일상에서,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나로서는
늘상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자유연애이긴 하지만 역시 만만치가 않다.

고 싶은 종목이 바로 이 자유연애이긴 하지만 역시 만
만치가 않다.

여자를 만나면 늘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혹 그런 생
각도 없는 여자를 만난 후면 죄책감과 허탈감에 시달
리게 된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어릴 땐 우리가 거대한 매춘소굴에서 사는 듯한 생
각이 든다. 성을 가지고 흥정하는 수많은 작태. 정말
참을 수 없는 건 향락산업의 기형적 변태적 팽창이 쏟
아낸 수많은 형태의 접대부와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돈과 권력을 내보이며 성과 애정을 구걸하는
남자들, 또 그들에게 자신의 육체와 성, 심지어 애정
까지도 무기화하여 돈과 권력을 흥정하는 여자들이다.
차라리 나이트클럽에서 혹은 길거리에서라도 서
로 눈맞춰서 침대로 가는 건 동물적이긴 하지만 그런
불결한 흥정에 비하면 훨씬 건장하다. 도대체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고 누구의 잘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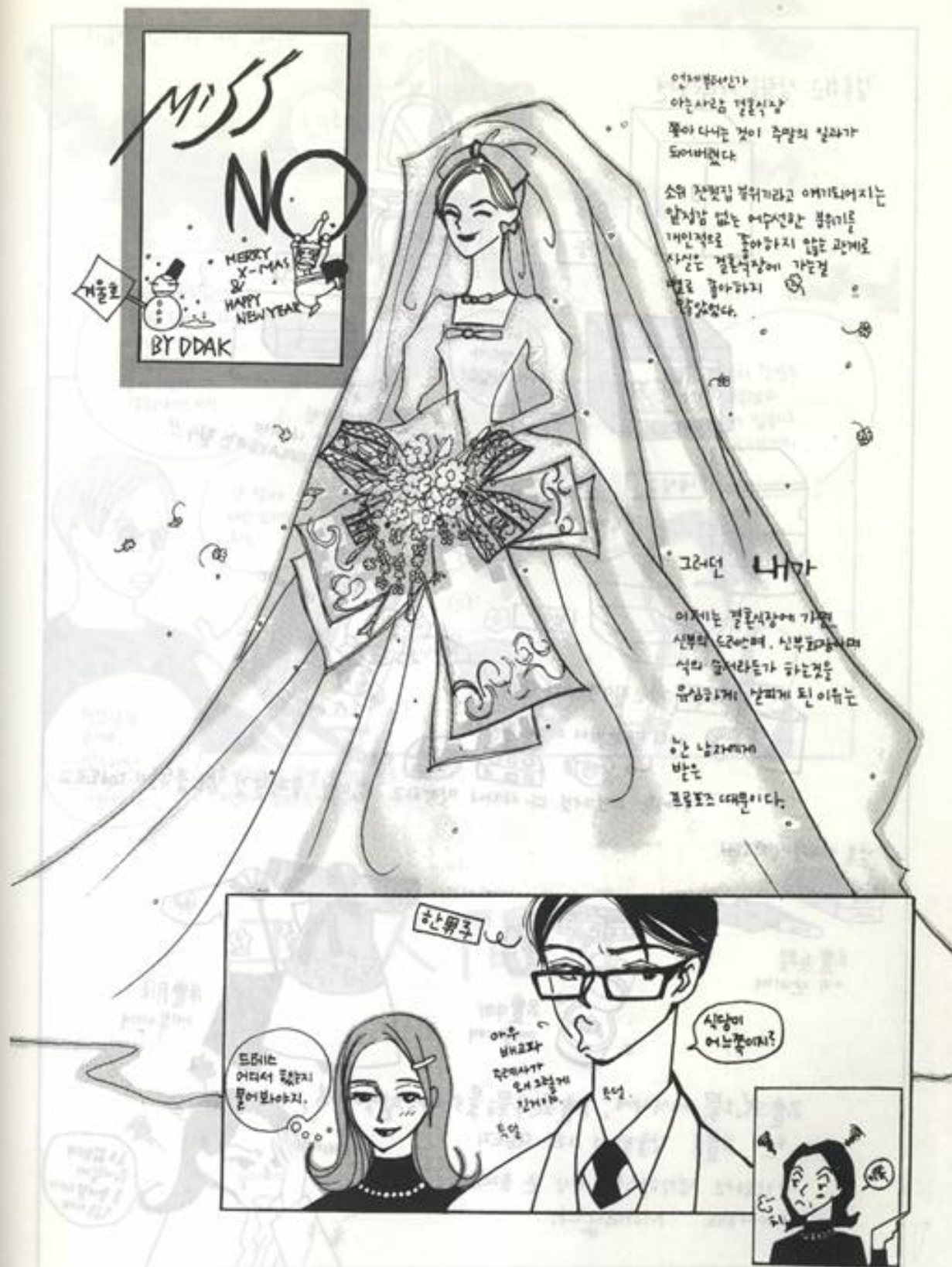
난 사회학자도 진지한 페미니스트도 아니어서 감상
적 논리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비윤리적, 퇴
폐적 행각의 발전은 어느 일방 혹은 어느 개인들의 잘못
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의 평등에 대한 노력은
여성, 남성이 서로 함께 짊어지고 갈 우리들의 '자식'
이다.

남만적 사랑에 대한 폐해는 많이 지적되어왔다. 그
러나 최상의 섹스는 남만적 사랑에 의한 본능적 섹스
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의 그리움만으로 간직해서
는 안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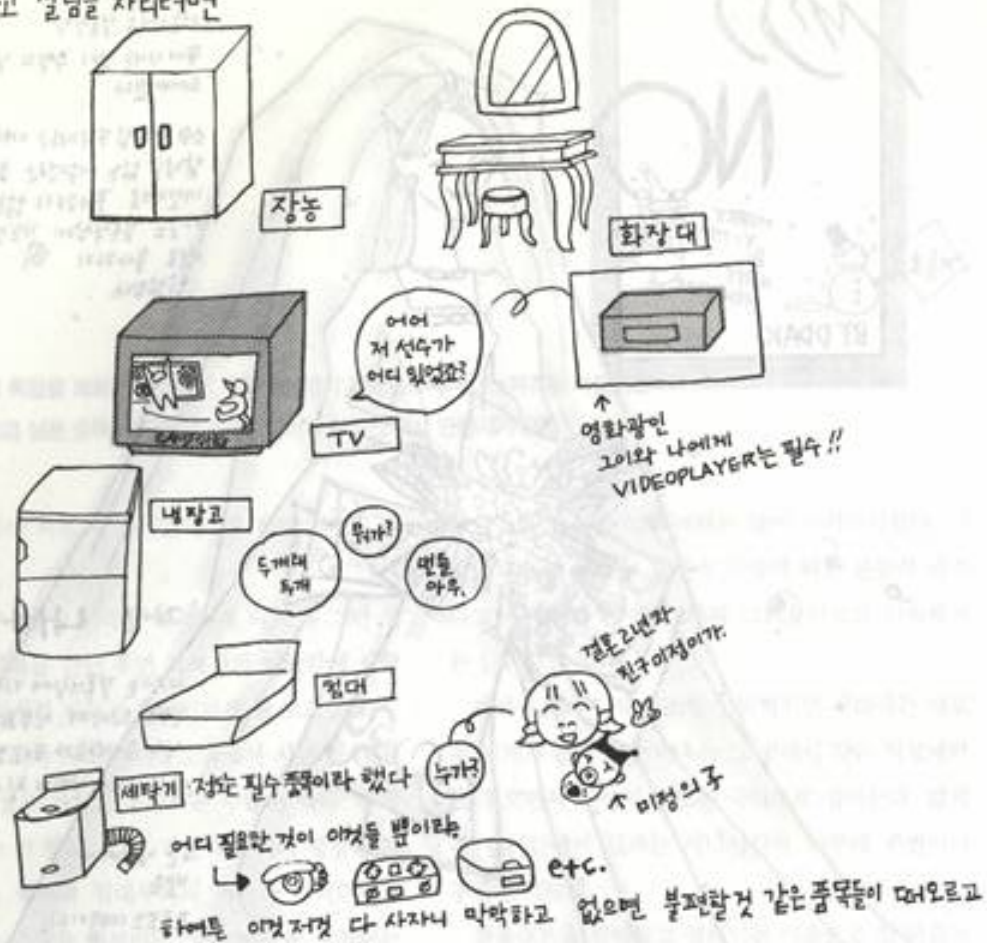
객석이 어두워지고 조명이 밝히지면 무대에는 새로
운 세계가 펼쳐진다. 배우는 그 곳에서 갖은 희로애락
을 겪으면서 인생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다. 짧게
는 한시간에서 길게는 서너시간씩 하루에 한번이나
두번을 그렇게.

작품대본을 받아들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첫 연습에
참가하고 작품과 인물분석을 하면서 내가 가진 상상
력과 관찰력을 총동원하여 한 인간과 그가 사는 세상
을 그려내고 거기에 맞는 정서와 말투와 외형적 이미
지를 만들고 체력단련도 빼먹지 않고 해왔다. 이제 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내게는 무대와 섹스-혹은 사랑-가 별개의 것이 아
닌 것 같다. 그래서 무대를 청실로, 연극을 내 연인으로
바꾸더라도 별무리가 없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섹
스를 연극하듯 연극을 섹스하듯이 열심히 사랑하고
집중하고 정성들이고 싶다. ”



결혼하고 살림을 차리려면



결혼 자제를 생각하니



처음에 연애할 때 그녀는



그人間이

한 색깔의 정치활동과 연예활동을 병행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페미니스트배우는 가능한가? 그것이 연극(97 자기만의 방)의 배우로 방은진을 물망에 올려놓고 우리가 했던 고민이었다. 남성문화에 대한 비판과 공격이 상당부분을 이루는 <자기만의 방>의 경우 이미지와 캐릭터가 맞는 여배우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97 자기만의 방>을 이끌어갈 배우로 여러 여배우들이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톡톡 튀는 신세대 배우가 <자기만의 방>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우선 그 배우는 나이가 너무 어리지 말아야 하며 또 가부장제사회가 생산해낸 전형적인 여배우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강한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했다. 거기에 다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 자기 삶에 대한 확실한 철학과 페미니즘에 대한 우호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동시에 연극배우로서의 개성과 매력도 지녀야 했다. 얼마나 갖추기 어려운 조건인가? 우리는 절망했다. 술한 여배우들을 물망에 올려보아도 쉽지 않은 조건이었다. 그만큼 우리 여배우들의 이미지와 성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반증도 될 수 있겠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후보로 거론된 배우는 방은진이었다. 페미니즘 연극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 가장 근접한 배우가 그녀밖에 없다는 데 우리는 합의를 봤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셈이었다. 방은진이 못한다면 <97 자기만의 방>은 올라가지 못할 판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스케줄을 조정하고 맞춰서라도 해야 한다고 거의 강권하듯 다시 그녀를 설득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연극무대에서의 그녀의 연기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었다. 그리고 <태백산맥>의 외서대, <301·302>의 송희, <학생부군신위>의 춘부며느리,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의 아내 등 몇편 안되는 출연영화마다 그녀는 눈부신 변신으로 관객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정오 TV에서 방영되는 <출발! 비디오여행>에서 그녀는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여느 신세대 배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화제에서 만난 그녀는 여배우들이 흔히 갖기 쉬운 '환상의 거품'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겸허했고 확실했고 그리고 선명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자다!" 하고 체제를 붙였다. 방은진. 올해 32세, 강아지 두마리와 함께 혼자 사는 여자. 그녀는 누구일까?



연극 초심자에게 맡겨지는 온갖 허드렛일. 당번일 때의 화장실 청소, 거둬주는 포스터, 티켓작업 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루하루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해가 가겠지. 그렇게 3년을 버티면 5년을 못 버티겠어. 그렇게 10년 정도 되면 뭐가 되도 되겠지."



연습실에서 대본을 풀이하다 보며 토론중인 배우 방은진과 작가 유숙철

그녀는 이제 누구라도 이름을 대면 아는 배우가 됐지만 연극판이나 영화판에서 연기를 배우지도 않고 연극영화과를 나오지도 않은 이색경력적 소유자다. 1965년 서울생. 숙명여중, 영동여고를 거쳐 1989년 국민대 의상학과 졸업. 1년여 동안 디자인업체에서 핸드백, 악세서리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갑자기 사표를 쓰고 연극계의 길로 들어섰다. 그녀 나이 스물다섯이었다. 스물다섯 시절의 이 급격한 돌아가기에 대한 그녀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자.

"본격적으로 디자이너의 길을 걸을 만반의 준비가 된 때였다. 난 문득 이 산길 너머의 다른 길이 궁금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우뚝 오랫동안 서있었다. 이 산길을 쉽게 갈 것이냐, 아니면 어디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나의 길을 찾아 저 수풀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하고... 문을 걸어잠그고 창문 밖 한번 내다보지 않고 열흘 이상을 침거하였다. 선풍기 하나 없는 방에서, 침묵 속을 서성이다 나는 드디어 기억해냈다. 내가 가장 그리워하던 곳이 무대였음을. 그래서야 난 눈물과 땀에 젖은 몸을 정갈하게 씻고 사표를 써서 회사에 제출했다."

그녀는 그날로 중학시절부터 연극을 많이 보았던 극단 민중, 풍장, 성과의 전화번호를 114에 물어서 찾아갔다. 그리고 무조건 연극이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가상해본 셰익스피어의 누이동생과 똑같다. 그러나 여자가 배우가 될 수 없는 시절이었던 셰익스피어시대의 누이는 비극적으로 자살하고 말지만 좋은 여배우가 없어서 고민인 요즘 한국의 연극판에서 방은진은 연기와 배우로 떴다. 물론 처음부터 그녀가 뜬 것은 아니다.

막무가내로 찾아와 연극이 하고 싶다는 그녀에 대해 몇몇 선배들은 회의적이었고 몇몇 선배는 두고 보자는 식이었다. 그녀는 연극 초심자에게 맡겨지는 온갖 허드렛일, 당번일 때의 화장실 청소, 거둬주는 포스터, 티켓작업 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라면, 하루하루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 해가 가겠지. 그렇게 3년을 버티면 5년을 못 버티겠어. 그렇게 10년 정도 되면 뭐가 되도 되겠지."

그리고 3년만에 연극 <신장한몽>으로 백상예술상 신인상, 95년과 96년 영화 <301·302>로 청룡영화상, 춘사예술상, 영화평론가협회 여우주연상을 석권하고 명실상부한 스타의 자리에 올라선다.

그녀는 자신이 배우가 된 이유를 부모가 준 자신의 이름 석자 때



〈학생부군신위〉의 손부 여(위),
(301·302)의 송희로 분한 방은진(아래).

“그 당시에는 10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귀다툼처럼 생각되었다. 나의 정신, 육체 모든 것이 합일되어 성숙할 수 있는 때가 스물 둘. 그때가 죽을 때라고 생각했다. 그 해맑고 눈부셨던 나이에 내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독도 하고 동맥절단도 했었다.”

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연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이름 석자에 대한 한이 많아서예요.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기에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나한테 준 삶,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자라구, 어떻게 살면서 그냥 자기 이름 석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삶이거든요. 내 이름 뒤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땀땀 부분이 참 많았어요. 내 이름, 내 처지, 내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걸 굉장히 즐겨요. 배우라는 직업은 더 교묘히 철저하게 연구해서 나 아닌 사람이 됐을 때 오히려 박수를 받았어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이었어요.”

그녀는 무엇이 그렇게 억울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배우가 되고 싶었을까? 그녀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이 되고자 했던 어린 소녀의 열망이 이해가 된다.

그녀는 다섯살 때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버림받았다’는 표현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어린시절의 그녀로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아버지의 비서로 일하다가 아버지의 아내가 된 엄마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스물여섯살이나 나는 젊은 여자였고 전 부인이 낳은 큰언니는 엄마보다 나이가 많았다. 젊은 엄마가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도 짐작이 가고 결국 엄마가 집을 나가버림으로써 그녀는 어린시절부터 ‘모성부재’에 시달리게 된다. 다섯살 시절부터 이사람 저사람 손에 떠밀리다시피 키워졌고 항상 낯선 사람, 낯선 곳, 낯선 잠자리를 설치 않게 만들기 위해 배낭을 들고 다녀야 했다.

아버지집에서 외할머니, 이모집, 엄마집을 전전하며 자라던 사춘기시절의 그녀는 스물두살에 자살할 것을 꿈으로 간직하고 살았다.

“그 당시에는 10년이나 더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귀다툼처럼 생각되었다. 나의 정신, 육체 모든 것이 합일되어 성숙할 수 있는 때가 스물 둘. 그때가 죽을 때라고 생각했다. 그 해맑고 눈부셨던 나이에 내가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음독도 하고 동맥절단도 했었다.”

불안하고 외롭던 사춘기시절 그녀의 삶을 지탱시킨 것도 있다. 연극이었다. 영동여고 시절 교실보다는 연극반에 처박혀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았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것에 대한 그녀의 갈망은 초등학교시절 혼자서 KBS어린이합창단원에 지원해

어린이합창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들이 꽃아와서 입혀주고 먹여주고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를 했지만 방은진 어린이는 언제나 혼자서 제 뒷바라지를 했다. 당돌하고 똑떨어져 보는 사람마다 칭찬을 했고, 연기가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일찍 배웠다. 어린 그녀로서는 훌륭한 생존비법의 터득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어린시절의 노래 〈섬집 아기〉를 혼자 부른다. ‘엄마가 섬집아기에 굴타러 가면/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바다가 불러주는 자장노래에/팔 베고 스스로 잠이 듭니다.’ 엄마 없이 혼자서 잠드는 섬집아기의 모습은 그녀에게 어린시절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언제나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슬픔을 선사한다.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난 내 나이를 찾아서 다시 자라고 싶다. 울어제끼면 기다렸다는 듯이 컷병이 물려지고, 크레용을 사야 한다고 손을 벌리면 손바닥에 돈이 쥐어지고, 생일날이면 누군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도시락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도 부리고, 학교 갔다오면 으레 있는 엄마를 찾고 생리를 하면 왜 배가 아프냐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있어봤으면 하는 초스런 바람들...”

나중에 훨씬 커서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는 말했다. “온진아,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니? 다만 이 에미를 자주 만나면 네가 약해질까봐 그랬던 거야.”

지금 그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엄마와 가끔 친구처럼 만나서 함께 여행을 하기도 한다. 그런 그녀를 엄마는 효녀라고 고마워한다. 엄마가 한국에 오면 두 모녀가 함께 항상 가는 곳이 있다. 벽제 좁지나서 있는 가톨릭 묘원. 외할머니의 무덤이다. 어린시절 아버지집에서 자라던 그녀를 납치해 2년 동안이나 키워주신 외할머니, 그녀를 품에 안으며 “우리 온진이 눈도 예쁘고 귀도, 입도 예쁘지만 코가 제일 예쁘지” 하며 얼려주시던 분이었다.

집에서 위스키를 조그만 병에다 담아가지고 욕포를 사고 그리고 꽃다발도 사고 많고많은 무덤 중에 찾기가 힘들어 언제나 해마다 할머니의 무덤을 발견한다. 트렁크에서 빨간 담요를 한장 꺼내서 깔고 술도 따르고 함께 절을 한다. 엄마는 할머니 무덤에 술을 따르며 “어머니 저 왔어요, 온진이라고 같이 왔어요, 그 속에서 얼마나 춥고

작가의 말

97년의 비밀번호를 찾아라!

극장 〈마녀〉의 개편연극으로 〈자기만의 방〉을 다시 올리자는 제의를 듣고 우선 떠오른 생각은 지나간 시간이었다. 〈자기만의 방〉이 처음 무대에 오른 때는 92년 11월이었다. 뜻밖의 성공에 힘입어 93년 6월까지 8개월의 장기공연으로 이어졌고 5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리고 지금은 97년 11월, 만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그 5년의 시간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우리사회에 몰아친 기간이었다. 역사의 단위조차 바뀌어 버린 듯했다. 그러니 92년에 유효했던 〈자기만의 방〉의 메시지가 97년에도 유효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남녀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많이 달라졌다. 감각이 달라졌고 정서가 달라졌으며 행동양식도 달라지고 그 모든 것을 연결시키는 코드도 달라졌다. 그러면 여성문제는 이제 사라졌는가?

우리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부정으로 나왔다. 눈하나 깜짝하고 요저부동으로 여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다.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동시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이상한 수수께끼가 아직도 매일, 매순간 여성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가달아야 할 관객들의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을 여는 비밀번호가 모조리 바뀌어 버린 꼴이었다. 97년의 비밀번호를 찾아

라! 그것이 우리의 과제였다.

〈92 자기만의 방〉은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그러나 〈97 자기만의 방〉은 배우가 변신과 역할 바꾸기, 관객과의 대화로 연극을 이어간다. 탈권위주의를 꿈꾸는 오늘날의 여성들에게는 권위있는 교수의 강연보다 '변신하는 배우'가 더 유요한 비밀번호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만의 방〉은 여성들에게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한다. 자기 자신을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그것은 영원히 유효한 비밀번호인 것이다.

다음은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concept)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92년 작품의 무거운 권위와 비장한 정서를 빼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통용될 수 있는 옷을 갈아 입히는 것, 그것이 과제였다.

출연하/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칼과 가위를 들고/ 오랜 세월동안 써고 써온/ 가부장제사회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한/ 한국남성개조수술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색 실과 바늘로/ 상처를 꿰매고 싸매며/ 사랑의 입김을 불어넣어/ 새로운 제3의 성, 신인류를 탄생시켰다/ 지금 바로 당신 곁에/ 그렇게 탄생된 새로운 인간들이/ 달려오고 있다.

〈97 자기만의 방〉의 기본개념은 한국 남성개조수술이다. 칼과 가위, 실과 바늘은 여성들에게 아주 친밀한 물건들이다. 여성들은 칼과 가위로 음식을 만들고 옷

외로우세요, 온진이가 따르는 술 한잔 드세요" 하고 온다. "온진이 잘된 것도 모르고, 딸이 있는 미국구경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가신 불쌍한 어머니"라고 엄마는 울고 또 온다. 무덤가에서 두 모녀는 그렇게 엄마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며 해질녘까지 무덤 속의 할머니와 시간을 함께한다.

지금 그녀는 서른살을 훌쩍 넘었다. 그리고 문득 배우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본다.

"전공을 의상을 했으니 그것을 업으로 삼고 내 대학동창들이 그러하니 디자인실 실장급쯤 되었을까, 조금 더 가상해보면 시집가서 애도 돌쯤 낳고 학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도 한 남자와 결혼을 했었으니까. 연극 〈걱정만리〉를 공연할 때였다. 안면이 있던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분장실을 찾아왔다.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 그때 그녀는 연극관에서 뜨고 있던 시절이었지만 경제사정이 너무 안좋았다. 돈이 없어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더부살이로 떠돌 때였고 기름값이 없어서 차를 팔려고 해도 명의이전해줄 돈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자칫하다간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그 남자의 가족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혼자 살고 있었다. '어, 어' 하다 보니 그 남자의 집으로 짐을 옮기고 있었고 그해(199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 남자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고 활발하고 자상하고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신에게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자신을 너무 좋아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랐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고 말한다. 어쨌든 집이 없어 결혼했던 그녀는 결혼 이후 꼭 한달만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결혼생활은 한달만에 어긋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이유를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녀는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 "가정의 중요함을 알면서도 그 율타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다. 결국 한 착한 남자의 인생을 자신이 와그작 와그작 동전 돌이 되고 말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다시 연극을 시작했고 미친듯이 연극에만 몰두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버린 엄마처럼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다. 다행히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자신이 어린시절 겪은 상처를 자식에게 지워준다는 부담은 없었다. 결혼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깨달은 그녀는 구원처럼 연극에 매달렸다. 남편과 이혼하고 연극과 결혼한 물

사람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

이었다.

미국의 엄마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하자 엄마는 "너는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랬는데" 하며 울었다. 그러나 노령의 아버지는 '가문'을 들먹이며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당신도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대들지 않았다. 그냥 그때부터 지금까지(벌써 몇 년째다) 아버지를 보지 않고 있다. 방은진 성격의 일단을 드러내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30년이 넘는 짧지 않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배우의 삶을 선택한 후로는 단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인생이 운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인지, 인생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지 따위의 철학적인 말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삶은 누군가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늘 나 자신의 판단이 우선이었다. 그러기 위해선 난 늘 성숙해야 했었고 그 또래의 아이들이 해낼 수 없는 일도 능숙하게 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방은진이라는 배우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방은진이라는 여배우는 한국의 영화풍토에서나 한국의 여성들에게 매우 소중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녀는 우선 예쁜 얼굴로 한눈 보는 반짝스타가 아니다. 그녀는 스물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것도 연극무대에 뛰어 들었다. 처음부터 불리한 계임을 한 것이다. 그리고 신데렐라 같은 공주역만 하는 완벽한 미인형 배우도 아니다. 그녀가 여배우로서 승부를 거는 것은 얼굴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자신을 어떤 배우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좀 길지만 그녀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자.

"전 제 주제를 잘 알아요. 전 연극으로만 따지면 폭력은 배우예요. 소위 말하는 공주역할도 할 수 있고 왕비역할도 할 수 있고 순항이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감이라고 남들이 그러죠.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얘기가 다르죠. 저는 일단 대단한 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쁘보이려고 한다면 이게 너무 답살이 둔하겠죠."

제 장점이 뭐냐면 말예요. 굉장하 못 생기게도 보이고 또 굉장히 괜찮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연극무대에 설 때, 선행자들이 볼 때마다 저를 모르겠대요. 얼굴이 굉장하 다양해서 나이들고 폭죽퍼진 역할도 잘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주인공 몇번하고 화려한 은막에서 뒤편이 될 수 있는 배우는 일단 아니죠.

멜로드라마의 여주인공? 그런거 뭐, 하면 하겠죠. 하지만 전 연기

을 지으며 인간생존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타진 곳을 꿰매고 떨어진 것을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기도 하며 인간과 떨어져서 아무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인간생존에 필요한 살아 있는 무엇으로 변화시킨다.

생명체를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것도 여성이다. 결국 여성은 인간을 만드는 사람인 것이다. 단군을 낳은 사람이 용녀이듯이, 이 사회의 모든 인간을 낳는 사람도 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남성의 폭력성과 패권주의에 병들어 있다. 여성적인 원리로 남성을 개조하는 수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사



화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혁명적인 개조수술. 그것이 또 하나의 비밀번호로 다가왔다.

그러나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고 싶지 않다. 분노의 호통을 치고 싶지도 않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아양떨며 구걸하고 싶지도 않다. 이젠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장난치며 즐겁게 하고 싶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내 남성 발언을 하며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97 자기만의 방〉의 기본정신은 자유로움과 놀이정신이다. 배우도 작품 속에 갇혀 있지 않으며 연극도 극장 속에 갇혀 있지 않다.

박이 오르면 영상화면을 통해 역대 여배우들의 얼굴과 출산장면, 가사노동 장면, 섹스신, 광고사진 등이 뒤섞인 장면을 보게 된다. 관객들은 이 화면에서 여성 과잉의 원천과 여성억압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많은 여성의 얼굴과 여성현실의 복잡성을 이미지로 느끼게 된다.

〈97 자기만의 방〉이 목표로 하는 것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이다. 그것을 한국남성개조수술에 의한 '젠더리스 신인류의 등장'이라는 크빅한 개념으로 잡아봤지만 실상 그것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 gender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여자나 남자나 모두 인간이라는 기본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하는 사람도 바로 여성이라는 자각에서 출발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폭력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아름다운 사람을 나누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는 인식에서 이 연극은 공연되는 것이다.

를 잘한다는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쩔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남들이 꺼려하고 하기 힘든 역할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할만한 영화가 참 없기도 해요. 요즘 신인감독들 많이 데뷔하지만 악어와 악어새처럼 안전빵으로 애들 영화나 액션물 이런 거 많이해요. 그래선지 내가 할 작품이 참 없어요."

방은진 같은 배우가 할 작품이 없어 고민한다는 사실은 우리 연극계나 영화계에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는 모처럼 나타난 좋은 여배우이며, 우리는 그를 다양한 색깔로 채색하고 실험하며 변신시켜 우리의 문화의 폭과 깊이를 넓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춘기 소녀시절 스물두살에 자살하겠다는 자기파멸의 꿈을 꾸었던 그녀가 요즘은 앞으로 25년 후에 칸느영화제 심사위원장을 하고 싶다는 매우 생산적인(?) 꿈을 꾸다. 그것은 곧 장수하고 싶은 욕심과 존경받는 배우가 되고 싶은 그녀의 바람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 꿈을 꾸고, 오래 살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할 작품이 없다고 투덜대는 배우 방은진을 보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급격한 돌아가기를 하면서도 남과 다른 길을 가고 또 그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녀는 앞으로 열심히 좋은 작품을 찾아서 할 것이고, 또 25년 후에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방은진다운 열정과 끼, 집념으로 우리를 매료시킬 테니까. ■

웃자!

아한 시리즈

- | | |
|----------------------|-------------------------|
| • 가장 아한 처녀: 아한길 | • 가장 아한 책: 아해서 |
| • 가장 아한 총각: 아하군 | • 가장 아한 왕비: 아하지비 |
| • 가장 아한 아줌마: 아하네 | • 가장 아한 고등학교: 아하고 |
| • 가장 아한 당신: 아해유 | • 가장 아한 대학교: 아하대 |
| • 가장 아한 노인: 아하노 | • 가장 아한 친구: 아해오 |
| • 가장 아한 집: 아한가 | • 가장 아한 동물: 아하지동물 |
| • 가장 아한 과일: 아한감 | • 가장 아한 가난한 사람: 아한거지 |
| • 가장 아한 숫자: 아하구만 | • 가장 아한 대통령 아들: 아하지만 |
| • 가장 아한 글자: 아하디(D) | • 가장 아한 친구: 아하디우 |
| • 가장 아한 차: 아하다 | • 가장 아한 잡지: 아하지 |
| • 가장 아한 날: 아하데이 | • 가장 아한 신발: 아해보슈 |
| • 가장 아한 냄새: 아하구려 | • 가장 아한 큰 머리: 아하대투 |
| • 가장 아한 거리: 아하당계로 | • 가장 아한 섬1: 아할지라도 |
| • 가장 아한 노래: 아한가요 | • 가장 아한 섬2: 아하지만서도 |
| • 가장 아한 미국 남자: 아하조 | • 북한에서 가장 아한 아이: 아하지에이오 |
| • 가장 아한 러시아 여자: 아할쏘나 | |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한 날카로운 해부!



전혜성 장편소설

제2회 문학동네신인작가상 수상작

마요네즈

‘엄마는 나의 상처였다’

어머니라는 존재가 이처럼 흥미로운 성격과 모습으로 형상화된 최근의 예를 나는 알지 못한다. 치밀한 구성력과 인물 창조의 탁월성, 소설의 진정성에 대한 강한 집착이 돋보인다.

—심사평 중에서(심사위원: 김윤식, 도정일, 서영은)

예사롭지가 않다. 모성의 '정그럽고 적나라한 동물성'이라는 생경한 주제를, 충격적으로 그렸다. 피가 묻어나듯, 생생하고 섬뜩한 필체로 '후벼파듯이'...—동아일보

나는 기어이 『마요네즈』의 첫장을 넘기고야 말았다. 당시의 나는 어쨌든 사탄의 꼬임에 빠져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이브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했다. 어머니의 모습은 한심하고 대책이 없어 보였지만, 다른 한편 어딘지 웃음을 자아내게 하고 때로는 포복절도하고픈 유혹까지 불러일으켰다. 나는 이렇게 심각한 내용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읽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혼란에 빠져들곤 했다. —김영희(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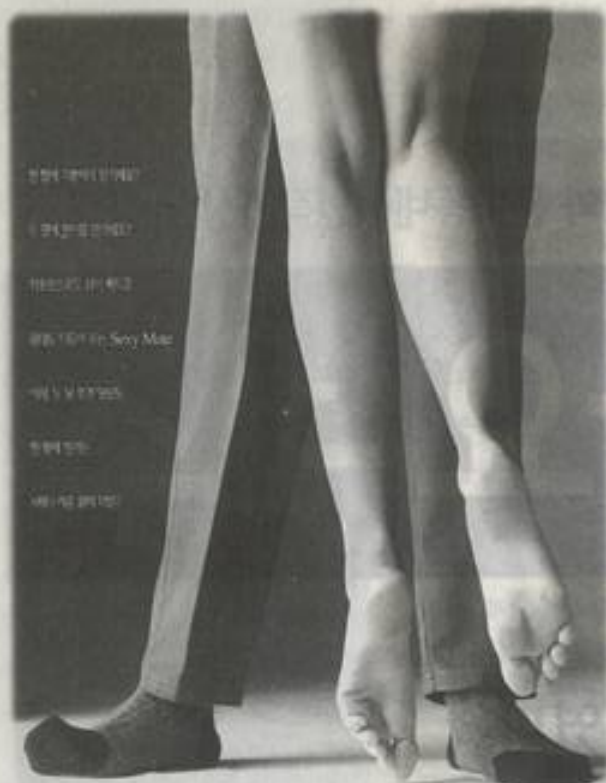
1960년 부산 출생. 이화여대 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영화잡지의 기자를 거쳐 극작가로 활동했고,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여 2년만에 장편소설 『마요네즈』를 완성했다.

문학동네

http://www.munhak.com

부품 운모(인물) 정복 (이탈) 품격 금지(정복) 도(인물)이 (이탈)서

나 오늘 '한 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전통에 '한팔에 안기는' 여자!

남소영정 정복정



나 오늘 한 방에 가는 남자

review

- Movie** 모성의 두 얼굴.
(어느 어머니의 아들)과 (돈 크라이 마미)
- Theater** 남자로 변한 여자와 남자를 변화시킨 여자.
(사친의 착한 사람)과 (몸피 위에 개피)
- Music** 여성이 뮤지션으로 살아남기
황보령, 임현정, 자우림
- Cartoon** 아직도! 순정만화를 무시하나요?
김지문과 문홍미의 짧은 만화 긴 여운
- Exhibition** 광주비엔날레의 여성작가들
- Book** 히스테리아가 짧은 겨울의 책



모성의 두 얼굴

〈어느 어머니의 아들〉과 〈돈 크라이 마미〉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그들의 숭배받는 이름 뒤에는 인내와 희생이라는 고약한 아픔이 감춰져 있다. 이것은 우리가 모성에 기대하고 있는 확고불변한 희망사항이며 은근한 사회적 압력에 의한 강요된 의무이기도 하다. 모든 여성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근원은 어머니로부터 출발하고, 그들은 언젠간 모성, 혹은 부성으로서 아버지의 자리를 떠맡게 된다. 교육되는 것도 아니고 전수되는 것도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해낸다.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일방적 사랑을 쏟아부으며 보호 아래 성장시킨다.

세상의 많은 어머니들이 각자 다른 모습의 삶을 지냈고 자식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지만 이제까지 모성은 늘 한가지 가치로 재단되고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모성의 의미를 묻고 있는 아름다운 두 편의 영화가 있다. 〈어느 어머니의 아들〉과 〈돈 크라

이 마미〉. 이 두 영화는 모성에 관해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새로운 문제제기를 해주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만들었던 팀이 다시 모였고 그중에 감독이었던 짐 셰리던은 제작을, 각본을 맡았던 테리 조지가 감독을 했다. 〈어느 어머니의 아들〉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가 청춘을 바치는 두 아들, 그리고 이들을 지켜봐야 했던 두 어머니에 관한 영화다.

1979년 북아일랜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IRA(Irish Republican Army: 아일랜드공화국군) 청년들은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를 감행한다. 영국 군인들은 도로를 봉쇄하고 IRA활동의 주역인 프랭크의 집을 감시한다. 크리스마스 이브, 집에 들른 프랭크와 그를 호위하던 제라드는 프랭크의 어머니 애니 앞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히고 만다. 농사를 짓는 노동자계급의 여인 애니는 예전에 영국군의 총

에 들켜 아들을 잃었고 이 때문에 일렬한 IRA지원자가 되었다. 애니와 아들의 관계는 마치 동지와 같다.

프랭크의 동료인 제라드는 집에서 모범적인 아들이고 어머니 캐슬린은 제라드가 IRA에 가담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카톨릭계 여학교 교사인 정숙하고 도덕적인 중산층 여인 캐슬린의 평온한 삶이 이제부터 흔들리게 된다. 아들을 면회 온 캐슬린은 그동안 자신을 속여 온 것을 원망하지만 제라드는 독립 따위엔 관심도 없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한다.

프랭크와 제라드의 재판정.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포로지 범범자가 아니라며 재판을 거부한다. 이때 방청석에 앉은 두 어머니, 애니와 캐슬린의 모습이 동시에 화면에 담긴다. 두 모자母子관계를 언뜻언뜻 비추며 두 어머니의 반응과 선택을 조심스레 배치하던 영화가 이때부터 초점을 맞춰가는 것은 신념으로 가득한 애니가 아닌, 불안스레 보이는 캐슬린의 모습과 그녀의 변화다.

제라드를 면회한 캐슬린은 아들로부터 IRA지도자 바비 샌즈의 단식투쟁 메시지를 전해받게 된다. 그녀는 마치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에서처럼 아들로 인해 점점 변해간다. 여전한 평화주의자

이고 IRA의 폭력노선을 거부하지만 캐슬린은 단식투쟁을 벌이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애니와 함께 바비 샌즈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다. 캐슬린과 애니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여성으로서의 연대감을 느껴간다.

영국정부의 외면 속에 단식은 계속되어 결국 바비 샌즈가 죽고 감옥의 젊은이들은 점점 쇠약해진다. 신념을 위해 죽음의 선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는 아들의 곁에는 단식을 멈추게할 부모의 단식 중단요청서가 놓여 있다. 그곳에서 서명하기만 하면 의료진들이 사경을 헤매는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것. 이쯤이면 모성이라는 것도 잔인한 권리가 된다.

캐슬린은 마지막 협상에 희망을 걸지만 협상은 좌절되고 그곳엔 정치적 이득을 따지려는 목소리만 드높다. 캐슬린은 방안을 훑어본다. 핏대를 세우는 IRA지도자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추기경, 가족을 잃고 슬픔에 휩싸인 사람들. 영화는 캐슬린의 시점에서 이들의 소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슬로우모션으로 방안의 사람들을 느릿하고도 과장되게 비춘다. 캐슬린은 뒷걸음질쳐 이곳을 빠져나온다. 그녀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아니, 이미 아들



김현정

70년생. 전남대 독문과를 졸업했고 『씨네21』에서 마흔한 제1회 영화평론가상을 통해 등단했다. 현재 한겨레신문 '영화평론'에 영화주평을 쓰고 있다.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선의 율타리에 늘 간혀 지내는 기쁨이다. 이것이 때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다.

영화 〈어느 어머니의 아들〉



의 목숨을 신념과 저울질하는 이 잔인한 상황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캐슬린은 동의서에 서명한다. 아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프랭크를 지켜보기만 하는

던 일이다. 21명의 어머니들이 영국정부에 대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아들들의 단식투쟁을 지켜봐야 했고 그 중 10명은 신념을 지켜주리라는 아들과의 약속 때문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강한 여성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여성감독 안젤리카 휴스턴의 <돈 크라이 마미>가 보여주는 모성은 특이하다. 모성의 견고한 가치에 비추어볼 때 특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오열하는 애니를 뒤로 한 채, 캐슬린은 밖으로 걸어 나온다. 이처럼 영화는 두 어머니가 이 극한 상황에서 결정내릴 수밖에 없었던 선택 아닌 선택을 보여주며 열린 결말로 끝을 맺는다.

<어느 어머니의 아들>의 배경이 된 이 사건은 1981년에 실제 있었

아들을 지켜봐야 했다. 나머지 11명의 어머니는 캐슬린처럼 아들의 신념을 배반하는 단식중단요청서에 서명을 해 아들의 목숨을 구했다. 이 어머니들이 겪었던 비극적 상황을 영화는 고스란히 전해준다. 이 두 선택은 극한으로 갈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모두 모성이라는

이하다 못해 비난받을만한 것이 된다.

미혼모 애니는 딸 본을 낳고 당당하게 편모가정을 꾸려나간다. 그러나 본의 출생증명서엔 사생아라는 도장이 찍히고 애니도 새롭게 다가오는 사랑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다. 첫번째 결혼, 성실

<돈 크라이 마미>는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모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는 이것도 하나의 모성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고 다정다감한 파슨스는 교통사고로 죽게 되고 이 사이 본의 동생이 태어난다. 애니는 식당에 나가 일을 하며 아빤 없는 두 딸을 키운다.

두번째 결혼상대는 애니에 대한 편견증적인 사랑 때문에 새 가정의 가장으로 적합치 않은, 아버지 다혈질의 무능하고 심약한 글렌이다. 간절히 바라던 이 둘 사이의 아들이 유산되고 애니의 불임소식마저 들게 되자 글렌의 사랑은 더욱 비틀어져간다. 이제 그의 분노는 엉뚱하게 어린 본에게로 향한다. 아내의 사랑을 잃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이 유약한 가정이 질투심에 의붓자식에게 휘두르는 위협은 구타와 학대, 성폭행이다. 명부성이 된 딸을 들쳐업고 병원을 들락거리면서도 애니는 어린 딸을 보호할 수 없다. 그녀는 두 딸을 코 앞에 두고도 위험한 사랑의 함정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처럼 <돈 크라이 마미>는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는 무책임한 모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는 이것도 하나의 모성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옳고 그른 가치판단의 잣대를 들이밀고 비난하기 보다는 그냥 이 비극의 안팎을 보여줄 뿐

이다. 본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없는 엄마를 등지고 어른들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자신을 강압하는 가정을 빠져나온다.

가정 바깥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들이 있다. 병에 걸린 큰이모를 간호하며 가스펠 가수가 되려는 꿈을 키우고, 독신과 작은이모와의 생활은 본에게 평온과 사랑을 되찾아준다. 그렇다면 모성이 내팽개친 고된 성장기를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본이 이제부터 살아야 할 삶은 엄마가 선택한 삶과 다를 것인가?

영화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본의 나레이션을 들려주며 본의 시점에서 진행된다. 영화의 마지막, 본은 '나도 엄마의 삶을 살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모성회피의 대물림인가?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본이 엄마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엄마가 여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무조건 희생과 강요의 틀에 자신을 얽아매지 않는 애니의 선택도 하나



영화 <돈 크라이 마미>

의 모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화는 보여준다. 본이 겪은 비극은 모성의 직무유기에서 나온 것이라기 보다는 여성으로서 살아갈 때 당하게 되는 부당한 위협들이기 때문이다. <돈 크라이 마미>는 주류 상업영화의 틀을 어떤 영화보다도 충실히 따라가지만 익숙한 관습을 통해 오히려 고통에 관객을 노출시키고 불편한 심정을 안겨주며 제법 신중한 시비를 걸고 있는 문제작이다. [11]

남자로 변한 여자와 남자를 변화시킨 여자

〈사천의 착한 사람〉과 〈용피위에 개피〉



연예 10

연극평론가, 상명대 연극학과 교수.
관 3년째 아주 많은 연극을 보고
글을 쓴다. 나 자신에게 흔적을
남길 뿐 아니라 관객에게,
제작인에게, 혹은 이 시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고 싶다. 살아가기 힘든 세상,
연극하기는 더더욱 힘든 제도 속에서
연극학도들을 가르치는 일이
발잡이 인연은 앞길을 살갑히고 있다.
이대 윤리대 연극반 시절
이단국 배우로 활동하고,
서울대 대학원(석사)과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박사)에서
불문학 및 연극이론, 드라마 공부를
하였다.

올 9월 한달 남짓 우리 연극계를 뒤흔들어놓았던 세계연극제가 결국 마무리되고 늦가을로 곧두박질치는 대학로가 허탈하고 허전하다. 무수한 외국의 연극인들이 뒤로 하고 떠난 동승동극장가 한 모퉁이, 나름대로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있는 두편의 우리 연극을 다행히 만나볼 수 있다. 브레히트 작, 최형인 연출의 〈사천의 착한 사람〉과 이만희 작, 연출의 〈용피 위에 개피〉.

연극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면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이 있다. 예쁜 사람, 미운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또는 남자와 여자... 한편의 연극을 볼 때 평론가로서 나는 무엇보다 '연극' 그 자체를 본다. 그 연극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는가가 나의 일차 관심거리이다. 그런 관점에서 위 두편의 연극은 일말의 아쉬움을 주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각 작업이 스스로 지향하는 목표의 가치

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는 반면,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무대 위에 어느정도 완성된 그림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안에 그려진 사람들의 모습—특히 여자와 남자의 모습이 묘한 대비를 이루며 두드러져 보인다. 이 한편의 글은 그 남자와 그 여자들의 모습을 읽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창단 5년만에 독자적 색깔과 고정팬을 확보하고 있는 극단 한양레퍼토리가 최형인의 연출로 무대화한 〈사천의 착한 사람〉에는 당대 연극 관행의 지평을 뒤바꾸어 놓을만한 새로운 연극을 주창하고 무대화한 변혁이 브레히트의 존재는 희미하다. 이러한 한계를 뒤로 한다면, 한양레퍼토리 특유의 팀워크로 발랄하고 리드미컬하고 활기있는 무대를 만날 수 있다. 브레히트 희곡이 배태하는 서사적 거리두기 기법의 일면이 우리의 마당판에서와도 같이 극과 현실을 넘나드는 인물들을 통해 친근하게

소화되고, 근대연극사에서 춤과 노래, 대중교화적 주제로 폭넓은 사랑을 받은 '격정극(멜로드라마)'의 의미와 기능을 연상시킨 무대가 펼쳐진다.

그 안에서 주인공 센테의 딜레마가 눈물로 호소된다. 공감이나 동화보다, 객관적 거리두기와 이화를 지향한 브레히트를 다시 한번 접어두고, 센테의 딜레마를 짚어보기로 하자. 어차피 연출은 오늘에 있어 브레히트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철저히 표현해내고자 하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사천의 창녀 센테는 착한 사람이 지상에 존재하는가를 사찰하고자 내려온 신들에게 하룻밤 거처를 기꺼이 내어준 덕으로 상금을 받는다. 착하게 살라는 당부와 함께, 그 상금으로 담배가게를 차린 센테는 실패한 비행사 양순을 사랑하여 아기를 가진다. 그러나 그녀 주변에는 그녀의 많지 않은 자본과 재산을 노리는 탐욕의 무리들—양순과 그의 어머니를 포함—만이 들끓는다. "심연 속의 작은 나뭇배"와도 같은 위기 속에서 그녀는 결국 선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산을 유지하고 증식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결국 사천의 유일한 착한 사람이었던 여

성 센테는 자신의 사촌오빠를 사칭하여 냉혈한 남성기업가 슈이타로 변신할 것을 선택한다. 슈이타—센테는 담배가게 뿐 아니라 담배공장을 경영, 노동자를 착취하며 기업을 증식시켜나가는 성공적 기업인이 된다. 그러나 악덕 고용주로 미움을 산 슈이타는 센테를 살인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다. 재판 과정을 통해 슈이타—센테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

한 사람의 착한 여자로 살아나가기엔 너무도 거친 세상이기엔 남자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던 센테, 브레히트의 1938년 작 〈사천의 착한 사람〉 속 주인공 센테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 속에서 분열된 인간상이다. 미셀 푸코가 근대 이래 서구문명을 '표상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때,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표상된 이미지가 개개인의 진실을 지배하는 과정을 읽어낼 수 있다.

자크 라캉에 의하여 상징계로 지칭된 표상의 세계에서 센테의 분열은 여성—악한 존재—으로서의 고정된 역할,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서의 낙인이 부과한 점을 견디지 못한 탓이다. "슈이타와 센테, 저는 두 사람이예요. 선하게 그러면서도 살아남으라는 지난날 당신들의 명령은 번개처럼 나를



연극 〈사천의 착한 사람〉

착한 여자로 살아나가기엔 너무도 거친 세상이기엔 남자로 변화할 수 밖에 없었던 센테, 브레히트의 1938년 작 〈사천의 착한 사람〉 속 주인공 센테는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 속에서 분열된 인간상이다.

두 조각으로 갈라 놓았지요." 눈물로 외치대며 구원을 소망하는 그녀를 뒤로 한 채, 떠나가는 신들은 다만 매달 한번씩은 그녀가 슈이타로 변신해도 좋다는 아련한 처방만을 남긴다. 자기 안에 분명 존재하는 치열한 삶의 에너지를 남성의 허울을 빌어서만 표현해낼 수 있었던 선택의 당대로부터 오늘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것일까?

1997년 신작 연극 <용띠 위에 개띠>는 관행화된 남성성과 여성성의 범주가 개인을 지배, 억압하는 재래적 구조의 일부를 증언하지만 그것에 그치지 않는다. 작품 속 여성이 특히 자신의 예정지

위진 성별과 문명이 표상해준 역할로부터 크고 작은 반란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이다.

극은 용띠의 한 남성과 개띠의 한 여성 간의 만남과, 결혼, 갈등, 결별 및 재결합을 에피소드별로 재치있게 진행한다. 처음 보는 남자에게 물과 재떨이 심부름을 시키고 당당히 꼬나앉은 여기자 지전숙와, 그 여자의 시원스러운 술적함에 반하여 청혼하는 만화가 나용두가 있다. 내기에서 이긴 자의 선택에 의한 결혼이라는 형식으로 시작된 이들의 결혼생활은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고정된 이미지와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내에게 여성으로서 아내로서의

정형화된 틀을 요구하는 남자로 인해 소소한 갈등과 마찰을 피하지 못한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거금을 손에 쥔 희망을 안게 된 남자는 아내에게 보다 권위적이 되고 심지어 자신의 매력을 입증해 보이기 위하여 심야에 자신이 유혹한 외간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한다. 결국 결별을 하게 된 이들 남녀. 그러나 사죄를 하러 왔다가 위기에 처한 남편의 역성을 들어주며 아내는 남편과 하나임을 자신도 모르게 인정한다.

이들 부부가 제도화된 남성과 여성의 틀을 벗어나는 데에는 장난과도 같은 내기가 일조한다. 내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

내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다. 다만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다. 퇴근후 신문을 펴들고 앉아 아내에게 거만하게 저녁밥상을 요구하던 남자도 내기에 지면 잔뜩 풀이 죽어 콩나물 300원어치의 심부름을 하게 되지 않는가.

다. 다만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이다. 퇴근후 신문을 펴들고 앉아 똑같이 퇴근해서 빨래에 아이시중까지 맡았던 아내에게 거만하게 저녁밥상을 요구하던 남자도 내기에 지면 잔뜩 풀이 죽어 콩나물 300원어치의 심부름을 하게 되지 않는가.

그러나 지혜로운 개띠의 여자가 '용띠 위에 개띠'가 되고야 마는 직접적 원인은 내기에 있지 않다.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남자를 진심으로 돕고 위로해주는 여자의 마음이,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기꺼이 하고자 하는 남자의 마음을 빠르게 하는 것이다. '용띠 위에 개띠'라는 제목은 결국 잘못된 제목일 수 있다. 생일선물로 냉장고를 요구하던 아내에게, 대형냉장고의 포장 아래 숨어 있다 볼썽 튀어나온 남편은 냉장

고 이상가는 자신을 송두리째 선물한다. 그리고 관객들의 열띤 박수를 받는다. 그것은 그 어떤 승자나 패자에게 향하는 박수는 아니다. 그 누구의 위로 올라서거나 아래로 내려선 남자와 여자의 모습보다는, 서로를 아끼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격려의 박수인 것이다. 앞으로 죽음을 맞는 아내 앞에서 애써 그녀의 죽음을 부인하고 내기를 걸어 그녀가 죽을시 매일 운동장을 구보해야 하는 벌을 자청하는 남편의 도입부 모습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 사는 정,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연이은 흥행작으로 풀어낸 작가 이만희는 이 작품에서는 그동안 사족과도 같이 매달려 있던 철학적, 신학적 명제들을 떼어내고 한 남자와 한 여자

의 살아가는 방식을 중심으로 작품을 집약시켰다. 특정 배우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작품을 철저히 배우들의 템포감과 리듬감에 실어 진행함으로써 연출의 몸까지 채웠다. 시대를 뛰어넘고 가치에 도전해서 파헤치며 창출되는 예술의 모습까지는 찾을 수 없다는 아쉬움을 남긴 채.

그러나 30년대 브레히트가 소개하는 선택의 경직된 이분법적 사고가 90년대 우리의 작가에 의하여 유연하게 극복됨을 읽는 즐거움이 적지 않다. 개인을 평가하고 억압하는 유형, 무형의 제도가 폭력화하는 세상이 종식되기를 바라는 필자의 마음에, 남자를 변화시키고 제도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따뜻하게 와 닿기 때문이다. 11



연극 <용띠 위에 개띠>



‘여성’이 뮤지션으로 살아남기

황보령, 임현정, 자우림

출판사에 근무하다 몇해 전 모 레코드사 음반기획부로 직장을 옮긴 30대 기혼녀 Y씨. 지금은 어느정도 자리를 잡은 그녀지만 매니저 일을 시작하면서 치러야했던 황당한 신고식(?)을 생각하면 아직도 입맛이 쓸쓸해진다고 한다. 워낙 남자매니저들이 판치는 가요바닥인지라 어느정도의 텃세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학생운동과 사회생활 경험으로 다져진 그녀의 논리적이고 당당한 태도를 '똑똑한 체하는 꼴이 맘에 안든다'며 대뜸 욕설부터 일삼았던 어느 남자매니저의 후안무치한 태도는 정말 상식 밖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누군가의 중재에 의해 사과를 받아내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그후론 매니저 일을 시작하는 여자후배들에게 절대 나서지 말고 아무 것도 모르는 척하라는 충고를 잊지 않는다고 한다.

여가수가 성공하기 힘든 만큼

다른 여성인력들도 일하기 힘든 곳이 가요계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홍보야말로 여성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분야고 여가수들에게는 여자매니저가 적격이겠지만 실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수십년 동안 남자를 위주로 짜여져 온 판이니 만큼 여성들은 일단 한수 아니 서너수라도 접고 들어야 한다.

많은 (남자)방송국 PD, (남자)기자들에게 가수를 홍보해야 하는 매니저의 경우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 동물적인 친밀감이 맺어지고 수많은 로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가 '남성 구락부'인 룰싸롱과 사우나장이다보니 평범한 여성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비슷한 류의 부담감은 가요계에서 활동하는 여가수들에게도 주어진다. 더 많은 정보접근권을 전제로 한 육체적인 유혹도 그중 하나. 가요계의 실력과 기자로 군림할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라

여가수를 키우려면 먼저 몸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육체적인 관계는 가치가 높아진 상품을 남에게 헛기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여겨진다.

동요도 따르기 마련이다.

권력을 가진 매니저 또는 PD와 그렇지 못한 여가수 사이의 관계는 보다 강제적인 양상을 띤다. 여가수를 키우려면 먼저 몸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육체적인 관계는 가치가 높아진 상품을 남에게 헛기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예방책으로 여겨진다.

사실 누구에게나 성과 사랑은 사생활의 영역이고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면에서, 게다가 24시간 얼굴을 맞대고 고락을 함께 나누는 연예계 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면에서 무리한 일반화는 순수한 관계를

모독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간적인 신뢰와 책임감 속에서 짝사랑은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세계적인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만해도 자신의 소속사인 소니뮤직의 사장관(지금은 이혼했지만) 부부사이였고 올해 초 그래미를 수상한 캐나다출신 여가수 셀린느 디옹, 우리나라에서도 톱가수들인 이선희, 장혜진이 매니저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러나 일과 가정을 통합해 둘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공한 여가수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해당하는

다. 대부분의 권력관계가 그런 것처럼 매니저와 여가수들과의 관계는 그리 평등하지 않다. 불평등한 이익분배를 전제로 하는 계약 조건에는 이미 그녀의 육체에 대한 권한도 암묵적으로 계산되어져 있다.

이처럼 어떤 여가수가 대중 앞에 나설 것이냐, 어떤 노래가 대중에게 들려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게이트키퍼집단이 남성중심주의적인 또는 여성착취적인 사고방식에 젖은 가요 기획자, PD들로 구성되었을 때 성적 매력에 있느냐 없느냐는 그녀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일차적인 잣대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자우림

주간지 '서울아나'의 음악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다루는 수성잡지 '팬진 Gong'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음악평론가 내지 칼럼니스트라기보다는 액티비스트임을 지처하는, 그래서 작년 5월 명동과 홍대거리에서 일었던 (스트리트 펑크쇼)를 최근들어 한 일종 가장 큰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우림, 황보령, 임현정



왼쪽부터 자우림, 황보령, 임현정



엘라니스 모리세트. 세릴 크로우. P.J. 하비. 조안 오스본. 토리 에이모스. 주얼 등의 음악을 통해 남성위주의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서구 여성뮤지션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H.O.T., 젝스키스 등 아이돌 댄스그룹들이 10대 소녀들의 취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조합되는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여가수들의 음악과 육체 역시 남성들의 시각에 의해 선택되고 가다듬어진다.

TV를 시청하는 대다수 남성들에게 섹시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여가수들의 사고와 행동을 강제한다. 예쁘게 웃고 유혹적으로 손짓하며 교태를 부리면서 이들 성공을 꿈꾸는 여가수들은 자신이 먼저 넘어야 할 벽은 음악이 아닌 다른 부분에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외부의 시선에 의한 자기규정은 많은 여가수들이 내면세계를 음

악언어로 풀어내는 자아성찰적인 뮤지션으로 성숙하기보다는 춤 잘추고 노래 잘하는 연예인에서 성장을 멈춰버리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많은 남성들을 제치고 이 시대 최고의 팝뮤지션으로 손꼽히는 머라이어 캐리와 휘트니 휴스턴, 그 후발주자들인 셀린느 디옹과 토니 브랙스톤 등의 엄청난 상업적 성공이, 뛰어난 가창력과 결합한 성적 이미지에서 기인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버들가지처럼 유연하다가도 클라이막스에 이르렀을 땐 파워풀하기 이를 데 없는 화려한 보컬은 듣는 이들에게 성적인 쾌감을 안겨주며 해변 또는 침실을 배경으로 한 노출이 심한 뮤직

비디오들은 욕망의 실현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동영상들이다.

오히려 보편적인 여성들이 가지지 못한 남성성을 개성으로 어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록음악의 경우는 이미 형성된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혹은 길을 여진 자신의 감수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써 더 강하고 더 거친 사운드를 추구하는 편향을 보이기도 한다. 흔히 '남성 못지 않은'이라는 수식어로 설명되는 이들의 음악은 남성뮤지션들이 담아놓은 음악 언어를 답습하는 모습들로 나타나며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내면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 면에서 90년대 들어 등장

남성을 능가하는 슈퍼무먼 한 사람의 독주보다 깨어 있는 여성들의 퓌플레이가 소중한 것은 우리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되는 진리가 아닐까.

한 엘라니스 모리세트, 세릴 크로우, P.J. 하비, 조안 오스본, 토리 에이모스, 주얼 등의 음악을 통해 남성위주의 사회가 가진 문제점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여성의 각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서구 여성뮤지션들의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조니 미첼, 프리텐더스의 크리스 하인드 등 걸출한 싱어송라이터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록음악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록음악의 역사가 주로 남성들에 의해 주도되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면에는 수잔 배가, 사라 맥러클렌처럼 마녀적 여성성을 표출하는 또다른 색채의 뮤지션들도 포진해 있다.

90년대 록계의 신데렐라이자 페미니즘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엘라니스 모리세트는 데뷔곡 〈넌 알아야 해(You Oughta Know)〉에서 자신을 버리고 딴 여자에게로 간 남자를 통렬히 비판해서 화제를 모았으며 96년 그래미를 수상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자신의 실제경험을 토대로 했다는 이 노래에서 "부당하게 차였다면 과감히 욕설을 뱉어라"는 메세

지로 신세대의 페미니즘적 경향을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녀가 팝계의 여걸 마돈나가 사장으로 있는 매버릭레이블에 의해 발굴된 신인가수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재능있는 신세대 여성뮤지션들이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다. 남성 멤버들이 음악을 장악한 상태에서 여성보컬의 이미지만을 앞세웠던 몇몇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자우림, 임현정, 황보령 등이 주목할만하다. 자우림은, 유일한 여성멤버이자 보컬인 김윤아가 대다수 곡들의 작사 작곡을 소화하면서 대중적인 록사운드를 주도해가고 있는 혼성 4인조 록밴드. 영화 〈꽃을 든 남자〉 삽입곡인 〈Hey Hey Hey〉 단 한곡으로 이미 대중적 인기를 굳혀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올 겨울 발표할 독집앨범이야말로 이들의 진면목을 드러낼 첫 작품이 아닐까 한다.

지난 해말 발표한 자신의 데뷔 앨범 전곡을 작사 작곡 노래한 허스키한 음색의 싱어송라이터로 어린 나이답지 않게 복고와 모던을 가로지르는 성숙한 음악성을

표출하고 있는 임현정이나, 황신혜밴드, 어어부, 이상은 등과 함께 〈도시락 특공대〉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성적 이미지의 뉴욕스타일 펑크를 선보이고 있는 황보령도 기대를 모으는 여성 뮤지션들.

이들 세명의 뮤지션들이 남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류 가요계와는 매우 다른 분위기의 언더그라운드 클럽가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했다는 공통의 이력을 가졌으며 뜻맞는 여성기획자, 매니저, 뮤지션들과 함께 공동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성 위주의 대중음악계에서 여성뮤지션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아티스트로서 성장한다는 것은 어쩌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남성을 능가하는 슈퍼무먼 한 사람의 독주보다 깨어 있는 여성들의 퓌플레이가 소중한 것은 우리사회 어느 분야에서나 적용되는 진리가 아닐까. [11]

아직도! 순정만화를 무시하나요?

김지윤과 문흥미의 짧은 만화 긴 여운



김지윤

예술학에서 미학을 거쳤더니
어느새 책수네,
맑은 술 좋아하고 좋은 사람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스물아홉 나이에
할일 모르고 있네.
세상에나! 정신차려보니
백일 안된 딸 예쁜이가
초롱초롱 보고 있군...
에고, 술먹고시켜.

우리나라에는 '밀어부치기'라는 잡귀가 횡행한다. 이것은 과거는 쟁그리 잊어버리고, 밀리는 쪽에도 피를 나눈 이웃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맹렬하게 행해진다. 민주사회의 주춧돌이었던 학생운동이 어느날 갑자기 적대적인 세력이 되고, 모든 흡연자는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인간상이 되며, 국가가 지원해야 할 문화산업인 만화가 어린 학생들을 폭력과 타락으로 이끌게 된다. 이 간극은 어쩌나 큰지 도저히 매워질 것 같지 않다. 극에서 극으로! 앓 뜨거! 열혈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정신적인 폭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안목을 기르는 것. 그 좋은 방법은 밀어부치지는 쪽, 상대적으로 약한 쪽을 눈여겨 보는 것이다. 자꾸 보다보면 분명 만들어진다. 무엇이? 안목이. 그리고 폭력을 비판할 근거가.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가.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만화에 대한, 그리고 그중에서도 순정만

화에 대한 밀어부치기가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끄적거리려본다.

만화는 지금까지 여러 측면에서 억울했다. 정치적으로는 학생타락과 모방범죄의 온상이기에 단속의 대상으로, 문화적으로는 저질스러운 장르이므로 무시의 대상으로, 전자의 문제는 후자를 반박한다면 일정정도 해결될 일이다. 문화정책의 후진성은 잘 고쳐지지 않았지만 말이다.

어떤 이들은 미술작품을 보고 즐겁고, 어떤 이들은 길거리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또 다른 이들은 길가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사먹으면서 즐겁다. 그 즐거움이 자기 다른데 어느 한가지의 즐거움만을 택하라고 강요할 순 없는 일이다. 삶의 즐거움은 여러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 만화가 저급한 문화라고 규정짓는 눈길 속에 숨어 있는 엘리트주의는 경직된 사고에 불과하다. 저질低質인 미술품이 가능하다면, 고질高質

만화에 대한 무시에 반발하면서, 순정만화는 필수한다고?

이 필수는 남성이 그린 만화는 여성이 그린 만화보다 뛰어나다는 성적 우월감의 무식한 과시일 뿐이다.

인 만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문제는 장르가 아니라 각자의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질의 문제이다. 필요한 것은 저질이라는 비난이 아니라 질을 높여주는 마음씀씀이요, 애정일 터이다.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 만화방으로 가는 가슴 두근거려던 기억을, 심장박동이 조금씩 빨라지고, 입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웃음이 담기고, 또 어떤 책들이 나왔을까, 거기엔 또 어떤 즐거움이, 어떤 상상력이 날개치고 있을까라는 기대 어린 마음이 행복하다. 흥겨운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해서 가게문을 열어젖히면 거기엔 여러종류의 다른 놀라움과 재미도 있고, 뽕뽕

다가 금방 다시 꽃아버리는 천편일률도 있다. 작가들 이름별로 죽 전시되어 있는 코너가 있는데, 이런 작품들은 두번 정도 보고나면 지나치게 된다. 기본적인 서사구조가 되풀이되고, 그 양이 질보다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이다.

번역만화코너에서 그림체가 뽕기는 것과 좋아하는 작가 것을 훑아 열구리에 끼고, 아껴두었던 순정만화코너로 발걸음을 옮긴다. 여자이니까? 오우! 천만의 말씀, 또 그렇게 밀어부치면 안될 일이다. 여기서 또 상기해보자. '캔디, 캔디'를, 또 '베르사이유의 장미'를, '올빼미의 창'을, '우리는 길 잃은 작은 새를 보았다'를, '북해

의 별'을, 물레 눈물을 흘리며 밤새 읽었던 기억을 말이다. 만화에 대한 무시에 반발하면서, 순정만화는 필수한다고? 이 필수는 남성이 그린 만화는 여성이 그린 만화보다 뛰어나다는 성적 우월감의 무식한 과시일 뿐이다.

순정만화에 대한 통념상의 정의는 대부분 여자에 의해 그려지고 여자들이 많이 보며, 사람간의, 특히 남녀간의 애정이 그 중심 주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혀 비난받을 부분이 아니다. 비난받을 부분은 거기에 덧붙여지는 딱지로, 그 애정관계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백마탄 왕자병과 공주병이 판친다. 그림체가 비현실적이



캔디 캔디





다 등이다. 하지만, 그림체는 현실적인 필요가 전혀 없다. 더 깊이 파지자면 과연 '현실적'인 그림체가 뭐냐고 따지겠지만, 덜 깊이 파지더라도 그림이 대상과 똑같은 형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은 조형예술에서조차 사실주의 같은 일부의 조건으로 한정된다. 나머지 따지는 인정할만하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존재한다. 오히려 오늘날 열사람에게 권할만한 작품은 순정만화에 더 많다. 독보적이었던 황미나에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김혜린, 김진, 신일숙, 강경옥 등은 탄탄한 구성, 개성있는 그림체, 섬세한 감정묘사, 조사와 탐구의 결과물이 들어있는 내용으로 위의 비난들을 가볍게 뛰어넘었으며, 그러한 성과물은 그 다음 세대들로 이어지

고 있다. 이제는 코믹, 미스터리, 심리 등 분야별로 세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위의 딱지들은 폐어져야 하며, 순정만화는 '사람 사이의 감성을 섬세히 묘사한 만화'라는 정도로 규정될 수 있을 터이다.

못 믿겠다고? 흠... 김지윤과 문홍미의 작품을 한번 들여다 보자. 왜? 필자가 좋아하니까! 따콩!(꿀밤맞는 소리...) 실은 이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위에서 등장했던 비난들을 짚고 무시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상을 포획해서 맛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김지윤의 'My Funny Lady'라는 단편집을 보면 이 작가의 매력이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웃긴다'는 것이다. 이 웃음은 어디서 발생할까? 기대되는 통념상의 답변을 가뿐히 초월하는 데서 유래한다. 게다가 쉽게 그린

듯이 보이는 명확하고 시원시원한 그림체가 더해져서 아주 통쾌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통쾌하다는 느낌은 보통 무엇인가를 한 방 먹일 때 일어나는 것이다. 왜 이렇게 통쾌한 걸까?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성장하면서 눌러왔던 욕구가 해방되는 창구이기 때문이다. 또! 그 눌러온 이야기? 그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들? 그렇다. 머리 굽어지면 누구나 다 알만한 이야기를 김지윤은 다시 꺼내고 있다. 이런 식상한 이야기, 예컨대 여성의 과거는 치욕이고 남성의 과거는 경력이라는, 또 여성의 성적 매력은 너무나 자주 남용되면서 여성이 남성의 성적 매력을 이야기하면 '발하는 여자'로 밀어부친다든지, 여성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시집가서 시집의 구성원을 빙자한 식모가 된다는지, 뭐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문홍미는 '동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분식집' 처럼,

우리 일상에 촘촘히 박혀 있는 반짝임과 아쉬움을 집어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나면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한번 더 웃어주고픈 마음이 생긴다...

모두가 다 알만한 이야기라는 뼈다귀에 시원한 그림체와 유머라는 피와 살을 덧붙임으로써 누구라도 쉽게 다가서서 접하고 남자친구와 다들 꺼리(?)를 만들어준다. 더 이상의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가가 역사보다 더 탁월한 이유가 그 개연성에 있다고 일찌감치 지적했다면, 김지윤의 작품 역시 그 개연성을 가짐으로써 고질高質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점은 문홍미도 마찬가지이다. 김지윤의 그림체가 전형적인 순정만화의 예쁜 얼굴과 풍다리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면, 문홍미는 좀 다르다. 소박하다고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라? 이 그림체는 문홍미의 시선이 주변의 일상에 머무르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 만화 역시 다수의 대중을 의식하다보니, 아무래도 일단은 뼈까번쩍한 소재를 선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화이트'지에 '짧은 만화 긴 여운'이라는 부제의 'This' 시

리즈가 실리는 것은 편집진의 안목이건 작가의 고집이건 간에 독자로서는 행복한 일이다. 코믹한 작품들도 즐거웠지만 작가의 능력이 잘 표출되는 곳이 이 작품이다. 말그대로 긴 여운을 남겨주는 이 단편물들은 디스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는 다양한 손들, 가난한 어머니를 떠올리는 아들의 듩직한 손, 집 나온 어린 소녀의 빨간 매니큐어를 바른 손, 과일가게 아저씨의 투박한 손에서 시작하면서 그 각기의 삶의 단편을 따스한 눈길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이렇게 지나간다면 실은 잃어버리고 있는 삶의 어떤 풍요로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찍이 휴머니즘이라 이름붙여진 성질의 것이다. 활개치는 자기중심적 세계 속에 등장하는 한 줄기의 훈훈한 바람이다. '동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분식집'처럼, 우리 일상에 촘촘히 박혀 있는

반짝임과 아쉬움을 문홍미는 집어내고 있다. 이런 일상에 대한 따뜻한 함은 일찍이 황미나나 김혜린에서 보인 적이 있었지만 근래 들어서 찾아보기 힘든 진지함이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작품을 보고 나면 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한번 더 웃어주고픈 마음이 생긴다...

무엇인가와 접하고 나서 생기는 약간의 변화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하다못해 찻숟가락하고 생기는 개운함이 찻숟과 치약의 존재를 전제하듯이 말이다. 이런 조금의 변화를 맛보고 싶다면 이런 작품들과 한번 만나라고 권하고 싶다. 몇가지 옥에 티 같은 것이 있지만 그건 말 안할 거다. 만나서 부대껴보고 나서 직접 찾아보시길. 나는 그 사이에 작가들을 찾아가서 애정고백을 하고 소주 한잔 하자고 코드길 생각이다. 작품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직도 순정만화는 저쪽으로 밀어버려야 하는지를. [1]

광주비엔날레의 여성작가들



문화체육부 산하 연구소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미술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를 좋아했지만 미술에 가지는 뜻 깊은 현재의 직장에 오기 전에 가나아트에서 기자로 일한 적이 있다. 여성주의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의미의 여성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채 살아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화가의 아내이다.

97 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지구의 여백(unmapping the earth)'이다. 여기에서 언맵핑unmapping이라는 단어는 '여백'과 다른 뉘앙스를 주는데, 그것은 직역하자면 '탈-지도그리기', 시각예술에서 보자면 고정된 하나의 시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원근법의 폐기를 말한다.

반면에 여백은 '동양적인 지도 그리기'의 산물이다. <소쇄원도> (사대부 정원인 소쇄원의 배치도)에서 보듯이 그것은 원근법의 모든 원칙에 위배된다. 움직이는 다수의 시점이 허용되고 있으며 거꾸로 서 있는 나무와 누워 있는 산들은 비합리적이기 짝이 없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비합리적인 것일까? 모더니즘의 틀 전체가 반성되고 있는 20세기 후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원근법적 사고방식과 그것이 주장하는 합리성이 아닐까? 지구의 여백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조형적 답구의 장을 제공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조류 중에서 서

양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동양사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극복해보려는 입장에 근거해 있는 이번 전시는 서구적인 지도그리기, 더 정확하게 말해서 '모더니즘적인 지도 그리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시도한다. 지구의 여백은 현대문명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원점으로서 비어있음을 제공하며 새로운 문명을 잉태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혼돈을 가까이 허용한다.

전시는 현대성에 대한 반성적 함의를 담고 있는 다섯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속도(speed—水), 생성(becoming—土), 혼성(hybrid—木), 권력(power—金), 공간(space—火). 속도가 고도성장, 혼성에 대한 찬양과 진보/발전이라는 직선적인 역사해석을 전제하는 근대적 속도 관념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면, 생성은 남성중심적이고 인위적인 현대문명의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자연과 문화의 본원적 생명력을 복원하려는 시도이다. 혼성은 모더니즘 패러다임이 근거하

고 있는 이분법적 가치체계에 대한 해체와 탈중심성, 다원성의 모색이며, 권력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국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권력기제에 대한 해체이다. 마지막으로 공간은 근대화가 가져온 도시공간과 그것이 우리 삶을 구성해나간 방식에 대한 기록과 반성을 시도하고 있다. 비록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에 엄연한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속화되는 세계화 과정에서 지구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들의 지평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에는 본전시와 특별전시를 포함하여 총 17개 전시, 39개국 370여명의 작가가 참가했으며,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본전시에는 95명(팀)의 작가가 참가하였다. 공동작업을 한 16

팀을 제외하면 개인으로 참가한 작가 79명 중에서 여성작가는 18명으로 18.9%를 차지하였다.

소주제로 보았을 때, 권력전과 공간전의 여성작가 비중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두 전시가 모두 한국커미셔너들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름대로 전시기획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생긴 결과인데, 공간전은 현대예술이 전제하고 있는 개인창작과 작가주의를 지양하려는 의도에서 공동작업을 선호했기 때문이며 권력전은 제3세계권 작가들에 대한 지역적 안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² 하지만 권력전이 일상의 정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여성작가들의 참여율

소주제	커미셔너	전체	그룹	개인	남성	여성	비율
속도(水)	하랄트 제만	19	2	17	14	3	15.8%
생성(土)	베르나르 마카데	16	1	15	9	6	37.5%
혼성(木)	리차드 코살레	15	4	11	6	5	33.3%
권력(金)	성원경	23	0	23	21	2	8.7%
공간(火)	박경	22	9	13	11	2	9.1%
합계		95	16	79	61	18	18.9%

1. 전시도록의 해설이나 작가해설 등 여러가지 출처를 뒤져보았으나 작가의 성별을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권력전에서는 '그녀'라는 대명사를 쓰지 않아서 특히 어려웠다. 그래서 권력전은 전시기획자에게 문의하여 여성작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공간전은 확인이 되지 않아 이율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통계가 부정확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 독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숫자에는 혼성팀으로 공동작업에 참여한 여성작가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2. 비교를 하자면 하랄트 제만이 기획한 속도전에서는 19명의 작가 중에서 2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미국·유럽 출신 작가였다.



조지아의 조로 (아름다움) / 루이스 부르조아 (학문·인간의 타락·타락의 타락)





김복두의 <오리도 배사제(침투)>: 피콜로티 리스트의 <나의 대양>의 디테일

여성작가들의 작품경향

소주제	작가명	국가	작품
속도(水)	피콜로티 리스트	스위스	<나의 대양을 마셔라>, 비디오 설치, 1996
	잉게보르크 뤼셔	스위스	<날으는 물>(연작), 사진, 1996
	가브리엘 코스타스	그리스	<심장의 고통>, 퍼포먼스, 1997 등
생성(土)	로즈마리 트로켈	독일	<아름다움>, 비디오, 1996
	구장아	한국	<넙치+참치=날치>, 설치, 1997
	아네트 매사제	프랑스	<침투 1993-94>, 설치, 1994
	마리코 모리	일본	<달의 고리>, 비디오 설치, 1996
	루이스 부르조아	미국	<작은 방(어른이 되거라)>, 설치, 1993
	신디 셔먼	미국	<무제>, 사진, 1985 등
혼성(木)	로잔렐라 레노	브라질	<시카트리즈>, 사진, 1996
	아이메이 가르시아	쿠바	<페넬로페 같은 아이메이>, 유화, 1997 등
	조지나 스타	영국	<작은 행성으로의 방문>, 설치, 1995
	르네 그린	미국	<세편의 부분적으로 매장된>, 설치, 1996-97
	마리 세스테	프랑스	<이동된 거주지>, 설치, 1997
권력(金)	모나 하툼	레바논	<욕죄는 빛의 그림자>, 설치, 1992
	린달 존스	호주	<광주, 파라다이스>, 설치, 1997

있는 성(gender)과 관련된 권력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여성작가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이번 전시에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으나 출품된 작품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

서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로즈마리 트로켈의 <아름다움>은 백인여성을 표본으로 삼는 보편적 아름다움이 다성적이고 다인종적인 아름다움들로 대체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신디 셔먼은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다룬 기존 작품들을 시대순으로 선별하여 보여주었다. 루이스 부르조아의 <작은 방(어른이 되거라)>은 내향적이고 고립된 여성의 의식세계가 갖는 유약함과 깨지기 쉬운,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훌륭하게 형상화함으로써 명성에 부응하였지만 기존 작품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여성작가들의 작품경향은 일차적으로 소주제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여주었다. 우선 작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 다수 눈에 띄었다. 신디 셔먼, 아이메이 가르시아, 조지나 스타는

사회, 역사, 문화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여성상을 스스로 재현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강한 자의식과 정체성의 혼돈을 보여주었다. 마리코 모리는 인간/기계 사이의 구분이 모호한 미래사회의 여성 사이보그를 다루었는데 문제의식이 공허하고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동양적 신비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단연 돋보인 작가는 르네 그린이었다. 그녀는 흑인, 여성, 독일계 이민자가 미국사회에서 갖는 정체성의 혼돈문제를 그녀의 가족사와 연관지어 풀어내면서 여성의 정체성 문제가 현대사회에서 마이너리티(minority)-소수민족, 동성애자, 노동자 등-이 겪는 정체성 문제와 얽혀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여성주의가 보다 보편적인 차원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정신분석학적 패러다임에 대한 전복을 통해 여성문제를 다룬 작가들이 눈에 띄었다. 피콜로티 리스트가 <나의 대양(ocean)을 마셔라>에서 상업적 에로티시즘이나 프로이트적 욕망의 어두운 기제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적 즐거움을 시각화함으로써 정신분석학에서 주장하는 여성의 욕망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면, 잉게보르크 뤼셔의 <날

으는 물줄기>는 남자의 오줌줄기를 순간적으로 포착한 사진을 무슨 성운처럼 보이게 제시함으로써 거세 콤플렉스에 대한 해학적 웃음을 자아낸다.

다음으로 여성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소재나 기억을 활용하는 작품들이 있다. 아네트 매사제의 <침투 1993-94>는 천조각으로 만든 내장들을 방안에 걸어놓음으로써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아늑한 모성적 공간을 촉각적으로 재현하였으며, 구정아의 <넙치+참치=날치>는 제목이 연상하게 해주는 생선의 비린내와 나프탈렌 냄새를 후각적으로 대조시키면서 그 냄새와 결부된 일상의 기억-장롱, 철지난 옷, 어린 시절 등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외에 여성주의적 문제의식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의외있는 사회비판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잔렐라 레노의 <시카트리즈>는 브라질의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문신을 찍은 기록사진들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사회가 범죄자를 시각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방식을 드러내주었으며, 모나 하툼의 <욕죄는 빛의 그림자>는 방안을 온통 철창의 그림자와 그 움직임으로 가득 채움으로써 미니멀리즘적인 조형언어로 억압적인 권력을 훌륭하게 형상화하였다. 린달 존스의 <광주, 파라다이스>는 전시장 안에 구현한 생

태적인 파라다이스와 비행기의 경유를 대비시킴으로써 생태학적 관점에서 과학, 지식, 이성에 기반한 현대문명의 폭력성을 비판하였다.

본전시에 참여한 여성작가들이 다룬 작품 주제와 접근방식의 다양성은 현재 우리 문명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예술적 응답이다. 이들은 생태학적이고 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 삶과 예술의 제문제들을 비판하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이번 전시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이 20세기 말을 그려내는 관점의 공통분모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작가 또는 어떤 작품이 여성주의적인가 아닌가의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여성주의가 그 자체로 고유한 문제영역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을 포함하여 현대 문명이 타자로 구성해왔던 모든 이들간의 연대이며 그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지구의 여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

히스테리아가 뿜은 겨울의 책

가장 편안한 공간과
가장 낯선 공간 사이에서

가족! 태어나자마자 속하게 되는 공간. 현재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갖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들. 어떤 이에게는 칼바람부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안식처이자 피난처이고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가능하면 지우고 싶은 상처와 고통의 근원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제까지 '어머니'라고만 불렀던 존재에 대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보려고 한다. 여성으로서의 어머니와 모성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작은 상처를 들추어낼 수도 있고, 좀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기도 하고 새로이 어른이 된다는 것, 누군가와 같이 살기 위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경험이 다른 여성들간에 숙제를 얻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마요네즈』(전혜성 지음/ 문학동네)

마냥 푸근하고 따뜻하고 인자로운 어머니의 이미지만을 가슴 깊숙히 간직하고 있다면, 독자는 매우 색다른 어머니를 이 소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를 너무 천박하고 속물처럼 묘사했다는 비난이 쏟아질지도... 작가는 전형적인 어머니상에서 벗어나 이런 어머니도 있을 수 있다는, 따뜻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족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갈등하고 상처받고 콤플렉스를 갖게 될 수도 있음을 어머니와 딸이라는 관계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어머니를 한 여성으로 이해하기 위한 작가의 지난한 작업을 통해 세간에서 미화시키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 속에 숨겨진 폭력성을 다시한번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고?』(에스터 빌라 지음/ 안인희 옮김/ 시유시)

페미니즘의 이단아, 에스터 빌라. 그녀는 독일 여성운동의 대모로 추앙받는 페미니스트지널 『엠마』의 편집장인 알리스 슈바르츠의 맞수로 끊임없이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며 새로운 책을 발표해온 했다.

이번 책에서 그녀는 몸(여성)과 돈(남성)이 교환되는 전근대적 '결혼은 부도덕하다' (이 책의 원제)고 선언하고, 남녀 모두의 진정한 욕망에 일치하는 정열적 사랑과 경제적 정의의 제도적 해결, 공정하고 효율적인 노동의 파급에 따른 결혼의 도덕적 재정비를 촉구한다. 아울러 자신의 주장을 현실화시킬 방법으로 '일일 5시간, 일주 25시간 노동제'의 과학적인 대안책을 제시한다.

'결혼비즈니스' (?)에 성공하고 싶은 여성과 남성은 꼭 한번 참조할 책으로 꼽을 만하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남성노조들이 선사한 여자의 모든 사회적 특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에스터 빌라. 그런데 이 여자 말야, 우리 친구야, 원수야?

가족 (윤명혜 지음/ 경향신문사)

너무나 명징한 CD 음반보다 약간은 굵고 때로는 편이 튀기도 하는 이 책은 흘러가버린 LP판처럼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켜온 두 어머니의 모습을 만난다. 뚝뚝해지고 영악해져 자신의 이익만을 칼처럼 썰기는 젊은이들에 비해 주어진 시대적 조건에서 마냥 열심히 살았던 어머니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젊은 날들을, 오늘을 견뎌왔을까. 그들에게도 젊은 시절은 있었을까. 갓

년기에 접어든 '나'가 관악산을 오르며 들르는 브리잡집에서 만나는 노마엄마와 흘러가는 구름처럼, 편안한 시간처럼 서로의 삶에 대해, 어머니라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해간다.

이들은 서로의 처지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안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이란 관계에 얽혀 있는 우리들에게 차분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 관계를 생각하게 해준다.

『살아보고 결혼합니다』(이정숙 지음/ 명진출판)

늙어서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맹세한 '영원한 결혼'? 그러나 결혼 부부 7쌍 중 1쌍이 갈라서고 있을 만큼 우리사회의 이혼율도 급증하고 있다. 결혼을 하기 위한 망설임도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이혼의 선택은 그 이상의 고통이며 이혼으로 야기되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러나 무조건 참고 사는 것도 옛말. 결혼이라는 법적 계약에 속박되기 이전에 한번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 저자는 자신의 미국생활의 경험을 통해 가족의 해체와 이혼의 사회문제 속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새롭게 모색하는 '살아보고 결혼하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여성의 권리가 우리보다 많이 지켜지고 있는 사회에서 달라지는 결혼 조건과 결혼에 대한 상, 자신의 인



이리저리

이의 세번째 출판을 앞두고, 작업하기엔 편해졌는지 있다면
이를 알아들은 출판사들이 많아졌다는 점.
내가 나오면 꼭 한번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출판사도 많아졌다.
이의파워를 증거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책 좀 읽어달라는 출판사들이 줄서는 그날이 빨리 오는 것.
뜨끈뜨끈한 히스테리아 책과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시길!



생계회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지켜나가고 있는 여성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가족해체의 대명사인 미국을 여성인 저자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꼼꼼히 보는 건 어떨까.

『반쪽이 부부의 작은 세상』(변재란 지음/최정현 그림/현역레신문사)

온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는 것은 여성들의 바람이자 기대. 전체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하나라도 삐딱하게 나온다면 정말 힘든 일일 텐데 그런 점에서 『반쪽이 가족』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완성된 '모범'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a 모버밍(모범의 진행형)'임은 틀림없는 사실.

보통의 가족들과는 달리 집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밖에서 더 바쁜 어머니,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의 모습. 『반쪽이』로 알려진 최정현과 또 다른 반쪽 변재란, 반쪽이들이 만든 최하에린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타' 가족이다. 이들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자잘하게 부딪치고 서로를 만들어가고 달라지게 하는 힘은 서로를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 존중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자세이며, 그런 모습은 말과 머리로만 원하지만 몸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모두가 원하는 것을 해나가기 위해 이들 가족이 어떻게 서로에게 '간섭' 하는지, 서로의 갈등과 어려



움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찾아보는 재미는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담백하고 맛깔스럽다. 『반쪽이』의 육아일기』의 팬이신 분은 하에린이가 얼마나 컸는지, 내 에는 아니어도 애 크는 재미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하지 않는 즐거움』(어니 켈린스키 지음/노순옥 옮김/중앙M&B)

결혼은 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라는데, 밀저야 본전이라고 그래도 지지고 붙고 싸우는 재미에 사는 것이라며 결혼을 결심한 사람은 그 전에 이 책을 한번 보실 것. 결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if 독자라면 그에 못지 않은 준비도 철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무지무지 도움이 많이될 듯하다. 물론 결혼하지 않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현재 아직 혼자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너도 나도 바쁜 때에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기 때문. 사실 심심하지 않으려고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다. 이런 점에서 독신을 조장했다기 보다는 재미있게 사는 기술을 연구한 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어린이보다

어른이 읽어야 하는 동화책

동화책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오히려 어른들이 동화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 물론 어린 시절 동화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동화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때는 너무나 막연한 것이었다. 이제 그에 비해 어느정도 세상의 땃국이 든 지금에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원하면서도 놓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어린이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다. 바로 우리가 힘들어 혁혁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같이 살고 있기에 아이들에게 교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단지 어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린이들보다 더 올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은 아니니까. 동화책은 '애들이 읽는 것'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장르 파괴!

『내 옷이 제일 좋아』(실비아 플라스 글/로트라우트 주진네 베르네르 그림/엄혜숙 옮김/다섯수레)

이런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스꽝스럽거나 바보 같다고 놀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틀린 건 아닐까?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봐야 할 책. 여성주의 스타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DOC와 춤을>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주 좋아할만한 책.

어떤 일에 부딪치거나 선택을 하



려고 할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는 싶지만 남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행동을 주춤거리게 되고 가능하면 '피지 않게', '모나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 책은 우리의 소심함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준다. 맥스를 통해서. 맥스는 아버지와 어머니, 폴, 에밀, 오토와 윌터, 휴고와 조안이 사는 집안의 막내로, 다른 사람은 다 있는 정장이 없다. 맥스가 원하는 정장은 너무 평범하지 않고 너무 화려하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너무 춥지 않고 일년 내내 어느 때라도 입는 정장이다. 이런 정장이 어디 있겠냐고? 어느 날 맥스의 가족 앞으로 우연히 배달되어온 거자색 정장이 온 가족을 거쳐 맥스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 동화책은 읽는 과정 내내 '나'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해주어 유쾌하다. 책 뒷편에는 영어 원문을 실어 영어를 맛있게 읽는 재미를 준다. 대입시험이나 취업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분은 꼭 먹고 알 먹고.

『동동보 미켈레』(수산나 타미로 지음/이현경 옮김/고려원미디어)

살아, 살아, 내 살아! 내 몸에 붙은 살이 못마땅한 분들은 미켈레와 단식원에 들어가자!

엄마와 단들이 사는 8살짜리 미켈레는 동생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외로운 아이. 미켈레의 유일한 친

구는 부엌에 있는 하얀 냉장고, 쓸쓸하고 외로울 때마다 냉장고로 달려가 위로를 받게 되고, 결국 냉장고와의 우정으로 미켈레는 풍뎡보가 된다. 날선하고 신경질적인 미켈레의 어머니는 이런 미켈레가 못마땅하다. 그래서 표준체중표, 뱃살을 재는 줄자를 들고 각종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다가 결국 엄마에 의해 단식원에 들어간다. 단식원에 들어간 미켈레가 어떤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지 생각해보는 재미를 뱃치는 말자. 미켈레가 집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단지 살을 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찾아주는 길이다. 어른들이 사랑이라고 믿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구속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의 무게만큼 느끼게 해준다. 당신은 살을 버리는 대신 무엇을 얻을 것인가. 미모? 자존감? 직장? 그(He)의 시선과 그녀의 시선?

이론서

여기에 소개되는 이론서들은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꼭 읽어보아야 하는 책들이다.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두어야 하는 삼식서랄까. 그저 이론적으로 중요한 책들이 아니라 여성학과 여성주의에 새로운 한 흐름을 만들어냈던 기념비적인 작품들이기 때문이



다. 현재의 여성주의 윤리학, 여성신학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첫 작업들을 다음의 책들이 하고 있다.

『다른 목소리로』(캐롤 길리건 지음/허란주 옮김/동네)

아내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난한 남편이 악을 흉쳐야 하는가, 혹은 흉치지 말아야 하는가. 남자아이는 흉쳐야 한다고 대답하는 반면 여아는 남편이 악극 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악을 얻어와야 하며 악극 주인은 옹당 악을 주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누가 더 도덕적 분별력이 있는 것일까? 기존의 남성도덕 발달론에 비추어 본다면 여아는 질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애라는데, 이제까지는 남성 윤리만이 유일한 도덕윤리였다면 길리건의 작업은 남성윤리만이 아니라 여성의 윤리 또한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어느 한 윤리가 우월하다는 것은 해당 사회의 남녀권력관계의 반영일 뿐이라고. 그 책이 나온 이후, 성중립적으로 인식되었던 윤리학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여성주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방향에 대한 고민이 빠르게 됐다. 자신의 판단이 항상 편견에 찌들거나 주관적이라거나 특이하다고 지적을 당했거나 그런 이유로 박해(?)받고 살았던 분은 그 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어떨지.

『교회와 제2의 성』(메리 데일리 지음/황혜숙 옮김/여성신문사)

교회와 여성주의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분들,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어렸을 때는 안그랬는데 요즘에는 교회에 가면 뭔가 불편하거나, 교회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급진적 여성주의자를 거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리 데일리. 그녀는 가톨릭 개혁주의자에서 급진적 여성주의자로 탈바꿈했다. 그녀는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인종문제, 경제적 차별문제, 환경문제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이 현재 전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제에 있으며 가부장제의 기본원리는 남성중심주의요, 성차별주의라고 본다. 강고한 벽처럼 둘러싸인 가부장제를 밑에서부터 반치고 있으면서도 외형적으로 여성들에게는 평등하게 보이는 것이 현재의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가부장적 종교의 모습이다. 메리 데일리의 이 책은 신학, 여성학, 철학과 정치적 운동의 고전적인 교과서이다.

기타

『위대한 예술가 커플의 10가지 이야기』(휘트니 체드윅 지음/최순희 옮김/도서출판 푸른숲)

만약 셰익스피어에게 누이동생이 있었다면, 영국이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할 정도의 작품을



오펜가 쓰고 있을 때 그의 누이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지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위인'이라거나 '영웅'이라거나 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본다. 무엇인가 꿈을 때 열 손가락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종종 듣지만 이런 여성이 얼마 있는지를 세면서는 손가락이 남는 황당함을 경험한다. 예술가 커플 이야기라 로망의 연인만을 떠올린다면 큰 오산. 이 책에서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작품 속의 배경이거나 그림자가 아니라 당당한 자신의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인생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한 여성들이다. 이전의 남녀 역할과 성별에 따른 비판적인 정형화보다는 한걸음 유언하고, 대등하고, 한편 희망적이기도한 동반자 관계를 이룬 열쌍의 예술가 커플을 만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처럼)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이 독자들에게 많은 것이다. 정말로 대등할 수 있었을까, 정말 이런 게 가능한지 궁금한 사람들은 책을 보고 꼭 따져보기로 하자.

『여기자』 제7호(한국여기자클럽)

전문적 여성? 언론고시를 통과해 들어간 여성들이 제법 많아졌다. 말아진 여기자의 숫자가 여전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그래도 특파원도 되고 해외출장 가서 특종도 따내고...

한국에서 여자기자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공하기 위해, 아니 최소한의 자리를 잡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남자들보다 2.3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여기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여기자와 여성해방? 글에서 드러나는 여기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면 변화의 한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그녀들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여기자가 아닌 기자가 되기 위하여? 여기자의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와 '기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워크숍이 부록으로 담겨 있다.

『종군위안부』(노라 옥자 펠러 지음/ 박은미 옮김/ 밀알)

정신대문제는 한일간의 민족문제인가. 성폭력 피해자인 여성의 문제인가. 김순효라는 여자가 열두살 어린 나이로 일본군에 위안부로 끌려가면서부터 시작되는 한 종군위안부의 삶. 이 책은 기존에 나와 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기나 영화와는 달리 종군위안부 소설이다. 역사 속에 묻혔던 여성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것도 힘들었지만, 90년대 말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 여성들이 할머니들의 삶과 고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것 같다. 위안부 문제는 국제회의에 올려지는 국가적 안전이지만, 그만큼의 비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무게만큼



‘남의 일’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미국계 한국인 여성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 현재 살아계신. 오래 전에 돌아가신 많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속적인 관심의 계기가 되길.

『여성과 사회』 제8호(한국여성연구회 지음/ 청작과 비평사)

갑자기(?) ‘몸’이 붐뚱 뜨고 있다. 하지만 여자들에게 몸은 오래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몸가짐부터 다이어트, 외모 가꾸기, 임신,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자다운 여자되기’는 몸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해방의 정치가 다시 몸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일이고, 그만큼 엄청난 싸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몸과의 전쟁.

우리사회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여성문제 전문지 『여성과 사회』가 눈을 돌린 지평은 ‘여성의 몸과 시민권’이라는 주제. 여성주의 여기저기 ‘여성의 몸’에 대한 글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는 이때 ‘성폭력, 임신, 출산, 낙태, 여성의 육체적 쾌락’ 등을 여성주의 입장에서 총망라한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욕망과 섹슈얼리티와 쾌락의 문제에만 한정된 최근 몸 논의에 대한 비판이자 동시에 페미니즘과 몸의 담론을 탈정치화한 ‘포스트주의’로 단정지으려는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마녀사냥』(모리시마 쓰네키 지음/ 조성숙 옮김/ 현민시스템)

질곡이 많은 현대사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만큼 혼란 말도 없을 것이다. 마녀사냥이란 말은 증거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마녀로 지목되지만 하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한번 낙인이 찍히면 사회여론이 한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가는 것을 뜻한다.

이 ‘마녀사냥’이라는 용어는 여성학에서 거론되는 ‘여성혐오증’, ‘여성살해’의 잔혹한 사례 중 하나로 중세 유럽을 휩쓴 집단광기인 마녀재판에서 유래한다. 중세 전유럽을 종교, 정치적으로 지배했던 로마 가톨릭교회가 부패하면서 이에 반기를 든 교인들을 ‘악마와 결탁한 마녀’라는 죄목으로 몰아 마구잡이로 화형에 처한 것이 마녀재판이다.

이 불길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단어가 최근에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로 젊은 여성이나 문화운동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새롭게 쓰이기도 한다. 이 책은 ‘마녀’ 혹은 ‘마녀사냥’이 원래 어떤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는지에 관한 궁금증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여자와 남자는 왜 화해할 수 없나』(변정수 지음/ 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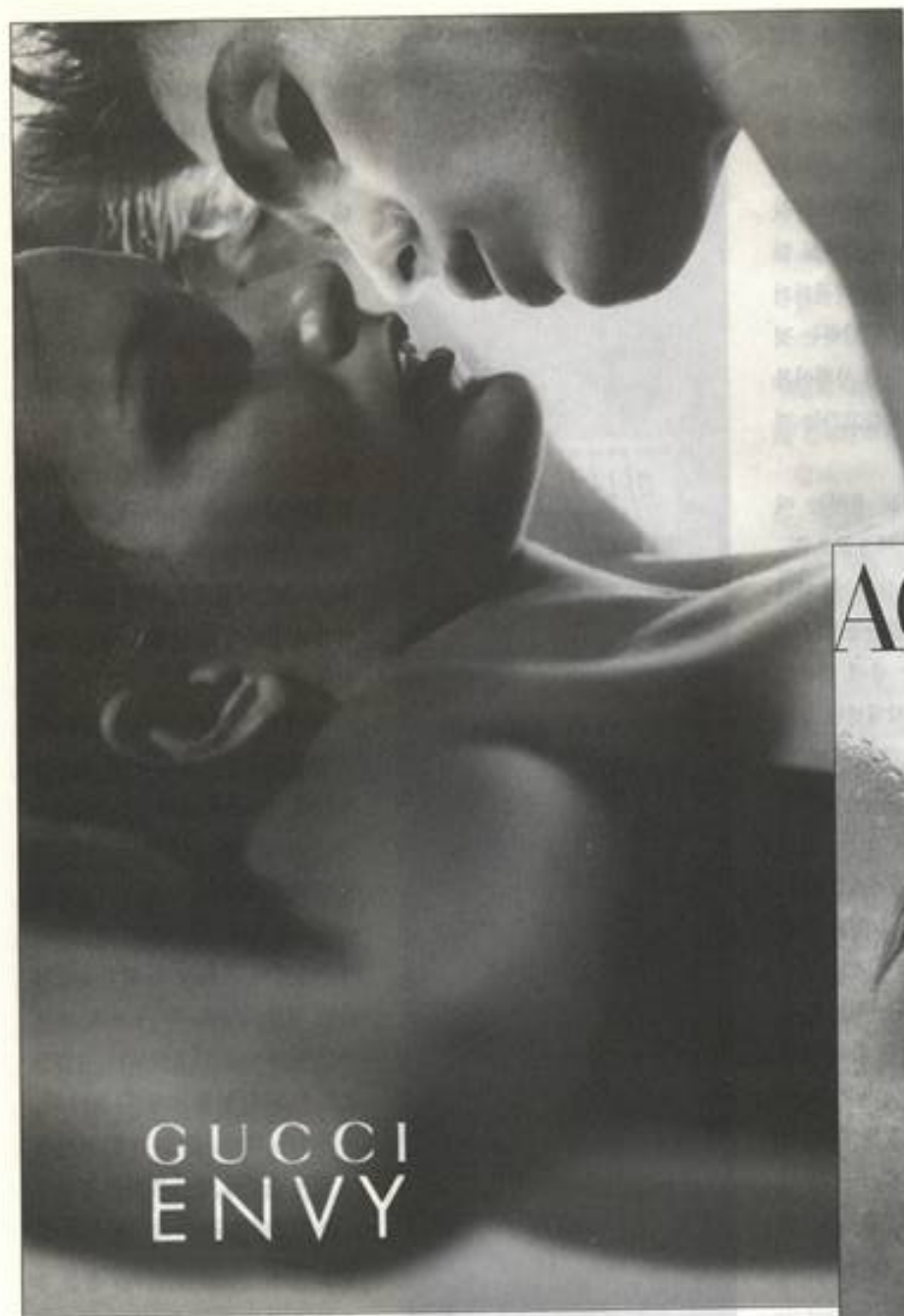
어떤 이상한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해서는

안되거나 해야만 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여자라는 이유’로 엄마의 자궁에서 떨어져나와 하기도 한다. 이런 나라에 또 이상한 남자가 있다. 그는 이 상식적이지 못한 세상에 대해 침을 뱉고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는다. 게다가 현실은 여성에 대해 너무나 불평등하고 폭력적이며, 현실의 남성인 자신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다. 나이가 자신의 남성성을 부정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성일 수 있다면 여성만을 사랑하는 레즈비언일 것이라는 팔초차 서슴치 않는다.

이 책은 이상한 남자 변정수(미시모델 변정수가 아니다)가 그동안 하이텔 〈바른통신을위한모임〉의 ‘여성게시판’에 써올렸던 글을 다듬어 펴낸 것이다.

자신의 삶과 일상까지 파고드는 가부장제의 폭력성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각 주제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보는 연습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누군가와 페미니즘에 관한 논쟁에서 먼저 흥분해 말이 막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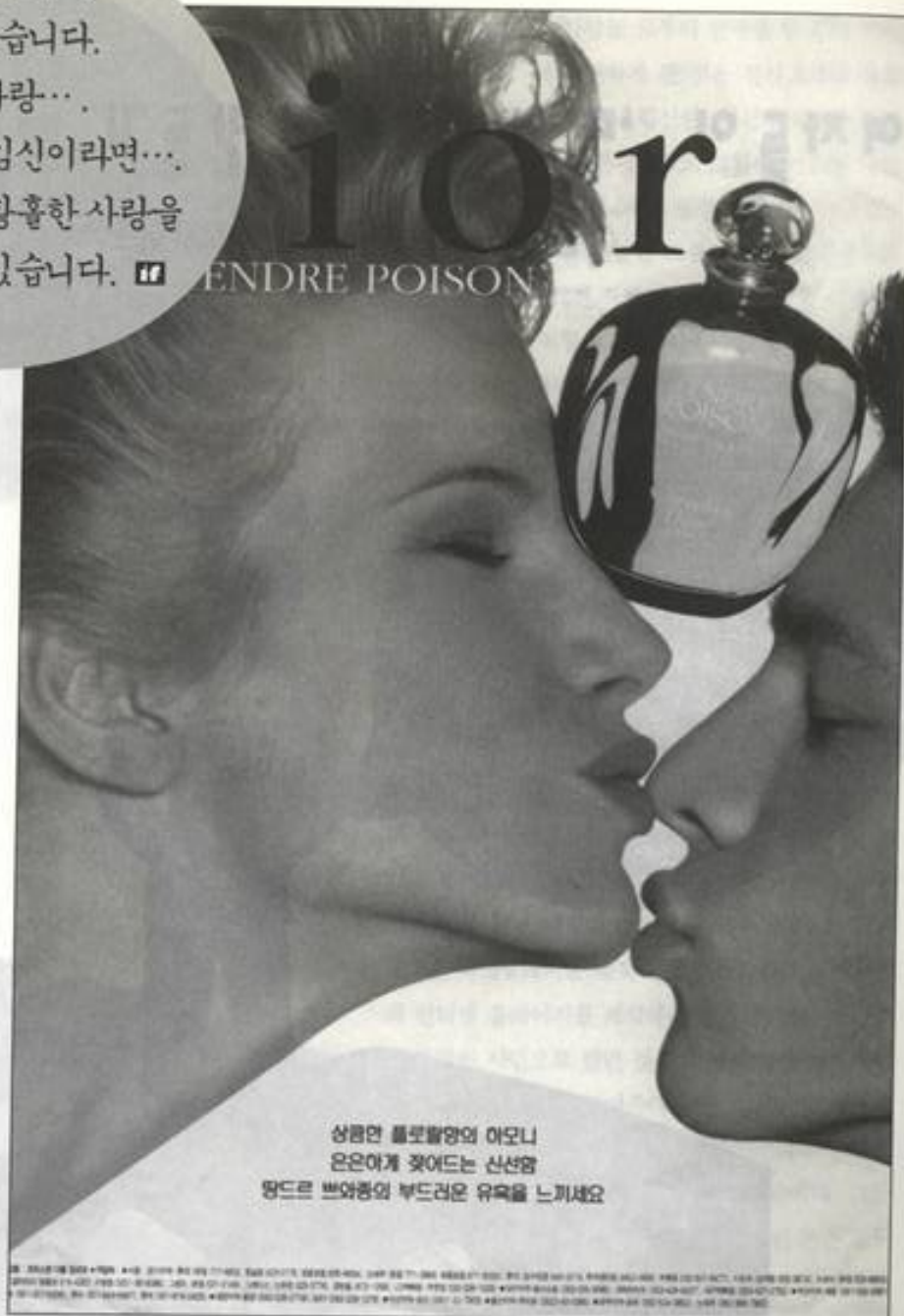




ACQUA GIÒ



아무도 '그 이후'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그러나 원치않는 임신이라면...
준비된 사람만이 황홀한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



상쾌한 플로랄향의 아모니
온온하게 젖어드는 산산향
당드의 브러쉬와 부드러운 유혹을 느껴세요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 만들기

〈푸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테크놀로지 아트

"아저씨
아저씨 하면서 인사도 잘하고 빨빨하게
는 안했지. 나중에 술이나 한잔 하려고 하면 좋아
오'하기도 하구 말이야. 하, 오거. 그런데 어느날 애가 술을
먹고 온 모양이야.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는데 열쇠를 구멍
에 못 맞추더라구. 내가 열쇠로 그 집 현관문을 열어줬지. 그레도 애
가 정신은 있는지 고맙다고 그러구서는 안녕히 가시라는 거야. 마쳤
어. 내가 안녕히 가시게 너무 할기왕성하고 사지 일평한 대한민국 남
자란 말이야. 내가 좋아서도 아니구 내가 미워서도 아니야. 이런 기회
를 놓치면 나만 뻘뻘하는 거지. 그래서 해치운거지—
남자끼리의 비밀이 하나 생겼지. 그건 뭐냐면. 다음번엔 내 천
구 녀석에게 기회를 한번 마련해주기로 한거지. 다음에
이 오빠 만나도 너무 원망하지 말고 계속 잘 지내자
구." 강간남



(아자죽이기)

"술한잔 하자
고 할 때 거절하면 너 좋다는 뜻이
나 너 좋다는 뜻이 다 그 뜻하는 거나. 여자가 술
먹으면 다 해프게만 보이나. 술 먹은 여자는 다 너희들 먹
잇감이나. 나는 그레도 너희들을 인간으로서 대했다. 그레
너희같은 족속은 인간적으로 대해 줄 필요가 없었어. 처음부터
빨빨하게 쳐다도 안보고 인간취급을 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
같은 족속은 쓴 맛을 봐야해. 너는 나의 생애 분노라는 걸 가르
쳐줬어. 번도 경찰도 너희하고 똑같은 걸 나도 들어서 알
만들은 다 알아. 난 오늘 결행했어. 드디어 해치웠어.
너같은 XX들에게는 이런 방법이 가장 어울려."
—복수녀



(남자죽이기)

‘푸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전시

에 관여하게 된 것은 전시 2개월 전쯤
이었다. 이종재, 이진석, 김신한, 이현주 4명으로 구
성된 푸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내걸
고 하는 첫 전시가 〈제4세계 풍경화전〉(9.10~9.23/
보다갤러리)이었다. 이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활동하
고자 하는 것은, 크건 작건 미술관에서 ‘그들’이 없어
져가는 추세에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모험처럼 보이기
도 한다. 특히 형편없이 가난한 우리나라 미술관에서
설치나 멀티미디어 작업을 지향한다고 할 때는 일종
의 각오나 결심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니,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자금마련 방안 없이는 무모한
것이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푸른 사람들’이 사업자등록
을 한 이유는 본격적으로 자체내 사업을 해나가겠다
는 다짐에서 비롯되었다. 예술과 상업적인 측면 모두
를 획득해보자는 것이다. 물론 현재는 그들에게 선뜻
일거리를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들
의 주요사업이 모든 시지각물 제작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궁
무진하다.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업은 인터넷, CD-
ROM, 디스플레이물 제작 등이다. 현재는 모 미술관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있다. 그동안 그들
이 돈벌이 사업으로 했던 것은 다른 작가를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그 사진을 컴퓨터
로 제작해준다든지 유행작업을 만들어준다든지 인터
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그들
이 이런 일을 하면서 번 돈, 혹은 각자가 번 돈은 모두
그룹에 투자되며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작품을 제작하
고 전시도 하고 그런다. 전시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장기적인 투자개념으로 생각한다.

이들 네명의 막강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첫 전
시가 바로 ‘제4세계 풍경화전’이다. 이 전시는 인사
동의 ‘보다갤러리’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

된 5개팀이 하는 전시 중 하나였다. 요즘 들어 미술계에서는 작고 큰 공모전이 빈번한데, 특히 규모가 작은 갤러리에서 그들만의 색깔과 기준을 세우고 따끈따끈한 신인들을 발굴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 전시의 주제는 페미니즘이다. 예전부터 그들은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제4세계란 그러한 자신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소외된 여성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의 대비된 개념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물론 여기서 착하고 나쁜 것의 기준은 소수지배권력의 것이다. 그들은 이 개념에 적합한 경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그 기준에 물들어 있는가를 알아차렸으면, 혹은 그 기준으로 인해 여성이 얼마나 억압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하였다. 착한 여자의 공간에는 강간 당한 여자(여자 죽이기),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자(어리숙한 척 남자 부러먹기), 하루종일 무보수 노동에 시달리는 주부(착한 여자) 등과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부글거리는 물거품 속에서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만 들리는 〈침수〉, 아직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은 아기의 사진 뒷면에 온갖 남성적인 물건이 후광처럼 둘러 있는 〈남자 만들기〉 등이 있다. 그 뒤편 나쁜 여자의 공간에는 강간을 한 남자에게 복수하기(남자 죽이기), 거리에서 남의 시선을 야망못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는 여자(나쁜 여자), 여자들 혹은 소수자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제4세계〉,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씩씩함(네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밝혀라), 임신의 우울한 측면을 그린 〈못난 자세〉, 그리고 이번에는 온갖 여자 물건으로 둘러싸인 아기사진 〈여자 만들기〉가 있다. 또한 나쁜 여자의 공간은 여성전용 공간이며 여기서는 무료제공되는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남자가 맨스를 한다면'이라는 글이 적힌 생리대를 가져갈 수도 있다. 또한 전시기간중 인터넷이 가동됨으로써 온라인상으로 전시를 보거나 푸른 사람들에게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전시에 동원된 매체는 아주 다양하다. 사진, 비디오, 슬라이드, 라이트보드, 수조, 음향, 수동 발전기, 조소, 회화 등등. 그중 인상적인 것 몇가지. 주부의 바쁜 일상을 그린 비디오 작업 〈착한 여자〉는 홍콩 왕가위 감독의 영화 〈타락천사〉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우리



〈남자 만들기〉 아직 성적 정체성이 정해지지 않은 아이 뒷면에 남성안물기를 가능케 하는 환경들이 가득 차 있다.

예전부터 그들은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4세계란 그러한 자신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소외된 여성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예전부터 그들은 여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제4세계란 그러한 자신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아무 데도 속하지 못하고 떠도는 소외된 여성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쁜 여자〉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자를 흠뻑 흘린 채보는 형인들(원작). 〈착한 여자〉 형구는 남편과 아이들 사이로 쪼그라들고 움직이며 일하는 주부의 모습이 반복된다(오른쪽).

나라 일반 가정의 저녁식사 후의 모습. 화면 전면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남자들(어른이건 아이이건)이 누워서 혹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고, 그들의 뒤로 계속 정신없이 바쁘게 주부 혼자 움직인다. 주부는 저녁 내내 그들이 늘어놓은 것들을 줌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빨래를 넣고 개키고 다리고 과일을 깎고 먹은 걸 치우고 하는 일들을 한다. 이러한 장면을 저속으로 촬영해 마치 〈타락천사〉의 한 장면처럼, 움직임 없는 전면의 남들과 후면의 마구 움직이는 주부가 대비되어 보여진다. 전시장에 들른 아줌마들은 그것을 보며 웃음으로 동조하는 한편, "사실은 저것보다 더 다양한 일을 하며 더 바쁜데..." 하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침수〉는 감상자가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한꺼번에 동원해야 하는 작품이다. 등신대보다 조금 낮은 원형의 수조에서는 흔탁한 물거품이 부글거리고, 앞면에는 헤드폰이 걸려 있다. 헤드폰을 쓰면 거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 들린다. 사실 그 웅얼거림의 내용은 95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이다. 그러나 그러한 외침은 사회의 흔탁한 물거품 속에 잠겨버려 매우 안타깝게 들린다. 감상자는 눈으로는 부글거리는 수조를 보며 귀로는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는 헤드폰을 만지게 된다.

〈제4세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밝혀라〉도 마찬가지. 동으로 만든 사각형의 주물에 실제 크기의 손 모양이 찍혀 있고 양 옆의 동그란 금속성 스피커에서는 불안하고 우울한 불협화음이 흘러나온다(〈제4세계〉). 감상자가 그 손바닥 모양에 자신의 손을 갖다대면 센서가 작동해 평화롭고 익숙한 음악으로 바뀐다. 이 작품은 금속성의 재질과 컴퓨터 음악의 전자음을 이용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에 따라 충분히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놀랍다. 금속성이나 전자음향을 비인간적인 것으로만 매도하기에는 그것들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 않은가.

〈네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밝혀라〉는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발상이었다. 수동식 발전기를 열심히 손으로 돌리면 간판에 불이 들어오면서 글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원래는 강도가 높아지는 세계의 문장에 차례로 불이 들어오게끔 구상되었으나 결국 세계의 문장을 생각해내지 못해 아쉬운대로 하나의 문장에 만족해야만 했다. 세계의 적절한 문장만 찾아냈다면 참 재미있었을 텐데... 감상자가 직접 팔을 움직여 돌려야 하는 수동식 발전기와 나무테두리 간판은 〈제4세계〉와 달리 구식 물건이지만, 이 역시 과학적 사고를 단순하고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 점이 좋았다.

〈여자 죽이기〉, 〈남자 죽이기〉는 너무 직접적이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었으나, 단지 '강간'이라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강간의 문화(남자의 티셔츠에는 '트래디셔널 가이 traditional guy'라고 쓰여 있다)를 보여주고 있다. 강간에 대한 남자들의 사고와 여자들의 사고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특히 나쁜 여자의 공간에서 보여지는 당한 여자의 복수극은 충격적이다. 선형이 남자한 채 쓰러져 있는 우리의 '전통총각'! 여자들의 마음 속에 한번쯤은 상상해보았을 장면 아닌가. 너무 선정적이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침수〉 헤드폰을 귀에 대면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알 수 없는 웅얼거림으로만 들린다(왼쪽).
〈네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밝혀라〉 수동식 발전기를 손으로 돌리면 간판에 불이 들어오면서 글자가 나타난다(오른쪽).



이것이 바로 '생각'이나 '이빨'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가다'의 과정을 거쳐 '물건(결과물인 작품)'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걸 위해 그물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고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많은 것은 현재 여성작가들이 하기 힘든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내겐 경이롭게도, 서글프게도 느껴졌다.



〈어리숙한 최 남자 부러워하기〉 나약하고 수동적인 여자의 일상이 빔에 투사된다(왼쪽).
〈제4세계〉 동으로 만든 사각형 주물에 딱힌 손바닥 모양에 자신의 손을 갖다대면 평화로운 음악이 흐른다(오른쪽).

현실에서 거의 대책과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리라. 대부분의 작품들이 신선하고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보는 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했지만, 이들이 하고 싶은 발언이 현재 페미니즘의 논의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것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관람객들의 대부분은 작품의 유아적이거나 형식주의에 빠진 설치미술의 흔재에 현기증을 느끼다가, 약간은 경직되었지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한 이들의 작업에 표를 주는 것 같았다.

물론 미술평론가들로부터는 호의적이지 않은 평을 들었다. 페미니즘 인식수준에 대한 의심과 예술에의 훈련이 좀더 무철해야 된다는 주문이었다. 즉, 현실에 대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지레 흥분해서 주장하거나 선언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예술이라는 것이다.

여성계속 사람들의 반응이 내겐 제일 경이로웠다. 마구 야단을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호의적이고 격려해주는 분위기였다. 어렸던 여성에 대한 발언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사용하여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었던 듯하다.

예를 들면 〈침수〉나 〈제4세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밝혀라〉 같이 청각, 촉각을 자극하고 활용하는 작업을 보통은 생각치 못하거나 생각한다 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결국 미술은 '생각'이나 '이빨'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가다'의 과정을 거쳐 '물건(결과물인 작품)'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위해 그물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고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남자들의 장점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많은 것은 현재 여성작가들이 하기 힘든

현실에서 거의 대책과 해결이 불가능한 일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대부분의 여자들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리라. 대부분의 작품들이 신선하고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보는 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좋아했지만, 이들이 하고 싶은 발언이 현재 페미니즘의 논의수준을 따라잡지 못한 것일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관람객들의 대부분은 작품의 유아적이거나 형식주의에 빠진 설치미술의 흔재에 현기증을 느끼다가, 약간은 경직되었지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가 선명한 이들의 작업에 표를 주는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침수〉나 〈제4세계〉, 〈네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밝혀라〉 같이 청각, 촉각을 자극하고 활용하는 작업을 보통은 생각치 못하거나 생각한다 해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결국 미술은 '생각'이나 '이빨'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노가다'의 과정을 거쳐 '물건(결과물인 작품)'으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위해 그물을 만들고 시스템을 갖추고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남자들의 장점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많은 것은 현재 여성작가들이 하기 힘든





《푸른 사람들》 구성원. 왼쪽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현주, 이진석, 이종재, 김신현.

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내겐 경이롭게도, 서글프게도 느껴졌다.

물론 예술은 대중추수적이어서만은 안된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가 중요하고 결국 훌륭한 예술은 그 자체로 대중성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은 놓이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나는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이 오히려 전시장을 벗어나 좀더 대중적인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났더라면 다른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여러 겹의 암호를 풀기 위해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시장이라는 공간 말고, 살짝 지나치면서 재미를 느끼고 강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공간 말이다. 이 말은 푸른 사람들을 폄하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설치미술가들의 사고가 많은 부분 '전시장 지향'적이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을 푸른 사람들이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하는 말이다. 재미있고

신기하고 오감五感を 자극하고 그러면서도 생각할 끼리를 주는 예술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언제까지나 전시장 안에서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은가. **IF**



오혜주

푸른 사람들의 전시를 약간 도와준 대가로 노트북 컴퓨터를 받았다. 우리아이 동욱이 다음으로 내 소중한 재산목욕이 된 이 컴퓨터의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한손엔 노트북, 한손엔 김치통을 들고 지하철을 타다니 그랄까? 나 같은 아줌마에선 역시 어울리지 않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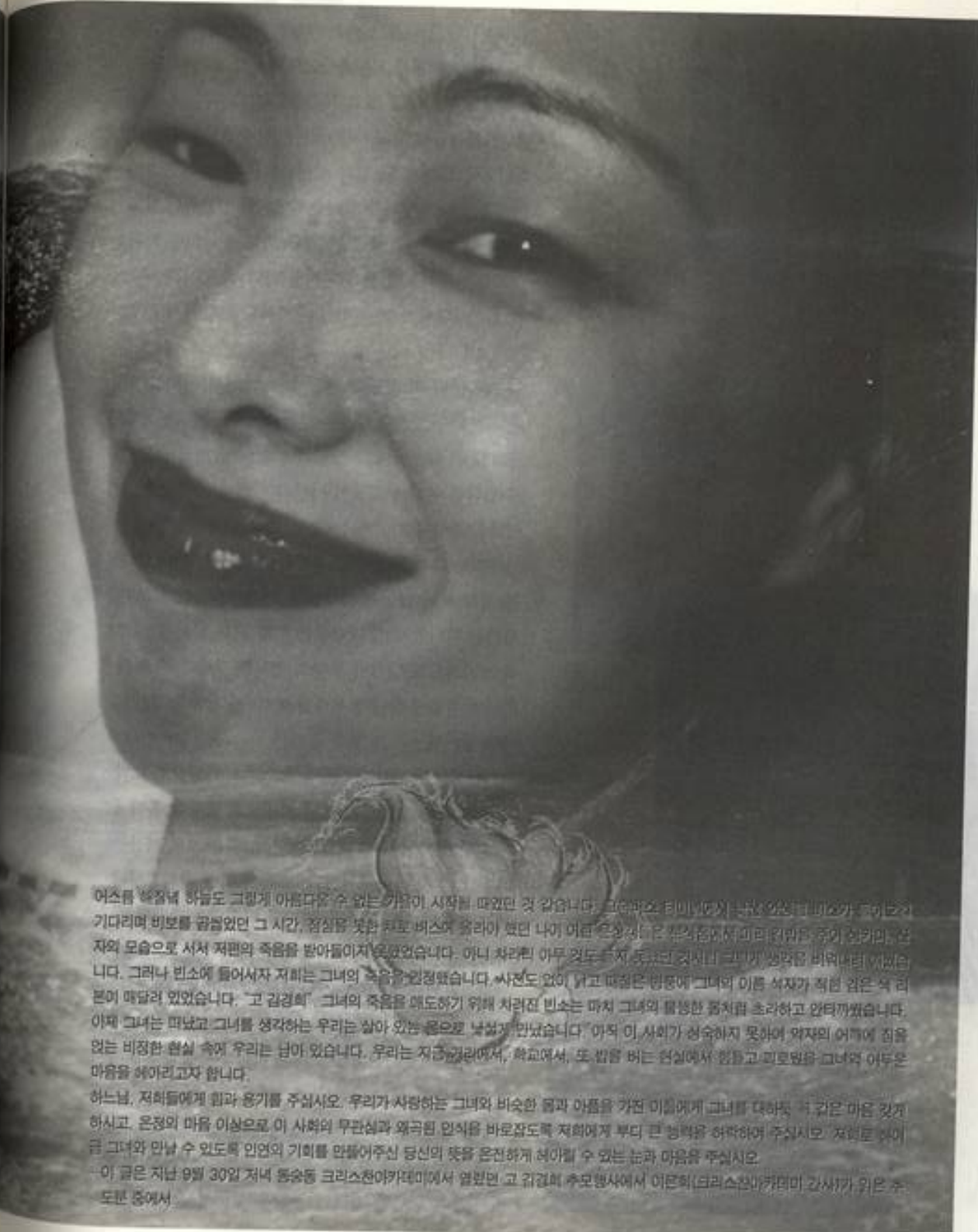


옛날 옛날에 물오른 여자 태양을 제압하는 남자. 천국의 향기를 담은 여자와 우주를 담은 그 남자들은 화장품 하나를 써도 「우주」와 대화하고 자연을 「제압」하는데 여자들은 예쁜 표정으로 여전히 물이 오르기만 기다렸던 거야. : 그냥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야. 오늘 얘기 끝. **IF**





잃어버린 여성예술가 김경희를 기억하며



여스를 빼앗긴 하늘도 그렇게 아름다운 수 없는 기억이 시작될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과도 같이 1971년 12월 25일 밤 11시 30분경에 그녀는 기다리며 비보를 감당했던 그 시간, 정실을 뒤흔쳐 버스에 올라가 있던 나이 어린 손자 김정은은 운전석에서 미리 김밥을 준비한 것을, 손자의 모습으로 서서 저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날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소에 들어서자 저편은 그녀의 죽음을 인정했습니다. 사전도 없이 낯고 따질 틈도 없이 그녀의 이름 석자가 적힌 검은 석 리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 김경희'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치러진 빈소는 마치 그녀의 훌륭한 품격을 초라하고 안락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떠났고 그녀를 생각하는 우리는 살아 있는 몸으로 낯설게 만났습니다. 아직 이 사회가 성숙하지 못하여 여자의 어깨에 짐을 얹는 비정함 현실 속에 우리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에서, 학교에서, 또 밥을 먹는 현실에서 힘들고 괴로웠을 그녀의 어두운 마음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하느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그녀와 비슷한 몸과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그녀를 대하는 저 깊은 마음 갖게 하시고, 온정의 마음 이상으로 이 사회의 무관심과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저희에게 부디 큰 능력과 하박하여 주십시오. 저희로 하여금 그녀와 만날 수 있도록 인연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헤아릴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글은 지난 9월 30일 저녁 동숭동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열린 고 김경희 추모행사에서 이은희(크리스천아카데미 감사)가 읽은 추도문 중에서



지난 9월 9일, 우리 잡지의 편집위원이었던 김경희씨가 자동차사고로 사망했다.

전날밤 자동차를 몰고 외출했던 그의 죽음이 알려진 건 다음날 오후 1시경이었다. 안성경찰서의 신원 확인요구로 찾게 된 그의 시신은 사고당시 자동차와 함께 전소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운영하던 커피숍의 경영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 오랜기간 계속된 독신생활의 어려움 등을 주변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고 한다.

그의 어릴 적 친구 최홍림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는 어두운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인생을 포기할 친구는 아니었다. 만약 그를 죽음으로 몰고간 게 있다면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든 자료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들을 기획했다. 비록 그가 잘 알려진 화가는 아니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모든 알려진 자료라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사회에 이름없이 살다가 사라진 여성예술가들을 생각한다면 말이다.

안타깝게도 그의 유작들을 모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던 때는 그의 그림은 이미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린 뒤였고, 그나마 남은 몇가지 그림은 그의 시신을 화장할 때 모두 불태워졌다. 그래서 이번 기획기사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몇가지 그림만을 소개할 뿐이다.

김경희씨는 1959년 서울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100일이 채 안되서 소아마비를 앓아 1년 뒤에나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그는 평생 보조기에 의지한 채 살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고 명랑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주위에 늘 친구들이 많았던 김경희씨. "경희 앞에만 가면 친구들은 고해성사하는 심정

이 됐다. 다리가 불편해서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경희 주변으로 밀물처럼 몰려들었다"고 대학시절 친구들은 회상한다.

그후 김경희씨는 숙명여대 미대를 졸업하고 잠시 잡지사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으며, 동네 아이들을 상대로 미술지도를 했다. 그러다가 92년부터 사촌오빠가 경영하던 카페를 인수받아 평택으로 이주한다. 미루어 짐작컨대 가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꾸리기 위해 그로서는 힘든 '결단'을 내린 것 같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그가 카페를 운영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많은 부분 아르바이트생의 손을 빌어야 했고, 예술가로서의 재능과 끼를 가진 그의 방랑벽을 채우기에 평택은 작은 도시였다. 불편함이 산재해 있는 평택생활 동안에도 그는 자신의 카페를 거처간 아르바이트생과 그들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모임인 '이프'를 꾸리며 여행을 다니고 그림을 그리는 등 자신의 미래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창간 준비팀이었던 '여성문화예술기획 출판소모임'에 참여하면서 '이프'와의 인연을 맺게 된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가, 여성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보게 되었다. 창간될 잡지의 성격을 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는 그 모임에서 그는 페미니스트 만화가로서의 한 발을 내딛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후 이프에 <김경희의 IF세상>이라는 제목을 달고 만평을 그렸으며, 여성과 남성의 왜곡된 사랑법을 풍자한 '사랑이란...'이라는 여러 컷 만평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무엇보다 김경희의 지인들은 그의 그림에 담겨 있는 힘과 열정, 그리고 가능성을 아쉬워하고 있다.

틈틈이 사무실로 찾아와 잡지 걱정을 하곤 먼 길을 돌아가던 김경희씨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깊이 알지는 못했다. 그의 가족관계, 그의 가슴아픈 연애시절



김경희의 사망후 그의 앨범에서 골라낸 몇장의 사진들. 양팔에 보조기를 들고 그는 늘 장난스러운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보조기를 놓치면 친구에게 거꾸고 있는 모습(178쪽 맨 아래), 맨 아래는 그의 생애를 손쉽게 V자를 그리고 있는 김경희.

이야기도 그의 죽음 이후에나 알게 됐으며, 최근 그가 얼마나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렸는지를 안 것도 바로 그 시점이었다. 변명을 하자면 그가 여성이고 장애인 이어서 겪을만한 아픈 과거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쩔지 그에게는 불행한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처럼 느껴질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해두자.

몸이 불편한데다 집과의 거리가 멀어 이프사무실에 자주 들르지 못했고, 마감시간에 쫓긴 우리는 늘 무심 하게 그를 맞았다. 그리고 이프 2호 때는 자꾸만 늦어 지는 그의 그림을 독촉하는 전화를 했을 뿐이다. 왜 그가 이프 창간호 때와는 다르게 마감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방황했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여성주의 잡지를 만드는 우리가, 여성이면서 장애인인 그의 아 품을 제대로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아마 우리 가슴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 같다. 11

김경희 약력

- 1959년 서울에서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남. 태어난지 100 일이 안되어 소아마비를 앓아 출생신고를 1년 뒤에 함.
- 호창국민학교, 신광여중, 성심여고, 숙명여대 미대 산업미술과 졸업.
- 잡지사 일러스트레이터를 거쳐 개인미술지도, 92년부터 사촌이 하던 카페를 인수하여 평택으로 내려감. 그동안 틈틈이 만화작업을 함. 1996년 가을, 여성문화예술기획 출판소모임에 참석하면서 <이프>의 창간준비 멤버가 됨. 1997년 <페미니스트저널 if>의 편집위원으로 참여.
- 1997년 9월 9일 안성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카페 식구들이 평소 그가 사랑하던 천리포 바다에 유골을 뿌려줌.

특별기획

슬픔은 받고, 기쁨은 주고, '불씨 하나'처럼

특 별히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운명처럼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위험천만의 삶을 꼭예하듯 기우뚱거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운명처럼... 세상은 그런 걸 운명이라 이름지어 먼 산 넘어 떨어지는 해를 보듯 그렇게 지켜보지만, 웅하고 해가 떨어지면 갑자기 세상을 덮어버리는 어둠을 만나게 된다.

김경희의 죽음, 그 사건으로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갈 즈음 나는 김경희와의 전화 도중 갑자기 환호를 지르며 그녀에게 말했더랬다. 아니, 예언하 였다.

"경희씨, 저 말야, 나 이제 알았어!"

"필요?"

"경희씨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 사람인지 말야!"

나는 본인에게 설명도 않고 혼자 감격에 겨워 스스로의 통찰을 대견해하고 있었다.

"경희씨 말야, 아이들 책 그리지 말아요. 그래, 바로 그거였어. 자기 에너지 는 아이들 책 만들기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섬뜩하거든."

불씨 하나... 그런 얘기를 나누기 약 2년 전 그녀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 던 어린이 책의 제목이 바로 그랬다. 작은 불씨 하나가 지나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오르고 그럴수록 제 혼은 더욱 더 차가운 기운에 흐느끼더니 운명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자유의 상태로 훨훨 날아오른다. 그 녀의 예술가적 혼과 광기는, 세상이 허용치 않는 자유와 해방감에 최열하다 결국 그 장애를 멀찌감치 뛰어넘으려던 델마와 루이스처럼 그렇게 세상 밖으 로 뿔겨져나가고 말았다.

"우르르~, 우르르르, 쿵쾅!"

번개가 밤하늘을 조각조각 갈라 놓았어요.



천둥 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빠직! 빠지지직!”

아름드리 고목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억하고 갈라진 고목나무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불길이 가라앉았어요.

시커멓게 타버린 고목나무에서 뭔가 꼬물꼬물 기어 나왔습니다.

“아, 바깥 세상이 보인다, 보여!”

그것은 작디작은 불씨였어요.

불씨가 고목나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끄응, 끄응응—”

“어,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아, 귀찮다. 말시키지 말아라.”

오랫동안 가꾸어온 몸이 한순간에 불생 사납게 되자, 고목나무는 모든 것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불씨는 팔랑거리며 혼자서 놀았어요.

무척 심심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술술바람이 찾아왔어요.

“안녕, 불씨야, 나랑 같이 세상구경 떠나지 않을래?”

“그래, 좋아.”

불씨는 술술바람을 따라나섰습니다.

불씨와 술술바람은 얼마 못 가서 험상궂게 생긴 들개바람과 맞닥뜨렸어요.

“호호호, 애들아, 어디 가는 길이니?”

“저희들은 세상구경을 나섰는데요, 어디부터 구경하면 좋을지 아저씨가 좀 가르쳐주세요.”

“호오, 그래? 그런 일이라면 내가 아주 잘 할 수 있지. 이리 가까이 와보렴.”

불씨가 다가가려 하자, 술술바람이 외쳤어요.

“안돼! 들개바람에 휩쓸리면 넌 죽고 말아, 여기서 도망쳐야 해!”

불씨는 깜짝 놀라 벼단 속에 몸을 숨기고,

술술바람은 어디론가 재빨리 달아나버렸어요.

바지지, 바지지... 불씨는 벼단 속에서 불꽃으로 변해갔어요.

불꽃은 다시 불길로 변지 너울너울... 들판은 온통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벼단이 타고 있다!”

사람들이 소리소리 지르며 몰려와서는 물을 짹짹 퍼부었습니다.

불씨와 술술바람은, 단풍이 곱게 물든 산에 이르렀어요.

타오르는 단풍은 파란 하늘까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휘익—

술술바람이 한바퀴 맴을 돌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아, 예쁜 낙엽! 내 몸과 빛깔이 똑같으니까 틀림없이 낙엽은 날 좋아할 거야.”

불씨가 팔랑거리며 낙엽에게 다가갔어요.

“안돼, 가까이 오지 마!”

“왜 그러니? 너랑 친구하고 싶어서 그래.”

“싫어, 싫어, 저리 가만 말이야.”

“넌 참 이상한 애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놀자.”

불씨가 손을 뻗어 낙엽을 붙잡았어요.

화르륵 탁탁, 화르륵 탁탁!

불씨는 불꽃으로 변해 낙엽을 태우고 금세 온 산을 뒤덮는 불길로 치솟았어요.

쌩쌩... 쌩쌩쌩...

깃불을 때리는 바람소리에 불씨는 눈을 떴습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벌판 한 가운데에 불씨 혼자 내동댕이쳐져 있었습니

다. “술술바람아, 어디 있니?”

쌩쌩... 쌩쌩쌩...

예타게 술술바람을 불러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소리와 사르락사르락 눈이 썰리는 소리뿐이었어요.

“아이 추워, 이러다가 나는 죽고 말거야.

어떻게해서라도 이 벌판을 빠져나가야지...”

불씨는 이리저리 헤매다가 가까스로 벌판 끄트머리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두 아이가 불꺼진 화로를 바라보며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추워, 출단 말이야, 잉잉—”



김경희의 동화집 『불씨 하나』에서 인용.



그녀의 예술가적 혼과 광기는,
세상이 허용치 않는
자유와 해방감에 최열하다
결국 그 장애를 멀찌감치
뛰어넘으려던 델마와 루이스처럼
그렇게 세상 밖으로
튀겨져나가고 말았다.

"조금만 참아. 내가 불을 다시 피워줄게."
언니는 조금 남은 델감을 화로에 집어 넣었어요.
하지만 불길은 완전히 꺼진 뒤라 불이 잘 붙지 않았어요.
"성냥도 다 떨어졌는데..."
불씨는 방 안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선뜻 나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불을 붙여줄까? 그런데... 그러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앙앙앙, 언니. 빨리 불 좀 피워줘!"
불씨는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어 화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 됐다. 됐다! 불이 붙었다!"
"그래, 이제 곧 따뜻해질 거야."
두 아이의 얼굴은 금세 달님처럼 환해졌습니다.
불씨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온 힘을 다해 불을 피워줄게.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가 있을까?

밖에는 벌써 어둠이 밀려오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몰아쳤어요.
언니와 동생은 서로 끌어안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오두막집을 할퀴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홀날리는 눈발은 점점 더 굵어집니다.
"애들아, 잠들면 안돼. 무엇이든 델감을 찾아봐야 해. 응, 애들아..."
불씨가 꺼져들어가면서 외쳤지만, 이미 잠들어버린 아이들은 쉼 줄을 모릅니다.

이제는 불씨조차 잠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합, 잠들면 안되는데... 잠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휘이잉—
바람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오는 가운데
눈만 차곡차곡 오두막집에 내려 쌓입니다.
(이상은 『불씨 하나』, 한국몬테소리 피카소동화나라13권의 일부 내용을 인용했다.)

함박꽃같이 크게 벌어진 입으로 그녀는 여느 때처럼 양쪽 겨드랑이에 킨 보조기를 흔들면서 우리를 뒤에 서서 '뿔뿔' 하는 거야? 하고 말을 건네며 하하 웃을 것 같다. 크레파스, 비뿔비뿔한 글씨의 조그만 간판이 걸려 있던 대학 시절 그녀의 화실, 꼬마들이 빠져나간 저녁이면 거기엔 갈 곳 몰라 헤매이던 친

구들이 밀물처럼 물러오곤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따뜻한 불꽃을 발하는 그녀 곁에서 몸을 녹인 후 하나, 둘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들이 밀물처럼 물러와 왁자지껄해지면 경희는 숨쉬를 발휘하여 쑥쑥, 그 유치하던 날들의 과장스런 몸짓과 설익은 표정 하나하나를 참으로 재기발랄하고 유쾌한 스케치로 그려, 엄마처럼 누나처럼 그녀를 믿고 찾아와 정정거리던 어느 친구의 선배 누나였던 나에게도 하나씩 전해주곤 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모여서 깔깔거리고 또 푸념을 늘어놓던 스무살 안팎의 계집아이 사내아이들은, 무엇이든 마다않고 다 빨아들일 것 같은 그녀에게 자기들 삶의 밑바닥을 털어내 보이기 일쑤였고, 그러다 운이 좋은 친구는 거기서 짝을 찾아 떠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러저럭 삼십대 후반에 접어들어 각자 제 갈길을 가던 그 친구들이 그녀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 그녀의 마지막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 서 한자리에 모였으리라. 서로는 별로 면식이 없는 갑남을녀들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들은 너도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 변함없이 떠올리던 친구가 바로 그 애였노라고, 그녀의 죽음을 아니 삶을 기억하기 위해 모였던 낯선 이들은 너도나도 입을 모아 그녀에게 가장 고마운 빛을 진 이는 바로 자기라고 서로를 우겨대고 있었다. 그래, 그 환하고 맑은 웃음과 능청스런 말쑥씨가 바로, 어렸을 적 친구들의 슬픈 이야기를 물물 털어주고 대신 삶의 활력과 경쾌함을 선물하던 그녀의 밝고 건강한 면이었다. 그녀에게 그렇게도 적대적이었던 세상에 대해 믿기 어려운 만큼 의연하게 대처하던 그녀의 독특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바깥으로 뿜어내는 불꽃의 따뜻함에 반비례해서 속으로 속으로, 그녀의 내면에는 세상으로부터 내몰리는 고독과 비애 그리고 끝없이 무거워지는 삶에 대한 회한이 몹시도 처절하고 깊은 주름으로 각인이 되어, 아닌게아니라 어린이용 책을 만들기에는 너무 뜨겁고 너무 섬뜩한 불꽃의 그림자들이 그녀의 그림을 새롭게 변형시키기 시작하였다.

크로이첼,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계단, 한 칸의 자유로운 공간을 위해 그녀가 찾아든 곳, 아니 내몰린 곳은 펄럭 중심가에 있던 크로이첼이라는 이름의 지하 카페였다. 거기에서 그녀는 감히 이제는 성큼 어른이 되어 더욱 의젓하고 독립된 삶을 꾸려갈 꿈을 꾸었다. 그러나 무덤 속처럼 침침하고 어두운 그 공간은 종내, 삼십여년 전 소아마비를 앓은 뒤 언제 어디서나 양쪽 겨드랑이에 보조기를 끼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으로서, 경제적 독립을 꿈꾸며 더욱이 거기서 창조적 예술작업까지 꿈꾸었던 여성으로서, 그녀의 꿈이 얼마나 무모하고 방자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참혹한 곳이 되고 말았다.

그래, 앞으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살' 사람인지 알아채고 환호를 한 후 차



『페미니스트저널』 창간호, 「김경희 & 세상」,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세상을 가정해본 그림이다.



근처, 내가 간파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녀에게 설명하고자 나는 여러번 골똘똘 침을 삼켜야 했다. 그녀의 에너지는 바로 우리가 찾던 페미니스트저널 이프를 대변하는 그림을 그려내기에 적격이라는 점이 이야기를 풀어갈수록 더욱 화연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랄하고 통쾌하게, 그리고 아주 야하고 감미롭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그려보는 거야!"

그녀는 벌써 다 알고 있었다. 여성으로서 우리가 분노하는 세상과 꿈꾸는 세상, 그리고 독일의 페미니스트저널 '엠마'에 그림을 그리는 프란치스카 벡이라는 만화가의 여태까지 삶과 활동에 대해 얘기해주려 내가 평택에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5~6년 정도 타지에 혼자 나와 부딪힌 세상은 그녀에게, 학교에서 배우는 여성학보다 훨씬 더 진실하고 철저하게 여성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었던 까닭이었다. 그녀는 흔쾌히 우리의 그림을 그리기로 승낙하였고, 나는 벌써 5년 후 10년 후 그녀의 그림이 모여져 작품집이 나오는 상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이프의 창간호와 함께 페미니스트 만화가로 등단했던 김경희의 세상읽기는 두번째 호와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다.

세상은 그런 걸 운명이라 이름지어 먼 산 넘어 떨어지는 해를 보듯 그렇게 지켜 보지만, 쿵하고 해가 떨어지면 금세 세상을 덮어버리는 어둠을 만나게 된다. 이제부터 무얼 하고 '살' 사람인지 확실해졌더라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을 할 형편이 도저히 되지 못했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유로운 곳으로 그녀는 먼저 떠났다.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불씨 하나, 작은 불씨 하나가 지나는 곳마다 불꽃이 피어오르고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는 자유와 충만의 세계로 뿔뿔, 아마도 그녀가 우리에게 남겨준 불씨 하나는 수명이 다한 고목에도 그리고, 성가시게 우리의 무릎을 붙들려하는 낙엽에도 불을 지피 온 산을 뒤덮는 불길로 치솟으리라. 11



김지희

편집위원, 도서출판 시유시 편집부장

특별기획

작은 성스러움 앞에

그는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벽산 세상의 무게를 함께 자줄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것 같다.
그의 인생에 목발이 되어줄 사람, 그런 친구.
그러나 바위처럼 박혀 있는 그녀에게 주변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왔다 기억없이 떠나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며칠 전 친구에게서 98년도 탁상달력을 선물 받았다. 포장을 뜯어내니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은 굉장히 낯익은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철수의 판화였는데, 평소에도 그의 그림과 글을 좋아했던 나는 적잖이 흥분된 마음으로 단숨에 12장의 그림을 훑어냈다. 그리고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표지로 둘러서 책상 위에 얹어 놓았다. '작은 성스러움 앞'에, 무엇보다 표제가 마음에 들었다. 일상에서 작은 것들은 대부분 성스러움의 대열에 끼지 못하고 또 성스러운 것들은 언제나 크게 부풀려지기 마련인데, 작은 성스러움이라, 소리내어 읊을수록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표지를 보고 있자니 예전 어느 곳에서 가졌던 느낌과 참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표제 아래 달랑 꽃그림 하나... 한참을 들여다보고서야 나는 그것과 닮은 풍경을 기억해냈다. 지난 가을에 찾아갔던 한 선배의 초라한 빈소가 불현듯 떠올랐던 것이다. 고 김경희, 망자의 이름이 적힌 검은리본 아래 향불 하나... 그랬다. 놓여 있는 사물보다 여백이 많았던 공간, 바로 그 공간의 전경이었다. 그렇게 기억 속에 묻

혀 있던 얼굴이 떠오르자 지난 일들이 하나씩 그려졌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다가올 시간의 표지 위에 그의 초상肖像을 그려가고 있었다.

나는 기독교단체에서 일하며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봄에 환경실천지침서를 만들 목적으로 삽화가를 찾던 중, '페미니스트저널'의 관계자들이 김경희선생을 소개했다. 성북동 이프 사무실에서 만난 그의 첫 인상은 웃음이 많고 그만큼 수줍음도 많은 시골소녀 같았다. 그가 목발에 의지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웃음이 너무도 밝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는 힘겹게 계단을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숙대 앞으로 가야 한다면 내게 먼저 가라고 했다. 지나친 호의는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생 각나 일과 관련된 몇가지 주문을 덧붙이고서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얼마쯤 걷다가 돌아보니 여전히 도로변에서 손을 허우적대고 있는 그가 보였다.

내 옆으로 빈 택시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있었다. 나는 다시 그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택시를 타고 떠나면서 그는 연신 고맙다고 답례했다. 그것이 그녀와 내가 연례를 맺게 된 첫날의 일이다.

그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우리는 주로 전화로 안부를 물었고, 일감은 우편으로 주고 받았다. 그러다 그가 사는 평택에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일보다 점차 사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때문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살아가는 이야기가 깊어지면 살아온 이야기도 열리느니, 나눔에 익숙해 질수록 10년의 나이차는 서서히 좁혀져갔다.



나는 대화할 때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다. 그런데 유독 그 선배와 대화할 때면 나는 한날 그의 말을 이어가는 접속어 공급자로 전락해버린다. 그래서요... 그리고요... 물론 가끔은 질문과 감탄도 섞인다. 그게 뭐죠? 왜요? 와! 등등. 때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는 언제나 대화를 주도하였고 어느날은 대화라고 할 수 없는 일방적인 의사전달만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는 그가 좋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고, 더욱이 말을 통해 느껴지는 그는 무척이나 맑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훗날 그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가 평생 남의 이야기만 들어주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다. 나는 곧 '말'에 관한 그의 쓸쓸한 말을 떠올렸다. "말이 하고 싶은데... 잘 못 하겠어." 당시에는 그 말을 두고 그를 꽤나 놀려댔다.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지금은 알 것 같다. 그는 자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세상의 무게를 함께 저울 사람들을 그리워했던 것 같다. 그의 인생에 목발이 되어줄 사람, 그런 친구. 그러나 바위처럼 딱딱 있는 그녀에게 주변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왔다 기약없이 떠나는 사람들이었나 보다. 그녀는 늘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녀의 사람들은 그의 허탈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장애인이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말하면서 도 전혀 우울한 표정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자기를 덮고 이겨낸 인간승리의 전형쯤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절대로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나는 그녀의 씩씩한 면만을 보고자 했던 것 같다. 그저 그녀가 잘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그녀의 아픔을 방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던 어느날 모처럼 서울에서 그녀를 만났다. 8월의 무더위가 한층 기승을 부리고 있던 오후 숙대 앞에서였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로 나를 반겼다. 그날따라 그는 왠지 낯설고 초췌해 보였다. 어디 들어가 이야기할만한 곳을 찾자고 해냈으나, 땀집이며 아이스크림가게며 할 것 없이 빈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할 수 없이 도로변을 따라 걸으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택시의 경적소리가 들렸다. 인도가 따로 없던 터라 어디 비켜줄 여유공간도 없는 길에서 나는 그녀의 느린 걸음이 못내 부담스러웠다. 우리는 열심히 걸었지만, 택시는 계속 우리 뒤를 따라오며 경적을 울려댔다. 이윽고 길이 넓게 트이자 한쪽으로 비켜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우리들 옆을 지나치던 택시운전사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집에 가만히 있지, 왜 밖에서 얼짱대는 거야?" 그 순간 내 안에 끓었던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이 형편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여야 옳은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당사자인 선배는 오히려 담담하게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며칠 전 바다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바다는 그와 나를 위어준 공통분모이다. 언젠가 내 고향이 어촌이라고 말했을 때, 반가워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바다를 다녀온 이야기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제 서울에 돌아가 정착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서울

에서 산다면,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에 대한 수다를 늘어놓으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함께 걸 걸거렸다. "그런데 아마도 평택을 떠나지 못할 것 같아..." 그랬다. 그녀는 지금 살고 있는 평택을 쉬이 떠나지 못할 것이다. 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날 처음으로 그의 우는 모습을 보았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평택을 떠나지 못했다. 그날 밤, 호출기에 남겨진 그의 목소리를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평택을 떠나는 날, 술 한잔 하자고...

어디로 가려고 한 것이었을까, 그의 주검이 안성병원에 놓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평택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쩌면 평택은 그의 현재의 삶 자체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곳은 그냥 단순한 공간의 의미 이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것도 어쩌면 삶 자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한마디만 물어주면 다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녀의 불행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인생의 허탈함과 외로움으로부터 그녀는 도망치고 싶어했던 것 같다. 그의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안성병원을 빠져나오며 그의 불행을 곱씹어야 했다.

어느새 추위가 시작되었다. 어느 지방에서 혹은 이 넓은 서울의 한 모퉁이에서는 이미 첫눈이 내렸다고 한다. 때 이른 눈 소식에, 평택은 눈이 많아 땅이 자주 얼어서 목발 걸고 걷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했던 그녀가 생각한다. 내 인생에서 맺은 슬픈 인연 중에 가장 맑고 이쁜 사람, 나는 지금 그를 그리고 있다. 나 아닌 다른 것에 늘 열려 있던 여자, 불행한 몸으로도 씩씩하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발버둥쳤던 여자. 냉정한 세상의 질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절했던 여자...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여느 사람들처럼 뻔뻔스럽게 살지 못한 탓이라고 안타까워 했으나, 나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일했던 김경희 추도행사에 모인 사람들. 가장 앞에 보이는 이가 초등학교때부터 김경희의 친구였던 최을림씨.

는 동의할 수 없다. 그녀가 세상에 치이고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그녀를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과 이 사회에 책임을 묻고 싶다. 열어놓을 줄 모르는 사람들,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고통받았던 삶, 나는 그 삶을 조심스럽게 이름붙여 본다. 작은 성스러움...

언젠가 그녀에게 읽어주고 싶다고 메모해두었던 시가 있다. 지금은 한 구절만을 외우고 있을 뿐인데, 그것만이라도 그녀와 또 그를 닮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김종삼, 「어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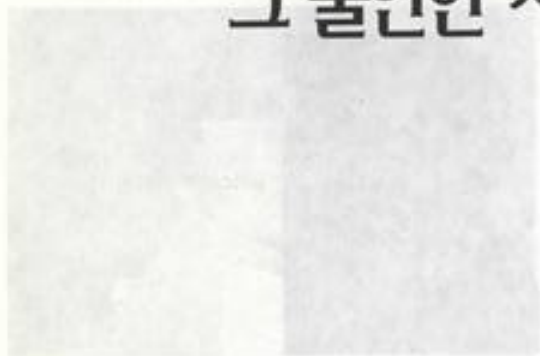


이은희

크리스찬아카데미 간사



여성 화가들의 생존방식, 그 불안한 자기 바라보기



자화상을 보는 일은 흥미롭다. 작가들의 속내, 내밀한 심리상태와 잔존한 자의식, 그들의 나르시즘과 자화, 혐오 등이 같은 얼굴에 내용을 달라하여 배어난다. 그리고 좀더 섬세하게는 그들이 당면한 시대의 우물과 한계, 그것을 풀어간 각자의 처세방식들도 드러난다. 자화상의 역사는 화가들의 개인사로 출발하지만, 인류의 자기바라보기의 역사며 시대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여성작가들의 자화상을 3회에 걸친 기획물로 삼는다. —편집부

연재순서

① 여성 화가들의 생존방식, 그 불안한 자기 바라보기—비로크, 로코코, 19세기 여성작가들의 자화상.

② 자기 정체성의 확립—20세기 초의 모데른 베커, 수잔 발라온, 미리 로랑생/ 상징주의 여성화가들 프리다 카로, 캐롤린, 파니, 비로, 캐이 세이지, 도로시아 탠딩.

③ 질곡을 넘어서—에바 하세, 마리슬, 루이스 부르조아, 캐데 콜비츠, 50~60년대 미국 여성주의 작가군, 우리나라의 여성작가들.



창 세 이래 여성사가 그렇듯이 여성미술가들의 역사는 천덕꾸러기의 역사였다. 여성작가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었고, 교육기회도 절대적으로 제한되었으며, 여성미술가 스스로도 자신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상반된 가치기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여성미술가들에 대한 평가 역시 인색하기 짝없어서 20세기 대표적인 미술사 개론서라고 하는 쥘슨과 고프리치의 저작들엔 여성미술가들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다.

자화상의 역사에도 성별은 있다?

서양회화사에서 단순한 인물 초상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자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술적 방편으로서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르네상스 이후였다. 신권에 대해 인권이 복권되고, 천하게 여겨지던 화가들의 지위가 상승된 것이 그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남성들의 인권이었다. 대부분의 미술영역이 그러하듯, 자화상 장르 역시도 남성들의 영역이었고, 그 평가기준 역시 남성중심적이었다. 렘브란트(영화 <폰네프의 연인들>에서 만신창이의 줄리엣 비노쉬가 한번만이라도 보고 죽길 원했던 그의 자화상을 기억하십니까)나 뒤러의 자화상이 '영광과 속담'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의 고결한 의식을 담은 걸작'으로 평가된 반면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70여점이나 되는 자화상을 제작했던 여성작가 앙귀솔라의 작품은 미술사가들의 푸대접을 면치 못했다(도판 1, 2). 여성의 모습으로는 영적 인간이라든가 휴머니티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들에게 여성의 작품은 '예술이 아니라 가내수공예'와 진배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미술가들의 존재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물줄기였다. 그녀들은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열악했던 시대적 한계와 어떠한 방식으로 만났으며 어떻게 상황을 타개해갔는가? 그리고 여성미술가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해갔는가? 그녀들의 자화상은 바로 그 신산한 역사의 도큐먼트다. 자화상은 각자의 삶과 작품세계를 내비치기도 할 것이며, 역으로 삶과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자화상을 설명하기도 할 것이다.

여성화가들이 이루어낸 그 도저한 강물로의 여행을 이제 시작한다.

"여성이 비범한 재능을 지녀서 남성화되려고 하지 않는 한 무엇이든 취미 삼아 하는 것은 좋다. 천재여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면 그녀는 남자다." ('여성·미술·이데올로기'에서 재인용)

'남자들이야말로 문화창조의 주체이며 여성은 작고 섬세하며 사적인 심심 풀이에만 관여할 뿐'이라는 이 시정되지않는 스테레오타입. 17세기 여성미술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1593~1652/3)는 명백한 예외의 시작이었다.



(도판1)



(도판1): 앙귀솔라(자화상)
(도판2): 앙귀솔라(자화상)

예외의 시작

그녀는 현행의 기준으로 볼 때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전문직 여성이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었다. 남자화가처럼 남자의 누드 수업을 받는 것이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한계를 역으로 전환시킨 전략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여성의 누드가 그녀의 강력한 옷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드라마틱하고 격렬한 방식으로 신화 속의 여걸들을 주로 다루었다.

그녀의 작품 <홀로페리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스>(도판3)를 당대 최고의 미술가로 평가되는 남성화가 카라밋치오가 같은 주제로 그린 그림과 비교하는 것은 재미있는데 여성을 보는 남성의 시선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카라밋치오의 유디스(도판4)는 살해의 순간조차 우아하려 애쓰고 있는 듯 보인다. 도대체 사람의 목을 베고 있다기엔 너무도 수줍은 듯 요염한 '풍경으로서의 여성'이다. 그러나 젠틸레스키의 유디스는 전제를 달리한다. 든실한 체형에, 어느 부분에 힘을 어떻게 주어야 제대로 교살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듯 용의주도하게 일을 치르고 있다. 단호함이 가차없으며 냉정함을 잃지 않은 그 모습이 차라리 매력적이다. 젠틸레스키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러한 극적이고 강한 여성 이미지들은 여성을 표현하는 당시의 지배적인 방식을 전복하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당대 남성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서 "잔인하고 동물적이며 증오하고 무뎠다"고 묘사했다. 여성작가들에게 흔히 부여되던 고정관념을 거부한 그녀의 그림은 종종 남성혐오증의 증거로 읽혔다(그녀는 그의 스승으로부터 몇차례 강간당했으며, 마침내 그를 기소하여 법정에서 승소했다).

그녀의 자화상(도판5)을 보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측면으로 잡은 이 작품은, 붓과 파레트 그리고 그녀 이외의 시각적 설명을 배제한 채, '조용하며 진지하고 위엄있게' 단지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다. 당시의 많은 자화상들처럼 자신의 예술혼을 과장하려 한다거나 자신의 교양을 강조하려는 허영기는 염두에도 없다. 어떤 성적인 선입관이 배제된 채 그저 한 인간의 행위만으로 다가오며 그 자체로 잔잔한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

'유혹'은 누가?

미술사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남성적인 것을 '힘'으로, 여성적인 것을 '유혹'으로 규정하는 스테레오타입이 관철되어왔으며 결국 그 차이는 우열의 판단근거로 전환되어왔다. 네덜란드의 풍속화가이자 정물화가였던 유디스



(도판3)



(도판5)

(도판3): 젠틸레스키 <홀로페리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스>, 1620.
(도판4): 카라밋치오 <홀로페리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스>, 1599.
(도판5): 젠틸레스키 (자화상), 제작년도 미상.

레이스터(1609~1960)는 탁월한 재능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당대에 가장 강력한 남성화가 프란츠 할스와 비교되면서, 그녀의 붓질이 너무도 유약해서 할츠의 발뒤꿈치도 안된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 중 상당수가 최근까지도 할츠의 것으로 오인되어온 사실을 이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그 힘도 복제된 것이라고?

17세기 북구미술에선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이나, 사창가의 여성을 묘사하는 주제가 도덕적 계도를 위해서건 유희를 위해서건 대중적 테마로서 많이 그려졌다. 그런데 레이스터의 <유혹>(도판6)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이러한 주제의 그림은 당시 남성들에 의해 그려진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다. 흔히 요부와도 같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해 악의 소굴로 빠뜨리는 것으로 다뤄졌지만 그녀의 <유혹>은 노골적으로 돈을 들이밀며 음험한 요구를 하는 남자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바느질에 여념이 없는 여성을 그려내고 있다. 그림 속의 여자는 남자에 동조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곤란에 빠진 피해자다. 레이스터의 이러한 접근은 당시로선 선례가 없는 것이었으며 유혹의 주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것이었다. (후에 작품을 모사했던 한 남성화가 이 불편한(?) 상황을 정정해서 그렸다.)

그녀의 자화상(도판7)은 밝고 호방하며 적극적인 면모를 읽게 한다. 고뇌하는 이가 예술가인지라 유쾌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자화상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당당한 능력을 가진 자의 여유일까? 남자들의 시선을 의식한 미소도 아니어서 좋다.

여신에서 창부로

17세기 파리아카데미의 설립은 공식적인 미술제도교육이 시작된 것으로 이를 통해 화가의 위치는 단순 장인의 위치로부터의 신분상승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화가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으며(때문에 당시 대부분의 여성화가들은 화가들의 딸이었다) 간혹 이미 밖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던 여성화가들을 사후 승인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성공한 여성화가들의 존재란 예외적이고 희귀한 존재였고, 때론 아름다운 외모나 매력 그 불안한 위치를 넘어서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도 했다.

배어난 미모와 자질 그리고 근성있는 승부욕으로 일찍이 마리 앙브와네트 의 총애를 받으며 궁정화가가 되었던 비제 르브렁(1755~1842)의 자화상을

(도판6): 레이스터 <유혹>.

(도판7): 레이스터 <자화상>, 1635.

(도판8): 비제 르브렁 <자화상>, 제작년도 불명.

(도판9): 비제 르브렁 <밀짚모자를 쓴 자화상>.

보자. 나이 일다섯에 이미 직업화가로 들어섰고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했던 강단있는 여성. 일찍이 사교계를 장악하고 타고난 재주로 왕비의 초상을 무려 25번이나 그리면서 돈과 명예를 한손에 쥐게 되지만, 대혁명의 여파로 평생 망명생활로 마감했다.

그녀의 자화상(도판8)은 왕비의 초상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다. 자신이 왕비의 전속화가라는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 흰 모슬린 모자와 레이스가 화려한 드레스로 단장한 그녀의 자화상은 화가로서의 아이덴티티보다는 자신의 미모와 지위에 대한 과시성의 내용을 드러낸다. 1792년에 그려진 <밀짚모자를 쓴 자화상>(도판9) 역시 그녀의 여성스러움을 한껏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성을 여성미술가의 최대의 덕목으로 삼던 당대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엔 작품에 영광을 가져다준 그녀의 미모가 역사가 흐르면서는 끊임없이 작품성을 의심받게 되는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미인들이 '외모'로 성공했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듯이 말이다.

같은 시기에 궁정화가로 활동했던 귀야르(1749~1803)라는 여성작가는, 왕당파였던 비제 르브렁과 달리 혁명파였다. 그러나 그런 정치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적 계도권에 합류해야 했다. 생계를 위해서는 후원자에 의존해야 하는 직업화가였으므로 다소 애매한 입장의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후일 '자신이 인정받고 지위를 얻기 위해 회망을 억누르며 그려야 했던 그림'은 혁명정부에 의해 불태워지는 곤혹을 치루어야 했다.

그녀의 자화상(도판10)을 보자. 귀부인복으로 한껏 치장하고 두 여제자들을 뒤로 배치했다. 여성미술가라는 치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거느릴 수 있었던 자신의 지위에 대한 자부가 전면에서 드러난다. 이는 당시 여성작가들에 대한 경멸적인 시선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쁘지도 않은 여성화가

미모도 아니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예외적이었던 로코코시대 여성미술가로 로잘바 카리에라(1675~1757)가 있다. 생업을 위해 공예를 해야했던 그녀는 밀그림용으로나 쓰이던 파스텔이란 유약한 재료를 본격적인 초상

(도판10): 귀야르 <화가와 두여제자>, 1785.

(도판11): 카리에라 <여동생의 초상을 들고 있는 자화상>, 1715.

(도판12): 카리에라 <자화상>, 제작년도 불명.





(도판13)



(도판14)



(도판15-1)



(도판15-2)

화 재료로 사용하면서 일약 스타가 되었다. 부드럽고 우아하며 여성적인 파스텔화가 로코코 정서와 완벽하게 부합하면서 그녀는 그렇게 떠오르지만 로코코양식이 쇠퇴를 맞자 또 그렇게 잊혀졌다. <여동생의 초상을 들고 있는 자화상>(도판11)을 보자. 평생을 아끼고 의지했던 여동생의 초상을 내보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담담하다. 과욕없이 자신의 그릇만큼 넘치지 않게 그림을 그려온 그녀의 삶이 배어난다.

탈년의 자화상(도판12)은 동생이 죽고 실의에 빠져 지내다 백내장을 앓으며 거의 시각을 잃게 된 후기의 것이다.

틀판에 선 여장부

19세기로 넘어와 낭만주의 여성화가 로자 보너르(1822~1899)가 거둔 성공은 신선하다. 인체해부 그림과는 달리 동물을 소재로 한 영역은 여성들에게도 열려 있었다. 그녀는 동물화를 독보적인 경지로 끌어올려 레지옹 도뇌르 수상受賞이라는 영예를 쉰다. 그녀는 동물의 사체를 해부하고 틀판에 나가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로 남장男裝을 하고 다녀야 했다.(남장을 하기 위해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의 대표작인 <마름 시장>(도판13)은 금방이라도 뛰어오를 듯한 웅혼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작품으로서 여성의 그림은 부드럽고 유약하다는 통념을 깨는 예로 자주 인용된다.

자화상은 아니지만 그녀의 초상(도판14)이 남아 있다. 소 잔등에 팔을 걸 천 채 바람을 맞으며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다문 입술은 그녀의 자유로운 영혼을 엿보게 한다. 생시몽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여성의 권리에 대한 진보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여성의 재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미 자신의 저택을 지니고 있었던 여장부의 면모가 느껴진다.

화가로 살 것인가 여자로 살 것인가

19세기로 접어들어 바야흐로 부르조아사회가 안정돼 가면서, 이제 여성의 최고의 가치는 가정이며 아이키우기라는 부르조아적 여성관이 자리잡아간다. 동시에 예술가란 '고쳐하는 위대한 천재'라는 신화도 정착됐다. 19세기의 여성미술가들은 점차 이 대립되는 신화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게 된다.

(도판13): 로자 보너르 <마름>, 1853.
(도판14): 에두아르 뒤발 <로자 보너르의 초상>.
(도판15-1): 바슈키르체프 <모임>, 1884.
(도판15-2): 바슈키르체프 <자화상>, 제작년도 불명.

여성이자 화가로서의 불안한 자기정체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이는 러시아태생의 바슈키르체프(1859~1884)였다(도판 15-1). 25세의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하기까지 그녀의 짧은 생애 동안의 고민과 갈등은 19세기 진보적인 여성이 당면한 현실과의 분열과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다. 한 예술가로서 고독한 자존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랑받는 여성의 길을 갈 것인가? 때로 자신의 아름다움에 감동받기도 하다가, 야심에 가득한 삶의 주체로서의 자신을 몰아가기도 하는 그녀의 분열이 그 자화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파레트를 든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그녀의 자화상(도판 15-2)은 예민하고 섬약한 감수성과 동시에 강인한 의지의 단면을 느끼게도 하는데 그 시선만은 흔들리는 촛불을 응시하고 있는 듯 불안하다.

가족과 모성이데올로기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갇힌 부르조아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예술창작의 주체로 삼았던 인상주의 여성화가로 메리 카사트(1844~1926)과 베르트 모리조(1841~1895)가 있다.

카사트는 집안의 여성들과 어린아이를 주로 그렸지만, 당시 '행복한 가정', 그 주체로서의 모성이라는 이데올로기와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그림을 그렸다. 일상과 여성의 삶에 대한 호들갑스런 찬미가 아니라 여성들의 있는 그대로의 삶을 드러내므로써 모성이데올로기를 분석해내고 있는 것이다(도판16).

그녀는 미국출신으로서 프랑스로 가서 인상주의에 합류했다. 어느 전시장에서 그녀의 작품을 보게 된 드가가 "여기 나랑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구먼" 했다는데 이후 둘은 화우로서 교류한다. 드가가 그린 카사트의 초상(도판 17)과, 그녀의 자화상(도판18)을 보자. 드가의 카사트는 총명하고 재기있으며 신비로운 사유를 안고 있는 듯 보이는데, 종이에 수채화로 그려진 자화상 속의 그녀는 왠지 수줍고 내성적이다.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들 내부의 이중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19세기 후반 살롱을 중심으로한 제도권에서 이탈하여 인상주의운동에 참여했던 배짱있는 여성화가 베르트 모리조의 당당한 모습은 그의 시숙이었던 마네가 그린 초상(도판19)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명한 이목구비에 다부진 인상으로 비춰지는 마네의 초상과 그녀가 사실중반에 그린 자화상(도판 20)을 비교하는 일은 조금 쓸쓸하다. 모리조는 결혼으로 화업을 포기했던 두

(도판16): 메리 카사트 <목욕>, 1891.
(도판17): 드가 <메리 카사트의 초상>, 1880~84.
(도판18): 메리 카사트 <자화상>, 1880.



(도판16)



(도판18)



(도판19)



(도판20)

(도판19): 마네 <검은 모자의 베르토 모리조>, 1872.
(도판20): 베르토 모리조 <자화상>, 1885.

동생들과 달리 독신으로 지내며 그림에만 몰두하지만 여성으로서 미술가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종종 호소하곤 했다. "여자가 자신 안에 혼자 치박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불면 날아갈 듯 불안스런 필선에서 한 여성미술가가 치루어내야 했던 혼돈이 묻어 난다.

잠시 어울목에서

여성미술가들은 때로, 남성미술가들이 여성이미지에 부여한 스테레오타입에 철저히 부응하면서 낮은 포복으로 흐르기도 했으며, 때로 이를 전복시키는 반역의 파도를 일으키기도 했다. 금지와 제한이라는 돌무더기를 만나면 이것을 온몸으로 싸고돌아 모래로 조금씩 깎아내면서 마침내는 물꼬를 찾아 내기도 했다. 호수를 만나 머물며 자신의 심연을 내려다볼 때는, 여성이자 미술가로서 살기의 그 불안한 정체성과,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내부의 이중성 탓으로 파문을 만들며 뱅뱅이를 돌기도 한다. 여성작가들의 자화상은 그들 특유의 생존방식을 안고 흘러온 질긴 생명체다. 아직 폭포로 흐르지 않았다며 강물이 아니었다 부인할 것인가? **IF**



전 미현

IF 아트 디렉터.
난 아직도 내 사진을 보는 일이 무렵다. 그 시선의 주인은 나인가?
작업실은 부엌을 겸용하게 만들었고, 부엌은 작업실을 배반하곤 했다. 두 공간이 서로를 속이지 않을 방법은?

남편이 아내의 신발을 소유하는 것에는
순결은 물론 앞으로
모든 행동, 생활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뜻이 담겨있다.

따라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결혼해 신분상승을 꾀하게 된다는
이야기구조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반지도 아니고, 머리핀도 아니고...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이유는



전래동화 『신데렐라』의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장면. 무도회에서 유리구두 한짝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신데렐라는 왕자님이 구두의 주인을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가슴이 편다. 왕자님의 명령을 받고 구두 주인을 찾아헤매던 신하들은 어느날 신데렐라가 사는 마을에 찾아온다. 신데렐라의 못난이 언니들까지 포함해 많은 처녀들이 유리구두를 신어보았지만 터무니없이 작거나 커서 피자를 맞는다. 이때 사람들 틈에 수줍게 숨어 있던 신데렐라가 앞으로 나서 유리구두를 신어본다. 구두는 맞춘 듯 꼭 맞았다. 신데렐라는 가슴 속에서 나머지 유리구두 한짝을 꺼내 신는다. 왕자와 신데렐라는 결혼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신데렐라와 왕자를 이어주는 결정적인 고리역할을 하는 것이 왜 하필이면 구두일까. 반지, 머리핀 같은 액세서리이거나 스카프, 망토 등 옷이 등장해도 괜찮았을 텐데 말이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선 신발에 대한 역사와 서양인의 의식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수천년 전부터 19세기 후반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발은 신분과 지위를 상징해왔다. 19세기 후반경 신발대량생산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한켠에 가격이 웬만한 평민들의 몇달치 생활비와 맞먹었기 때문이다.

신발이 이처럼 귀했던 만큼 그것은 한 사회의 경제적, 종교적, 심리적 상징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세 영국에서는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의 신발을 손님들이 한번씩 돌아가며 신어보다가 마지막으로 신랑이 갖는 풍속이 있었는데, 신데렐라 이야기는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혼풍속에는 남편이 아내의 신발을 소유함으로써 순결은 물론 앞으로 모든 행동, 생활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신데렐라가 유리구두를 신고 왕자와 결혼해 신분상승을 꾀하게 된다는 이야기구조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동차 뒤에 강통과 신발을 매달아놓는 것도 신발에 대한 서양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예로 들 수 있다.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지역은 물론이고 중동지역에서 신발은 특히 종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BC 1280년경 이집트의 파피루스 샌들(위).
14세기 궁중풍속화 남성들이 몸에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발이 보였던 신발을 신고 있다(가운데).
16세기 후반 금달린 구두가 처음 선보이기 시작한다. 사진은 자수장식이 화려한 남성용 구두(가운데 오른쪽).
16세기경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대유행한 나막신의 일종인 '쇼판', 나무로 만든 대 위에 가죽구두를 연결했다. 높이는 51cm(아래).

지적이다. 힌두교, 회교, 유대교 신자들은 교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발을 벗는다. 신발이 귀했던 시절,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신발을 벗고 맨발을 보임으로써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게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것이다.

신발의 알레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에로티시즘이다. 16, 17세기 사랑에 빠진 남성이 애인에게 보낸 편지나 시에는 종종 '당신의 신발에 입을 맞춘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19세기에 들어 '마조허즘'이란 단어를 유래시킨 레오폴드 폰 마조크가 쓴 글에는 '구두발로 나를 짓밟아달라'고 요구하는 대목도 있다.

안데르센의 동화 『붉은신』(국내에는 '분홍신'이란 제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에서 아름답고 호기심 많은 소녀는 우연히 붉은색 발레슈즈를 신었다가 평생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지쳐 죽을 때까지 춤춰야하는 저주를 받는다. 여기에서 붉은색 신발은 여성의 허영심, 나아가 인간의 본능, 성적 쾌락 등을 상징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구두광Toe'이 '삼입'을 상징한다고 분석한 적도 있다. 광고에서 섹시한 여성모델이 으레 하이힐을 신고 있는 모습은 구두와 세슈얼리티의 연관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좋은 예이다.

우리는 매일 신발을 신고 외출한다. 웬만한 사람들은 옷에 따라 맞춰 신을 수 있는 구두, 운동화 몇켤레쯤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이멜다 마르코스는 수백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지 않는가. 이처럼 흔하고 하찮은 신발 한켤레에도 오랜 세월 인류가 거처온 굴곡진 역사와 사고방식의 변화가 깃들여 있다.

역사상 신발에 대한 기록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기원전 3천년경 이집트 시대이다. 한 벽화에는 왕이 앞에서 걸어가고 그 뒤를 시종들이 파피루스와 야자나무 줄기로 엮은 샌들을 손에 받들고 따라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집트는 기후가 따뜻했기 때문에 샌들이 주로 발달했지만,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는 동물가죽, 나무 등으로 신발을 만들어 신었다.

이집트식 샌들은 그리스, 로마시대에 들어오면서 단순히 발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교하고 화려하게 발전한다.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는 남성들이 화려한 색상의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발효됐을 정도이다.

신발이 패션의 한 영역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17세기 구두가게의 모습(위).
18세기 (뉴욕)라는 신발, 빌보드에 금사자수를 놓은 화려한 신발(무늬).
1680년대 프랑스의 여성용 하이힐. 푸이 14세는 키가 작아서 하이힐을 애용했다(세번째).
16세기 베네치아의 나막신, 나무에 상아상감으로 무늬를 넣었다(아래).



르네상스시대부터이다. 당시 부유한 도시국가였던 베네치아에서는 나막신의 일종인 '쇼핀(Chopine)'이 대유행했다. 터키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쇼핀은 비가 와서 질척거리는 땅에 치맛자락이 젖지 않도록 구두에 일종의 나무 목침을 부착하는 것으로 무려 높이가 50센티미터에 가까운 것도 있었다. 이쯤되면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타고 다닌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듯하다. 따라서 쇼핀을 신은 여성은 반드시 시종들이 양옆에서 부축해주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이었다. 쇼핀은 베네치아에 등장하자마자 전유럽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셰익스피어의 '헨릿'에도 쇼핀이 등장한다. 헨릿은 한 여성에게 "당신의 쇼핀 높이가 지난번보다 높아진 것을 보니 천국에 좀더 가까이 다가갔겠네요"라며 은근히 비꼰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교회에서는 쇼핀의 유행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는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여성들이 무도회에서 가셔도 쇼핀이 워낙 높다보니 제대로 춤추기가 어려워 가만히 서있게 되면 그만큼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한창 쇼핀이 유행하던 16세기 유럽에서는 요즘 신문 사회면 가십란을 장식할만한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자주 벌어졌다. 결혼 전에는 긴치마 밑으로 쇼핀을 감추고 다녔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에게 작은 키가 발각돼 구박받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쇼핀으로 키를 높인 여성에 대해선 남편이 결혼무효를 선언할 수 있었다고 한다.

16세기 말 구두패선에 혁명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요즘과 같은 형태의 구두굽, 즉 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영국의 패션역사학자 존 스완은 1590년경 엘리자베스1세가 키가 커보이게 하면서 걷기에 편한 구두를 만들도록 구두장인에게 요구, 결국 힐의 발명을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너무 무거워서 걷기 힘들었던 쇼핀과 달리 힐은 가볍고 높이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전 유럽에 급속히 확산됐다.

힐이 달린 구두를 신어본 여성들은 이 새로운 발명품이 단순히 키를 커보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해냈다. 바로 하이힐이 유혹적인 걸음걸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이때부터 유럽 상류층 여성들은 하이힐 구두를 신고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으며 우아한 자세를 뽐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1750년경 유럽 신발장인. 당시 신발 한켠에 가격과 농민 한사람이 일년간 먹고살 만큼 비쌌다(위). 1782년경 하이힐. 구두굽과 발바닥 부분을 나무침으로 연결한 특이한 형태이다(가운데). 아집트 파라오 투텐카멘의 목화에 새겨진 그림. 왕과 왕비가 신발을 신고 있다(아래).

물론 이 당시 힐은 대부분 5센티미터 내외였기 때문에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힐의 도입으로 인해 구두의 모양이 이전시대 것보다 훨씬 날렵해졌고 발걸음도 경쾌해지게 됐다. 물론 1680년경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여성용 구두와 1780년대 이탈리아산 구두에서 보듯 7센티미터가 넘는 가는 하이힐도 적지 않았다.

18세기 전후무렵 구두 한켠에 가격과 농부 한사람이 일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돈과 맞먹었다. 그러나 귀족층에서는 여성은 물론 남성들도 애타루어 화려한 리본과 레이스 장식의 하이힐을 즐겨 신었다. 당시 유럽에서 구두가 패션의 중요 아이템으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의상의 변화도 한몫을 했다. 여성의 치마길이 가 다소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구두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구두사치가 가장 심했던 곳은 루이 14,15세 때 프랑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의 힐은 루이 15세의 애칭 이름을 따 '퐁파두 힐'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178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전유럽이 혁명의 회오리에 휩싸이면서 구두도 높은 굽이 달린 것보다는 걸기 편한 낮은 굽이 사랑받았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여성들의 구두 굽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다. 1868년 영국의 '레이디스 트레저리(Ladies Treasury)'란 잡지에는 "요즘 하이힐부츠가 여성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구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어린 나이부터 굽 높은 구두를 신으면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심하면 다리의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란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러나 의사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890년대에는 무려 15센티미터가 넘는 구두까지 등장했다는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신발과 관련해 또 한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오른쪽

전 족

신발이라고는 다른지만 여성의 발을 작게 만드는 도구로 중국의 전족(纏足)이 있었다. 중국 여성들에게 있어 그 역할을 한창이고 여성을 기성 안에 국한시키는 도구로 만든 것은 전족의 영향이 지대했다. 그 관행은 10세기 궁중무희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조그맣고 오목한 발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상류계급에서만 유행했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목은 발이 부니 지위와 연관되어 마침내는 유력한 결혼이나 일종의 사회적 이동에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었다. 중매장자들은 "그 여가씨 예쁘지요?"라고 묻는 대신에 "그 여가씨 발은 얼마나 작나요?" 하고 물었다. 예쁘지 않은 얼굴은 여느로부터 타고난 것이지만 잘 유여있지 않은 발은 계몽과 제대로 되지 못한 가정교육의 표시라고 여겼다. 많은 여성인연한 여대님들이 자기 딸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관행을 권하도록 강요했고, 그래서 곧 아주 빈곤한 집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집 소녀들이 그들의 자유와 만장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7~8세의 소녀들이 전족을 하느라고 자기발을 양꼬리로 단단히 묶어서 앞부터 엉덩이까지 굽어진 상태로 될 때까지 묶어둔다. 이때의 격심한 통증과 고통은 옛 속담에도 요약되어 있다. 즉 '장쪽 발의 전족을 위해서는 한동이의 눈물이 필요하다.' 남자들이 그들의 탐미적이고 예로적인 자질들을 찬양하는 동안 여인들은 불구자로 사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 전족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에게 필요한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해졌고, 전적으로 남자에게 의존하여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전족신발



과 왼쪽을 언제부터 구별해서 만들고 신었을까 하는 점이다.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생김새가 다르니까 당연히 인간이 신발을 신기 시작했던 수천년 전부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엔사이클로피디아 아메리카나』의 '신발' 항목을 찾아보면 "신발의 좌우구분은 19세기 말부터란 것이 정설"이라고 나와 있다. 어쨌든 인간의 발은 신발의 좌우가 구분되면서 좀더 안락함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구두 역사상 최악의 발명은 과연 무엇일까. 이 백과사전은 1950년대 등장한 이른바 '스파이크힐'을 꼽는다. 뭉치럼 가늘고 높은 이 힐이야말로 엉덩이를 섹시하게 흔들며 걷는 '마릴린 몬로 워크'의 숨은 공로자이다. 30대 중반부터 여성들이라면 어린 시절 비온 뒤 엄마의 뽀족구두를 신고 걸으면 젖은 땅 위에 구멍이 뚫려나는 것을 구경했던 추억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파이크힐은 여성의 건강은 물론 도로와 마루에도 일대 재난을 초래했다.

하이힐은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가늘고 긴 다리, 늘씬한 체형, 육감적인 엉덩이로 이성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이힐을 신거나 신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여성 자신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11**



오혜리

문화일보 생활부기자

한편,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은...



어머니의 음식...

어머니의 음식

어머니는 생존과 성장을 요리하는

마술사

엄마의 피와 엄마가 먹은 음식들을 먹으며 엄마 뱃속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도 엄마의 음식을 통해서 자란다. 나는 물론 음식다운 음식을 해줄 수 없었지만 나의 팔아이에겐 엄마를 통해, 엄마가 주는, 엄마와 함께 먹은 음식이 모두 '엄마의 음식'이었던 것이다. **12** 본문중에서

엄마는 요술쟁이 요리사

유 학생들을 하느라 한 10년간을 미국에서 살았고 딸아이도 그곳에서 태어났다. 아이가 자라서 학교에 들어간 어느 날, 부엌에서 바쁘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나를 쳐다보더니 진지하게 물었다. "엄마는 누구한테 요리를 배워서 그렇게 잘해?" 아니 이 아이는 내가 음식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때의 충격이구나.

그 당시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랴 살림하랴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았기 때문에 식사준비는 언제나 전쟁과도 같았다. 다행히 우리가 살던 곳이 뉴욕이라 한국식품점에서 김치도 사다 먹었고 반찬도 만들어진 것을 사먹었다. 심지어 불고기나 갈비도 양념된 것을 사서 먹었고 매운탕이나 찌개도 포장된 것을 사다가 끓이기만 해서 먹었고 외식으로 때우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어른과 똑같은 음식을 먹였다. 아이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요리를 잘한다니?

"엄마가 요리를 잘해?"

"그럼! 엄마는 요술쟁이 같은 요리사야! 누구한테 배웠어?"

세상에 하느님 말씀사!

"엄마가 해준 거 어떤 게 맛있었는데?"

"엄마 팝콘. 우리 반 애들이 엄마 팝콘 갖고 오래, 우리 엄마 팝콘이 제일 맛있대."

아이는 자기 엄마의 요리솜씨를 반 아이들이 알아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우물대며 말했다. 그 '엄마 팝콘'이라는 것이 커다란 냄비에 마가린을 넣고 재래식으로 그냥 튀긴 것이었다. 그것도 요리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팝콘의 원조 미국의 기계식 팝콘 맛에 길들여진 미국아이들에게 우리 아이가 갖고간 재래식 팝콘맛이 독특하게 느껴졌나 보다. 그래서 나는 딸아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하는 요리는 전부 할머니한테 배운 거야. 모든 엄마들은 다 엄마의 엄마(할머니)한테 요리를 배우는 거야."

"와, 그럼 할머니도 그렇게 훌륭한 요리사야?"

그리고 보니 아이는 식품점에서 사다가 그대로 익히기만한 반조리식품들에도 모조리 엄마음식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붙였다. 심심하면 '엄마갈비 해줘', '엄마국수 해줘', '엄마샌드위치 해줘' 하며 먹을 걸 요구했다.

그리고 나는 깨닫게 되었다. 엄마의 음식은 추억이라는 것을. 나의 딸아이는 비록 반조리식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는 음식을 먹으며 자랐고 그 아이를 키우고 살던 그 음식들은 아이에게 생존과 성장의 영양소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가게에서 사다가 주는 음식도 그 애에게는 엄마의 음식으로 기억되고 또 먹을 것을 주어 자신을 먹여 살리는 엄마가 요술쟁이 같은 요리사로 느껴졌던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겠다.

엄마의 피와 엄마가 먹은 음식들을 먹으며 엄마 뱃속에서 자란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도 엄마의 음식을 통해서 자란다. 나는 물론 음식다운 음식을 해주지 못했지만 나의 딸아이에게는 엄마를 통해, 엄마가 주는, 엄마와 함께 먹은 음식이 모두 '엄마의 음식'이었던 것이다. 딸아리와 함께 나눈 그날의 대화는 내게 음식과 생명에 얽힌 모성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 깨달음은 참으로 가슴벅찬 것이었다.

유 숙 열, 문화일보생활부 지장, 44세

엄마손은 신의 손

내가 저녁 잔거리 걱정을 하는 건 아주 드문 일이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날이 한달에 서너번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아이들과의 식사는 언제나 한두가지의 반찬이면 되고, 나 또한 김치 하나면 밥 한그릇 딱딱의 식성이니, 그러는 사이

난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졌고 이제는 어쩌다 음식을 만들어봐도 왜 그리 맛이 없는지 먹성 좋은 나도 도무지 젓가락이 가질 않는다.

사실 난 음식만들기를 즐기는 편이었다. 꾸밈하게 한상 차려 걸판지게 먹고 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고, 이 덧없고 외로운 세상 맛있는 음식이나 배불리 먹는 거 외에 또 무슨 낙이 있으랴 싶어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마음껏 먹어대는 스타일이었다.

내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건 어린시절의 식습관 때문이다. 엄마는 언제나 정말 맛있는 반찬을 잘 해주셨다. 빠듯한 살림에 넋이나 되는 애들을 배불리 먹인다는 건 그 시절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시부모님 모시라 일년에 열반이 넘는 제사와 친척들까지 쟁겨가면서 가난한 집 중부노릇을 하셨으니.

하지만 엄마는 참 지혜로운 분이셨다. 싸고도 싱싱한 잔거리들을 위해 다리푼을 팔았고, 그 재료들을 이용해서 갖가지 맛난 반찬을 만드셨다. 무슨 재료는 엄마 손을 거치기만 하면 톡톡 맛있는 음식이 되어나왔고, 우리 사형제는 밥상머리에서 늘 젓가락싸움하기 일쑤였다. 여름이면 지천에 나던 껏잎들을 일일이 풀칠해서 잘 말려두었다가 겨울에 튀겨먹던 생각. 김장을 200포기씩 별다른 양념 없이 담가도 겨우내 제개로 만두로 지짐으로 볶음으로 얼마나 맛있었는지. 비웠던 쇠고기를 불고기해서 먹는다는 건 엄두도 못내고 그저 양배추에 당면넣고 탕을 끓여 주시면 일곱식구 배불리 먹던 일... 그 시절엔 과일도 참 바싸고 귀했었다. 수박 한통을 사면 요즘처럼 잘라서 단 속살만 빼어

먹지 못하고 그저 양을 팔게 해(설탕 넣고 휘휘 둘러 수박화채처럼) 먹었는데, 빨간 속살을 다 먹고 나면 겉의 딱딱한 껍질만 살짝 벗겨내고 그 퍼런 살들을 얇게 저며 늙은 오이 무쳐먹듯 고추장에 무쳐먹기도 했는데 정말 비리는 게 하나 없었다. 그 덕에 엄마 손은 늘 젓어있었고, 파 마늘의 매운 맛이 가득했었다.

물론 그 시절에도 부잣집 아이들의 도시락에는 언제나 예쁘게 장식된 마른반찬들이 담겨 있었지만, 국물이 흘러 얼룩이 지고 냄새가 나던 내 도시락은 언제나 인기 최고였다. 맛에서는 따를 수가 없었던 거다. 초등학교 3학년 때던가 소위 치맛바람이 한창이던 때, 엄마는 방과 후 쫓주리에 한상 가득 밥을 해서 이고 학교에 오셨었다. 선생님들께 점심대접을 하기 위해서였다. 잠곡을 적당히 섞은 차진 밥에 온갖 나물반찬과 부침과 찌개, 그야말로

시골 마루의 한상 가득한 저녁상 같았다. 맛있게 드시던 선생님들 모습에서 난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게 엄마의 방식이었다. 없는 형편이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손, 보잘 것 없는 재료지만 진수성찬으로 만드는 손, 그런 엄마의 손은 가히 '신의 손'이었다.

이런 '신의 손'이 힘을 잃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다. 당장 생계를 꾸려가야하는 가장이 되신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셨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반찬값이나 물어보셨다고 늘 부업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본업이 된 것이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면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잔으로 가장 빨리 밥



을 먹고 쉬어야했기에 우리 모두는 맛을 따질 겨를없이 그저 한끼를 때우며 살게 되었다.

그후 15년이 흘렀고, 지금도 엄마는 남대문시장에서 손칼국수를 끓여 파신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복만 터진다더니, 내가 가끔 시장에 나가면 한그릇 가득 팔여주시는 칼국수 맛은 비길 데 없이 좋다. 반죽부터 밀기까지 모든 걸 손으로 하니 얼마나 맛나겠는가. 엄마의 칼국수로 우리 사형제는 학교를 다녔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도 다 갚았다. 이제는 좀 쉬실만 한데도 동생들 시집장가갈 때까지는 하신다.

수퍼에 갈 때마다 외박이 앞서 여러가지 찬거리를 사다 놓고도 귀찮아서 미루다가 결국은 썩고 진물러 버리게 하는 나를 보면서, 내 나이 때의 엄마 모습이 그려진다. 나도 먼 훗날 내 딸에게 기억될 나의 손맛을 가지게 될까? 의심되는 대목이지만 그 속엔 엄마의 손맛도 남아 있겠지.

박 열 숙, 주부, 33세

아버지 밥에만 들어가던 어머니의 돌

“**밥** 드세요.” 식탁에 둘러 앉은 가족들은 모두 두 귀를 의심하였다. 그러나 다시 “**밥** 드세요.” 우리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실눈으로 서로의 입가를 훑어보았다. 확인 가능한 입 모양은 모두 정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마 눈 뜨고 확인하지 못한 한 사람의 입, 또 그 입에서?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의 입에서 부서진 돌 조각들이 밥상 위로 떨어졌다. 벌써 며칠째다. 아, 도대체 왜 꼭 아버지 밥에만 들어가는 걸까. 엄마의 무의식 저편에서 뭔가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곧이어 “**탕**”하고 숟가락을 내려 놓는 소리. 이것은 일종의 비상사태를 알리는 사이렌 소리로서, 전 가족이 식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이 순간부터 밥 먹기는 끝났다는 말이다.

물을 씹은 아버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어머니였다. 오빠는 곧 어머니가 당할 고초를 염려하여 “우리는 다 괜찮은데, 왜 꼭 아버지 밥에 들어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니께서 쌀 씻을 때 꼼꼼히 살피시던데, 거 참 이상하네.” 밥을 포기할 수 없는 나도 곧 지원사격을 하였다. “아버지, 괜찮으시죠? 이제 나왔으니까 더 안나올 거예요. 식사하세요. 예?”

어쨌든 이 분위기를 면하고자 했던 나의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부엌 살림 몇십년에 아직까지 밥 하나 제대로 못 하느냐”고 어머니께 화를 내셨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아버지, 그래도 일어나지는 마세요. 그럼 우린 정말 끝장이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숟가락을 붙잡고 밥상에 꼭 붙어 앉아 있던 나는 곧 마음을 비워야 했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 방으로 들어가버렸기 때문이다.

눈 앞에서 사라지는 밥을 보며 생각했다. ‘저 밥이 카프리맥주였다면 눈으로 먹을 텐데, 썸~’ 주린 배를 움켜 잡고 칠없는 나도 어머니께 한소리 지른다. “엄마 손이 가위손이야? 왜 물을 제대로 집어내지 못하는 거요.”

이미 지나간 밥에 얽힌 기억이다. 까탈스럽기는 아버지 못지 않은 나도 자취생활을 하다보니 이따금 밥에서 돌이 씹힐 때가 있다. “그럼, 가위손도 유전이란 말인가” 가우뚱하면서 혼자 웃곤 한다. 이제 밥공기 안에 돌조각이 아니라 돌산이 들어앉아 있다 해도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따뜻한 밥이 그림다.

이 은 희, 시민단체간사, 29세

“잘 먹어야 큰일을 한다”

입 식으로 집을 고치기 전 부엌에서 방으로 밥상을 들고 나르던 시절, 어느 겨울 아침풍경이 지금도 가끔 생각난다.

차가운 물에 고양이 세수를 하고, 책가방을 분주히

챙기고, 교복으로 갈아입고 짙은 입맛을 다시며 밥상에 앉으면 먼저 숟가락을 뜨고 일어난 큰언니의 흔적이 보인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에 잘 구운 해우(김을 우리는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무와 함께 버무려진 파래의 보랏빛갈들이 줄리운 식욕을 깨우고, 그 밥상 옆으로 양은인지 쇠인지 구분이 안가는 도시락이 차곡차곡 놓여져 있다. 그리고 한켠엔 구식 철관에 기름종이 비슷한 것을 깔고 구워낸 카스테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 남매와 남편을 먹이기 위한 전쟁 같은 새벽을 보낸 엄마의 아침이었다.

학창시절 10여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보아온 풍경일진대 유

독 그날의 아침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정답처럼 내 머리

에 남아있는 것은 비록 빈

한했지만 엄마의 부지런함

으로 가꾸어 낸 풍성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

4년1남인 우리집에서 아들

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

같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던 엄마에

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밥상에서의 이야기는

‘잘 먹어야 큰일을 한다’, ‘잘 먹는 애들이 공부도 잘

하고 영리하다’ 등이었다. 그 이야기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반찬으로 채워진 밥상과 정성스런

도시락으로 우리를 맛냈다. 큰언니가 도시락을 싸기

시작하면서부터 막내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근 20여년 동안 하루도 부도내지 않고 끊임없이

만들어냈던 밥의 역사, 도시락의 역사가 엄마의 청장

년사인 것 같다. 엄마는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지만,

한창때는 하루 열개의 도시락을 준비하셨는데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메뉴가 있었다. 마름모꼴로 썰

어 밥 옆에 바로놓인 반찬통 안에 가지런히 차곡차곡

뽕뽕히 넣었던, 부추나 야채를 다져 만든 전이다. 뜨



거운 밥과 어우러져 4교시가 끝날 즈음엔 전은 적당히 먹고 김치국물도 간간이 배어들어 기묘한 맛을 자아내던 그 야채전을 나는 매일 점심과 저녁 만날 수 있었다. 도시락 반찬통이 너무 적었지만 어쩌나 차곡차곡 잘 쌓았던지 끊임없이 줄줄이 나오던 마름모꼴전이 신기하기까지 했었다. 나는 그 전 하나 위에 김치를 올려 나름대로 조화로운 식사를 즐겼다.

운동은 없고 앉아서 먹고, 수업받고 하는 일이 고작이었던 그 시절엔 그 맛있는 도시락이 쾌적한 소화가 아니라 꼬깃꼬깃한 가스가 되어 교실 공기를

탁하게 하는 주범이 되기도 하였

했고, 또한 고3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을 것이다. 하지

만 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야채전이 담긴 그 도시락

으로 인해 나는 매일같이

변함없는 엄마의 애정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잊지 않았다.

나는 모든 세상의 엄마들이 다

우리 엄마같이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해가 뜨고

지는 일같이 엄마의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나도 결혼을 하면 엄마처럼 그렇게

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직 엄마는

되어보지 않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부도내지 않는

밥의 역사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게 된다. 단지 남편과 나만 책임지면 되는 단순

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 얼마나 많은 불성실함을

탓해야 했는지 모른다. 어쨌든 내가 결혼하고 깨달

은 것은 엄마가 어떤 고뇌와 화생을 감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엄마의 역사는 완전의 역사였고, 사랑의 역사

였다는 변함없는 사실을 몸으로 느꼈다는 것이다. 정

말 새삼스럽게도...

한달 전 천정에 다녀오는 길에 이서방과 함께 먹으라고 준비해준 3층 찬합도시락을 받아 들고 기차에 오르면서 탁탁한 서울 공기 아래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용기를 맛보았다. 나는 그 도시락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무려 이틀을 먹었다. 버리기 좋아하는 나도 함부로 버릴 수 없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안다.

안 경 주, 추부, 32세

눈물의 비빔밥

이런 장면이 떠오른다. 내가 여덟아홉살이나 되었을 때일까. 그리고 아마 겨울이었을 거다. 어머니가 점심상을 차려오셨는데 우리 삼남매는 게으르게 이불을 뒤집어쓰고 앉아 밥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윗동이 심해서 그 냉기를 피하느라고 그랬을 거다. 그리고 땀날 똑같은 반찬—김치나 장아찌류의 한 반찬들—에 식욕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밥 안먹을래?” 하고 몇번을 물어보신다. 큰오빠가 “싫어요. 안먹을래요” 하면 그 아래 작은오빠와 막내인 나까지 큰오빠 흉내를 내며 “싫어요. 먹기 싫어요” 이구동성으로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어머니는 암말하지 않고 커다란 양푼을 가져와 밥을 비비기 시작한다. 찬밥을 한그릇 넣고 일무김치랑 상 위에 있던 몇가지 나물류를 양푼에 쏟아넣는다. 뭉치나물이나 시금치나물, 그리고 두부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까지도. 그런 다음 집에서 담근 빨간 고추장을 넣고 술갈로 비벼댄다. 덩어리진 찬밥이 알알이 흩어지고 고추장이 고루 묻혀지면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몇방울 똑똑—그때 참기름이 참 귀했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게 퍼지고,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듬뿍 그 밥을 입에 퍼넣으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우리들 목구멍에선 침이 꿀꺽. 어머니는 우리에게 한

번 권해보지도 않고 혼자만 맛있게 밥을 먹는다.

참다 못한 큰 오빠가 먼저 슬쩍 어머니 곁으로 다가앉는다. “저, 한 술갈만 먹어볼게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 둘도 이불 밖으로 나와 “저도요. 저도요” 하고 아우성을 쳐댄다. 어머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의기양양해서는 양푼에 숟가락 세개를 더 꽂는다. 한 양푼에 네명의 식구가 머리를 들이밀고 먹기 시작하면 밥 한 그릇이야 금방 없어지게 마련이다. 우리 앞으로 퍼놓았던 밥그릇이 차례로 양푼 속으로 들어가버리고 도 모자라 밥 한 사발쯤은 더 퍼와야 한다. 입 안이 얼얼하도록 매운 비빔밥을 먹고 있노라면 이마엔 땀방울까지 맺힌다.

그때 그 양푼 속의 비빔밥을 나누어먹던 우리 네 식구는 사실 그 시절 별로 행복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나서 외롭고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올망졸망 매달린 세명의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늘 한숨짓고 눈물 흘렸었다. 그런 우리 식구들에게 있어 커다란 양푼 속의 비빔밥을 나누어 먹는 시간은 긴 겨울 가까스로 지낸 작은 모닥불 앞에서 불을 피는 때만큼이나 행복했었다.

지금 나는 우리 딸에게 그때를 떠올리며 골짜기 비빔밥을 만들어 준다. 직장에서 돌아온 늦은 저녁, 사실 밥을 새로해서 먹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옛날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옛날처럼 매운 고추장은 없으니 넣을 수도 없고, 김가루나 계란후라이 같은 게 더 들어간다. 물론 우리 어머니의 ‘아이 밥 먹이는 비빔’을 나는 그대로 전수받았다. 밥 먹기 싫어하는 아이에겐 절대로 밥을 강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먼저 맛있게 먹다 보면 아이가 슬그머니 다가와 “엄마, 나도 밥 좀 주라” 한다. 그때 나는 좀 싱겁게 비빔 비빔밥을 아이에게 퍼준다.

어렸든 아이는 내 비빔밥 솜씨에 늘 감동한다. “엄마 요리솜씨는 정말 최고야. 엄마는 어떻게 요

리를 잘해?” 하고 말이다. 이렇게 막 비빔 비빔밥도 요리에 들어가나?

박 미 라 편집장, 34세

엄마 없으니 김치도 없다

며칠 전 자취하는 친구집에 놀러 갔을 때, 친구가 반찬이 없다고 미안해하며 신김치만 내놓고 차려준 밥상에서 나는 밥을 두 그릇이나 먹어치웠다.

“야, 너 몇년 굶은 애 같다. 넌 안먹고 사니?”

그렇다.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가 담은 김치를 먹어본 게 실로 몇달만인지...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시고 우리집엔 김치가 없다. 한국사람이 어떻게 김치 없이 사냐고 하겠지만 정말이지 우리는 김치 없이 산다. 친구 어머니가 담아준 그 김치맛. 혼자 있는 딸을 생각하며 애쓰신 그 김치가 얼마나 맛있던지. 또한 사다먹는 김치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김치가 설 때까지 남아 있지 않는다.

우리 어머니는 전라도 분이셨다.(아 과거완료형으로 얘기하게 되는구나.)

무척이나 손재주가 있는 분이어서 못하시는 게 없으셨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솜씨가 좋으셨고, 김치에 관해서는 거의 환상적이다 싶을 만큼 솜씨가 출중하셨다. 학교다닐 때 언제나 도시락 반찬으로 김치를 가져가면 제일 먼저 동이 났고 그 김치를 먹기 위해 친구들이 자주 집으로 놀러오곤 했다.

어머니의 김치는 맛도 맛있더니와 종류도 만만치 않았다. 언제나 김치를 담그실 때면 한가지만 담은 법이 없었다. 알타리가 좋을 때면 하얀 무가 굵직한 총각김치, 새순이 돋을 때면 연한 열무김치, 초가을 무가 한창 단맛이 들 때면 빨간 깍두기, 그리고 오빠가 좋아해서 언제나 빠지지 않았던 파김치. 아침 일찍 풀썩서 식기를 기다리며 담았던 물김치, 짭짤한 맛의 갓

김치, 겨울 고구마와 함께 먹던 배 등등 피운 동치미, 우리집 식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해서 차마 맛이 들 틈도 없이 단지를 비워버렸던 고들빼기 김치...

맛에 관한 한 자부심도 강하셨다.

남의 집 김장에는 빠지지 않고 가서 도와주셨지만 우리집 김장은 언제나 우리 식구만 데리고 했다. 이웃집 아주머니들이 도와주시면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담게 된다고 언제나 딸인 내가 동원됐고 멀리 타지에서 직장생활하던 언니도 불러내려오고 내 남동생 또한 절인 배추를 빨간 고무장갑 끼고 부지런히 날라야 했다.

한번은 내가 고3때 학력고사를 열흘 정도 남겨놓고 김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시험이 코앞인지라 일요일에도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기를 강요당할 때였다. 엄마가 글썽 학교 선생님께 전화해서 딸이 아파서 학교에 못 가게 됐다고 얘기하고 하루종일 김장을 시켰다. 그때 내가 엄마에게 “나 대학 멀어지면 책임져”라고 얘기하자 어머니 말이 더 걸작이었다.

“대학 불을 때는 멀어지라고 고사를 지내도 불고, 멀어질 애는 백일기도를 들여도 멀어지더라. 하루 엄마 도와줬다고 대학 멀어지면 그 대학 안가도 돼. 오늘 엄마 도와주면 하느님도 감동해서 대학 들어가.”

참고로 말하면 하느님도 감동하셨는지 난 그해 대학에 붙었다.

그후 몇해를 병석에 계시면서도 언제나 겨울이면 김장을 담그셨다. 여전히 두 딸을 거느리고, 새로 들어온 1년차 며느리를 재근하시면서 못 쓰게 된 하반신으로 문턱에 걸터앉으셔서 이것저것 지시하곤 하셨다. 가시던 그 해 겨울에도 병원침대에서 김장 걱정을 하셨는데...

흰눈이 펄펄 정말 끝도 없이 쏟아붓던 날 어머니를 묻고 오면서 나를 하얗게 만들었던 것은 이제 다시는 엄마가 해주시면 밥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였다. 겨울밤 작은 단지 뚜껑을 열고 꺼내먹던, 아직 때가 아니라고 좀더 기다려야 맞다고 혼나면서

도 먹던 그 고들빼기 김치는 세상에 율업마 말고는 달
글 수 없는 건데, 이제 다시는, 앞으로 남은 내 평생
다시는 그 김치를 먹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정말 끝도
없이 울었다.

누군가가 없어도 시간은 간다.
다시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온다. 우리는 어머니
가 안계시는 첫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 명 화, 회사원, 28세

김치는 한국인의 또 다른 얼굴

나는 어린 시절부터 특 쓰는 맛과 함께 마늘냄
새가 나는 김치를 특별히 사랑했다. 내 어머
니의 회상에 따르면 어린시절 나는 매워서 눈물을 흘
리면서도 김치를 더 달라고
매를 쓰기 일췌었다. 어머니
는 언제나 부엌 싱크대 옆
아기의자에 나를 앉히고 전
날밤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
에 파, 마늘을 다져넣은 빨
간 고춧가루를 버무리며 김
치를 담그곤 했다.



초등학교시절 동네에서 우리집 말고 유일하게 한국
인 엄마를 두었던 프랭키는 학교가 파하면 언제나 우
리집에 와 우리와 함께 김치를 먹곤 했다. 우리는 지
하 차고에서 마치 캠프파이어라도 하듯이 김치병 주
변에 둘러앉아 밥이나 물도 없이 그 매운 김치를 썰지
도 않고 손으로 찢어서 먹었다. 매워서 눈물 콧물이
난리였지만 우리는 "땀다, 매워, 그렇지만 너무 맛있
다"를 연발하며 먹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그러나 난 내 몸에 김치냄새가 배고 그리고 그 냄새
가 학교까지 따라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어느날 학교에서 한 소녀가 나에게로 다가와서 물었

다. "너 한국사람이지." 그 소녀는 나처럼 갈색눈을
하고 황인종의 둥근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나처럼 한국계의 혼혈인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고개
를 끄덕이며 활짝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럴 줄 알
았어. 너한테는 한국인의 냄새가 나" 하면서 코에 주
름살을 지으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
어붙은 듯 웃음을 거둬들이고 말았다.

그 다음부터 나는 강박적으로 뽕뽕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나는 '한국인'의 냄새가 나는 것이 싫
었고 아무 냄새도 안나는 미국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김치를 다시는 먹지 않음으로써 한국인의 냄
새를 없앴다. 그러나 김치냄새는 우리가 먹는 음식뿐
만 아니라 온 집안에 모두 배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김치냄새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친구
들이 우리집 냉장고를 열어보고 김치병을 가리키며
"이게 무슨 냄새야, 저게 뭐
니?" 하고 코를 킁 채 물으
면 나는 "몰라, 우리 엄마가
먹는 거야"라고 얼버무리곤
했다. 나는 김치 말고도 어
머니의 단골메뉴인 갈비, 비
빔국수, 스펀제란프라이를
안먹게 됐다.

그러나 결혼후 나는 임신과 함께 김치가 나의 위안
식품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임신을 하자 입덧과 함께
어머니의 땃속에서 맛봤던 어머니의 음식맛이 미친
듯이 그리워졌다. 나는 땃 속의 아이에게 내게 있는
한국의 맛을 전해주고 싶었다.

아이가 태어나서 15개월이 되었을 때 난 그에게
김치를 맛보게 했다. 내 엄마가 했듯이 배추잎을 입으
로 조금 찢어서 매운 맛은 다 뺀 다음 아이에게 주었
다. 딸아이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나와 외할머니를
향해 땀다고 "핫, 핫"을 연발하면서도 빨거나 물을 달
라고 울지 않고 더 달라는 듯이 내 손을 김칫병으로

잡아 붙었다. 나의 어머니는 "애는 김치를 좋아하는구
나. 틀림없는 한국사람이다"고 자랑스럽게 소리쳤다.
나는 어머니가 내 어린시절 김치 먹는 모습을 얼마나
대전하게 바라보았는지 기억해냈다. 그녀에게 김치는
한국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바로미터로 작용했던
것이다.

최근 『종군위안부』라는 소설을 한국에서 출간한 한국계미
국인 노라 옥자 켈러씨가 『뉴유먼』지에 쓴 「어머니의 음식,
김치와 나의 성장기」 중에서.

요리 잘하는 페미니스트 엄마

올해 환갑을 맞은 나의 엄마는 40대 중반부터
여성운동의 현장에서 뛰면서 열렬한 페미니
스트를 자칭하신 분이다. 여성의 의식화 과정, 그 신
비함에 때로 당한 엄마는 이후 늦은 나이에 여성학과
대학원의 연구과정을 밟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엄마
는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해선 재료상태에 가까운 미혼
의 딸을 내심 호뭇해하곤 했다. "엔 이런 것 하나도 만
들 줄 몰라, 라면도 남동생한테 물어달라고 한다니
까!"는 엄마에게 있어 딸에 대한 험담이 아니라 자부
심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마치 부엌일에 무지한 것 자
제가 가사노동이라는 여자의 숙명에서 멀어지게 만드
는 '부적'인 양.

그런 엄마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맛깔나고 시원스
레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각인됐다는 것은 참 아이
러니다. 여성단체에서 한창 활동할 땐 그 단체의 열악
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엄마의 이름을 딴 '...
장'이란 음식점을 따로 운영해보지 않았다는 농담반
진담반의 제의를 받기까지 했다.

사실 내가 판단하건대, 엄마의 요리가 사람들을 끌
어들이는 매력(?)의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그 첫째는 언제 어디서건 후라이팬과 냄비 등의
주방도구를 뜨겁게 달궜서 즉석요리를 해낸다는 것이

고, 또 한가지는 마늘과 멸치, 다시마의 과다(?) 사용
이다. 마지막으로 분주하게 음식을 하는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극히 자연스럽게
게 화제를 유도하며 긴장스러운 분위기를 풀어내는
타고난 사교력이다. 여기엔 어떤 것도 터부시하지 않
고 새롭게 시도하기를 좋아하는 엄마의 천성도 한몫
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 나는 어느 한여름날의 정원—
군이 그것을 정원으로 부를 수 있다면—에서의 '만찬'
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 나무만 무성하고 잔디 한
포기 나지 않은 비좁은 마당 한 모퉁이에서 진돗개와
도사견의 중간쯤 되는 우리집 메리가 끊임없이 쾅쾅
쾅쾅대는 가운데 다리 하나가 빼그덕거리는 둥근 식
탁이 깔려나와 식탁보가 씌워지고 삼시간에 요리가
가득가득 담긴 그릇들이 놓여지던 마술 같았던 순간.

엄마의 맛깔스런 음식덕에 나는 중학교 때부터 중
종 청소당번을 건너뛰곤 했다. 대표적인 메뉴로는 '오
징어국수'라는 것이 있는데, 오징어와 각종 야채를 뜨
거운 불에서 고추장, 기름, 후추 등으로 범벅해 소스
를 만든 후 삶은 국수에 끼얹어 먹는 그런 거였다. 이
오징어국수가 불기 전에 먹어야 된다고 선생님을 설
득해 청소당번을 면하곤 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
이가 없다. 또 하나, 엄마를 아는 많은 이들이 못잊어
하는 것은 된장찌개 비슷한 된장소스다. 이 맛을 본
이들은 아직까지도 새대를 초월해 칭찬이 자자하다.
된장에 매운 풋고추와 손바닥의 삼분의일 정도의 덩
치 쇠고기를 집어넣어 10시간 이상 졸이는 이 된장소
스는 엄마가 가까운 이들을 방문할 때 예쁜 병에 담아
선물하곤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일전에 이 된장소
스를 한 친구에게 선물했는데, 그 집에 오는 파출부가
뭘 이런 촌스러운 것을 먹느냐고 친구의 의사도 묻지
않고 버려서 그 친구가 내내 속을 끓였다는 얘기를 엄
마는 웃으며 전하기도 했다.

근래 결혼해 엄마의 음식맛을 볼 혜택을 어느정도
박탈당한 나는 신희 집들이에서 엄마가 번개같이 해

넌 각종 '요리'들을 보고 "우리 장모는 정말 요리사 빵처" 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남편을 보며 그 박탈감을 위로받곤 한다. 남편은 한술 더 떠 지금 내 음식만드는 실력은 별이지만 장모님의 딸이니 언젠가는 장모처럼 '찬연히' 음식솜씨를 발휘하게 될거라고—이런 말은 그 동안 술한 사람들에게서 들어온 터였다—은근히 압박을 가하기까지 한다.

그 나이 또래에선 보기 힘든 극히 진보적인 사고를 지닌 엄마가 주방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나는 한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나만의 주방공간이 생긴, 음식을 못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지도 그렇다고 불리하지도 않은 지금의 상황에선 음식을 만들며 느꼈을 엄마의 감흥이 새삼 부러워지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음식을 만든 후의 뒷치다꺼리로 고민하고 식기세척기를 사야 할지를 심각히 고민해보는 처지지만, 엄마처럼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내가 그런 엄마의 말에기에 웬지모를 자신감과 더불어 하나의 신화처럼 가슴 속에 자리하고 있다.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이 주방에 얼마이는 속박이 되 기보다는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엄마의 최종 결론과 함께. **■**

이 은 경, 여성신문기자, 35세

웃자!

남녀 불평등

너무나도 다정한 연인이 있었다. 둘은 이 밤이 다 지나가도록 걸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것이다. 밤은 너무나도 길었는데, 아무리 둘러 봐도 화장실이라곤 없었다. 둘은 고민 끝에 벽을 보고 불임을 보기로 했다. 그벽에는 "소변 금지"라는 뜻말이 붙어 있었으나 그 다정한 연인은 무시하고 불임을 보기 시작했다. 근데 난대없는 발자국 소리에... 둘은 얼른 옷을 입고 발자국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순찰 중인 신참 경찰. 경찰은 그 둘을 발견하자 흠뻑 보더니 "이 곳에 소변을 보셨군요. 벌금을 내셔야됩니다. 남자분은 2만원, 여자분은 1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남자는 화가났다. 아무리 다정한 사이지만 자신만 2만 원을 내는데 불만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봐요, 순경 아저씨! 불임은 같이 봤는데 왜 난 2만원을 내는거요. 당신도 남녀 차별하슈?" 하자, 기가 차다는 듯 경찰이 말했다. "당신은 혼들었잖아!!"

남자와 컴퓨터의 공통점

1. 끊임없는 A/S가 필요하다.
2. 값만 보고 쓰다가는 먹칠 것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3. 시시때때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4. 갖고 나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온다.
5. 바이러스에 감염된 디스켓을 넣으면 쫓딱 망한다.
6. 언젠간 버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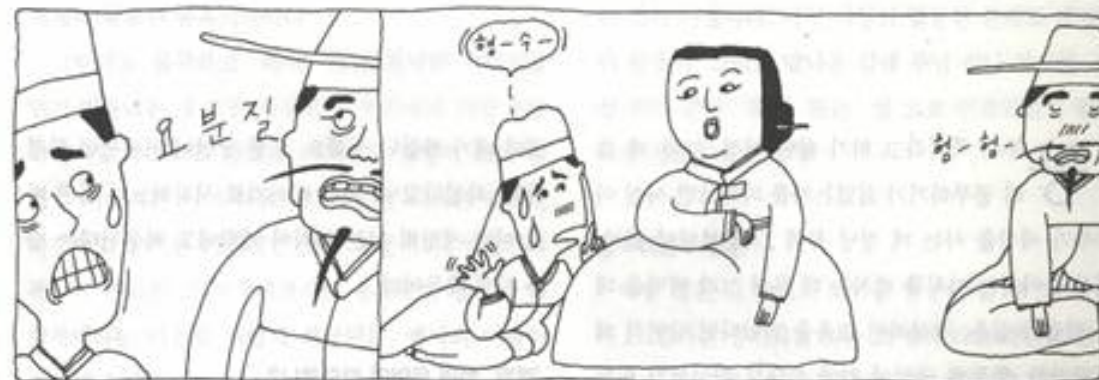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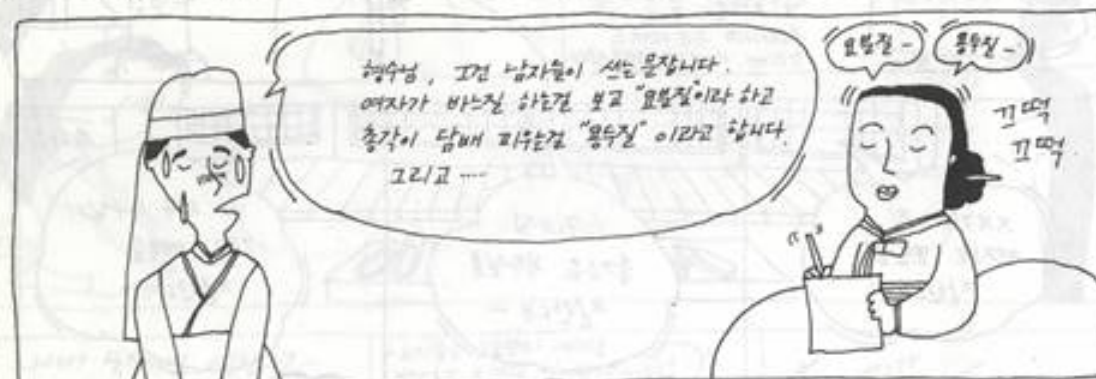
여자가 사고,
남자는 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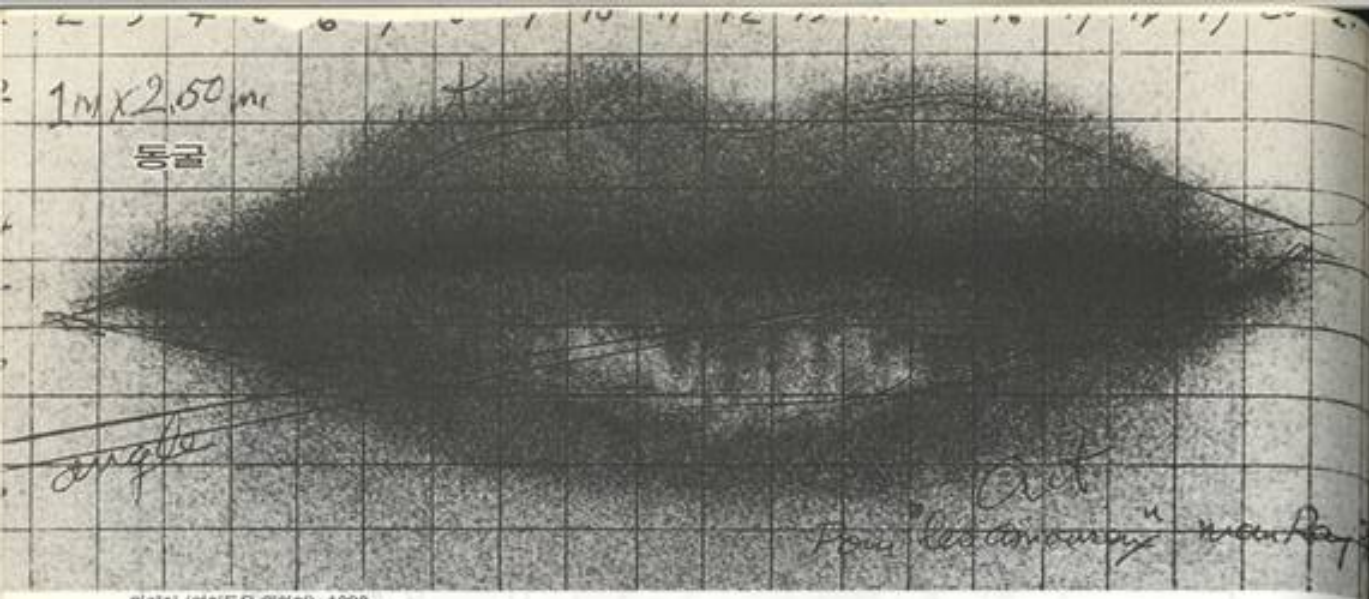
색녀열전

어리숙한척
남자 X 먹이기

수박두리 그림







만레이 <연인들을 위하여>, 1932.

길들여진 '쾌락 습관'을 벗어나서

공부가 죽어라고 하기 싫던 시절, 그때 왜 그 공부가 세상을 사는 데 정녕 무에 그리 보탬이 될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치는 데 무에 그리 씨익을 데가 있을까 싶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제기할만한, 똑똑한 구석이 약에 쓴대도 찾아보기 힘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가지게 되는, 그런 합당한 이유에 근거하였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 이런 질문에 부딪히는 순간, 학문과 현실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지닌 심오한 진리를 몸소 체득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교육은 체득한 진리를 존중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을 꼭꼭 누른 채 주어진 것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야 안전하게 위로위로 걸려지는

곳이 내가 키웠던 사회요, 또한 당신이 거쳐왔던 환경이다. 각설하고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런 생명력 없는 원칙이 쾌락에도 적용된다는 슬픈 사실 때문이다.

'쾌락'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

여성학을 공부할 당시 성연구라는 과목의 첫 시간에 선생님이 던지신—그때만 하더라도 생생하고 신선했는데 지금은 나머지도 하도 씨익어서 달고 달은 지경에 이른—질문 하나, “성적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이 질문을 독창적으로 쾌락(?)한 또다른 질문, “쾌락 하면 무엇이 퍼뜩 스치고 지나가는가?”

가장 먼저 스치는 생각은, 쾌락은 몸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쾌락’ 하면 형이하학적이고

진지하지 못한 차원의 것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일종의 주술처럼 우리가 함께 걸려든 것이다. 떠도는 공기처럼 그런 식으로 전파된다. 이 두가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먼저 쾌락이 몸과 관련 깊다는 이 명제를 보다 엄밀하게 들여다 보면 쾌락과 관련되는 몸은 이때 ‘성’으로 이해되고 좀더 까놓고 말하면 성행위를 통해 주어지는 성기의 충족감, 즉 성적 쾌락을 말한다. 오르가즘이다. 이는 성행위로써 비롯되고 성기로 감응하는 만족의 강도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색깔로 덧칠해지면서 강렬함을 띠는 말이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폭발과 같은 것이어서 그만큼 여운도 강할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게 지경으로 황홀하다. 그래서 누구든 쾌락을 추구한다. 때로 쾌락을 멀리하고자 의도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 이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쾌락은 누구에게나 황홀한 유희거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쾌락’ 하면 천박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에게 가장 은밀하면서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성행위 또는 성기로 이어지는 이미지였다가 ‘일순간’이라는 유희적이면서도 공허한 시간적인 조건 때문이다. 일순간의 폭발적 만끽은 그 누구에게라도 유희적인 동시에 일회적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되는, 쾌락의 아슬아슬한 요소이다.

'쾌락'은 억울하다!

이 뉘즈를 스치는 쾌락의 이미지를 다시 보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것들에 대하여 점점을 해 볼만도 하니까, 아니,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무턱대고 받아들인 결과일지도 모르니까, 어쩌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기준에 대한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다음 오르가즘에 대한 잘 알려진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쾌락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보기로 하자.

정말 말에는 격이 있다. 상스런 말과 고상한 말은 쓰이는 상황과 그 말 자체의 이미지가 다르다. 그러나 상스런 말이란 고상한 말이란 적절한 상황에 적절하게 쓰인다면, 그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느낌이 정확하게 매개된다. 가령 지하철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인간에게 “미친 놈”이라는, 이것마저도 가까운 지칭인데 이 대신에 “이상한 분”이라는 점잖은 말을 쓴다면 그게 어디 제대로 된 의사전달 방식이겠는가?

어떤 상스런 말은 듣기부터 상스럽다. 아무리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된다 하더라도 듣기가 불편한 말이 있다. 그런데 쾌락이란 말이 결코 상스런 말이거나 무엇이 모자라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성에 한정되면서 천박한 느낌이 든다는 것은 쾌락의 입장에서 보자면 무척 억울하다. 그렇다면 육체와 성은 열등한 것인가? 그런 식으로 대접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마치 여성이 열등한 존재로 대접받아 왔듯이. 그리고 말나온 김에 푸념 하나 하자면 ‘여성’ 하면 곧잘 ‘육체’ 또는 ‘성’으로 연결되면서 열등하게 취급받아 왔었다.

성+위험=쾌락?

어떤 말은 그 반대의 의미를 연상한다. 즉 그 말 안에 그 말과는 상반되는 또는 그 말의 다른 극단에 있는 말이 이미 내재한다는 말이다. 가령 삶은 죽음을 연상시킨다. 윤희함은 불쾌함을 전제로 한다. 기쁨은 슬픔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 둘은 화합되지 않으면서도 서로에게 절대절명의 관계로 존재한다. 극단의 존재를 몸 안에 품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깊어진다.

그렇다면 쾌락은? 불쾌락? 아니다. 쾌락은 위험과 한 짝을 이룬다. 쾌락을 경원시하고 가치절하하는 경향은 쾌락의 이면에 쾌락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경고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

이다. 쾌락을 천박함의 수준에서 벗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쾌락과 책을 이루는 위험을 생각해볼지 않을 수 없다.

쾌락의 책으로 위험이 간택되는 것은, 동어반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말하건대, 쾌락이 육체 특히 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다시 앞에서 이야기한 지점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르가즘에 대한 몇가지 오해

쾌락이 성, 성기에 한정되면서 성에 부착되는 온갖 금기와 두려움이 쾌락에도 적용된 것이다. 왜 성 또는 성 주변에 그토록 많은 금금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는가를 여기서 말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쾌락까지도 철저한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이유는 쾌락 자체를 성행위의 필연적 결과인 것으로 당연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미지, 선입관에 얽매었던 머리 속을 뚫고 털어내고 나면 쾌락은 몸 또는 성기에서만 일어나는 즐거움일 수 없다. 마음과 몸의 합일, 너와 나의 일치감에서 오는 쾌락은 반드시 여성과 남성의 이성애적 성교에만 한정될 수 없다. 가령 여성이 출산이나 양육과정에서 아이와 강한 일치감을 경험할 때 그것 역시 쾌락이다. 여성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온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애무하는 바람과 만날 때 그때 쾌락이 찾아온다. 쾌락은 이처럼 다양하다. 쾌락은 여성지에서 권하는 대로 하면 오는, '정답'이 있는 그 무엇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쾌락 중에서도 오르가즘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를테면 성관계를 할 때 여성이 경험하는 쾌락은 질 또는 클리토리스의 극적인 긴장과 이완의 순간으로 머물지는 않는다. 오르가즘에 대해 살펴보면 이를 보다 잘 알 수 있다.

여성의 성을 어떤 지식인의 관점보다 깊숙히 그리고 진지하게 경험적으로 통찰하고 있는 것이 '하이트

보고서' (성연구가 셰어 하이트에 의해 쓰여진 이 보고서는 이후에 '섹스, 그리고 진실'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됨)이다. 이 책은 많은 여성들이 직설적으로 풀어내는 욕성을 담고 있어서 대담하면서도 사실적이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에 삽입되는 것을 성교라고 한다면 성교는 "결코 여성을 자극하여 오르가즘까지 이끈다는 의미가 아니다." ('Sex, 그리고 진실', 334쪽) 많은 여성들이 성교를 통해 오르가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오르가즘을 느끼는 체 하고, 또 스스로 불감증임을 난감해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자신을 문제성 인간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어 운동함으로써 질 근처의 근육이 당겨지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 오르가즘에 이른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너무나 미약한 논리일 뿐이다. 마치 그것은 "남성이 걸을 때마다 옷에 닿는 페니스가 자동적으로 자극받는 것과 마찬가지로"(같은 책, 333쪽) 정도의 자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성은 어떻게 오르가즘에 도달하나

즉 소위 '정상' 체위라는 자세로는 여성이 오르가즘에 이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정상'은 얼마나 남성중심적인 것에 여성을 끼워맞추려는 '우끼'는 발상인가. 오죽하면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으려면 성교를 하기 전의 행위인 '전희'가 충분해야 한다고 하겠는가. 자위를 할 때 여성은 전희를 따로 애써 하지 않고서도 훨씬 더 자주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말이다. 여성이 쾌락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하거나 쾌락에 대한 욕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진단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은 어디에서 쾌락을 얻는가? 어떻게 하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가?

"내가 즐기는 것은 로맨틱한 분위기입니다. 옷은 모

조리 벗어버리고 온몸을 만져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손으로 치골 근처를 눌러 달라고 합니다. 벗은 채 꼭 껴안고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분에 대해서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으로 자극하여 받고, 부드럽고 축축한 키스를 받으면서 손으로는 질을 자극하고 그 감각을 직장까지 느끼며 온몸을 깨물기도 하다가 페니스를 삽입시켜 치골 근처를 붙이고 성교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도중에 정신이 산만해지는 일도 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면 제일 신난답니다. 나는 온몸을 상대의 온몸으로 자극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 둘의 몸을 되도록 광범하게 터치하는 것입니다."

"손과 팔과 손가락으로 애무를 하고 포옹하고 계속해서 외음부를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그 다음은 혀를 사용하여 클리토리스와 음순에 자극을 가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성교를 하는 것이라면 역시 질에 페니스를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으로 자극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흔든다든가 움직일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코 서둘지 말고 오르가즘으로 진행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클리토리스 오르가즘을 얻습니다. 다음의 오르가즘은 보다 낮은 곳에서 느끼고 그 다음은 더욱 낮아집니다. 드디어는 성기 근처에 자극을 느끼고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외 운동이 차츰 격렬해지지 않으면 반응이 떨어지고 오르가즘을 느끼는데 방해를 받곤 합니다." (이상 같은 책, 354~355쪽)

개성 있는 쾌락?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쾌락을 음미할 수 있

는 것은, 성교라 했을 때 누구나 떠올리는 그런 고리타분한 고정된 순서를 밟아서가 아니다. 각자의 욕구에 맞는 방법과 분위기를 찾으면서 이를 즐기는 것이다. 질과 페니스의 접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맺고 있는 관계 깊숙히 잠재되어 있는 개성을 탐색하면서 그에 충실하는 것이다. 또한 쾌락에 대한 여성의 적극적인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오르가즘이 자동기계처럼 주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쾌락이든 이와 같다. 정해진 것은 없다.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것 또한 없다. 쾌락을 감지하는 세포와 감각이 몸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삶에서 얻는 쾌락의 질이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쾌락은 성기에 한정된 경박스런 말이 아니다. 그 안에는 무한한 우주와의 일체감과 관계의 목적함이 실려 있다. 그러나 그 전에 쾌락을 추구하는 욕구를 스스로 존중하면서 쾌락을 위한 마음과 몸, 관계를 준비하면서 이를 맞이하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당연하고 일정하며 정상적인 것으로 주어졌던 것들을 예전에 그랬듯이 암전히 받아먹기만 한다면, 자신만이 찾을 수 있는 고유한 쾌락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



이경미

이렇게 불행이다 못해 공황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정치적인 오염상황에서 우리의 쾌락은 과연 주장할만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삶을 희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삶을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하

나가 바로 쾌락이다. 쾌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선물의 하나이다. 쾌락은 혼자만의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관계를 깊게 하고, 나를 깊게 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더 이상 우리는 쾌락을 허술하게 보아 비하하거나, 스테레오타입에 스스로를 끼워넣으면서 자기가 아닌 상태에 고착되어서는 안된다. 시간이 얼마 없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도 모자라니까.



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목소리밖에 내지 않는가?
혹은, 왜 어머니로서의 여성들만이
주류에서 부각되고 있는가?

주부들에서 증명 논란이 되었던 문제의 민화 화면

청소년 보호나 표현의 자유나 그것이 문제라고?

PC통신망 달군 '아줌마 논쟁'

‘포 르노나 표현의 자유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들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포르노를 옹호하거나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상호배타적인 두쪽으로 갈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결코 포르노물, 음란물 규제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기본권의 문제이며, 동시에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열린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들은 '청소년 보호'에서 꼭 막힌 듯하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더 진전된 논의를 벌이는 것은 마치 우리 청소년들을 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방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최근까지 PC통신망을 뜨겁게 달구었던 '아줌마 논쟁'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월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국내 PC통신망이 발칵 뒤집혔다. 청소년보호법으로 과연 우리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는 실효성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여러가지 토론들이 벌어졌고, 척박한 우리 문화현실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억압이라는 항의가 격렬하게 제기되었다. 만화, 영화, 음악 등 각 문화영역과 관련된 동호회나 이용자들이 분개하여 나섰고, 적용 당사자인 청소년들도 PC통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와중에 가장 살벌한(?) 논쟁은 단연 '아줌마논쟁'이었다.

‘아줌마 소리 들어도 짜지’

'아줌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아줌마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그건 비하의 표현입니다)', '그럼 아줌마로 비하하는 것 적절합니다', '아줌마는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아줌마 소리 들어도 짜지', '빌어먹을, 비열한 아줌마들', '정말 무서운 아줌마들'...

이 험악한 말들은 당시 <YWCA는 만화/방송에 그만 좀 참견해라>라는 토론실에 등록되었던 토론글의 제목들이다. 3주 동안 1,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었던 이 토론실은 토론실 개설 이전에 여론광장(PLAZA)에서 가장 극단적인 입장으로 갈라졌던 YWCA의 매체심의에 대한 논쟁을 이어받은 것이었다. 개설 취지에서부터 YWCA의 활동에 대하여 적대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이 토론실에서, 다수 의견은 물론 그 활동에 대한 반대입장들이었다. 하지만 YWCA 당사자들과 주부동호회 등 '청소년 유해매체심의'를 옹호하는 입장들도 간간히 제기되었고, 결국 이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가장 극단으로 갈라진 두 의견들이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YWCA는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니다. 또한 YWCA와 같이 주로 '어머

니'로 구성되어 있는 여성단체들에서 행하는 '유해매체심의'는, 그간 적극적인 수용자의 의견으로서 호의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한때 보수적인 제도언론에 대항하는 수용자 운동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던 이들의 활동이, 왜 갑자기 이런 '부당한' 구설수에 오르게 된 것일까? 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아줌마'들이 적대세력으로 떠오른 것일까?

YWCA에 대하여 가장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낸 이들은 바로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은 YWCA에서 작성한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물'들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대단히 공격적으로!) 제기했고, '너희들은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항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사실 영리한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재빠르게 체득하고 있다. '경건하고 건전한' 공식적인 성담론과는 별도로 '빨간책'으로, 비디오로, CD-ROM으로 거대한 음란물시장이 존재하고 있고, 이 시장에서 청소년은 소중한 고객이다. 이런 재생산구조가 암묵적이고 뿌리깊은 유통구조를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지 말아야 할 만화리스트'를 제시받는 것은 '더 음란한' 공간은 그대로 둔 채 소박한 즐거움만을 제지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나마 숨막히는 입시경쟁 속에서 자그맣게 존재하던 습동을 막는 행위이며, 여기에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딱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짓말, 그들에게 부당한 처사인 것이다.

청소년들의 여성 혐오는 어디에서 오나

그러나 사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제기되었던 이 주장들도 분명 어떤 측면에선 부당했고, '청소년 보호'와는 다른 의미에서 편견에 차있다. 그것은 바로 문제의 '아줌마'라는 단어에서 드러난다. '아줌마'는 노골적인 여성혐오의 표현인 것이다. '아줌마들이 왜

어떤 특정 작품을 놓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람에 따라 작품에 따라,
꿈임없이 제자리에서 댄들 수 밖에 없는 논란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윤리의 문제이다.

나서냐, "사회활동하는 여자들은 가정에 문제가 많다
더라"는 주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사
회생활에 대한 선입견이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사
회화과정 속에서 이미 여성은 '집안에 있어야 하는 존
재'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청소년보호가 '아줌마'나 '유해매
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통찰하
게 된다. 이런 여성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들이 즉흥적
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여
성형은 기존의 사회관계를 반영한다. 사회의 왜곡
된 성관념과 성문화가 내면화되고 재생산된 것이다.

'아줌마'들은 청소년들이 잡지에서 보는 '성적 대
상'으로서의 여성과는 별도의 차원에 존재한다. 아
줌마들은 그저 집에 있어야만 하는 존재로서, 이들의 사
회진출은 기존의 사회관계에 위협적이다. 한편 잡지
에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여성들은 언제나 강
간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들의 진실과는 상관
없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여성들이 이런 두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온 것은 어
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분열된 정형화는 오랜
세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여성들을 규정해온 방법
이었다. 우리사회 성문화의 '진정한 건전화'는 '대중
매체의 정화'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아주 뿌리깊은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미 노골적으로 이중

적이다. 작년에 분명히 위헌으로 판명났던 사전심의
가 여전히 강제되고 있으며,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합법적으로' 상영되었
던 <레드 헌트>를 다시 심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
되었다. 공문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공진협)로
이름만 바꾸어 '실질적인 검열기관'으로 비젯이 존재
한다.

여기서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포르노의 문제로 좁혀지는 것이다. 등급의 전
용관이나 '음란한' 표현물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거부되어야 한다는 논
리가 그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작품을 놓고 이것이
청소년에게 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기 시작
하면 우리가 그 논의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
다. 사람에 따라 작품에 따라, 꿈임없이 제자리에서
댄들 수 밖에 없는 논란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기
가 어려운 문제가 바로 윤리의 문제이다. 과거 미국에서
도 포르노가 청소년에게 어느정도 유해한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두차례 수행했지만, 어느 조사에
서도 자명한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에서 벌어지고 있는 청소년보호의 주장들은 신뢰할만
한 자료 하나없이 '심증적으로' 모든 매체에 대한 유
죄판결로 일관하고 있다.

아줌마와 청소년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제 더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포르노
시비에 머무르게 두지 말자. 물론 정치적 상황에서,
사상의 자유에서, 성표현물에서 다층적으로 얽힌 표
현의 자유 문제가 청소년 문제라는 지점에서 걸려 있
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만이 아니다. 사실 무척
애매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계의 이런 모습은 방관이다. 최근 여성
운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활동은
모두 청소년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는 입장은 현상환에
서는 분명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이 있는 자들의
입장'이며, '마녀사냥'을 수행하는 편에 서있는 것이
다. 이러한 활동이 결국 페미니즘을 청소년들에게 외
면받게 할 뿐('아줌마 소리 들어도 짜지'라는 토론글
중에서)이라는 비판조차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이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성들은 표현
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해야 한
다. 왜 여성들은 '어머니'로서의 목소리밖에 내지 않
는가? 혹은, 왜 어머니로서의 여성들만이 주류에서
부각되고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다고 일컬어
지는 것은 바로 여성의 육체이며 여성을 대상화한 표
현물들이 아니던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
회활동을 하는 경제인인 여성들, 표현의 자유를 누려
야 할 시민이기도 한 여성들, 진정한 그대들은 어디에
있는가?

'아줌마' 논쟁은 이런 점에서 희망적인 결말을 보
여주었다.

위 토론기간 중에 주부동호회에서 특정만화의 종영
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분개한 토론자들이
해당 동호회로 물러가서 항의를 퍼부었음은 당연
하다.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현명한 이들에 의해서 대
화가 시작되었다. 서명을 벌이던 어머니들은 문화수
용자인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하게 되면서 '무엇이 우
리 아이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서명운동의 방향이 수정되었다. 특
정만화에 대한 종영이 아니라 만화등급제나 한국만화
살리기를 위한 쿼터제를 둘러싼 토론이 벌어졌고, 수
정된 입장에 대한 서명운동이 다시 벌어졌다. 물론 등
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
지는 잔존하지만('등급제'는 늘 '등급외'가 문제의 핵
심이다). 여기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와
배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어느 여성단체에 계신 분 주장처럼
모범을 벗어버린다고 우리 청소년이 인터넷의
음란물로부터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은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태도라
는 것을 알게 된다.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개인적인 소견을 조금 더 덧붙인다면, 우리 청소년
에게는 그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교육 속에서
배제되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
각이다. 방송이나 만화, 영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의
매체가 어떤 메카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파악하
게 하여 해당하는 표현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능력
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는 매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
재하는 '악한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우려나오는 저항
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여성단체에 계신
분 주장처럼 모범을 벗어버린다고 우리 청소년이 인
터넷의 음란물로부터 보호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
이다.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준 분들께 드리는 글〉

주부동호회의 특징 만화영화 상영철께 서명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만화영화를 사랑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히 어린자녀에 국한시켜 교육적인 차원에서만 평가했던 것으로 인해 만화영화 문화와 그 산업을 위한 부흥을 간과한 점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간 여러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은 성의를 가지고 정독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의 충심어린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저희 주부동호회는 기존 서명운동의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만화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과 좋은 말씀을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부, 그리고 본 동호회에 관한 일부 폭력적이고 인신공격성의 글들은 우리가 왜 이런일을 하는지의 이유로 남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순수 동기가 바로 그런 폭력성에 물들어가는 어린자녀들의 장래를 염려해서였기도 합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문화를 통해 바르게 자라서 바른 심성을 갖고 자신의 의견을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간 게시판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질문과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메일에 대한 답변을 이것으로 대신함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각자의 역할에 깊이가 더해질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부/동/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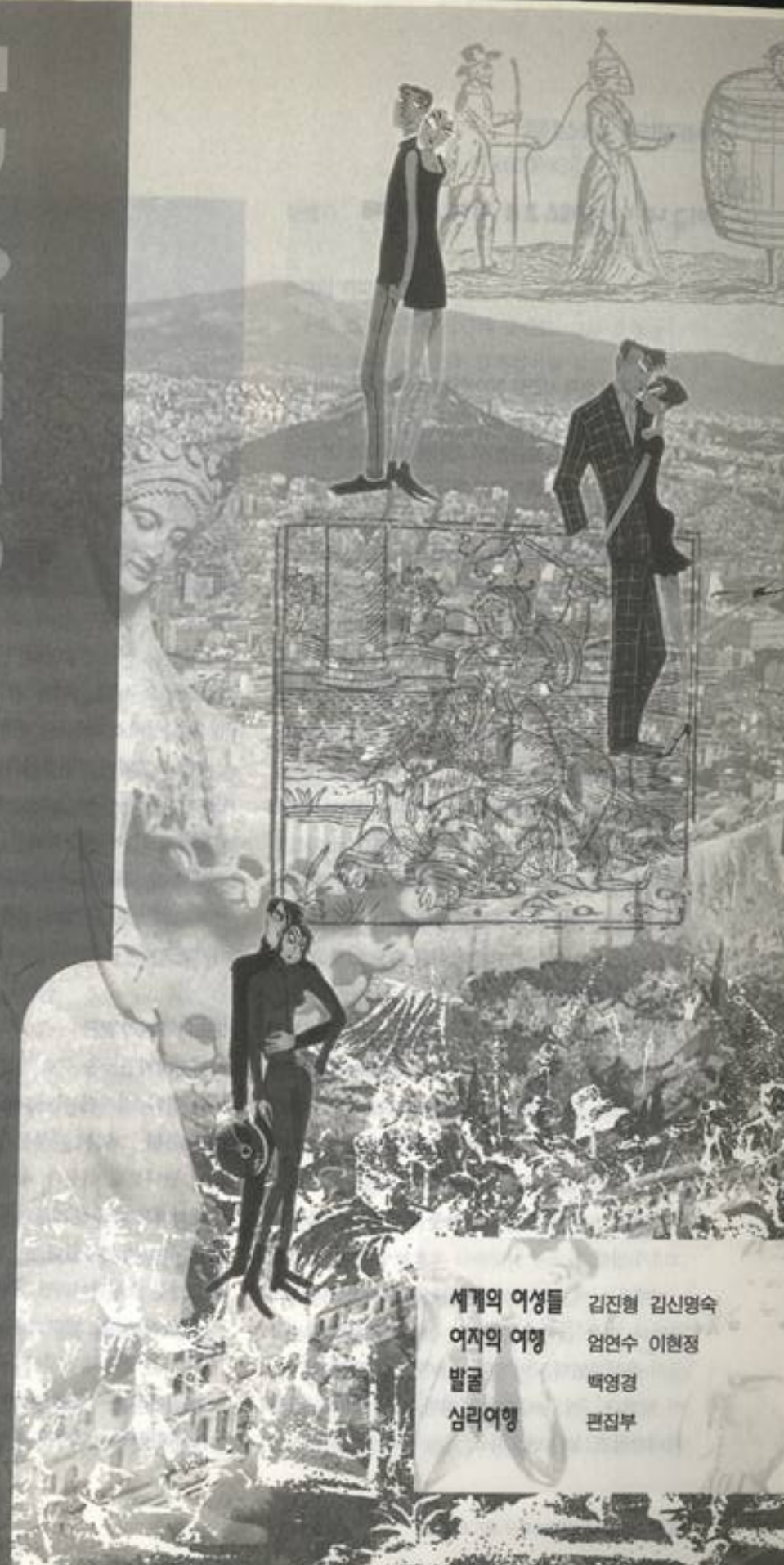
YWCA 주부동호회 게시물



장 여 결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통신연대))의 활동에 사고와 생활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전자우편 주소는 della@nuri.net이다.

세계의 여성들



세계의 여성들	김진형 김신명숙
여자의 여행	엄연수 이현정
발굴	백영경
심리여행	편집부

미국 내 남성애스코트 서비스 실태

미국에선 현재 시간당 300불의 남성애스코트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남성애스코트는 과연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까? 자신을 여성에게 대어하는 남성들을 해부하기 위해 미국의 한 여자가 세명의 남성애스코트를 만났다. 이프2호의 기획기사였던 '호스트바 잠입취재'와 연결해서 읽는다면 현대사회 변화하는 남녀관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부



“여 보세요, 파티에 같이 갈 남성이 필요한데요...” 전화 저편의 자넷이라는 여성은 수많은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내가 자넷의 애스코트 사무실을 찾아낸 곳은 전화번호부의 업종별 번호란에서였다. 자넷의 에이전시는 부유하고 국제적인 상류사회에 상품을 조달한다는 자부심으로 차있었다. 나는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에 파티에 같이 갈 적절한 남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넷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며, 사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는当场 그곳으로 갔다.

자넷은 20대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종교를 공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타자를 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필요했으니까요”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녀는 일년 넘게 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와 데이트하는 남성들은 아주 흥미를 보이죠”라고 그녀가 말했다.

자넷은 나에게 브라이언이라는 후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는 금발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브래드 피트 풍의 음악가였다. “마크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넷이 말했다. “지금 사진은 없지만, 키가 크고, 검은색 머리카락의 32살된 변호사죠.”

남자들은 시간당 300불이다. 하지만 이는 시간당 500불을 요구하는 여성애스코트에 비하면 싼값이다. “많은 남성애스코트들이 돈이 적다고 불평을 해요.” 자넷이 덧붙였다. “여성의뢰인들은 만족시키기 힘든 상대이기 때문에 여성애스코트보다 자신들의 일이 더 힘들다고 하죠. 여성의뢰인들은 까다롭고, 감정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죠. 남성의뢰인들은 그저 여자가 예쁘고, 날씬하고, 금발에 아주 아주 젊기만 하면 만족이거든요.”

마크와의 커피 헌전

여성의뢰인들은 주로 개성이나 성격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여성들은 상대방의 별자리까지 묻는다. 그리고 대부분은 실제 데이트 전에 한번 먼저 만나보길 원한다. 물론 나도 그러했다. 자넷은 관대하게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브라이언과 마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었다.

현명한 쇼피객이라면 당연히 그렇듯, 나는 좀더 시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나는 다른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어 다른 종류의 남성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이 전화를 받았고 그녀 역시 여러명의 적임자를 추천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손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는 187cm의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트레이너 출신 부동산업자인데 ‘할리 데이비슨’을 몰고 다녀요.” 손 역시 시간당 300불이었고,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사전 미팅은 150불이었다. 마리아가 덧붙였다. “그정도 가치는 있을 거예요. 그는 멋진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는 매력적으로 그을린 피부를 자랑하는 변호사 애스코트, 마크와 마주 앉았다. 그는 자넷이 말한 대로 크고, 검은 머리에 잘 생긴 남성이었다.

“남성애스코트는 멋진 일입니다. 대개의 여성들은 매력적이고, 지위도 있으며, 내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좋은 시간을 즐기죠. 많은 여성들이 공짜로 섹스를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싸구려 햄버거 같은 섹스죠. 만약 당신이 값비싼 고급 요리를 원한다면 그 값을 치워야죠.”

카페를 나올 때 갑자기 마크가 나를 붙잡고 키스를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건 고급요리의 무료식인가요?”라고 내가 물었다. “에피타이저용 철갑상 어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무료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난 남자고 당신은 여자니까.”

이런 세상에, 이 남자가 읽고 있는 애스코트 입문서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

브라이언과의 커피 헌전

브라이언은 아주 귀여운 남자였다. 하지만 내가 기대한, 숨을 멈추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사랑스러운 남자친구 스타일이었다.

“내 고객의 대부분은 남편이 멀리 있는 부유한 주부거나, 아니면 30대 또는 40대의 직업 여성들입니다. 대부분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 여자들과 어떤 일을 하나요?” 내가 물었다.

“파티에 가거나 그밖에 기타 등등.”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밖의 기타 등등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발

동했다.

손과의 커피 헌전

손의 실제모습은 사진과 달랐고, 그를 특징짓는 것은 진한 향수 냄새였다. 금목걸이를 하고 줄담배를 피웠다. 그는 잘 생기긴 했지만, 실망스럽게도 170cm에 불과했다. (나중에 듣기로, 여성고객들의 제1주문이 ‘큰 키’라 한다.)

애스코트서비스 회사를 가지고 있는 로렌은 “많은 남성애스코트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여자들을 만나는 것을 즐기죠.” 로렌의 리스트에 있는 남성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두 남자는 작위를 가지고 있다. 한명은 독일남작이고 다른 한명은 영국백작이다. 가장 어린 애스코트는 21살인데, 어느 관대한 부모가 딸의 학교 댄스파티 상대로 그를 고용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딸에게 그를 친구의 아들로 소개했다.

“심지어 결혼한 프랑스 남성애스코트도 있어요.” 로렌이 말한다. “데이트 전날 그의 부인이 전화를 걸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물어요. 그녀는 남편이 완벽하게 차려입기를 확인하려는 거죠.”

나는 손에게 그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다.

“내 일에서 20%만 여성을 상대하죠. 그 중에서 8%만이 대화를 원하고, 나머지는 섹스를 기대하고 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요. 그 중에서도 80%는 결국 나와 사랑에 빠지죠. 그런 사람들은 일주일에만 두번 전화를 해요. 심지어 몇번 만나고난 후,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요. 여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자들의 영혼은 사랑밖에 모른다니깐요.”

손은 영혼과 영적인 일에 아주 관심이 많았다. “애스코트 일을 하는 것이 나를 더욱 영적으로 만듭니다.” 그가 계속 말했다. “나는 세상의 허상들을 꿰뚫어볼 수 있어요. 게이섹스를 위하여 나를 고용하는 결혼한 최고경영자들 같은 허상 말이예요. 혹은 여자친



구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 나를 고용하는 척하는 남자들이 마친가치죠. 사실 그들은 자신의 동성에 경향을 알아보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인 손은 자신의 영혼이 모든 만남을 통해 확산되는 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그가 이 일로 벌어들이는 돈은 연간 20만불에 달한다. 그것도 세금 한푼 내지 않으며.

손의 강한 브루클린 악센트와 그의 방대한 성경험을 고려해볼 때, 나는 실제 데이트의 상대로 후보 1번과 2번만 시험에 올리기로 했다.

브라이언과 파티에 참석하다

나는 남자를 섰다. 나는 파티에 브라이언과 함께 가기로 한 것이다.

“긴장되는데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정말 내 남자친구인 척 할 수 있어요?”

“문제없어요. 내 팔을 당신에게 두르고, 그 외에도...”

“어쩔 지금 연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익숙해지죠.”

브라이언은 내게 팔을 둘렀다.

“괜찮아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일이라도 할거예요.”

요.”

“예를 들면, 나에게 키스라도 할 건가요?”

“뭐든지.”

단지 확인을 위해 나는 “그것도 지금 연습해보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키스를 했다. 나는 이 키스가 전략적이라는 걸 알기에 아무 느낌이 없었다. 호기심 이외에는.

“그럼, 내가 손을 여기서 두어도 괜찮아요?” 나는 손을 그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물론이죠.”

“여기는 어디요?” 그 순간 나는 브라이언이 게이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파티에 도착했다. 집주인인 데이비드는 브라이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나는 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샀다구요!!!라고 말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누구도 브라이언에게 눈길을 두번 주지 않았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과 어울렸다.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한 사람들은 사업, 투자, 여행 이야기를 했다. 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밤은 평범한 날이군요.” 브라이언이 나중에 내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열중해서 내가 의뢰인과 어떻게 만났는지 등에 대해 쓸데없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좋군요.”

브라이언은 말보다는 행동에 조금 더 충실했다. 그날 밤 내내 그의 팔은 나를 감싸안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지겨웠다. 그날 밤 그가 한 이야기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 과일을 그냥 먹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효소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였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나는 친구들에게 브라이언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들은 놀랐다.

“귀여운 남잔데, 하지만 그런 귀여움은 아니잖아.” 그들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약간... 지겨운 스타일

인데.”

파티가 끝난 후 나는 시간당 300불인 브라이언의 진정한 가치는, 알 수 없는 그밖의 것들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뿐이었다.

마크와의 저녁 식사

나는 시내의 식당에서 10명의 친구들과 함께 변호사 마크를 동반한 저녁식사를 마련했다. ‘엄마들이 좋아할 변호사’ 노릇을 마크가 얼마나 해낼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이것 봐요” 마크가 설탕 포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무정제 설탕” 그는 소리를 낮추어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정제되지 않은 날 것.” 나는 예의바르게 미소지었으나, 그의 말을 친구들이 듣지 않았나 조바심쳤다.

“화장실에 가야겠군요.” 마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음료들은 사는 게 아니라 잠시 빌리는 거니까요.” 나는 기분이 상했다. 나는 오히려 그가 나에게 시간당 300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크는 화장실에서 돌아오며 식당에 있는 우편엽서를 들고 왔다. “내가 생각하는 근사한 몸매를 보고 싶어요?” 그가 나에게 엽서를 건넸다. 그것은 스포츠카였다. “난 이런 차가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우리 데이트에 맘냄새 나는 지하철을 타고 왔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대화는 조금씩 나아졌다. 그는 나의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해외 뉴스에서 영화, 그리고 멋진 식사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손색없이 대화를 이끌어갔다. 끊임없이 떨어내는 성적인 언급들만 제외한다면, 그는 재치있는 사람이었다. 특히 식사를 주문할 때는.

“튀김요리를 주문하지 말 걸 그랬어요. 요즘 살이 찌서” 라고 내가 말했다.

“당신이? 살쪼다고?” 마크가 재치있게 말했다. “당

신은 아주 날씬해.”

그때 나는 그에게서 내가 지불한 300불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을 보았고, 남은 시간 내내 될 수 있는 한 많이 “당신은 아주 날씬해”를 반복하도록 했다. 그제야 돈을 쓴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시계를 보고 우리가 보낸 시간이 세시간을 막 지나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커피와 디저트까지 그와 할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는 갑작스럽긴 하지만 식사를 끝냈다.

“디저트를 먹기에는 너무 살이 찼어요”라고 내가 설명했다.

“당신은 아주 날씬해.” 마크가 충실하게 답했다.

그가 화장실에 갔을 때 나는 친구들에게 그의 정체를 밝혔다. 모두가 놀랐고, 그가 아주 잘 생기고 매력적이라 생각했던 수잔은 특히 충격을 받았다.

마크가 돌아오자 우리는 식당을 나섰다.

“이제 당신이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해볼까요?” 그가 말했다. 그러나 ‘안전히’라는 말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값비싼 ‘고급 요리’를 대접하려는 것이다. “혼자서 갈 수 있어요”라고 나는 말했다.

마크는 한대 얻어맞은 것 같은 얼굴을 했다. 나는 내가 상처 입힌 것이 프로테이트꾼으로서의 그인지, 스포츠카를 살 돈을 마련하려는 남자인지, 아니면 남성애스코트라는 직업에서 벗어나 멋진 남성의 생활을 꿈꾸는 방황하는 영혼을 가진 그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미국 10대 '소년엄마들'의 영아 살해

김진형(연합통신 문화생활부 차장)

영아살해 사건의 또다른 주인공은 대개 조용하고 성실한 우등생인 경우가 많다. 학자들은 영아를 살해하는 젊은 엄마들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스타일'의 '착한 소녀'라고 말한다.

요즘 미국은 엄마가 자기가 낳은 갓난아기를 죽이는 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으로 떠들썩하다. 악몽과도 같은 비정하고 참혹한 이야기들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10대 소녀인 레베카 린 호퍼는 외출 도중 산기를 느껴 급히 집에 돌아왔다. 호퍼는 정신없이 욕실문을 걸어잠그고 딸을 낳았다. 그리고 땀줄로 아기 목을 졸라 죽인 뒤 젖은 타월로 싸서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18세 동갑내기커플인 에이 그로스버그와 브라이언 페터슨은 출산이 임박하자 모텔방을 빌려 아기를 낳았다. 두 사람은 이 아기를 때려서 울음을 잠재운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덤프트럭에 내다버렸다. 그 작은 심장을 채울 공기마저 얻지 못한 갓난아기는 쓰레기봉투 속에서 질식사 죽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매년 거의 250여명의 아기가 이런 식으로 출산돼 강둑에 버려지고, 공항이나 쇼핑물, 모텔 등의 쓰레기통에서 발견된다. 숨겨진 사례까지 감안한다면 영아살해는 훨씬 심각한 사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모성애는 어디로 가고, 이런 엽기적인 살인 사건들이 일어날까. 왜 낙태나 입양 같은 좀더 그럴듯

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갓난아기를 죽이는 지경까지 갔을까.

새기말의 영아살해는 특별히 병적인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인종, 계층, 문화적인 배경에 상관없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여성들에게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17세였던 호퍼는 백인 중상류층 집안에서 성장했다. 또 그로스버그와 페터슨도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상류층에 속하는 집안 출신이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어리다고 표현해야 맞을 정도로 젊은(물론 결혼하지 않은) 10대 소녀들이 대개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것이다.

영아살해 사건의 또다른 주인공은 대개 조용하고 성실한 우등생인 경우가 많다. 학자들은 영아를 살해하는 젊은 엄마들이 '지나치게 규범적인 스타일'의 '착한 소녀'라고 말한다. 남들의 비위를 상할까 두려워하고, 주위의 의견과 생각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심초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임신사실이 발각될 경우 부모와 친구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에 빠진다는 것이다.

호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호퍼는 다른 10대 임신부들처럼 기를 쓰고 배를 가리고 임신사실을 숨겼다. 배는 불러갔지만, 부모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가족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

호퍼의 엄마는 나중에 "평소 호퍼가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았고, 위낙 체격이 크고 가슴, 허리가 따로 없는데다 옷 사이즈도 변하지 않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영아살해전공 범죄학자인 르 케네디 박사는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젊은 엄마들이 심한 정신분열증세를 보인다는 의견을 폈다. 이 여성들은 정신적으로 임신을 거부하기 때문에 엄마와 태아와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날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정신과 현실 사이에 큰 충돌이 생기면서

위기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린 펠트로우는 "10대 소녀들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그냥 임신상태를 지속한다. 그러다 출산의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출산 순간 여성은 전 인생이 위협받고 흔들린다고 느낀다. 그래서 자신이나 아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는 것이다.

출산법 및 정책 센터에서 일하는 프리실라 스미스는 "직업상 임신부들이 자해自害로 아기를 유산, 낙태시키는 사례를 많이 본다"면서 영아살해를 일종의 낙태로 해석했다. 뜻하지 않게 임신한 여성들이 아기를 유산시키기 위해 계단 아래로 몸을 던져 구르거나, 테레빈유를 마시고, 배에 총을 쏘는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영아살해가 이와 다를 게

무엇인가.

따라서 영아살해가 유죄나 무죄나에 대한 판단도 엇갈린다. 무죄로 끝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34년형을 받은 여성도 있다.

친구에게 아기 이야기를 했다가 말이 새서 체포된 호퍼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호퍼의 부모는 출산 당시 아기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면서 상급법원에 상소했지만 기각됐다. 그래픽을 공부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려다 꿈이 좌절된 호퍼는 교도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노래>라는 시를 지어 붙여놓은 자기 아기에게 바쳤다.

"너는 내가 살아가는,

또 죽어야 하는 이유이지.

난 중간에 꼭 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이구나.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는 것 뿐..."

‘걸 파워’로 세계 정복한 여성 5인조 팝그룹 스파이스 걸즈

김신명숙 편집위원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데올로기'는 이렇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재미있게 살고 찬란히 빛나라."

‘여자들에게 힘을!’
공격적인 걸 파워(Girl Power)를 기치로 내세운 영국의 신예 여성5인조 팝그룹 <스파이스 걸즈(Spice Girls)>가 폭발적인 속도로 세계 팝시장을 정복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워너비 Wannabe'로

데뷔하자마자 세계적으로 열광적인 인기를 모은 이들은 11월에 첫 앨범 스파이스 Spice를 낸 후 단번에 미국 빌보드차트 정상에 차지함으로써 팝계를 놀라게 했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팔린 이들의 CD는 무려 1,800만장. 이들의 싱글 '내 인생에 양념을 쳐라'(Spice up your life)는 현재 영국에서 차트 1위인 엘튼 존의 다이아나비 추모곡 '바람 속의 촛불'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11월 초에는 두번째 앨범 '스파이스 월드Spiceworld'가 나왔고 크리스마스 때는 이들이 출연한 영화가 극장가에 선보임과 동시에 이들의 모습을 본뜬 인형이 판매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다.

지난 11월 초 유럽MTV 시상식에서 최우수그룹상을 거머쥐기도 한 이 '폭 소는' 그룹에 대한 세계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타임지는 이들을 여자비틀즈라고



지칭하면서 '스파이스의 침공'이라는 제목 아래 3페이지에 걸쳐 소개했고 슈퍼제지도 비슷한 비중으로 이들의 놀라운 성취를 분석했다. 우선 스파이스 걸즈 멤버들의 면면을 보자. 제랄딘 할리웰(25), 붉은 머리에 색시한 분위기를 지닌 누드 모델 출신. '걸 파워'를 선봉에서 외치는 맹렬한 페미니스트다. 작년말 한 보수적인 정치잡지와 인터뷰에서 마가렛 대처 전 수상을 '첫번째 스파이스걸'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처는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멜라니 브라운(22), 거리의 아이로 자라났고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 멜라니 시슬름(21), 쾌활한 스포츠인으로 아디다스 바지를 즐겨 입는다. 빅토리아 아담스(22), 상류사회 출신으로 구치와 파라다를 즐겨 입고 전혀 웃지 않는다. 엠마 번튼(21), 멤버 중 가장 작은

155cm의 키에 유일한 블론드다. 5인5색의 강렬한 개성을 발산하는 이들이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키도 작고(155~165cm 사이) 특별히 뛰어난 외모를 가진 것도 아니다. 경쾌하고 가벼워 '비블 점 음악'이라는 평판을 듣는 이들의 음악도 전문가들에게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이 이처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일까? 영국을 비롯한 유럽,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태국, 싱가포르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도 수십만장의 음반이 팔렸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들이 던지는 '걸 파워'의 도발적인 메시지와 신세대 여성으로서의 상징성이 새로운 페미니즘의 폭발력과 결합했기 때문인 것 같다. 지난 4월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던 스파이스걸즈는 모토인

걸 파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여성들의 반란을 뜻하는 걸 파워는 페미니즘과 에로티시즘을 합친 것이다."

걸 파워란 '모든 여성은 남성들에 의해 고안된 규정에 자신을 맞추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데뷔앨범에는 '과감히 실천하는 여자는 승리한다', '미래는 여성적이다' 혹은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소리지르는 일은 재미있다' 등등의 도발적인 문구가 쓰여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걸 이데올로기'는 이렇다. "인생은 짧다. 그러니 재미있게 살고 찬란히 빛나라." 한 마디로 이들의 주장은 자유와 재미를 교훈으로 하는 신세대 여성의 새로운 페미니즘 조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내 멋대로 살겠다'는 이들의 행동은 정말 제멋대로다. 찰스 황태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는가 하면 자신의 자위구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코딱지를 파서 책상 아래로 땡기기도 한다. 화분에 오줌을 싸거나 상스러운 말을 자주 입에 올리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다섯 명의 짓궂은 말쑥함이 기존의 여성상을 강그리 깔아놓는 반란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지난 15년간 마돈나에 의해 저절러진 끊임없는 도발로 스파이스 걸즈에 반대되는 이미지의 여성, 즉 얌전하고 수줍음 타며 순종적인 여성은 젊은 여자들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도외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파이스 걸즈 같은 여성상이 주류로 등장한 셈인데 이런 상황이 바로 스파이스 걸즈의 놀라운 성공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스파이스 걸즈는 여러가지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예

고하고 있다.

우선 그녀들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성그림을 누를 수 있는 여성그림의 퍼력을 여지없이 보여줬다. 또 기왕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여성팬이 열광하는 여성그림'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과거 포인터 시스템즈나 슈퍼스, 바나나라마 같은 여성보컬그룹이 타겟으로 공략했던 층은 나이든 남성들이었다. 여성들은 여성보컬에 질투나 보내지 박수를 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스파이스 걸즈와 매니저는 처음부터 여자들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연대를 바탕으로 출발했다. 이들이 목표로 한 10~15세 사이의 소녀들은 사실 남자와의 관계보다는 자기들끼리의 관계에 더 몰입해 있기 때문에 스파이스 걸즈는 그들 사이에 급속도로 파고 들 수 있었다. 십대 소녀들은 독립적이고 활달하며 성공적인 여성모델을 원하고 있었는데 그 필요를 스파이스 걸즈가 채워줌으로써 둘 사이의 연대는 확고해졌다. 요즘 10대 소녀들이 원하는 것은 포르세를 탄 왕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포츠 카를 모는 것이다.

지금 스파이스 걸즈는 세계 10대 여성들의 최고 우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런던에서든 싱가포르에서든 뉴욕에서든 소녀들은 스파이스 걸즈 CD를 사거나 캐릭터 상품을 사면서 똑같이 '걸 파워'를 과시해 새로운 페미니즘의 시대정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는 말이 결코 헛서비스나 꿈이 아님을 스파이스 걸즈 신드롬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IF**

“다른 여자를 향해 미소 지어라”

겁없는 성연구가 셰어 하이트 새책 출간

김신명숙 편집위원

엄마들은 딸 앞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숨기고 웃도 베풀지 않는다.
또 자신의 은밀한 생활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는다. 그 때문에 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여자 앞에서
그것을 숨기게 된다.

미국의 성생활을 연구한 하이트 보고서로 유명한 미국의 성연구가 셰어 하이트(Sherie Hite)가 지난 10월 독일에서 새 책을 내놓았다. 제목은 『여성은 여성을 어떻게 보는가』.

그녀가 미국에서 하이트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사회의 반발은 대단했다. 보고서 내용이 여남간의 기존 성관계에 대한 통념을 뿌리째 뒤흔드는 전복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미국여성의 95%가 남편에게 성적으로 학대당한다고 느낀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으며 남자와의 섹스보다 훈련된 자위기술이 여성에게 더 만족스런 오르가즘을 가져다준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격분한 뉴욕타임즈는 그녀의 보고서를 ‘사회과학 픽션’이라고 몰아붙였고 수많은 비평가들의 혹독한 비난과 조롱이 뒤를 이었다. 결국 그녀는 망명길에 오르듯 미국을 떠나 연하의 독일남자와 결혼한 후 독일에 정착했으며 쾰른과 파리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회고도에게 쫓기는 ‘악마의 시’의 작가 살만 루시디에 비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새 책에서도 역시 남자들이 보면 불쾌함을 느낄 여러가지 ‘낚시’ 주장들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다. 남자들은 여자를 서로간에 질투하고 샘이나 내는 존재라고 여기고 싶어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최근 하이트의 모습(사진 슈퍼젤).

마초들의 환상적인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 여자들의 경제적 독립이 급증하면서 그녀들은 점점 더 여자들 사이의 우정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여성사이의 관계를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의도하에 쓰여졌다고 한다.

그녀는 지금까지 여성끼리의 관계에 ‘거리’와 ‘불안’이 존재했던 이유를 모녀관계에서 찾는다. “엄마들은 딸 앞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숨기고 웃도 베풀지 않는다. 또 성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고 자신의 은밀한 생활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는다. 그 때문에 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성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다른 여자 앞에서 그것을 숨기게 된다.”

그렇다면 기왕의 여자들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하이트의 조언은 이렇다. “아주 가까운 여자친구와 목욕을 같이 하라. 그녀의 머리카락과 얼굴과 손에 키스하라. 다른 여자를 향해 미소지어라.”

이런 그녀의 제언에 대한 독일사회의 반응은 어떤까? 슈퍼젤지는 이렇게 비아냥거렸다. “겨우 물리치료사나 그녀의 제안을 듣고 기뻐할 것이다. 여자친구에게 발마사지를 해주거나 머리와 어깨를 마사지해주세요, 하면서...” 역시 사회와 남자의 조롱은 겁없는 그녀의 운명인 모양이다. [1]

‘위대한 여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 상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여신들



우리는 종종 뱀과 여신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뱀하면 암흑세계의 상징이고 여신을 유혹해서
우리에게 열정을 심어준 사랑한 동물이건만 여신
고대 여신들 앞에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지 알고 싶었다.

이코노모프는 유라시아 전역에 하데나 여신상을 합성했다.



남서쪽에서 바라본 아크로폴리스(왼쪽).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잊었게(?) 포즈를 취한 필자들. 왼쪽부터 엄연수, 이현정(오른쪽). 아테나 여신상의 복원도(아래).

지금은 흔적만 겨우 남아있지만

파르테논 신전 앞에는 12미터나 되는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단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그 여신상은 얼굴, 손, 발이 상아고 눈동자는 보석으로

장식했으며 황금으로 된 긴 치마와 메두사 머리가 새겨진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세상은 카오스로부터 형성되었다. 카오스에서 대지의 어머니 가이아가 나왔다(최초의 존재는 여신이었군). 가이아는 아들 우라노스를 낳았고 그와 관계하여 티탄들을 낳았다. 그중에는 크로노스와 레아가 있었다. 제우스는 어머니 레아를 강간하고... 다시 그의 누이인 헤라를 강간하였다(고상하게 번역한 책에서는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겠지만 '강간했다'가 더 적합한 말이겠지). 제우스는 메티스를 임신시키고 그녀를 삼켜버렸다(제우스가 근친강간과 가정폭력의 원조였구먼)... 그리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아테나가 나왔다.”

돌아와 생각해 보면 이 여행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테마 배낭여행 기획안 공모전에 당당하게 당선돼 공짜로 여행 한번 하겠다는 야심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계획이 산산히 무산되고나서도 우리가 택한 테마 '위대한 여신'은 머리 속에서 영 떠나질 않았다. 강력한 여신은 모권제 문화의 반영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초역사적인 가부장제의 보편성, 일반성을 뒤엎을 수 있는 단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아니 다 집어치우더라도 여신이 우릴 부르는 것만 같았다.

그러니 어찌 여신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으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를 당선시켰다. 시간이 넉넉하지도, 여비가 풍부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보다 많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안고 그렇게 우리는 미련없이 떠났다. 그때 여신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곤 다음과 같다.

1. 신석기, 청동기 초기 예개해 지역에서 여신은 최초의 신으로 인간의 생명과 곡식을 지배하였다.

2. 북쪽에서 온 침략자들은 남신을 숭배하는 그들의 종교도 가지고 왔다.

3. 여신 종교와 남신 종교는 혼합되었고 점차 권력을 쥔 침략자들의 남신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남신이 여신을 살해하거나 강간하는 것으로 신화에 표현되거나 여신이 남신의 누이나 연인의 지위로 떨어졌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신화는 고사하고 서양사와 지리에도 감감했으니 여행 내내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오죽하면 이스탄불(터키)과 크레타 섬(그리스)이 부산과 대마도만큼 가까운 줄 알고 비행기 샅이 싸다는 이유로 이스탄불행 왕복티켓을 끊었겠는가.

이스탄불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짧게나마 이스탄불에 관한 수다를 털어야겠다. 여행 첫날, 자정을 넘겨 도착한 이스탄불 공항에서 예약한 숙소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은 택시밖에 없었다. 그런데 택시 미터기는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액수

로 뛰는 것이다. 아무리 심야할증이 붙는다고 하지만 겨우 25분 정도 왔는데 미터기 요금은 2,400,000으로 나왔다. 저 액수에 '원'을 붙이면 240만원인데 설마 그럴 리는 없고 도대체 얼마인지 불안했다. 짧은 영어지만 친절하게도 기사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한 뒤, 20달러를 달란다. 환율에 대해 전혀 감이 없었기 때문에(가이드북은 전혀 도움

이 안됐다. 그새 또 환율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달라는 대로 줬는데, 나중에는 뒤에 있는 1,000을 떼고 나머지 숫자에 5.5를 곱하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을 터득하고는 스스로 너무 호뭇해했다.

참! 이스탄불에서 받았던 엄청난 시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아무리 더위도 노출을 자제했는데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거나 끈적한 인사를 던지는 남성들이 참으로 많았다. 처음엔 미적 감각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거리에서 마주친 터키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눈, 코, 입만 간신히 내놓고 커다란 스카프로 얼굴을 감싸고 온몸을 꼭 덮는 긴 코트를 입고 다녔다. 거기에 차가운 무표정, 이란의 이슬람전통 부활 운동에 터키도 영향을 받은 것이란다.

분명 터키여성에게겐 노골적인 시선도, 농담도 못 건네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와 보이는 외국여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다. 터키남성들의 넘치는 친절함, 관심을 외면하려면 우리도 터키여성들처럼 무표정하게 다니거나 때론 험한 인상까지 써야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15살 정도밖에 안돼보이는 한 소년이 다가와 우리에게 "You are so sexy!"라고 말을 붙였다. 우리가 "Thank you, but we're married." 그랬더니 그 소년이 하는 말이 걸작이었다. "No problem"이라니!

아무튼 우리는 여신을 만나고픈 마음에 부지런히 아테네행 비행기티켓을 구해 이스탄불을 떠났다. 도시 아테네에 대한 첫 인상은 터키인들(검은 눈, 갈색 피부)과는 인종이 다른 이들(푸른 눈, 하얀 피부)이 살고 있고 그들은 모두 매우 바쁘고 차가와 보인다는 거였다. 간신히 쉼 숙소를



거인과 싸우는 아테나

찾은 다음, 우리는 국경을 넘느라 지친 몸을 쉬면서 아테나 여신이 수호하는 도시에 드디어 도착했음을 감격해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크로폴리스로 갔다. 수학여행을 온 듯한 유럽아이들 틈에 섞여, 팔자 좋게 그늘에서 낮잠을 즐기는 개들 사이사이로 언덕을 올라 가니 와아! 탄성이 절로 나왔다. 돌 무더기만 잔뜩 쌓여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맑고 선

명한 하늘 밑에 웅장한 파르테논 신전이 딱하니 서있었다. 파르테논은 '처녀의 신전'이라는 뜻으로 아테나 여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이다.

지금은 흔적만 겨우 남아있지만 이 신전 앞에는 12미터나 되는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다.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그 여신상은 얼굴, 손, 발이 상아고 눈동자는 보석으로 장식됐으며 황금으로 된 긴 치마와 메두사 머리가 새겨진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화려한 아테나를 상상하느라 피약 났을 때 살이 타는 줄도 몰랐다.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아테나는 여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남신들에게 적극 협력한 반동적인 여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수호자로서 추앙을 받은 아테나의 모습과 가부장제의 착한 딸 역할을 한 모습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테나의 고뇌가 짐작되기도 하고 신화를 기록한 이들(더 정확히는 남성)이 그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가져보면서 박물관으로 향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남아있는 아테나상은 뱀이 머리를 휘감고 있는 모습이었다. 뱀으로 장식된 머리는 지혜를 상징한다는 데 다른 한편으로는 아테나의 뿌리를 짐작



인류에게 일을 전해주는 데미테르와 코레



코레

케 했다. 즉 아테나가 더 오래 전에는 어머니 메티스와 동일시되었고, 메티스의 다른 이름은 메두사이므로 고곤(머리가 셋 달린 뱀, 그 머리들 중 하나가 메두사다)으로 표현되는 '위대한 여신'의 한 측면이 오랜 세월을 거쳐 아테나여신으로 분화, 발전되었다고 추측해볼 수도 있다.

우리는 점점 뱀과 여신의 관계가 궁금해졌다. 뱀하면 암흑세계의 상징이고 이브를 유혹해서 우리에게 원죄

를 심어준 사악한 동물이건만 여해서 고대 여신들 옆에 그토록 자주 등장하는지 알고 싶었다. 아크로폴리스뿐만 아니라 아테네 국립박물관에도 뱀을 죽이는 남신과 영웅들의 모험을 조각한 부조들이 많았는데 여신들이 몰락하는 과정을 암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내내 편안하지가 않았다. 헤라클레스는 가이아여신의 황금 사과나무를 지키는 뱀 라돈을 죽였고, 아폴론은 가이아 신전을 수호하는 뱀 피톤(가이아의 자식이다)을 죽였다. 아폴론은 이에 대해 사죄하는 뜻으로 뱀을 장사지내주고 그를 기리는 경기를 개최했다고 한다. 여성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건대 그것은 여신의 신전을 파괴한 침략자들이 민심을 일자 토착적인 여신 종교를 가진 백성들에 대한 유화책을 쓴 것이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여신의 뱀'이라는 화두를 가슴에 품고 추리를 해나가듯이 여행을 해야 했다.

아크로폴리스박물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수히 많은 코레여신상이었다. 신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한 코레는 작고 어린 소녀였는데 뜻밖에도 고고고불한 머리칼을 빨간 꽃꼭지 위로 몇가닥 길게 늘어뜨린, 왠지 관능적이고 건장하기까지한 모습이었다. 코레는 페르세포네라고도 불리며

대지의 여신 데미테르의 딸이다. 코레가 지하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자 데미테르는 슬퍼하면서 딸을 찾아헤맸다. 딸이 지하에 갇힌 것을 알고 데미테르는 분노하여 땅에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코레는 마침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반드시 일년 중 몇달은 지하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했다. 코레가 지하에 머문 그 몇달은 겨울이 되고 코레가 돌아오면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돌아 봄이 되었다고 한다.

계절의 변화와 여신을 연결시킨 이 신화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만날 수 있었다. 여신을 숭배하는 곳에서는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등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즉 겨울은 봄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후에는 재생이 잇따른다. 코레가 일년 중 몇달을 지하에서 보내는 것도 겨울 동안 씨앗을 보관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생명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비하는 죽음, 창조를 위한 파괴를 더욱 찬양하는 옛날 사람들의 사고는 우리에게 낯설었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색다른 음식을 맛보는 것이다. 우리는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지친 뇌와 다리를 쉴 겸, 휴미진 곳에 있지만 사람이 비글대는 식당을 찾아갔다. 가이드북에서 적극 추천한 무사카와 스블라키를 시켰는데, 웬 음식들이 그리도 짜고 맛이 없는지. 스펀지 조각처럼 모양은 그럴싸한 무사카는 느끼하기 그지없었고, 길다란 꼬챙이에 얹은 고깃조각을 층층이 끼워 그릴에 구운 스블라키는 노린



신석기 여신상



항로를 들고 있는 여사제, 산토리니섬에서 나온 벽화. 눈과 귀가 붉고 항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종교적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내가 진동했다.

하지만 절대 그리스 음식이 맛있다고 판단하지 마시라. 우리가 찾아간 그 집은 뜨내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숨겨진 집이었을 뿐이다(근데 아테네에서 먹은 음식들은 대체로 다 맛이 없었다). 마치 버스터미널 앞 식당처럼, 나중에 관광지를 벗어난 곳에서 다시 맛본 무사카와 스블라키는 거의 환상적이었다. 무사카는 입에서 살살 녹고 그릴에 구워 기름기를 제거한 스블라키는 무척 담백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한번 맛보고 포기하지 말고 몇번이고 다시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같은 요리라도 하는 이에 따라서 그 맛은 천지차이니까.

세상은 넓고 휴가는 짧으므로 우리의 여행은 강행군일 수밖에 없었다. 짧은 휴식을 취한 다음, 곧바로 아테네국립박물관으로 향했다. 이 박물관은 두번 놀랄 일이 있는데 먼저, 각 전시실마다 콕콕 채운 소장품들의 엄청난 수에 놀라게 되고, 그 다음엔 그 박물관의 수수함에 놀라게 된다. 전시품들 옆에 붙어 있는 연대와 출토지역을 알려주는 명찰표는 한번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운 흔적이 남아 있는,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 많으며 그 중에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었거나 잉크가 번진 것도 수두룩했다. 오히려 그런 명찰표들이 소박하고 사람 내음이 나서 아크릴판 위에 기계로 찍은 것보다 더 좋았다.

이 박물관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신석기시대 여신상이었다. 바이올린 모양을 한 것에서 좀더 사람의 형태에 가까운 것에 이르기까지, 거의 평면적이고 단순한 모습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단순함이 현대의 추상조

각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세련돼 보였다. 신석기 시대 그리스 전역에서 숭배되던 이 여신은 이름도 없이 그냥 '신'이라고 불렸을 테고, 집안 구석 어디쯤에 또는 마을의 작은 동굴에 소박하게 서있었을 것 같다. 우상화, 신격화하는 거리가 먼, 무박하면서도 거



미케네 반지. 나무 아래 여신이 앉아 있고 하늘에는 미케네 시대 여신의 상징인 양날 도끼가 떠 있다. 여사제들은 신성한 백합을 들고 종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수식어가 함축하는 모든 미덕을 담은 조각상보다는 진흙으로 빚은 소박한 신석기 시대 여신상들에게 더 정이 갔다. 신에 대한 인간의 상상을 제한한 조각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보는 이를 압도하는 커다란 대리석조각보다는 아무리 커야 두

우 인간의 형상을 갖춘 그 여신상들은 우리에게 묘한 떨림을 주었다. 온갖 제물을 갖다바치면서 떠받들어야 하는 신이 아닌,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에나 존재할 것 같은 푸근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미노아문명이 꽃핀 크레타섬과 산토리니 섬에서 출토된 벽화들과 미노아문명에 영향을 받은 미케네문명의 눈부신 황금장신구들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를 빌어 얘기하도록 미루어두겠다.

아무렇게나 늘어놓은 듯한 대리석 조각의 방은 대중 훑어보기만 했다.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서는 그런 대리석 조각들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는데, 이제는 지천으로 널려 있어 별 감흥이 일지 않았다. 워낙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우아한 옷을 멋지게 걸친 예쁜 조각상들이 점점 느끼해졌다. 특히 무슨 무슨 장군이 랍시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한손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위압적인 조각들은 쳐다보기도 싫었다. 돌덩어리를 가지고 저 많은 주름을 어떻게 다 만들었을까 싶어 놀라기도 하지만 "그리스 조각 같은"이라는

시대 여신상들이 더 신의 모습에 가까워 보였다.

아테네에서는 가부장제에 길들여져 '위대한 여신'의 힘을 잃은 예쁘지만 한 여신들을 만날 것이라는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당당하고 힘있어 보이는 여신들의 존재함을 보게 되니 아테네에 너무 짧게 머물기로 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우린 다음 여정을 위해 발길을 케로폰네소스반도로 옮겨야만 했다. 이프 다음호를 기대하시라! 11

엄연수 이현정

이번 여름 지중해에서 '위대한 여신'들을 만나고 온 결과 더욱 더 전투력이 향상된 두 사람은, 여신종교를 파괴해버리고 파괴의 흔적조차 지워버린 가부장제의 음모를 파헤치는 탐정놀이를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사납고 함성 여신이 뿜어내는 엄청난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싶어사이다. 슬픈 메두사의 머리와 웅장한 아프로디테를 잊지 못해 또다른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이 둘은 여성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서 중립부진 활약하(려고 하)는 '히스테리아'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사리바리를 묘사한 풍속화. 남자를 모욕하는 여러가지 상징물 중에 '가위'도 보인다.

근대초 유럽의 '수다쟁이 여자 길들이기, 쪼다 남자 벌주기'

흔히 '여성상위시대'를 거론하며 남녀의 지위가 사회적인 관심의 전면에서 등장한 것은 현대에 와서이며, 현대의 여성들만이 (세상이 망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분수를 모르고 제 본분을 잊고 아우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꼭 다르다.

언제나 적지 않은 숫자의 남성과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듯, 이들을 사회가 원하는 남성과 여성의 '체자리'에 붙들어 매어놓기 위해서는 상당한 강제가 필요했다. 특히 근대가 시작하던 무렵에는 (현대사회나 마찬가지로) 사회가 급격히 변화해서 기존 규범의 설득력이

약해질 때, 이에 따른 남녀간의 관계를 사회적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단속하려는 힘도 강해졌던 것이다. 현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마을의 주민들이나 도시의 거주민들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도덕성과의 전쟁'에 나섰다라는 점일 것이다.

말 많고 남자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자에게 대해서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입을 봉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욕설이나 위협이 아니라 약 300~400년 전 서유럽에서 실제로 가해진 처벌이었다. 근대 초기 자본주의경제가 발전하면서 상공업활동에서 여성들 역시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벌였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 성경읽기 교육이 강화되면서 여성들 가운데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특히 프로테스탄트국가에서는 여성설교사까지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자 변화하는 여성의 이미지는 공포의 대상이요, 모든 사회적인 악의 주범이라고 지목되었다. 당시 서유럽은 인구증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너무 많이 들어 올릴 지경인 이야기대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남편을 받들어 섬기지 않아 주눅들게 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진 여성들의 탓으로 돌렸던 것이다.

욕쟁이, 잔소리꾼 여자를 처벌하는 담금의자

주어진 위치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불만을 피들어대는 여성들은 '욕쟁이/잔소리꾼'이라 불렸는데, 이런 종류의 여성들이야 어느 특정한 시기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지만, 근대 초에는 처벌의 대상이었고, 따라서 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악의 근본으로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욕쟁이/잔소리꾼을 지목해



담금의자

서 고발을 하고 처벌과정을 지켜보며 그 집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일반주민들이지만, 처벌여부를 가리는 것은 사법기관의 몫이었으니, 그야말로 정식 형벌이 행해졌던 것이다.

16세기부터는 각 마을에서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사항 가운데

이 욕쟁이/잔소리꾼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의자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잘 관리해두는 것이 들어 있었다. 그럼에서 보듯이 강가나 연못가에 만들어진 시소같이 생긴 이 '담금의자'는 각 지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기본은 욕쟁이/잔소리꾼으로 고발된 여성들을 앉혀서, 물에 담갔다 건졌다 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였다.

하필이면 왜 이 욕쟁이/잔소리꾼들을 처벌하는데 물에 담갔다 뺐다하는 의자가 처벌에 사용되었을까? 그것은 '자궁'이라는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을 몸에 가지고 있어서, '감정적이고 성적 욕구를 통제하기 어려우며 불같이 화를 잘 내고 말이 많은' 여성들의 뜨거운 성질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에 담그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도구는 모든 작은 마을마다 각각 갖추기에는 값도 비쌀 뿐 아니라 나무로 만들어진 특성상 막상 쓰려고 할 때에는 썩어서 못 쓰게 되곤 하였다. 따라서 작은 마을에서는 담금의자를 사용하는 대신에 벌금을 물려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잔인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는 담금의자만큼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욕쟁이/잔소리꾼의 고삐'라고 불렸는데, 고삐는 나무나 가죽, 쇠 등 여러가지 재질로 만들어졌으나 혀를 고정하여 말을 못하게 하는 쇠붙이가 달려 있었다. 벌을 받은 여성들은 이 고삐를 쓰고 거리를 행진해야 했다. 지역

에 따라서는 몸 전체가 들어가는 크기의 새장 같은 조롱이나 통을 쓰고 행진을 하도록 했다.

여자의 '불같은 자궁'을 다스려라!

물론 이러한 처벌의 의도는 당사자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반성을 하고 체제에 순응하도록 하려는 것이었겠지만, 현실은 반드시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았고 따라서 이러한 처벌의 실제 효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욕쟁이/잔소리꾼들은 보통 남편에게 대들거나 욕하고, 남편을 때리는 등 집안 내에서 말썽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간에 싸움을 붙인다든가 남의 밭을 갈아엎어버리든가 하는 동네싸움을 일으킨 경우도 많았다.

이 부류의 여성들의 특징은 벌을 받아도 자신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자기확신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반성할 줄 모르는 확신에 찬 언동이야말로 여성으로서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의해 욕쟁이/잔소리꾼으로 일단 지목돼 이 벌을 받기 위해 담금의자에 오르거나 나면, 벌받는 사람은 반성을 하기보다는 악에 받쳐 저항을 하기 일쑤였다.

16세기의 한 기록에 따르면, 당시 벌을 받은 욕쟁이/잔소리꾼이 "담금의자에 앉은 한시간 이상을 평소보다 더 거칠고 막대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벌을 받은 이후에도 복수심에 불타 또다른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다. 18세기 초, 함께 싸

우던 두 여자가 욕쟁이/잔소리꾼으로 몰려 법정에 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처벌을 피하게 되자 혼자 처벌을 받은 여자가 불만을 품고 결국은 상대 여자를 '담금의자로 끌어내 강물 속으로 7차례 이상을 담갔다 건졌다 하기를 반복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말이 많고 집안싸움이나 분란을 일으킨 경우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것은 여성들뿐이라는 사실이다. 남성들의 경우라면 이런 일은 그저 성격이 나쁘다거나,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것쯤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아내에게 얻어맞는 남자 망신주기

그러나 남성들 역시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남성들의 경우, 집안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자기 아내에게 쪼여산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든지, 어쨌든 다른 어떤 이유로라도 남자기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을사람들이 몰려가서 소란을 피우며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길들이려고 했다.

샤리바리(charivari)나 스킴팅(skimmington)으로 불려지던 이 풍습은, 그러나 여자들에게 가해지던 처벌과는 달리 공권력이 인정한 것이 아니었으며 대부분은 당국이 원치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내에게 맞은 남성들, 바람난 아내를 둔 남성들, 집안에서 아내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남성들은



'욕쟁이/잔소리꾼'을 벌주는 고삐와 통(胃). 당시 '여성상위'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보여주는 목판화(아래).



‘사회적 기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근대 초기의 정치이데올로기는 국가에서 국왕의 위치와 가정에서 가부장(아버지/남편)의 위치를 동일시하는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길들여 여자들의 버릇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들도 위협해두는 것이 이 샤리바리나 스키밍턴 의식의 목적이었다.

이 의식은 지역에 따른 차이는 물론 있으나 보통, 북이나 냄비, 항아리, 쇠붙이 등을 두드려 시끄러운 소리를 내거나 음이 안맞는 음악을 연주해가면서 얼굴을 가린 때거리가 고향을 지르며 목표대상이 되는 사람의 집에 물러가는 것으로 시작했다(245쪽 그림 참조).

시끄러운 음악은 순리에 안맞게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뒤바뀐 가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간통을 저지르거나 남편을 때리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여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여자는 모두 순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행렬 가운데는 보통 말 위에 말꼬리를 바라보며 거꾸로 탄 남자역할이 등장했다. 이는 그 남편의 행동이 말을 거꾸로 타듯 전도된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말에 여자역할을 하는 사람이 같이 타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내임이 분명한 이 여자는 말 위에서 막대기나 국자로 남편 역을 때리곤 하였다. 그렇게 행진을 계속하여 목표가 되는 집에 도달해 문제의 부부를 잡아들이면, 실제 남편을 말에 거꾸로 태워 거리를 돌아다니고 아내는 담금 의자에 앉혀 망신을 주는 것으로 이어졌다.

뿔피리는 간통의 상징

행렬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뿔을 쓰고 있거나 뿔피리를 부는 경우에는 샤리바리행렬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간통을 저질렀음을 상징한다. 서양문화 어디에서나 뿔이나 뿔피리는 간통을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 당시 핵가족과 일부일처제가 사회적 인 규범으로 강조되면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간통을 막고 여성의 정조를 지키도록 하는 문제는 귀족부터 일반 농민 누구에게나 더 할수없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고분고분하고 여자다운 여자란, 우선적으로 정조를 지키는 여자였다. 따라서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경우, 남편은 ‘남성성’을 잃은 것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당시 속어로 이 경우 “뿔을 잃었다”고 하면 아내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좁은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평판이란 그 사람의 값어치와 직결되는 것이었고, 따라서 남자가 남자다움을 지키지 못해 평판을 잃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중의 조롱거리가 되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샤리바리나 스키밍턴행렬은 당시 굳어져가고 있던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관념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샤리바리나 스키밍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필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때로 이들이 무죄라고 해도 상관은 없었다. 이러한 행사는 대중들이 즐기는 축제 행위와 “도덕성과 규율을 위한 전쟁”의 중간 어느쯤에 위치한 것이었고, 그 시발은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이었다기보다는 그저 소문인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카더라 통신’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풀려지기 마련이니, 남편에게 그저 소리만 질렀을 뿐인 여자가 남편을 때렸다고 소문이 나는가 하면, 남편을 때린 경우에는 바람을 피워 셋서방도 있을 것이라 지레짐작되기 일쑤였다.

결국 소리를 지르든, 때리든 바람을 피웠든 간에 남자가 남자노릇을 못하고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실제로 어땠는지를 따지는 것도 무의미했지만, 때로는 재산을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물건을 집어가기까지 하는 와중에서도 진실을 항변하는 것은 불가능한 노릇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에게는 시끄러운 난동이 즐

집고도 의의있는 행사였고, 사실이야 어떠한 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남자의 본분과 여자의 본분은 엄연히 다른 것이며,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식을 다질 수 있으면 충분한 일이었다.

한편 여성을 처벌하던 담금의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처벌의 실효성이 의심받기 시작

웃자!

그와 그녀의 차이

- 그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저 남자는 담배 피우는 모습도 분위기가 있어 보여. 그녀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저 여자 부모님은 자기 딸이 담배를 핀다는 것을 아시거나 할까?
- 그가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꽤 피곤한가 보다.
- 그녀가 수업시간에 졸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여자가 교양 없기는.
- 그가 데모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면?
- 의식이 있는 친구인가 보군.
- 그녀가 데모에 참가하는 것을 보았다면?
- 정말 의식이 있어서 하는 건지, 길맞아 들어서인지.
- 그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힘든 일이 있나보다. 위로나 해 주어야겠군.
- 그녀가 술에 취해 주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여자가 저렇게 자기감정을 억제할 수 없고 다 드러내다니 교양이라곤 하나도 없군.
- 그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건강미가 넘치는 남자야.
- 그녀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저렇게나 사람들 눈에 띄고 싶을까?
- 그가 캠퍼스커플이러면?
- 그 남자 능력 있군.
- 그녀가 캠퍼스커플이러면?
- 뭐가 급해서 벌써 남자를 만나는 건지.
- 그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영장이 나왔나?
- 그녀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면?
- 남자한테 채었나보다.
- 그가 수석을 해서 장학금을 받다면?
- 장래가 촉망되는 남자야.
- 그녀가 수석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면?
- 정말 똑똑한 여자야.

했고, 또 근대사회의 가부장적 규범들이 정비되면서 당시 ‘전례가 없다’고 여겨지던 드세고 독립적인 여성들의 출현이 진정됐기 때문이다.

축제와 전쟁의 중간쯤

그 반면, 역사도 더 오래되고 대중들의 문화에 더 깊이 자리잡은 샤리바리나 스키밍턴의 풍습은 세월이 지나고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샤리바리의 대상은 여자한테 얻어맞은 남자가 아닌 아내를 몹시 썩 남자쪽으로 몰아갔다. 남자 위에 올라앉은 여자보다는, 생명을 위협할 지경으로 아내를 때려서 사회의 근본이라는 ‘가정’을 말 그대로 파괴하는 남편들이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란스러운 행위 자체가 하층민들 혹은 ‘상것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규정됨으로써 대상을 누구로 하는 것이든 점차 사라져가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개인에게 예외없이 강요하는 데 대해 갑갑함뿐 아니라 폭력성까지 절감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400년 전 서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남의 일 같지도, 지나간 일 같지도 않다고 느낄 것이다. 역사상 그 어느 때에도 사회가 요구하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지키지 않고 변화를 꾀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그 저 순탄하게 이루어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11



박영경

서양사 전공, 가톨릭대학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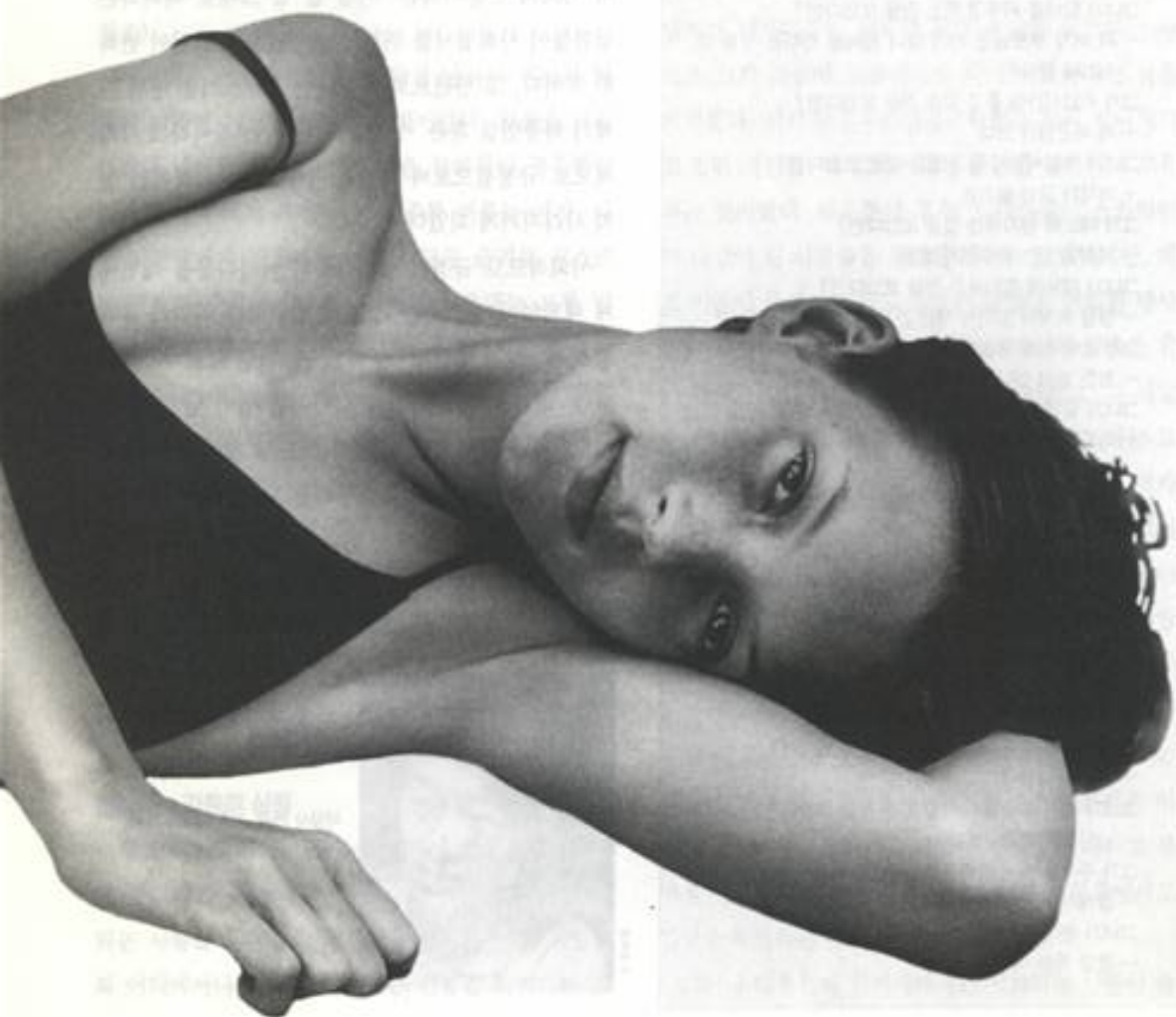
당신의 사랑의 색깔은?

색깔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 색깔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인간의 심리적 윤곽을 드러냅니다.

특히 연구자들은 연애타일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4가지 색깔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각각의 색깔들은 당신의 성적 관심의 주요소들을 나타냅니다.



색깔에 따라 당신의 감정이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강렬한 붉은색을 볼 때와 어두운 푸른색을 볼 때 당신이 받는 느낌은 다를 것입니다. 당신에게 화려하고 유혹적으로 보이는 오렌지색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색깔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지난 칠년간 구미의 여러 대학들이 행한 심장혈관학, 내분비학 그리고 신경생리학적 실험들은 여러 색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정확한 심리적 윤곽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특히 연구자들은 연애타일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4가지 색깔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각각의 색깔들은 당신의 성적 관심의 주요소들을 나타냅니다.

1. 진보라색은 연신과 유대감을 연상시킨다.
2. 자홍색은 당신의 파트너에 대한 감정적 적응성과 친화력을 나타낸다.
3. 오렌지는 성적 도발의 색깔이다.
4. 진분홍색은 환상과 기대를 보여준다.

위의 네가지 '사랑의 색깔'들을 당신은 각각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아보까요?

간단한 테스트로 당신의 성격이고 낭만적 욕구는 물론, 연애하는 데 있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신으로 하여금 기쁨에 충만한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는 과거의 상처와 오랜 두려움까지 드러내줍니다.

* 색깔 궁합 보는 법

우선 이프 3호 16쪽에 있는 네가지 색깔을 찾아보세요. 이 네가지 색깔을 보고 당신의 연애·사랑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내는 색깔을 골라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질문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물어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색깔이 당신이 경험한 연애나 사랑의 체험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나'입니다.

그 다음은 당신의 사랑을 두번째로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색깔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사랑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색깔을 고릅니다. 이제 색깔들이 보여주는 24가지의 사랑 유형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유형1**

당신은 성적 수완이 뛰어나지는 않다. 당신은 평화와 조화를 요구하는 예민한 파트너이다. 파트너에 대한 감정적인, 신뢰의 끈이 없는 한 당신은 쉽게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파트너에게 부드럽고 예민하게 다가가는 방식과 언제든 애정 어린 헌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1
2
3

유형3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 깨어진 환상이 낭만적 기대를 어렵게 한다. 같은 실수를 두번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아주 비판적이고 물을 사리게 되었다. 당신은 누군가에 끌리는 것을 전멸병이나 되는 듯 피하고 있지만, 일단 신뢰가 회복되면 화끈하고 감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1
3
2

유형5

과거에 경험한 커다란 실망으로 당신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당신이 꿈꾸는 사람은 다름없이,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이다. 당신은 절주에 한 분노나 결별을 실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아니며 당신이 노력한다면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 있다. 당신은섹스를 위한 관계에는 흥미가 없다.

1
4
2

유형7

당신은 선천적으로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관능적 감각과 함께, 이러한 성향은 당신의, 특히 새로운 파트너에게 더욱더, 자연스럽고 솔직한 접근을 막고 있다. 당신은 스스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파트너의 사랑의 신호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파트너의 흥분을 낼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이 있으며, 그의 열정에 불을 붙이는 방법도 알고 있다. 이러한 재능을 가진 당신은 아주 매력적인 연인이다. 관계에 불편한 압박은 결코 주지 않는 당신은 두 사람 모두 마음을 타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목적을 향한 이기주의는 (성적인 것이나 다른 것이라도) 당신이 느끼는 성적 매력을 감소시키며, 언제나 불만족을 가져온다.

2
1
3

유형9

저해적이고 관능적 매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당신의 숨겨진 백만장자 중에 하나 있을지 모른다. 당신의 욕망은 강렬하고, 유혹의 전율 역시 짜릿하게 엮어낸다. 그만큼 쉽게 흥분되기도 하나 당신의 적극적이고 민감한 예로티시즘이 의미없는 섹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대신 당신에게는 모든 새로운 관계가 마법과 매력으로 가득한 자극적 유혹으로 다가온다.

2
1
3

유형11

당신의 관능적 경험은 풍부하고 생생한 환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욕망은 당신을 장난꾸러기로 만든다. 당신은 상상력을 사용하여 내면의 욕망을 아름답게 풀어내고 완성시킨다. 노골적이고 변태적인 섹스나 기술적으로 완벽한 섹스보다 당신의 마음을 끄는 것은 상상 속의 포옹이다.

2
4
1

유형2

당신은 솔직하고 솔직한 관계에 많은 의미를 둔다. 당신은 조화와 소속감을 중시하며, 그것이 충족될 때에만 자유롭게 섹스에 몰입한다. 당신의 감정은 충실하고, 부드러우며 예민하다. 당신은 서로에게 충실한 결속을 쌓아가길 원한다. 기분전환을 위한 단기간의 성적 모형은 당신에게 공허하고 의미없는 것이다.

1
2
4

유형4

당신은 충실하고 결속력이 강한 연인이면서, 또한 연인을 독점하는 스타일이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화와 상호신뢰로, 일단 충실한 결속이 맺어지고 나면, 위선없이 격렬하고 관능적인 흥분을 맛볼 수 있다.

1
3
4

유형6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당신이기 때문에 관능적 관계의 자연스러운 생기가 빛을 잃고 있다. 또한 이는 열렬하고 격정적인 경험 역시 방해하고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은 파트너의 편안한 배려와 세심한 조화를 포함한다. 안정되고 화목한 환경을 제공하는 파트너와의 생활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와 억압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1
4
3

유형8

당신은 예민함과 다정함으로 파트너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당신의 사랑은 감정적 의미뿐 아니라 깊이 역시 갖추고 있다. 당신은 파트너를 자극하고 애타게 만드는 재주도 뛰어나다. 당신의 다정다감함은 연인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인다. 관능적 결합을 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은 당신과 만날 수 없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완벽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당신의 예민해진 현신은 지속적 관계를 가져다줄 것이다.

2
1
4

유형10

짜릿한 유혹의 경험과 흥분을 바라는 당신의 욕망은 쉽게 불붙는다. 그렇지만 당신은 무작정 의미없는 섹스로 뛰어들지는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의 육체적, 관능적 욕구를 조율할 줄 알며 파트너의 자극에도 세심하게 반응한다. 당신은 최고도의 흥분에 다다를 수 있으며, 당신처럼 화끈한 파트너를 만난다면 만족스러운 결속을 만들어낼 수 있다.

2
1
4

유형12

당신은 성적인 적극성과는 거리가 멀다. 대신 당신은 스스로 만든 관능적 욕구와 낭만적 시나리오 속에 묻혀 있다. 당신은 좀더 활기차고 자연스러운 본능을 잠재운 대신 풍부하고 달콤한 환상을 불러내어 만족과 흥분을 경험한다. 당신의 부드러운 감정적 예로티시즘은 당신과 같은 취향을 가진 연인을 매혹시킬 것이다.

2
4
3

**유형13**

당신은 기질적으로 화끈한 관능주의자이나, 부정적인 과거의 경험으로 감정의 분출을 막고 있다. 당신은 비판적이고, 스스로를 억제하고 강한 독립심을 내세워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 당신이 연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성적인 만족이 아니라, 친구처럼 서로를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동반자적식이다.

3
1
2

유형15

아주 조그마한 관능적 신호나 흥분되는 상황에서도 당신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 흥분과 성적인 만족을 위한 당신의 욕망은 아주 쉽게 달구어진다. 기계이 즐거움에 동화하려는 당신의 자발성은 당신을 매력적인 파트너로 만든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흥분은 최고로 강렬한 감각적 만족을 펼쳐줄 것이다.

3
2
1

유형17

당신이 생각하는 예로티시즘은 욕망의 시나리오와 전율로 이루어진 열정의 폭발이다. 당신은 쉽게 흥분하고 주저하지 않는다. 당신의 욕망은 강하고 충동적이다. 당신에게 유혹과 성적 접촉은 즐거운 놀이이자 짜릿한 모험이다.

3
4
1

유형19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당신은 관능적 관계의 환상에서 깨어나 비판적으로 되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믿지 않는다.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심으로 침묵하며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당신은 심리적 매력으로 파트너를 고르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4
1
2

유형21

당신은 성적 수완이 뛰어나지는 않다. 오히려 사이드라인 밖으로 몸을 빼내어 욕망을 감추고 불안한 눈길로 관망하는 스타일이다. 당신의 관능적 욕망은 미적 매력이 넘치는 외모와 환상에 열중한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사랑을 하려면 자신을 매력적이고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2
1

유형23

당신의 관능적 욕망은 미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불타오른다. 그러나 당신은 자연스럽고 욕망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을 지나치게 이상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단 신뢰가 확립되고 나면, 당신은 감각적 즐거움에 완전히 빠질 수 있다. 당신이 탐닉하는 환상은 당신의 관능적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

4
3
1

유형14

당신의 사랑은 깊은 우정과 성적 만족을 결합시킨 것이다. 당신은 파트너와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감각적이고 다정다감한 사이로 만들어간다. 다수의 파트너나 실속없는 성적인 관계는 당신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한다.

3
1
4

유형16

유혹의 신호나 암시적인 상황에서 당신은 강한 관능적 흥분을 느낀다. 당신이 자극의 경험을 좋아하는 것은 스스로의 육체적 욕구에 충실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파트너의 욕구와 흥분을 감지하는 당신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복과 유혹에 대한 당신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피상적인 성적 관계에 매달리지는 않는다.

3
2
4

유형18

과거의 아픈 경험은 성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손상시켰다. 당신은 상처받았고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 기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주저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신이 경험하는 섹스는 즐거운 놀이이며 자극적 게임 또는 조건 없는 모험이다. 당신은 성적 관계에 까다롭게 굴거나 억제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3
4
2

유형20

당신은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며, 당신이 육체적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때문에 당신이 이상적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 없고 불안하게 만든다. 당신은 사람을 이상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고 일을 진행해줄까 바란다. 당신은 섹스보다 매리의 행위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다.

4
1
3

유형22

당신은 당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것으로 보이는 매력적인 누군가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이상화하고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키운다. 당신은 동경의 상태에 머물러 행동을 취하길 주저거린다. 당신은 상호매력의 분위기를 만들려하며,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4
2
3

유형24

과거의 사랑에서 만족되지 못했던 기대가 당신을 비판적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당신은 두 사람이 깊은 감정의 연결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믿지 않는다. 당신은 회의적이고 스스로를 억제하며 감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려 한다. 당신은 심미적으로 만족을 주는 환경과 대상에 감명을 받고 끌리는 경향이 있다.

4
3
2



1983년 65세의 나이로 노벨과학상을 받은 바바라 역물원목.

여성주의 과학의 부활

가이아 佳我

그녀는 살아 있는 것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험에 쓰는 옥수수나무라도 그 하나하나가
모두 제각기 독특한 느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하나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식물도 그녀에게 응답했고 자기네 열매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과학혁명 이전의 과학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은, 천년에 해당하는 중세 암흑기를 보낸 유럽에서 왜곡된 종교의 이름으로 탄압하던 인간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대과학의 혁명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 이 무렵 유럽을 지배하던 과학사조는 두가지로 대립의 양상을 띠고 있었으니, 하나는, 우주 온갖 현상에 신성神性이 깃들어 있다고 믿고 '머리와 가슴과 손'을 모두 신묘한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자 노력했던, 이른바 연금술의 전통이다. 이는 아시아에 먼저 있던 도교(Taoism)의 전통과 마찬가지로 정신/물질 그리고 남성/여성적 요소의 균형을 추구하며 삼라만상의 오묘한 조화와 비범한 이치를 알아내고자 하였다.

파라셀수스는 이 전통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이

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데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민간요법으로 전해오는 여러가지 비방, 이를테면 약초의 배합이나 물리요법으로 병을 고치는 기술 그리고 쓸모있는 생활의 지혜까지 여러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적 지식을 전수받은 여성 중에는 땅에 대한 각별한 공경과 탐구열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살며 개인적 연구에 몰두한 이도 많았지만, 이들의 잡다한 과학지식은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소멸되거나 아니면 막 제도화하기 시작한 대학의 유능한 남성들에게 물수당한 채 마녀의 이름으로 처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대립하던 기계론적 사조는 무엇보다 정신과 물질을 확연히 구분하는 것으로 인식의 기초를 삼고 감성이나 영성과 같은 여성적 요소는 모두 악마한테



영혼을 빼앗긴 표시로 치단하면서 철저히 배척시켰다. 과학의 진보에 대한 남성적 야망에 불타던 대표적인 인물인 베이컨은, 실험을 통한 견고한 과학기술로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대자연을 지배하리라 확신하면서, '자연은 마녀와 같아서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고문하고 괴롭힐수록 그 비밀을 토해낸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지구문명 전반을 지배하는 과학기술은, 17세기 서구에서 발생한 신과학(Scienza Nuova)에 뿌리를 둔다. 17세기 신과학은 오늘날 고전물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지며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引力(attraction)이 있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인간정신만 빼놓고 세상의 나머지는 모두, 복잡하게 구성된 기계로서, 멈춰선 물체는 크기와 형상을 기하학의 도면에 옮기고 움직

이는 물체는 그 움직임의 인과관계를 결정론적 수식으로 표현하였다. 이렇게 17세기 과학의 혁명이 완성되면서 기계적인 것은 곧 과학적인 것으로 등가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과학의 진화

엄격한 기계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특정한 원인을 가지며 또 일정한 결과를 빚게 마련이다. 그러나 세상은 시계추처럼 정확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없는 예측불능의 요소가 내재한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시스템에서는 미미한 요소라도 어느 순간 엄청난 기세로 증폭되어 기존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시킬 수가 있다. 예컨대 기후의 변화처럼 너무나 다양한 변수와 복잡한 조건을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느라 과학은 자연이 갖는 감성과 순환의 원리를 무시하며 지극히 파괴적인 경향으로 발전해왔고 그 결과 인류는 세계적인 생태파괴와 자원고갈에 따른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갖는 혼돈 속의 숨은 질서를 찾아내는 복잡성의 연구는, 엄청난 양을 다룰 수 있고 또 현실에 근사한 유사 실험(simulation)이 가능한 컴퓨터의 도움으로 앞으로 큰 발전이 예상되며 과학의 여러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혼돈의 기본상태를 일컫는 '홀어지는 구조'란 에너지와 물질이 끊임없이 무질서하게 흐르며 유지되는 힘찬 요동의 상태로, 이러한 혼돈의 극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물질의 활동 원리'이며 이는 기계적인 관계이기보다 자연현상의 전반에 깔려 있는 훨씬 보편적인 현상이다. 더욱이 프리고진이 발견한 '홀어지는 구조'의 원리는 화학반응의 차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장되며 밝혀지고 있다. 원자의 세계만이 아니라 온하계에도 그리고 생명체의 세

포단위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도, 심지어는 방대한 사회나 문화권에도 모두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휘는 '스스로 짜짓는 우주'의 개념으로 요약하였다.

'스스로 짜짓기(autopoiesis)'란 개념은 17세기 과학혁명이 확립한 주체/객체 이분법을 극복하는 20세기 새로운 과학의 핵심어이다. '주체가 제어(control)하는 객체'라는 식의 이분법적 시각에서 '스스로를 조절하여 자기모습을 만들고 또 유지'하는 생기론(vitalism)쪽으로 대자연은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에도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항 당한 오늘날의 진보적인 과학자들은 정신/물질, 주체/객체, 인간/자연으로 양분하는 근대적 세계관과 방법론에 회의하며 기계덩어리였던 우주의 삼라만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가이아론과 더불어, 기계론적 생명과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영국의 생물학자 셀드레이크는, '생명현상을 모두 화학반응의 차원으로 환원하여 고전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오늘날의 생물학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릇된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신 그는 형태공명이란 새로운 개념을 생물학에 도입하여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자 한다.

생명체의 모양새나 성장 그리고 행동양식은 유전자의 작동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정하는 형태장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인데, 형태장이란 우주의 진화에 있어 시간의 흐름상 앞서 존재한 유사한 개체, 즉 과거에 살았던 같은 종에 속하는 모든 생물체의 형태와 행태로 각인되어 형성된다. 그리고는 다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공명현상을 일으키면서 후대의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셀드레이크장 개념은 생물학의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의 온갖 현상, 특히 인간의 심리작용에서부터 정치현상까지 두루 적용할 수가 있으며, 그 성격

상 자연과학의 결정론이나 인과율보다는 오히려 인과율보라든지 업보 등으로 이름하는 불교식 개념에 더 가깝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인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성찰의 변화가, 다시 말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고 있다. 우리의 시각, 청각, 지각, 감각능력 모두는 인류가 출현한 지구환경과 함께 진화한 생물학적인 조건이기에, 인간은 생태계와 함께 진화한 생물학적 조건을 통해 이 세상을 느끼고 평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자각은 양자물리학과 생명의 스스로 짜짓기현상에서 드러난 주체/객체 이분법의 모호성을 확인시키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올샬스런(holistic) 안목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여성의 손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학

오늘날 인류문명은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를 전망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느라 각 분야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견해는 대부분 환경위기 그리고 과학기술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다. 오늘날 어쩌면 종교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과학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인간적이지도 않다는 자각은 앞으로의 과학이 생태론적 조화와 균형을 보존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참여적이어야 한다는 반성을 촉구한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확인해지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지난 200여 년 동안 근대과학이 과학자의 마음뿐 아니라 세상을 온통 지배하면서 '개발과 성장을 위한 자연의 약탈'이라는 가부장적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에 봉사해왔다는 점이다.

근대과학 이후 자연법칙은 '가치중립적'이었으며 따라서 그러한 원리를 보고한 과학자들 개인의 성향이나 배경을 따져본 적이 없었고, 합리성이라는 원칙 아래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 인간과 자연을 갈라 환경을 공격하고 정복하는 철저한 남성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문제삼지도 않았다. 이토록 절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느라 과학은 자연이 갖는 감성과 순환의 원리를 무시하며 지극히 파괴적인 경향으로 발전해왔고 그 결과 인류는 세계적인 생태파괴와 자원고갈에 따른 심각한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다.

근대 과학혁명 이후 최근까지 자연과학에 업적을 남긴 인물은 아난게아니라 거의가 백인남성이었다. 뉴욕아카데미 회원인 존 시몬즈라는 이가 1996년에 발표한 '100인의 과학자' 목록에는 방사성 원소를 발견한 마리 퀴리, '제임스 러브록'과 함께 가이아설을 내놓은 린 마굴리스, 이렇게 단 두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근대 과학혁명의 본산인 유럽에서 1994년



49살의 마리아 퀴리 역물인물.

피넨 '금세기의 과학 문명을 일군 자연과학자 100인' 목록에도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백인남성이다. 예외적으로 포함된 5명 중 두명은 일본남자 유가와 히데키와 인도남자 찬드라세카라 라민. 그리고 나머지 세명 중 마리 퀴리가 우리에게도 알려진 이름이고 오토 한과 함께 핵분열이론을 세운 리제 마이트너, 데이비드 힐버트와 함께 노에터공리를 세운 유대계 독일인 아말리 에미 노에터의 이름이 들어 있다.

이들 여성은 한결같이 힘겨운 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남성의 세계에 적응하며 그들의 방법을 모방한

결과, 이들보다 오히려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런 작업에 여성 고유의 독특한 지평이 생겨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키워지고 그래서 사물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도 좀 다르며, 아울러 여성 고유의 감수성이 기존하는 과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엄청난 기대를 할 수 있으리라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 비해 생물학에서는 여성과학자의 고유한 감수성과 시각을 통해 세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획기적 사건이 몇가지 기록되었다. 예컨대 다윈 이래 진화개념의 기반을 적자생존과 자연선택, 혹은 경쟁, 정복 등의 공격적 힘의 논리로 해석하는 일에 몰두해온 데 비해 여성과학자들은 생물체간의 협동과 의존관계 또한 중요한 원동력임을 입증하기 시작했다. 러브록과 함께 가이아설을 주창한 린 마굴리스는 세포들은 서로 공생을 지향하는 가운데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수준의 생물체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과학자로서 세상을 보는 마음보가 달라진 것뿐 아니라, 기존의 과학적 방법론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접근으로 새로운 차원을 열어 보인 이가 있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바라 맥클린톡 Barbara McClintock (1902~1992). 그녀는 자기가 가꾸던 식물과 가진 아주 특별한 접촉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생물체의 유전암호는 책처럼 언제나 그렇게 적혀 있는 정태적인 청사진이 아니라 주위환경에 반응하는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암호임을 밝혀냈다.

그녀는 살아 있는 것의 '느낌'에 대해 이야기한다. 실험에 쓰는 수많은 옥수수나무였지만, 나무 하나 하나는 모두 제각기 독특한 느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하나하나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식물도 그녀에게 응답하였고 자기네 열매의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었다고 말한다.

정통과 과학자들에게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유전자의 다양한 활동 중 1940년대 말 그녀가 관찰한 전이현상은 놀랍게도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정확하고도 아주 중요한 특성임이 인정되어 1983년 생리이화학 분야에서 여성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다. 너무나 특별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들어맞지 않는 그녀의 과학적 방법이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옳고 탁월했다는 사실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이 사건은 과학의 역사와 앞으로의 향방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주제/객체의 철저한 이분법에 따르는 절대적 객관성의 확보라는 과학적 방법론의 제1명제가 개인적 느낌에 집중하여 주제를 나누지 않고 신심을 분리하지 않는 그녀의 독특하고 예민한 감수성 앞에 기반을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과학이란, 뛰어난 과학자가 발견한 사실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 무조건 숭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권위나 선입견에도 굴하지 않고 늘 새롭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과학정신의 산물 일진대, 이들의 작업은 과학사 전반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커다란 물결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한다. 17

웃자!

거지와 정치인의 공통점

1. 세치 혀로 먹고 산다.
2. 사람 많은 곳을 찾아 이리저리 옮겨 산다.
3. 자기 동네(지역구)는 꼭 소리나게 관리한다.
4.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다.
5. 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되고 나면 세상 편한 직업이다.

엉덩이 이야기

엉덩이마을에 내리는 비는: 변비
 엉덩이마을에 사는 뱀은: 설사
 엉덩이마을에 있는 중국집이름은: 몽고반점
 엉덩이마을에 사는 쥐는: 화장쥐



동생 성진이 수난사

- 성진의 멍에 얹힌 이야기 -



체격만 보면 형은 성진이 말고 이 집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성진이는 형에게 무작정 끌리고 형이랑 제일 천하고 싶은데 형은 왜 그리 자기를 미워하는지.

성진이에겐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나, 성진이 형 아니야!”

성진이는 형 세진의 외침소리에 화들짝 놀라 비틀비틀 걸음마를 멈추었습니다. 형 입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려나 해서 형을 뻔히 쳐다보았습니다. 성진이는 갓 돌이 지난 아기입니다. 걸음마를 배운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비틀대며 뛰어다니기를 좋아하지요. 성진이는 형에게 매일 이런 소리를 듣는답니다.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엄마가 “네가 성진이 형이 아니면 그럼 뭐니?” 하고 묻자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나, 성진이 아저씨예요. 아저씨라고요.”

곧 있는 대로 눈을 흘뜨며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키더니 형은

“성진아, 어디 아저씨라고 불러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진이에게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형, 아니 아저씨랍니다.

아저씨가 형이 즐겨 쓰는 다른 이름이지만, 그것 말고도 형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저번 일요일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는 성진이더러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더군요. 그 소리에 성진이만 빼고 집안식구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요.

성진이가, 식구들이 ‘아빠’라고 가르쳐준 키가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사람과 내가 진짜 아빠라는 형을 번갈아 쳐다보며 고개를 가우뚱거리자 더욱더 웃음소리가 높아지더군요.

체격만 보면 형은 성진이 말고 이 집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성진이는 형에게 무작정 끌리고 형이랑 제일 친하고 싶은데 형은 왜 그리 자기를 미워하는지. 성진이에겐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형만 빼고 다른 식구들은 성진이를 무척 예뻐하거든요. 성진이가

칭얼거리면 우유도 주고 심심하지 않게 ‘까꿍’ 하고 장난을 걸구요. 구석구석에 있는 집안의 물건을 죄다 꺼내 늘어놓아도 물을 앞질러도 야단은커녕 예쁘다며 번쩍 안아서 불을 부벼대곤 하지요.

유모차를 타고 성진이가 길을 나서는 주위의 다른 어른들도 모두 “아유 예뻐라”, “어쩜 이렇게 애가 실하죠? 너무 잘생겼다”며 칭찬합니다. 한번 안아보자고 팔을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땃집 아줌마나 가넷집 아저씨는 하던 일도 멈추고 예뻐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성진이의 불을 쓰다듬거나 사랑을 건네주지요.

하지만 형은 다릅니다. 성진이가 칭얼거리면 ‘왜 그래?’ 하고 화를 내고 성진이가 가까이 다가가면 ‘저리가! 귀찮아. 귀찮단 말이야!’ 하며 무조건 때립니다. 유모차를 타고 나가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보려고만 하면 사정없이 유모차를 흔들며대며 방해합니다.



오늘 성진이는 레고를 가지고 놀다가 우연히 자신의 손등에 내려앉은 딱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상처 말고도 성진이 몸에는 상처가 많답니다. 몸 곳곳에 시퍼런 멍이나 딱지가 내려앉은 곳이 열군데도 넘으니까요. 이중 서너개는 성진이가 스스로 넘어지거나 부딪쳐 만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휴, 모두 형이 꼬집고 때리고 할퀴고 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이쯤이면 왜 성진이가 형을 무서워하는지 짐작하시겠지요? 이중 두가지만 말해볼까요?

우선 성진이의 팔뚝에 난 콩알만한 시퍼런 멍이 잊혀지지 않는군요.

머칠 전의 일입니다. 이빨이 더 나려는지 잇몸이 근질근질한데다 미열이 오르내리는 성진이는 그날도 깨물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좋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다리가 성진이 코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위를 올려다 보니 대문 옆에 세워놓은 대빗자루처럼 엄마는 비스듬히 찬장 옆에 기댄 채 무엇인가를

꺼내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이빨이 먼저 알아보고 ‘웬떡이냐’며 좋아하길래 성진이는 그만 엄마의 다리를 힘껏 깨물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얏’ 하는 비명을 내지르더니 ‘아이고 아파! 요놈이 그냥!’ 하며 다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동시에 성진이의 팔뚝에서도 불이 난 것입니다. 성진이는 그만 ‘오아—’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때렸나구요? 아니요. 마루에서 그림을 그리던 형이 번개처럼 달려와 성진이의 팔뚝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너 동생한테 왜 그랬어?”

엄마가 인상을 찡그린 채 소리치자 형은 기가막히게도 가슴을 쪽 편 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진이가 엄마 아프게 해서 나도 성진이 아프게 했어요. 엄마, 나 참 잘했지요?”

귀 밑에 가늘게 세로로 주욱 그어진 까만 딱지는 지난번 공휴일날에 지하철에서의 소동 끝에 태어났습니다.

쉬는 날이라도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며 엄마는 형의 손을 잡고 성진이를 들쳐업고 길을 나섰습니다. 미정이

이모네 놀러간다면서요. 엄마가 이것저것 준비하길래 성진이도 부엌 서랍을 열어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를 갖고갈 물건으로 몰래 준비해 옷 속에 쏘옥 집어넣었습니다.

왜 몰래 감췄나구요? 요즘 성진이는 긴 막대기나 색연필에 유난히 마음이 끌리는데 그걸 잡는 족족 엄마나 어른들, 또 형이 빼앗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자마자 출입문 가까운 쪽에서

운 좋게 한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형이 앉지 않았다고 해서 성진이를 업은 엄마가 자리를 차지했지요.

형은 문쪽 기댐대에 기댄 채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라든가 타고내리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지요. 엄마도 못 보고 형도 보지 않고 있길래 '이때다' 싶어 성진이는 슬그머니 플라스틱 숟가락을 꺼내 들고는 신나게 흔들었답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형의 뒷목을 찌르고 말았지요.

'아앗' 하더니 형이 무섭게 성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성진이는 숟가락을 뱉길까봐 얼른 다른 손으로 옮겨잡고 잔뜩 긴장해서 움츠러들었지요. 아니나다를까

"애기한테 그거 없어야 돼요! 왜 그거 애기한테 줬어요?" 하고 울부짖으며 형은 성진이의 숟가락을 뱉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왜 그래?" 하며 엄마가 말리지 않았다면 숟가락을 빼앗겼을 겁니다.

엄마는 이 사태를 엉뚱하게도 형이 자리에 앉지 못해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니가 여기 앉겠다구?" 하고

물었습니다. 형은 고개를 마구 흔들더니 엄마를 밀어서 다시 주저앉아 손 두손을 마구

휘저으며 또다시 성진이에게 달려들더군요. 전철 비좁은 의자에서 놀란 엄마는

성진이 대신 형의 주먹을 막느라고, 성진이는 성진이대로 필사적으로 형의 주먹을

피하느라고 이리저리 몸을 뒤틀었습니다. 얼마 안있어 엄마는 형의 양손목을 결박했는데

손을 빼내려고 애쓰다 안되자 형은 엄마 무릎에 코를 박고 '으러형' 하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고개를 번쩍 쳐들고 형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는 왜 동생을 낳았어요! 동생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된다고요!"

지하철에서 이 소동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모두 빙긋이 웃음을

머금더군요. 그 순간입니다. 울그락불그락 성난 황소처럼 씩씩대던 형이 엄마 손을

뿌리치고 성진이에게 다시 돌진해온 것은, '우와아앙' 형의 날카로운 손톱에 얼굴을

긁힌데다 숟가락마저 빼앗긴 성진이는 큰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쟁쟁 매아리치며 합창소리인 양 울려퍼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바람에 뺨알장개 얼굴빛이 달아오른 채 성진이와 형을 번갈아 어르던

엄마는 그만 구경진 종이처럼 꾸깃꾸깃한 얼굴로 지하철에서 내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그렇게 형이 성진이를 못살게 구는데도 성진이는 자꾸 형의

옆에만 가고 싶답니다. 성진이가 보기에 형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재미있게 노는 법을

알고 있거든요. 경찰차를 부요부요하고 가지고 논다거나 벽장문을 탕탕탕 두드리는

일도 형이 하면 더 재미나 보입니다. 형이 가지고 노는 색연필이나 볼펜은 성진이도 꼭

한번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매일처럼 궁리하는 게 성진이 일과입니다.

성진이는 우선 애교작전으로 나서보기로 합니다. 형이 웃으면 괜히 따라웃어보고 형이

별로 웃기지 않는 일을 해도 짹짹 웃어줍니다. 그래도 형이 부드러운지 않으면

까궁하듯이 형 얼굴 아래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고 예쁜 것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온근슬쩍 형의 것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이 가진 것이 성진이 차지

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때로 성진이 덕분에 기분이 좋아져도 형의 것을 손에 대기만

하면 영락없이 빼앗아버리거나 매타작이 날아왔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이라면 가물에 콩나기처럼 장난감통에서 현 물건을 찾아 동생 손에 쥐어주는 때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번의 시행착오를 거치자 성진이도 형의 눈치를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 때나 형이 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가까이 가려던 발걸음을 멈춰 얼른

뒤돌아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은 뒤 형이 허품을 하고 난 저녁시간은

요주의시간대입니다. 이럴 때는 형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탐이 나더라도 멀찌감치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이유불문 거침없는 발길질이 날아오기

때문입니다.

일찌감치 눈치보기를 깨우친다는 것, '둘째의 서러움'이란 이런 것이겠지요. 그런

성진이에게 더욱더 마음시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의 때에 대항하는 성진이의 유일한 대응방법은 힘껏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울음만 터뜨렸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신 형을 혼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얼마 전부터 형의 편만 드는 것 아니겠어요?

고깔 쓰고 꼬까옷 입고 돌을 지내고 났더니 모습은 그대로인데

그만 사람들이 모두 바뀌고 말았어요.

얼마 전만 해도 형이 자기 물건을 만진다고 신경질을 부릴 때면 "새진아! 다

킷으면 애기한테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좀 갖고 놀게 줘라" 하던

어른들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애비 그건 형 거야. 너 그것 만지면 형한테

혼난다" 하고 오히려 성진이를 야단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전에는 말뚝을 피워도 예쁘다고 안아주더니 말뚝을 부리지 않아도

형만 보이면 큰소리로 '때때' 부러 야단을 치며 엉덩이를 때리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 알미운 것은 형이 어디서인지 쏘르르 달려와

구경하거나 함께 때리는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러움에 겨워

성진이가 소리소리 질러대며 울어대지만 식구들은 못본 채 면산바라기만 하고 있고...

엄마의 다리를 깨물었을 때 형이 성진이를 깨물고도 "나 참 잘했지요"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경에서 나온 일입니다. 성진이는 정말 그날 얼마나 서러웠는지 꿈 속에서도 마구 눈물을 흘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는 굳게 굳게 마음을 다졌지요. '그래, 내 스스로 힘을 키우는 거야' 라구요.

그전에도 먹성이 좋았지만 성진이가 이전보다 더 많이 종이쪽지며 필름통 뚜껑, 레고까지도 마구 입에 집어넣는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어야 힘이 생길 테니까요.

성진이는 또 요즘 틈틈이 우유젓꼭지를 깨물며 이빨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단단하다는 실리곤 우유젓꼭지가 사흘들이로 결판나 입마는 속상해하지만요. 그렇게 갖고 닭은 이빨을 사용해 며칠 전에는 형의 손을 덥싸 물기도 했지요. 그후 형에게 더 세게 맞고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지만 형이 아프다고 찰찰대며 같이 우는 모습은 또 얼마나 통쾌하던지.

물론 아직까지 성진이는 형의 밥입니다. 꿈 속에서도 얻어맞고 눈물을 흘리니까요.

거기다 밤이면 밤마다 왜 식구들에게 당하는 서러움까지 합쳐져 꿈을 꾸게 되는지. 그 때문에 성진이는 그만 잠자리에서도 몇번씩이나 놀라 깨거나 후후후 호느끼게 된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형에게 지지 않을 날이 있을 겁니다. 서러움이 더해 마음의 명물이 커져갈수록 성진이는 싸움꾼 근성을 더욱더 키우고 불려갈 테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지요. 성진이가 식구들에게 당하는 서러움이 늘어날수록 형의 때리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께는 정말 기적적으로 형에게 한번도 맞거나 꼬집히거나 물리거나 할렘을 당하지 않았답니다. 그뿐인가요. 둘만 있어도 형이 때리지 않고 놀아주는 일까지 생겼답니다.

성진이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수수께끼 같은 삼각고리의 비밀. 이게 형의 이름만큼이나 바로 요즘 성진이를 헛갈리게 하는 고민이랍니다.

시원스럽게 이 고민을 풀어주실 분은 혹시 어디 안계신가요? 11



이 선 희

문화일보 특집부 기자.
형이야기란 한다고 성진이가 질문하자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한데 그 어려움이라니. 다섯살짜기에게는 어느정도 감정이입이 가능했지만 한물바가와는 통 되지 않는 것이었다. 어휘선택도 너무 어려웠다. 마감이 급해 어쩔 수 없이 졸작을 펴워보내고 벌써부터 앙심의 가책을 느꼈다. 성진이가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을 때, 이 글을 읽고 혹시 '엄마는 나를 그렇게 몰라' 하고 말할까봐.

98년 범띠해를 맞으며

여자들을 살리자!

97년이 저물고 98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의 90년대는 여아살해라는 가공할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선 평균 여아 100명당 남아 113명이 태어났다. 특히 '팔자가 드세다'는 속설이 잔존하는 말. 용, 범띠 해에는 여아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영남지역의 경우 통계수치를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용띠해인 지난 88년 대구지역의 남녀출생 성비는 100:134.5로 전국 최고를 달렸다. 딸을 낳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양수검사를 하고 여아낙태를 감행했기 때문이다. 또 말띠해인 지난 90년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여아 100명당 남아 130.8명이 태어났다. 여자들은 여자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은 눈부신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자연파괴적이며 반인륜적인 남아선호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어느 때인가? 우주여행을 논하는 시대에 어쩌서 우리는 아직도 남존여비와 칠거지악, 삼종지도의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범죄행위를 우리의 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파괴 문제는 이미 전세계 언론을 장식하며 부



김미혜, <성안에서>, 나무·사진·석고, 1997
범띠 여아들 중 어두운 빛깔의 옷에 얼굴표정이 없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구경하지 못하고 뱃속에서 살해된 여아들이다.

끄러운 한국의 이미지를 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98년 무인(戊寅)년은 범띠해. 이 추세대로 간다면 수많은 범띠여아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뱃속에서부터 살해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여성이 집안에 갇혀있던 전통사회와 달리 앞으로는 이들 말띠, 용띠, 범띠 여아들이 자라서 대통령도 되고 국방장관도 될 것이다.

『토지』의 작가 박경리선생도 범띠다. <가정법률상담소>를 만들고 억울한 여자들을 위한 가족법 개정에 일생을 바친 이태영선생도 범띠다. 영화배우 최은희씨, 경기민요 기능보유자 안비취씨, 가수 패티김도 범띠다. 말띠로 가면 여성변호사

강기원씨, 배우 박정자씨, 언론인 정명수씨, 정무2장관을 지냈던 조경희씨, 전숙명여대 총장 김옥렬씨, 전이대 총장 정의숙씨, 등이 모두 말띠여자들이다. 용띠는 영화배우 김지미씨, 무용가 홍신자씨 등이 있다.

한국사회는 지난 10년간 우리사회를 빛낼 수 있는 수많은 여성정치가, 여성문학가, 여성예술가들을 뱃속에서부터 살해한 것이다. 98년 범띠해에 태어날 모든 여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남은 모든 범띠, 말띠, 용띠 여자들에게 뜨거운 축하와 함께 사랑의 포옹을 보낸다. 우리는 남성사회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여자들을 살려내야 한다. 여자가 여자를 살리자. 12

편집부



if에게

여자친구 같은 if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점에서 책 뒤적거리는 게 취미였던 제가 if를 처음 본 건 가을호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론서러니 하고 들쳐보다가 참신함에 끌렸습니다. 여성들의 '자기' 목소리를 아주 가까이서 듣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양한 문화현상 안에서 딱딱하고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론 중심이 아닌 작은 이야기들을 통해 더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늦게 주문해서 구입한 창간호를 보고 있습니다. 천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종교만큼 남성중심인 곳은 없을 겁니다. 진정한 여성의 모습을 알기 위해, 그럼으로써 남성의 모습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 선생님처럼, 여자친구처럼 if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대구시 중구 남산3동 최성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온 가을호,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페미니스트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if를 읽기 전까지. 얼마나 내가 남성적인 시각에 비판없이 길을 여져 있었는가 깨달으며 소름이 끼칩니다. if를 읽으며 새로이 눈뜨게 되었고 여자로서의 삶에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어 기쁩니다. 다만, 내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사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땐 무서운 현실 앞에서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다. 더 씩씩하고 더 당당한 여자로 사는데 if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가을호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진구 구의2동 구번일

호기심에 본 if, 신선! 충격! 계간이라 아쉽네요

처음에 표지를 보고 그냥 호기심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상상하지 못한 나에게는 너무나 신선하고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기사내용이 좋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간이라 일년에 네번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광진구 중곡2동 박형선

기쁨+기대=역시 if!

첫번째 출산 후의 기쁨이 다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두번째 출산이라니... 기쁨+기대=역시! if군요. 일반 여성지와 차별화를 선언했던 애초의 취지대로 열심히 뛰시구요, 한때 기사나 광고가 다른 일반여성지와 비슷해져서 여성운동의 퇴조니 하며 비판을 받았던 '미즈'의 되돌림이 되지 않길 기원합니다.

종로구 신내동 김윤희

독심술을 가진 if 편집부 여인네들!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if 편집부 여인네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호스트바에 대한 법적제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분개하던 내가 속이 다



후련합니다. 예전에 9시 뉴스에서 호스트바에서 텀 계산이 불합리하다고 보도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요. 웃기는 나라입니다.

강남구 역삼2동 신오영

약간 흥미위주로 치우친 듯한 아쉬움이 드네요~

특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성학과 여성억압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여성입니다. 자유스러운 글에 마음이 탁 트이고 단 하나, 호스트바 잠입취재는 약간 흥미위주로 치우친 듯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녀평등 실현을 위해 우리 여성들이 노력해야 할 일(직장, 가정, 사회, 동아리 내에서...)이 무엇이 있을까요?

양천구 신정3동 김혜진

긴급출동할 만큼 호스트바의 존재가 비중이 있습니까?

호스트바에 대한 기사는 좀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관심가는 분야도 아닐 뿐더러 긴급출동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호스트바의 존재가 비중있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을까요? 오히려 요즘 신흥종교로 불리워지는 다이어트에 대해 다뤘으면 합니다.

성북구 보문2가 김길영

좀더 쉬울 수는 없나요?

창간호보다는 쉬웠지만 그래도 어려운 글이 많습니다. 특히 <남자의 성경험> 서동진씨의 글은 인내력을 요하더군요. 몇몇 잡지에서 그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if에서의 글이 가장 어려웠어요. 게이로서 자신

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비록 자신이 커밍아웃한 상태지만-이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성학도 '다이어트' 하자의 내용은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잘 예기한 것 같습니다. 여성학 내에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넉넉함을 또한 가질 줄 아는 if가 되길 기대합니다.

양천구 신월3동 이수인

if를 읽고 정리가 되더군요

TV에서 호스트바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요즘 여자들 점점 더 우스워지는군, 말세야!'라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의 생각이 모순이라는 걸 느꼈지만 딱히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if 기사를 읽고 새롭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신당동 김미정

첫술에 배부를 수 있나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었습니까? 어려운 일이 너무도 많고, 고쳐나가야 하는 일도 많겠지요. 하지만, 언젠가는 잡지계에 우뚝 선 if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정치인들이 페미니스트들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성북구 삼선동 1가 이규래

폭넓은 시각으로 다뤄주세요~

창간호에 이어 좋은 내용이 참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산층(?)에 치중된 내용들이 많아 보입니다. 폭넓은 시각으로 여성에 대해 다뤄주세요. 수고하십시오.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최형주

if 베틀 시장

1. 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우연입니다. 처한잔 같이 하면서도 한도란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경주에 살고 있는 분으로 양성평등에 관심있는 누구나 좋습니다.

- 날짜: 1997년 12월 28일
- 시간: 늦은 3시
- 장소: JUNE커피숍(대왕극장 옆)
- 연락처: 012-1498-6434

2. 제3회 심판원 비디오영화제는 지난 6월부터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초저예산영화제입니다. 출품된 비디오단편물을 시상하여 수상작에는 제작비 심판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제3회 영화제는 12월 27, 28일에 걸쳐 열립니다. 지원작은 심판원 내외로 만들어진 13분정도의 아마추어 비디오단편물로 내용, 형식의 제약은 없으며 12월 15일까지 Login Cafe나 망월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정: 12월 27일 오후 8시 종각역 Login Cafe, 28일 오후 4시30분 흥대앞 망월관(구, 황금루구)
- 문의: 꿈꾸는 사람들 Rep, 최소원 015-906-9559
- Login Cafe: 733-3981-2 망월관: 336-7913
- 인터넷: <http://www.iworld.net/vidfest>

3. 사진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기초부터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 문의: 사진공방 '金銀花'
- 장소: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보다' 일 금자BD 207호
- 연락처: 725-4172, 011-456-4172

※ 더 많은 독자들이 함께하는 if베틀시장을 만들어주세요!



'섹스' 보다는 '젠더'에 대해 다루어주세요

제가 if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흥미위주의 내용으로 흐르지 않나 싶은 우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성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페미니즘'이지만 '섹스'에 관한 내용이 아닌 사회적 성인 '젠더'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전남 나주시 용산동 김수희

사진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여성들과 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엮어나가서 읽기도 편합니다. 구체적인 사진들이 많이 실려서 학과 스크랩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광고나 잡지에 여성들의 상품화나 차별화에 대한 장면이나 사진들을 구체적으로 실었으면 합니다.

서초구 반포2동 장윤희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고, 앞으로 if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if를 통해서 정말 많이 알려졌고,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있는 남자독자입니다. 여러 기사들이 잘못된 생각,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호스트바 잠입취재'는 평소 저 또한 가지고 있던 불만이자 의문점을 꼬집어주어서 시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남녀평등과 순수한 남녀관계를 가르치지만 현실의 남자들은 학교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행동하곤 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고, 이러한 현실에서 if같은 책의 역할이 크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if 가을호에서 불만인 점이 하나 있습

니다. 연재만화 「섹녀열전」의 도깨비 디자인이 일본도깨비(오니)의 디자인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의 잘못된 인식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if에서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f- 참 좋은 책입니다!

구로구 오류1동 조승현

레포트도 쓰고... if를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if라는 잡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연히 학보에서 레포트란 게 실린 표지를 보게 되었다. 레포트 쓸 게 있어서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찾았는데 보이지 않았다. 대형서점에 가서야 찾게 되었는데 표지를 보고 적잖게 놀랐으며 왜 일반잡지처럼 전열이 안되어 있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if라는 잡지를 알게 되어 다행이다. 레포트도 쓰고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깐...

부산시 진구 부암1동 정희영

if를 계기로 페미니즘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이런 잡지가 생겨서 정말 반갑네요. 페미니즘을 제대로 알고 싶어도 그럴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앞으로 if는 큰 도움이 될 거

라고 생각해요. 왠지 제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국내 페미니즘 운동이 if창간을 계기로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부터 페미니즘을 가르치게 되는 날이 왔으면 하는 거예요.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전문이론보다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비평 중심의 글들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고, 남성필자들의 글들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종로구 신영동 송인욱

함께 나누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if가 좋아요!

감상에 젖어 아름다운 프로(아름답지 않은 프로도 있단가?) 아니면 현모양처를 꿈꾸는 친구들밖에 없는 학교 분위기에서, if를 보고 즐거웠다. 이번 호에서는 '여성들이여! 정신의 코르셋을 벗자'라는 글이 마음에 들었다. 소위 먹물들의 페미니즘으로 조여오는 잡지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점이 좋았다. 앞으로 무궁하게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서초구 반포3동 홍보람

if가 독자에게

하나, 애정어린 독자들의 편지 감사합니다. 더 많은 원고 보내주세요. 청천도, 비판도 더 구체적이려면 훨씬 힘이 될 것 같아요. 채택되신 분께는 원하시는 if한권을 무료로 드립니다(아직 단행본을 만들지 못해서... 쟈).

둘, 어머니들이 만든 세상 4호 주제는 '엄마의 빨래'입니다. 빨래에 얽힌 사연 있으시면 재미있게 써서 보내주세요.

우리 어머니 세대의 여성사(女性史)를 자료화한다는 생각으로, 아주 자세하게, 엄마에 대한 감정은 생생하게 기록해 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페미니스트저널 if와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송년의 밤 “범띠여자를 살리자”

1998년은 호랑이해입니다.

팔자 사나운 여식을 원치 않아서 세상구경도 못한 생명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설령 살았다하더라도 그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아오셨는지요. 그 많은 세월동안 씩씩하고 멋있게 살아남으신 범띠여성들을 축하하고, 어지러운 올 한해 잘 견뎌낸 것을 자축하고, 밝아올 새해에도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는 한바탕 축제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모두 친구들 손잡고 오셔서 흥겨운 놀이마당을 만들어 봅시다.

프로그램: 새해 기원곡 / 노래공연 / 맛난 음식 / 음주가무

일시: 1997년 12월 28일 일요일 저녁 7시

장소: 극장 마녀(홍대앞 산울림소극장 맞은편, 구 청무포스트극장) 6층

문의: if사무실(743-6715~6) / 여성문화예술기획(324-6008)

회비: 1인당 1만원

준비물: 친구들을 만나는 설레는 마음, 여성주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 즐겁고 흥겹게 놀 마음

당일에는 '올해의 범띠여자'를 뽑을 예정이니 주위에 아는 범띠 친구가 있으면 같이 오세요.

삼십대의 완벽한 센터에 와있는 나는 특집원고를 훑어가며 동병상련지정으로 가슴 저릿했지만 이를 시각화해내는 일이 난감하기만 했다. 무언가 끈적하고, 막힌 승통으로 후끈거리며, 아무 데나 북쳐도 눈물이 후두둑 쏟아질 것 같이 물기 많고, 미로처럼 뱅뱅이 도느라 어긋거리며, 마치 부회의 시기를 놓쳐버려 접질에 맞지 않게 비대해진 거대한 번데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듯한 이미지들이 자꾸 그려졌지만, 이것을 담아낼 사진을 구하기는 요량부득이었고, 너무 주관적 정서로 오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혐의를 스스로 거두지도 못했다.

머리 속에 그림은 있는데, 담아낼 몸을 못 찾는 심정의 이미지는 영화 <레드스>의 포스터 그림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건조한 이미지 사진과, 뜬금없는 딸국질같이 불쑥불쑥 들어간 세시 정각 시계그림은 죽인지 밥인지 죽반인지로 어렵반론어치도 없게 마무리되었고, 이제 이 밤샘이 끝나면 반짝반짝 예쁜 출력필름을 만져볼 수 있겠지.

어즈버, 내일은 시어머니가 상경하신다고 했고, 오늘 나의 밤새우기 때문에 친정 어머니도 아이들과 밤을 새고 계시는구나.

— 갈마

편집후기를 쓰라는 명령이 또 떨어졌다(엣그제 가을호 편집후기를 썼던 것 같은데... 켄, 세월 참 빠르군). 그러자 이번에는 겨울호를 준비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어김없이 두더지구멍에서 고개를 내민다. '30대 성공특집'을 거의 마무리할 즈음 편집장으로부터 긴급명령이 하달됐다.

내용인즉슨 성공하고픈 30대에게 선배가 주는 충고를 인터뷰하라는 것. 이를하여 '십계명' 긴급 입수작전. 인터뷰해야 할 분들의 연세(?)는 모두 40~50대. 그야말로 불혹의 나이를 모두 넘기신 분들로 그 엄청난(이제 막 2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나로서는) 나이에서 오는 웬지모를 무게가 초반부터 나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다'라는 상투적 속담으로 스스로를 북돋우며 전화인터뷰를 시작하기로 했다.

"음~ 30대에 나는 말이지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중략)"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 열심히 움직이던 내 손은 몇분이 채 지나지 않아 할 일을 잊고 말았다.

30대 근처에도 못가본 내가 그 애환을 어찌 실감할 수 있겠으며 50대의 삶에 대한 단상들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단지 같은 여성으로 약간의 공감만 있을 뿐... 어려움은 그뿐 아니었다. 어렵사리 저녁 전화인터뷰 약속시간을 정하고 시간에 맞춰 집에 갔더니만 충전기에 꽂혀 있지 않아 그만 방전이 돼버린 무선전화기를 봤을 때의 그 황당함(순전히 덜렁대는 동거인의 잘못). 집 근처 커피숍으로 정신없이 뛰어 들어가 그 비싼 커피를 주문하고 막 전화기를 잡는 순간 꽃혀는 사람들의 뽀 아뭏한 시선? 그럴만도 한 것이 모두들 '나 이빠, 너 잘났어' 하고 있는데 물어헤쳐진 머리에도 츄리닝을 걸치고 꺾어신은 신발을 신고 있던 내가 얼마나 웃긴 모습이었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나름대로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화인터뷰는 원고청탁으로 발전, 가까스로 '십계명' 입수작전은 성공했다.

힘들었던 만큼 느낀 바도 많았다. '어떻게 난 단 한번도 내 30대를 생각조차 안해봤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내 20대의 고통과 좌절은 30, 40대를 위한 '적금'이라는 희망 같은 것들.

— 호마

겨울호 편집이 막바지에 오른 어제오늘 갑자기 기온이 떨어졌다. 며칠새 갑자기 추워졌다. 겨울호 편집 막바지인 지금이 '겨울'임을 재차 확인시키는 것 같다.

마감 때문에 늦게 돌아가는 자취방은 더욱 썰렁하고, 경제는 곤두박질치며 내리꽂히고(IMF는 '아이템 페미니스트'의 준말이나, 그림 i랑 친한 거나라는 썰렁한 농담 한마디), 거리에 나붙은 대선포스터는 올케년스럽고, 30대가 코앞인 내 지친 어깨는 갈수록 무거워진다.

다른 해 같았으면 이런 우울한 계절에는 며칠씩 두문불출했겠지만, 올해만은 좀 다르다.

i와 함께 했던 첫해를 보내려니, 너무 많은 기억들이 오르내린다. 멋도 모르고 창간준비팀에 합류해서 뛰어다니던 때며, 창간호를 내고 두려워서 책을 들춰보지도 못했던 거며, 한명한명씩 보물찾기를 하듯이 만나게 되었던 필자들을 하며, 성북동 사무실 앞의 플라타너스에 일이 달리고 빗길에 돌고 또 떨어지던 순간들을 하며, 나 말고 다른 이도 나처럼 애쓰며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경험들이며... 이 모든 기억들이 내 영혼의 어딘가에 용이박혀 있을 것을 생각하면 난 감히 피로하다고, 우울하다고, 빨리 마흔이 되고 싶다는 말을 예전처럼 태연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난 지금 또 설레는 거다. 봄호가 나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나서 배우고 자라게 될지, i는 어떤 모습일지가 궁금해서 말이다.

— 딸마

30대 여성들의 성공이 이번 호 특집주제였다. 수많은 30대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 역시 30대다.

이제 막 돌이 된 둘째딸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내가 없으면 절대로 잠이 들지 않는 6살짜리 큰딸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벌써 몇주 야근에 철야다. 특히 이번 호를 마감할 때는 시동생 결혼에 시댁 제사에 아이 돌까지 겹쳐서 몸이고 마음이고 정신없이 흩어진다.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은 할 겨를도 없다. 단지 i가, 우리 i식구들이, 그리고 내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 우리 모두 살아남자. 범띠 여자도 살아남고, 30대도 절망하지 말고 살아남고, 그리고 지독한 불황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일하는 여성들도 살아남고...

그 살아남음이 허황한 성공보다 훨씬 더한 기쁨일지니.

— 똥마

Behind if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 전화나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전화 743-6715/6, 팩스 765-9059).
- 책 속의 업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기구독요금

- 국내정기구독: 1년 3만원

정기구독혜택

- 본사의 자료혜택과 (사)여성문화예술기획에서 주최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회원특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구독기간중 책값이 인상되더라도 추가부담이 없으며 우송료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배달사고·주소변경

- 미착·분실·반송 등 배달사고로 책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 배달사고 및 주소변경에 관한 문의번호는 743-6715입니다.

구독료 내시는 법

- 지로 - 5088166
- 온라인 입금(예금주: 김영선)
우체국 010892-0068914
농협 029-01-169736
국민 031-21-0662-481
제일 458-20-024404
- 입금 후 반드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프(if) 전국 거래처

지 역	서점명	전화번호
서울, 경기	한국출판유통	02-867-8240
대전, 충청	대전출판판매	042-934-4141
대구, 경북	한일서적	053-423-0781
부산, 경남	한성서적	051-312-8383
전주, 전북	동아일보출판	0652-246-6747
광주, 전남	우일서적	062-227-1485
강원, 제주	한고서적	02-214-9977
특 판	한양출판판매	0348-5900

여성의 욕망을 아는 집지,
페미니스트저널 **if**

if는 정직하다!

if는 용감하다!

if는 자유롭다!

if는 재미있다!

if를 보고 싶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부

1 3 6 - 0 1 1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1동 65번지

페미니스트저널 **if** <편집자에게> 담당자 앞

1 3 6 - 0 1 1

